

충북민속예술



충청북도문화원연합회

충북민속예술

충북민속예술

 충청북도문화원연합회

미래 문화의 나침반으로 삼고자

수천 년 전부터 우주 공간을 날던 새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하늘을 난다. 창공을 나는 새는 몸짓도 있고 표정도 있지만 노래와 울음도 있다. 그들이 수천 년 동안 추락하지 않고 때론 노래하고, 때론 울면서 날 수 있었던 것은 날개가 있기 때문이다. 아니 날개의 오묘한 균형이 있기 때문이다.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의 그 절묘한 균형감이 공간과 존재의 미학을 창출해냈고, 기쁨과 슬픔의 정서를 걸러냈고, 자연의 조화를 완성시켜 놓았다. 참으로 위대한 새와 하늘의 상관관계다.

우리 문화예술이 이와 같다. 과거와 현재의 조화, 지역과 세계의 조화, 동양과 서양의 조화가 균형감 있게 끊임없는 상호관계를 맺으면서 오늘의 문화예술을 형성해 왔음이 새와 하늘의 절묘한 상관관계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지금은 지구촌에서 영원히 날아가 이제는 돌아오지 않는 만날 수 없는 새들이 많음과 같이 산업화, 근대화, 도시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어쩔 수 없이 사라져 가는 귀중한 우리의 문화유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리움과 더불어 안타까움이 진하게 번져 뜻있는 많은 분들의 탄식을 자아내고 있다. 우리의 민속예술이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우리 조상들이 삶의 희로애락을 담아 노래 부르고, 춤추고, 소망하고, 애원하던 애뜻하고 가슴 찡한 그 ‘수려하고 엄숙한 제의(祭儀)’가 한 마리 쇠락한 새가 되어 우리 곁을 영원히 날아가려 한다. 한번 날아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새들이다. 아쉬움만이 두고두고 쌓여갈 것이다. 단순히 날아가 버린 새에 대한 아쉬움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 과거와 현재의 균형을 상실함으로 빚어질지 모르는 불균형의 실의가 더 가슴을 아프게 할 것이다.

과거로부터 하나의 줄기찬 맥락으로 이어져 내려온 우리의 민속예술이 왼쪽 날개라면, 우리가 지향해 가는 현대예술은 오른쪽 날개다. 수천 년 동안 한반도의 창공을 날던 한민족 문화예술의 새가 한쪽 날개를 잃는다면 우리 문화예술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날개의 균형 감각을 상실한 채 추락해 버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충북문화원연합회에서는 민속예술 속에서 그림자만 남기고 사라져 가는 조상들의 기쁨과 슬픔을, 그리고 애원과 소망을 현대 문화예술의 DNA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보존, 전승해야 되겠다는 절박감을 안고 이 책자를 간행한다. 사계의 권위 있는 세 분의 노작을 집대성하여 문화 공간을 가득하게 채우고 미래 문화의 나침반으로 삼고자 함이다. 불비한 여건 속에서 결코 쉽고 만만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훌륭한 책자를 세상에 탄생시키기 위해 애써 주신 집필자와 산과역을 맡아주신 충청북도 관계관, 자료 조사 담당자역, 편집자, 출판사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린다.

2010. 12.

충북문화원연합회장 장 현 석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의 실현

문화예술은 사회 각 분야가 온전한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밑거름입니다. 문화적 뿌리가 튼튼해야만 그 사회는 정체에 나락에 빠지지 않고 건전하게 발전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과 같은 발전을 이루고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된 것도 빛나는 고유문화의 전통이 있고, 또 그것이 훌륭한 정신적 지주가 되어 왔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하여 끊임없는 수난과 외침을 받으면서도 강인한 호국정신으로 국권을 지켜오는 한편 독창적인 민족문화를 꽃피워 왔습니다. 우리 겨레의 이와 같은 굳센 얼과 빛나는 슬기가 바로 오늘날 우리의 생존과 발전을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근대화, 도시화, 산업화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급속도로 농경사회가 해체되면서 우리의 정신적 고향이었고 일체감의 든든한 울타리였던 민속 문화가 서서히 아련한 그림자만 남겨둔 채 그 화려한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농경문화적 기능이 쇠잔하면서 우리의 민속 문화도 그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민속 문화가 생기를 잃으면 민족정신도 왕성한 활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위대한 민족일수록 위대한 민족문화를 가지고 있음이 이를 잘 증명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차제에 「충북민속예술」지를 충북문화원연합회에서 편찬함에 대해 157만 도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해마지 않습니다. 옛 것을 지키고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출해낸다는 뜻으로 법고창신(法故創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충북민속예술」의 편찬이야말로 법고창신의 정신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충북인으로서 선조들의 발자취와 정신을 재조명하고 민속예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전승하고 창달시켜 나가는 일이야말로 충북을 빛내는 값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라져 가는 우리 민속 문화를 복원시키고 신명나는 삶의 양식으로 되돌려 놓음으로써 충북정신, 나아가서는 민족정신을 시들지 않고 아름답게 꽃피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족 정서와 향토 사랑이 배어 있고 상부상조하는 두레정신이 갈무리되어 있어 미래 사회에 귀중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민속 문화예술을 온전하게 보존, 계승함은 물론 청소년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원형을 발굴하고 시대 환경에 맞도록 재구성, 재창조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 훌륭한 책자가 출판되기까지 애써주신 충북문화원연합회와 집필자, 편찬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 책이 널리 퍼져 유용하게 읽히기를 충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0. 12.

충청북도지사

차례

I. 총론

충북의 민속예술과 충청인.....	11
--------------------	----

II. 농악

1. 단양 농악	37
2. 제천 농악	42
3. 충주 농악	48
4. 음성 농악	53
5. 진천 농악	58
6. 괴산 농악	65
7. 증평 농악	73
8. 청주 농악	76
9. 청원 농악	113
10. 옥천 농악	118
11. 보은 농악	122
12. 영동 농악	124

III. 민요

1. 단양 민요	131
1) 매바위골 동요	131
2) 매포민요	135
3) 매포뱃노래	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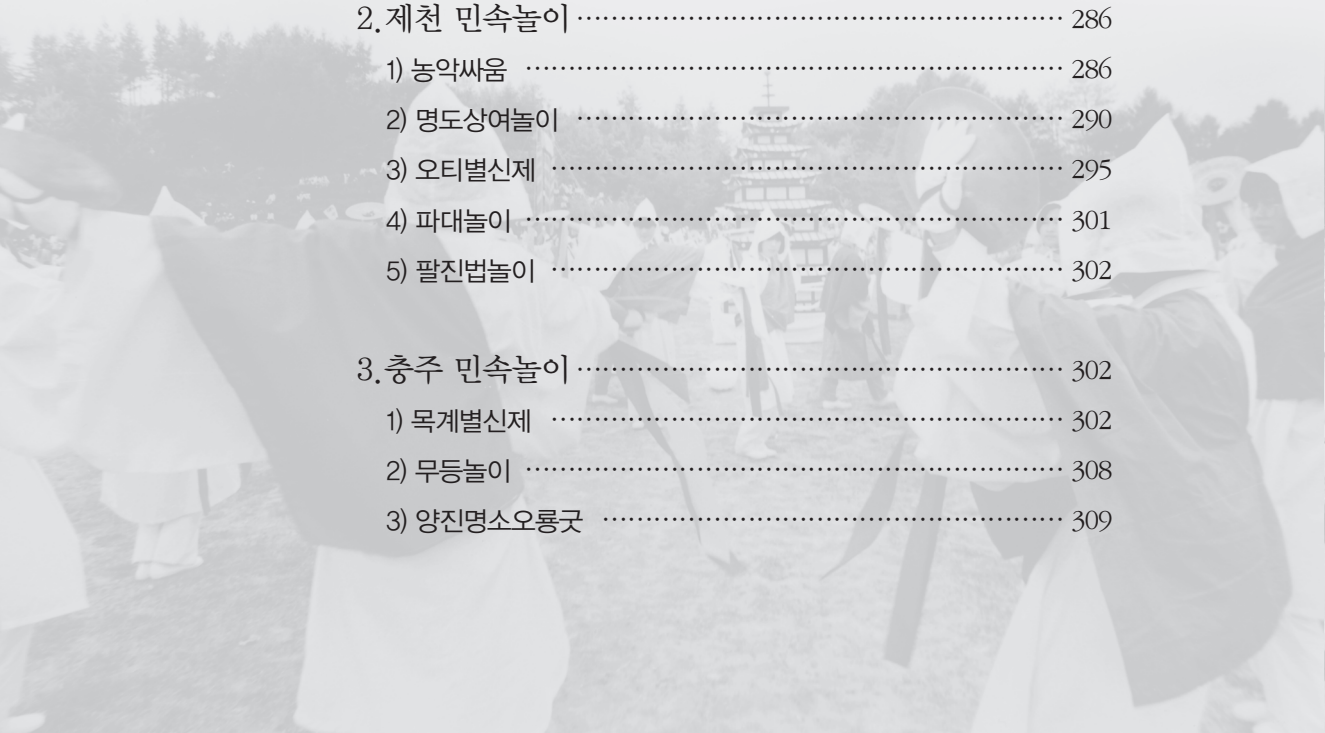


2. 충주 민요	142
1) 탄금대방아타령	142
3. 진천 민요	150
1) 베틀노래	150
2) 용몽리농요	155
4. 괴산 민요	168
1) 연풍머슴신세타령	168
2) 문법리농요	169
5. 증평 민요	176
1) 둔덕농요	176
6. 청주 민요	200
1) 강서농요	200
7. 청원 민요	207
1) 낭성산판소리	207
2) 동평들노래	211
3) 미호천방축노래	221
4) 현도두레농요	228
5) 화당길쌈놀이	236
8. 보은 민요	242
1) 보은들노래	2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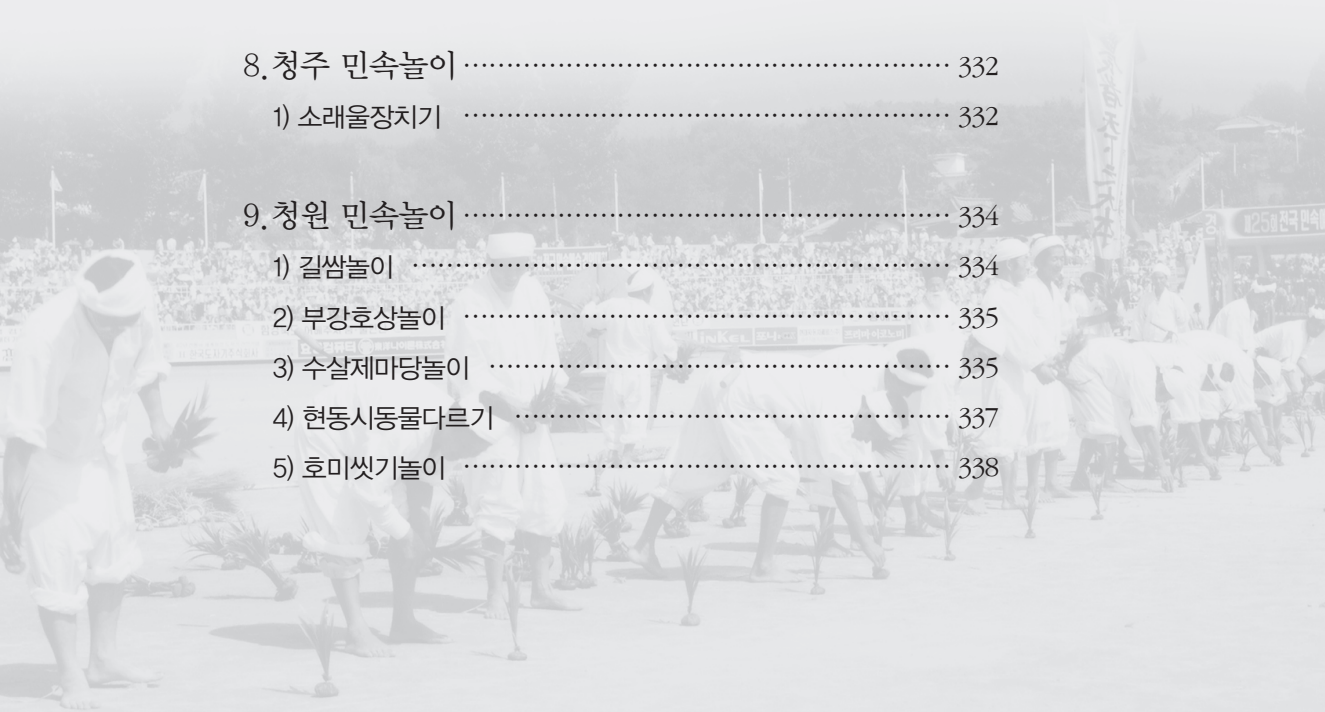
9. 옥천 민요	249
1) 집터다지기	249
10. 영동 민요	251
1) 설계리길쌈노래	251
2) 설계리농요	256
3) 용산꽃반굿	265
4) 영동 질곡광산노래	268
5) 영동 질곡목도소리	271

IV. 민속놀이

1. 단양 민속놀이	279
1) 각기선들봉치기	279
2) 도담삼봉용왕제	282
2. 제천 민속놀이	286
1) 농악싸움	286
2) 명도상여놀이	290
3) 오티별신제	295
4) 파대놀이	301
5) 팔진법놀이	302
3. 충주 민속놀이	302
1) 목계별신제	302
2) 무등놀이	308
3) 양진명소오롱굿	309



4) 충주호상놀이	312
4. 음성 민속놀이	313
1) 특실가재줄다리기	313
2) 거북놀이	316
5. 진천 민속놀이	324
1) 집터다지기	324
6. 괴산 민속놀이	326
1) 상여놀이	326
2) 지경다지기	327
7. 증평 민속놀이	331
1) 밀양북놀이	331
8. 청주 민속놀이	332
1) 소래울장치기	332
9. 청원 민속놀이	334
1) 길쌈놀이	334
2) 부강호상놀이	335
3) 수살제마당놀이	335
4) 현동시동물다르기	337
5) 호미씻기놀이	338



10. 보은 민속놀이	339
1) 기세배	339
2) 물다르기	340
3) 송이놀이	342
4) 전통혼례 행렬과 호상놀이 징검다리 건너기	350
5) 당골개상제(당골풍년제)	353
6) 팔상전놀이	359
11. 옥천 민속놀이	361
1) 방아실두레	361
2) 솟대놀이(청마리탑신제)	362
3) 평산교평다리밟기	366
12. 영동 민속놀이	367
1) 꽃반긋	368
2) 호미실너리기편지기	371
3) 영동호미씻기	377
4) 질골집터다지기	378
V. 전승양상과 보존 방안	379
참고문헌	392

I. 총론

충북의 민속예술과 충청인

1. 자연과 더불어

경향각지에 산재해 있는 민중의 소리인 민요와 농악, 민중의 몸짓과 표정인 놀이는 그 자체가 과거의 삶이었고, 내적 심성을 외부로 토해내는 그 시대의 한숨이었다. 우리 선조들은 이러한 소리와 놀이를 일상의 고된 삶을 감싸주는 의상처럼 몸에 걸치고 살아왔다. 그러기에 민속예술은 농경사회의 정신을 담아서 전해주는 그릇이고 삶을 감싸주는 보호막이며 기쁨과 슬픔을 하나 되게 하는 접착제였다. 그러므로 그 소리와 놀이는 사랑을 염원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시대의 모순에 대한 풍자와 골계로, 때로는 가슴속에 응어리진 매듭을 푸는 생활의 슬기로 더불어 함께한 진실한 마음의 표백이라 볼 수 있다.

민요는 문학 이전의 소산이라는 점에서 민속학이요, 대다수의 민중의 심정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문학이다. 또 놀이는 제천의식에서 비롯되어 연극과 무용으로 발달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또한 민속의 영역과 무용, 연극의 영역을 아우르고 있는 복합체다.

‘민요가 없는 민족은 영속성을 가질 수 없다.’는 세계사의 준엄한 명제처럼 제1차 세계대전 때에 체코 민족은 오랜 동안 강대국의 압제 밑에 국토의 분할과 정신적 파괴에 직면해 있었으나 그들의 조상 대대로 전해오는 민요만은 잃지 않고 간직하여 그 조상들의 입모습을 따라 희비에락을 노래 불

렸으니 민요가 그들의 정신 통일을 기하고 애국정신의 폭발을 유도하여 조국 광복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민요 속에 내포된 전통적인 민족정신의 실증적 부활의 좋은 사례다.

이러한 민속예술 속에 투영된 충북인의 정서와 생활 모습은 어떠한가를 살펴봄도 법고창신의 의미 있는 가치라 판단된다.

(1) 청풍명월의 정서

지리적, 풍토적, 자연 환경에 따라 언어, 생활양식, 기질, 사고 등 각기 다른 특성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를 향토성이라고 한다. 민요나 놀이도 향토에 따라 고유한 선율, 특색 있는 몸짓과 표정 안에 고유한 정서를 담아내게 된다.

우리의 민요에 있어 전라도의 육자배기, 서북지방의 수심가, 함경도의 노령(露嶺)노래, 영남 지방의 내방가사 등은 모두 향토적 특성을 말한 것이며 아리랑 타령도 정선아리랑, 밀양아리랑, 청주아리랑, 신고산타령, 몽금포타령, 천안삼거리 등은 향토 민요의 대표적 존재라 할 수 있다.

예부터 지방적 특성을 말하여, 경기-경중미인(鏡中美人), 충청-청풍명월(淸風明月), 전라-풍전세류(風前細柳), 경상-교산태악(喬山泰嶽), 황해-석전경우(石田耕牛), 강원-암하노불(巖下老佛), 평안-청산맹호(靑山猛虎), 함경-이전투구(泥田鬪狗)라 하였으니 민요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향토적 규정이 가능할 것이란 추론이 성립할 수 있다. 즉 청화한아(淸和閑雅)해서 궁정적 기분이 넘치는 경기민요, 유화해서 여유 있는 호남민요, 웅장하고 위압적인 영남민요, 애수와 상심에 젖어 있는 서도 민요가 그것이다.

우리 충청의 삶의 환경과 자연 경관, 충청인의 성정과 기질을 말하여 ‘청풍명월’이라 상징했다. 맑은 바람, 맑은 달로 충청인의 모든 면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청주지방의 ‘베틀노래’의 사설을 들어보자.

바람은 술술 부는 날 / 구름은 동실 뜨는 날 / 월궁에 노든 선녀

옥황님께 죄를 짓고 / 인간으로 귀향 와서 / 좌우 산천 둘러보니
 하신 일이 전혀 없어 / 금사 한 필 짜자 하고 / 월궁으로 지치 달아
 달 가운데 계수나무 / 동편으로 뺀 가지 / 은도끼로 찍어내어...〈이하 생략〉
 또 ‘청주의 달구(고)소리’에도 청풍명월의 정서가 배어 있다. 보통 회다지
 소리, 회방아타령으로도 부르는 달고소리는 유택인 기(基)를 다지면서 하
 는 소리로 상여소리와는 상반되는 표현을 하고 있다. 상여소리가 슬픔과
 망자의 한을 사설로 나타내므로 그 선율에서 슬픔이 묻어나는 데 반해 달
 고소리는 흥겹고 힘이 넘치는 소리로 표현되고 있어, 바람소리나 달빛의
 그윽한 여운까지 감지할 수 있다. 우리의 습속에는 조상을 모시는 묘가 명
 당이어야 그 음덕이 살아있는 자손에게 끼쳐져서 후손이 창성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 있는 사람이 사는 집터를 다지는 지경소리
 나 망자의 영혼이 안식하는 묘를 다지는 달고소리나 사설과 선율을 흡사하
 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다만, ‘달고’와 ‘지경’만이 다르게 나타날 뿐이다.
 그러면 여기서 ‘청주의 달구(고)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넘어가자.

산지종은 곤륜산이요-(에헤 달고야) / 수지종은 황하수라- (")
 인지종은 순덕인데- (") / 곤륜산 일지맥이- (")
 해동은 대한민국에- (") / 충청북도 청주시라-(")

〈이하 생략〉

위에 든 두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충북인은 자연친화적인 정서를 중
 시했고, 인간적인 욕심보다는 이상 세계에 대한 염원과 동경이 특히 강했
 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충청인은 청풍명월이라 해서 그 기질이 담백하고 청아한 점은 팔
 도인 누구나 인정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 반면에 우유부단해서 과
 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일리 있음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가장 향토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명제에 대입할 때, 우리의 민요야말로 가장 세계적인 산물이다. 따라서 민요는 향토예술을 보다 높이는 민족 예술의 정수로서 아끼고 보듬어 잘 간직해 나아가야 할 우리의 정신적 보배다.

(2) 골계미의 정수

우리 충북의 민속 예술에는 넘치는 해학과 번득이는 재치가 있다. 그 힘든 일판에서도 노동의 고충을 뒤로 하고 윤택한 미래를 꿈꾼다. 그 윤택한 미래에의 꿈속에는 눈물과 웃음을 절묘하게 혼합하여 한 덩어리가 되게 하는 해학이 있고 재치가 있고 익살이 있어 노동의 현장을 즐거운 유희의 무대로 만들어 간다.

경충 뛰었다. 제천장 / 신발이 없어서 못 보고
바람이 불었다. 청풍장 / 신선해서 못 보고
청주 장을 보잣드니 / 술이 취해서 못 보고
황간 장을 보잣드니 / 영감이 많아서 못 보고 <중략>
보은청산 대추장은 / 처녀 장꾼이 제일이요
엄병중천에 충주장은 / 황색 연초(煙草) 제일이요 <이하 생략>

충청도의 장타령이다. 이렇게 지명이나 풍속, 특산물 등을 연결시키는 장타령은 전국 어디에나 있지만, 특히 위에 든 충청도 장타령에는 신선한 웃음이 묻어난다. ‘바람이 불었다 청풍장 / 신선해서 못 보고’는 ‘바람-청풍-신선’으로 연결되는 시적인 내재율이 이보다 더 절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언어유희까지 곁들였으니 웃음의 미학은 절로 신명이 높을 수밖에 없다.

설계리 민요에도 역시 골계적 구조가 들어 있다.

1975년 제16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최고상을 수상하고, 충북무형

문화재 6호로 지정된바 있는 설계리 민요는 영동군영동읍설계리에 전승되는 두레곳의 농사소리다. 농요의 전승지 설계리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세 지역의 음악적 요소를 아울러 지니고 있다. 모를 찌면서 부르는 노래인 ‘모찌기소리’, 모를 심으면서 부르는 노래 ‘모심기노래’, ‘논매기소리’가 있다. 설계리 민요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때론 즐겁고 때론 애절한 감정들을 소탈하게 호소하는 내용에 덧대서 넉넉한 미소까지 감싸고 있는 해학이 있다.

〈전략〉

에워주세 에워나주세 노처녀를 에워나주세
노처녀에 병난 것은 노총각이 약이로다

상주함창 공갈 못에 연밥 따는 저 처녀야
연밥줄밥 내 따줄게 내 품 안에 잠을 자게
잠자기는 어렵잖아도 연분 없이 잠을 자나
연분이라 따로 있나 자고나면 연분이지

저기 가는 저 할머니 딸이나 있거든 사위보세
사위보기는 어렵잖아도 딸이 어려 못 보겠네
아이고 할머니 그 말씀 마소 참새가 적어도 알을 낳고
제비가 적어도 강남을 가고 할머니 연갑에 외손자 봤네.

〈모찌기소리: 후략〉

힘에 부치는 노동의 현장에서 약간은 생똥맞은 삽화를 머릿속에 그려놓고 연상하는 기발함으로 그 고된 노역을 잔잔한 웃음의 끈으로 묶어 눈독에 던져놓는 여유로움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한민족의 밑바닥 가

슴에 흘러오는 정과 한의 정서에서 근원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3)공동체적 연대의식의 발현

장르를 불문하고 민속예술은 모두가 개인적 경험 세계를 다룬 독창적 작품은 아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경험이 아닌 관습적 정서요, 창작적 의도가 아닌 공동체적 두레정신의 표현이다. 당연히 민요, 놀이, 농악이 공동체적 연대의식의 소산일 수밖에 없다.

먼 데 사람은 듣기나 좋고 (에이어라 지점이요)
가까운 사람은 보기나 좋게 (")
우리 모두 힘을 합해 (")
불끈불끈 다져나 주게 (")
한번 다지면 부모 천수요 (") <후략 지경소리>

오호 지저미 호 / 여보시오 장정님네 / 등 맞추고 배 맞추고 / 오금쟁이
주춤주춤 / 멧을 내어 다져보세 / 옆에 사람은 보기 좋게 / 먼 데 사람은 듣
기 좋게 / 멧을 내어 다져보세 <후략 청원군 땅다지는 소리>

위의 지경소리에서 보이는 것처럼 있는 힘을 쏟아 상부상조하되, 진심으로 열성을 바침으로 제 3자의 눈귀에도 아름답고 미쁘게 보이고 들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다짐을 엿볼 수 있다. 이밖에도 예시할 수 있는 좋은 민요들이 많지만 각론에서 상술됨으로 여기서는 이 정도로 줄인다.

우리 충북의 민속에는 청풍명월을 밝힌 내용, 해학미가 넘치는 노래, 공동체적 정서를 들어낸 것 말고도 ‘임을 그려 죽었거든 나를 보고 일어나오.’ ‘보고지고 보고지고 우리 낭군 보고지고’ ‘해다야지고 저문 날에 입을 두고 어딜 가나’와 같은 남녀간의 아리따운 사랑 이야기, 그리고 ‘당상부모는 천

년수요 백발노인은 백세 장수'를 기원하고, '늙은 부모를 봉친하여 젊은 아내를 배 채우고 어린 자식 길러내어 부귀영화를 보자꾸나.' 등과 같은 경로효친과 가족애를 드러낸 노래들이 많다.

앞에 든 예에서 보듯, 충청인은 청풍명월을 가슴에 품고 사는 청신한 기질을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으며, 곤비한 생활 속에서도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해학을 통해 고통을 걸러내는 슬기로움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2. 민속경연대회와 충북의 민속예술

(1) 대회의 변모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는 1961년 문화공보부와 한국문화진흥원의 공동 주최로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그리고 충북민속예술제는 충청북도의 지원을 받아 1991년 한국방송공사청주총국이 시행하던 청주농악제를 중지하고 1994년 충북농악경연대회로 이름을 변경하여 충청북도가 주관해 왔다. 1996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할 충북 작품의 예선대회를 위해서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로 이름을 바꿔 충북예총이 주관하였다. 1995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를 한국민속예술축제로 변경하자 이에 따라 1996년에 충북민속예술축제로 이름을 바꾸었다.

(2) 대회의 목적

우리 민족은 1년 24절기를 통해 그 절기에 따른 특별한 행사와 고유한 풍속이 있었다. 우리의 민속은 특별히 기획되고 창안된 것이 아닌 우리의 삶, 그 자체였다. 그러므로 그 속에는 우리 민족의 가치관과 세계관, 생활철학과 생활방식이 그대로 용해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향토민속은 보존 및 전승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점기의 문화 말살정책과 산업화 과정에서 모든 가치가 경제 중심으로 오도되면서 전래의 우리 민속예술을 멸시하고 백안시하는 풍조가 만연되면서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우리의 고유한 민속을 발굴, 재현하여 민족 문화의 근원을 밝히고, 이를 보존·육성하여 후세에 길이 전승하고자 전국 민속경연대회가 개최되어 왔고, 이에 따라 우리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도 열려왔다. 우리 충북에서는 전국경연에 발맞춰 전통 문화 유산인 각 지역의 전래 향토문화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 향토의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갖고 농악, 민속놀이, 민요 등으로 나눠 향토민속예술 경연 형식을 통해 재현해 오므로 문화 변방을 문화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 등 지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 대회는 단순한 1회성 행사로써가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향토 민속예술 발굴의 산실 역할을 충분히 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더구나 해를 거듭해 가면서 민속예술의 저변 확대가 이루어지고 민속에 대한 일반의 인식과 이해의 폭을 넓혀주었으며, 더 나아가서는 민속놀이를 통한 지역민의 자긍심을 높인 것도 큰 성과다.

(3) 대회의 성과

우리의 향토 민속예술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삶의 양식에서 배어나온 토대적인 것이다. 우리 민족이 이 터전에서 유구한 역사를 살아오면서 쌓아온 문화적 기반이며, 우리 민족을 우리 민족답게 하는 민족적 정체성이다. 그러므로 향토 민속은 반드시 보존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 그럼에도 우리의 향토 민속은 역사의 질곡 속에 수난을 겪으면서 변질, 훼손, 쇠멸의 나락에 빠지는 곤경을 당해왔다. 이러한 문화적 위기의 국면에서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가 개최되어 우리의 고유한 향토 민속을 발굴해내고 고증과

재현을 통해 전국민속예술대회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둬 온 것은 실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전통민속예술축제로서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는 크게 두 가지의 성과로 요약할 수 있겠다. 전통 문화 유산을 발굴하고 재현해냄으로써 조상의 일을 되새기고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재인식하며 문화 변방의 나그네로 스스로 위축되어 있던 지역민(농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해 왔다는 것이 그 하나다.

1994년 제1회 대회 14종목을 비롯해서 2008년 제15회 대회까지 발굴 재현된 종목만도 182개 종목에 이른다. 2009년에 개최되어야 할 제16회 대회는 세계적으로 창궐한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해 대회가 열리지 못했다.

경연에 참여한 종목 가운데는 1970년 광주에서 개최된 제11회 대회에서 속리산탐돌이가 문화부장관상을, 12회 전주대회에서 베틀노래가 역시 문화부장관상을, 13회 대전대회에서 탄금대방아타령이 영예의 대통령상을 각각 수상한 바 있다. 그리고 1975년 제16회 서울대회에서 영동설계리 농요 및 단양농요가 대통령상을 또 한 차례 수상했고 1987년 제28회 수원·안양대회에서 보은흰돌물다리기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대통령상 2회, 국무총리상 1회, 장관상 9회, 장려상 및 개인상, 공로상을 무려 여덟 차례를 수상하는 등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

1958년 제 1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가 개최된 이래 충북이 받은 성적을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한 충북민속예술단체의 수상실적〉

1961년 제 2회 대회 : 청주농악 임광식이 상쇠로 개인상을 수상

1963년 제 4회 대회 : 청주농악 장려상

1964년 제 5회 대회 : 청주농악 김진중이 벽구로 개인상 수상

- 1965년 제 6회 대회 : 청주농악 문화공보부장관상
- 1966년 제 7회 대회 : 청주농악 문화공보부장관상
- 1967년 제 8회 대회 : 청주농악 벽구 김윤수 개인상
- 1968년 제 9회 대회 : 청주농악 공로상
- 1969년 제10회 대회 : 청주농악 장려상
- 1970년 제11회 대회 : 보은군 속리산탑돌이 문화공보부장관상
- 1971년 제12회 대회 : 진천군 베틀노래 문화공보부장관상, 공로상 이상훈
- 1972년 제13회 대회 : 증원군 탄금대방아타령 대통령상
- 1973년 제14회 대회 : 청원군 미호천방축노래 공로상 박재용
- 1974년 제15회 대회 : 괴산군 백중놀이 공로상 김영진
- 1975년 제16회 대회 : 영동군 설계리농요 대통령상, 소리 서정숙 개인상
단양군 동요 공로상 박진
- 1976년 제17회 대회 : 괴산농악 상쇠 이종환 개인상
- 1977년 제18회 대회 : 청원농요 문화공보부장관상
- 1978년 제19회 대회 : 보은군 속리산탑돌이 장려상
- 1979년 제20회 대회 : 충주 양진명소 오룡굿 장려상
- 1980년 제21회 대회 : 단양군 매포민요 문화공보부장관상
- 1981년 제22회 대회 : 제천 두화농악이 문화공보부장관상 수상
- 1982년 제23회 대회 : 음성군 거북놀이 문화공보부장관상
- 1983년 제24회 대회 : 청원군 까치내상여놀이 장려상
- 1984년 제25회 대회 : 증원군 목계별신굿 문화공보부장관상
청주농악 이종환 개인상
- 1985년 제26회 대회 : 청원군 낭성산판소리 공로상
- 1987년 제28회 대회 : 보은군 흰돌물다리기 국무총리상
- 1988년 제29회 대회 : 옥천군 집터다지기 문화공보부장관상, 소리 신기
현 개인상

- 1989년 제30회 대회 : 청주 웃다리농악 문화공보부장관상
- 1990년 제31회 대회 : 단양군 띄뱃노래 공로상
- 1991년 제32회 대회 : 괴산군 농요 공로상
- 1992년 제33회 대회 : 영동군 길쌈노래 문화공보부장관상
- 1993년 제34회 대회 : 청원군 동평들노래 문화공보부장관상
- 1994년 제35회 대회 : 청주 지동농악 공로상
- 1995년 제36회 대회 : 진천군 용신놀이 문화공보부장관상
- 1996년 제37회 대회 : 충주 달천풍물 노력상
- 1997년 제38회 대회 : 청주 강서농요 노력상
- 1998년 제39회 대회 : 청주 전통농악 노력상
- 1999년 제40회 대회 : 보은군 실기세배 공로상
- 2000년 제41회 대회 : 진천군 생거진천농요 문화공보부장관상
- 2001년 제42회 대회 : 청주 강서농악 장려상
- 2002년 제43회 대회 : 보은군 속리산 송이놀이 문화공보부장관상
- 2003년 제44회 대회 : 청주 신촌두레농악 공로상
- 2004년 제45회 대회 : 증평군 장뜰두레놀이 공로상
- 2005년 제46회 대회 : 제천 오티별신제 장려상
- 2006년 제47회 대회 : 음성군 거북놀이 아리랑상
- 2007년 제48회 대회 : 증평 장뜰두레농요 은상
- 2008년 제49회 대회 : 청원 현도두레농요 대통령상
- 2009년 제50회 대회 : 50회 기념으로 대회개최, 충청북도 대표로 영동
군 설계리 농요가 시연되었음
- 2010년 제51회 대회 : 제천 봉양파대놀이 동상(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
사장 상)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연도별 입상팀 현황(1994-1999)〉

연도 상명	94(제1회) 옥천 공설운동장	95(제2회) 보은 공설운동장	96(제3회) 청주 종합운동장	97(제4회) 충주 종합운동장	98(제5회) 청원 문화재단지	99(제6회) 진천 백곡천둔치
대상(1팀) (도지사상)	청원군 호미씻기놀이	충주시 무등놀이	괴산군 전통농악	청주시 전통농악	보은군 기세배	진천군 생거진천농요
우수상(2팀) (도지사상)	괴산군 풍년농악	청원군 풍년농악	청주시 소래울장치기	청원군 부강호상놀이	제천시 제천두화농악	충주시 달천풍물
	음성군 거북놀이	진천군 풍년농악	제천시 전통농악	음성군 길놀이농악	음성군 길놀이농악	청원군 청원두레농악
장려상(2팀) (예총회장상)	옥천군 웃거리풍물	보은군 물다리기 풍물굿	옥천군 숫대놀이	충주시 달천풍물	청원군 웃다리농악	충주시 청주신촌농악
	증평군 웃다리농악	옥천군 웃다리놀이	청원군 길쌈놀이	증평출장소 전통농악	괴산군 대덕풍년농악	제천시 제천두화농악
인기상(3팀) (시장상)	제천시 농악싸움	충주시 판굿	충주시 한마음농악	괴산군 전통농악	충주시 전통농악	괴산군 대덕풍년농악
	증평출장소 밀양북놀이	영동군 풍년이왔네	영동군 전통농악	진천군 전통농악	진천군 무등춤 농악놀이	음성군 길놀이농악
	진천군 풍년농악	괴산군 풍년농악	음성군 길놀이농악	영동군 영동농악	증평출장소 장뜰풍물	단양군 웃다리풍물
	충주시 모시래농악					
감투상(4팀) (시장상)	영동군 풍년농악	제천시 농악싸움	보은군 풍년농악	옥천군 전통농악	청주시 웃다리농악	보은군 탕골풍년제
	보은군 팔상전놀이	증평출장소 웃다리농악	진천군 웃다리풍물	제천시 팔진놀이	옥천군 웃다리농악	옥천군 청산교평 다리밟기
	제천시 팔진법놀이	단양군 열림의소리	단양군 열림의소리	단양군 열림의소리	영동군 창작굿판	증평출장소 증평장뜰풍물
	단양군 판굿	음성군 풍년농악	증평출장소 웃다리농악	보은군 우물물다리기	단양군 열림의 소리	

대상(개인상) (도지사상)	증평 상쇠	청주 상쇠 정환철	제천 상쇠	청주 상쇠 정환철	괴산 상쇠 김용인	진천소리꾼 박득천
우수상 (개인상) (도지사상)	진천 상쇠	단양 새납 김규석	영동 12발상모	청원 노령 최명옥	청원 장고 박종모	증평출장소 김용국
장려상 (개인상) (도지사상)	영동 새납	진천 상쇠 이명우	음성-무동	제천 상쇠 이경재	충주무동아이 최가현	제천꼬마무동 이성민
합계	단체 : 13팀	단체 : 12팀	단체 : 12팀	단체 : 12팀	단체 : 12팀	단체 : 12팀
	개인 : 3팀	개인 : 3팀	개인 : 3팀	개인 : 3팀	개인 : 3팀	개인 : 3팀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연도별 입상팀 현황(2000-2005)〉

연도	00(제7회) 단양 공설운동장	01(제8회) 괴산 공설운동장	02(제9회) 영동 군민운동장	03(제10회) 제천 시민광장	04(제11회) 증평 시민공원	05(제12회) 음성 종합운동장
대상(1팀) (도지사상)	청주시 청주강서농악	보은군 송이놀이	청주시 신촌두레농요	증평군 장뜰두레놀이	제천시 오티별신제	음성군 음성거북놀이
우수상(2팀) (도지사상)	제천시 명도상여놀이	청주시 청주농요	제천시 오티별신제	청주시 원마루들노래	청주시 지동두레농요	증평군 둔덕두레농요
	단양군 도담삼봉 용왕제	충주시 달천풍물	증평출장소 증평두레놀이	제천시 오티별신제	괴산군 상여놀이	청주시 강서농악
장려상(2팀) (예총회장상)	충주시 달천풍물	제천시 오티별신제	보은군 보은들노래	보은군 보은들노래	영동군 호미실너리기 편지기놀이	보은군 전통혼례행렬 과 호상놀이 징검다리전너지
	옥천군 청마리탐신제	영동군 심천면농악대	영동군 영동호미씻기	청원군 청원전통농악	청원군 현도면 시동물다르기	청원군 오창팔결농요
인기상(3팀) (시장상)	보은군 탕골개상제	괴산군 대덕풍물	충주시 충주호상놀이	충주시 달천풍물	옥천군 웃다리농악	진천군 집터다지기
	영동군 설계리 길쌈노래	증평군 증평장뜰풍물	음성군 길놀이농악	옥천군 웃다리농악	진천군 백곡농악	괴산군 연풍옛머슴 신세타령
	음성군 길놀이농악	음성군 음성농악	단양군 매포주부농악 판굿	음성군 가재줄다리기	단양군 단양풍물놀이	충주시 양진명소 오룡굿

연도 상명	00(제7회) 단양 공설운동장	01(제8회) 괴산 공설운동장	02(제9회) 영동 군민운동장	03(제10회) 제천 시민광장	04(제11회) 증평 시민공원	05(제12회) 음성 종합운동장
감투상(4팀) (시장상)	청원군 청원두레농악	단양군 웃다리 풍물회관곳	옥천군 바라무	영동군 질곡 집터다지기	충주시 달천 호미씻기 풍물	옥천군 웃다리농악
	진천군 길놀이농악	옥천군 청산풍장	청원군 수살제	진천군 덕산농악단	보은군 속리산 송이놀이	영동군 질골목도요
	증평출장소 증평장뜰농악	청원군 수살제 및 마당놀이	진천군 두레농악	괴산군 청천소방대 농악대	증평군 장뜰두레놀이	단양군 도담삼봉 용왕제소리
		진천군 생거진천농악	괴산군 대덕리농악	단양군 웃다리 풍물관곳	음성군 길놀이농악	
대상(개인상) (도지사상)	제천 소리꾼 한태우	청주 선소리 김만기	제천 상쇠	충주 상쇠	괴산 선소리 김민태	증평 선소리 오을식
우수상 (개인상) (도지사상)	보은 연출자 김인각	보은 연출자 김영래	증평 선소리	음성 연출자	음성 벽구 이광우	보은 선소리 홍만기
장려상 (개인상) (도지사상)	청주상장고 강선자	괴산 상쇠 차영예	보은 선소리	제천 상쇠	진천 상쇠 차동준	청주 태평소 조수영
합계	단체 : 12팀	단체 : 12팀	단체 : 12팀	단체 : 12팀	단체 : 12팀	단체 : 11팀
	개인 : 3팀	개인 : 3팀	개인 : 3팀	개인 : 3팀	개인 : 3팀	개인 : 3팀

3. 충북 민속예술의 좌표

(1) 충북의 민요

민요는 노래로 된 구비전승의 산물이다. 민요는 노래이기에 음악이고, 울문으로 된 문학이다. 민요는 비전문적인 민중의 노래로 한숨과 웃음과 사랑의 환희가 물결치는 삶의 모습이기도 하다. 무가(巫歌)나 불가(佛歌)처

럼 특수한 집단의 노래도 아니요 판소리처럼 일정한 수련을 거쳐야만 부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단순해서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는 노래다. 민중이 널리 부를 뿐만이 아니라 음악으로서의, 문학으로서의 성격도 민중적이다. 민요는 민중이 그들의 생활, 감정, 사상을 솔직하게 나타내는 국민적 노래다. 민요는 생활의 한 방편으로 창자(唱者)가 스스로 즐기는 노래다. 즉 노동을 하거나 의식을 거행하거나 유희를 하면서 부른다. 듣는 이(聽者)와 관계없이 부르는 이(唱者)만으로도 존재하는 자족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런 민요는 언제부터 발생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가를 확정하여 말하기 어렵지만, 인류의 삶과 그 시작을 같이 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언어가 정리되지 않았던 태고에도 인류는 그들 나름대로의 약속된 소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민요라 부르는 것은 내적 사고가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시원은 선사 이전의 제천의식(祭天儀式)에서 나타났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민요는 노동성을 띠고 있으며 마한(馬韓)의 제천의식에서는 농공시필기(農功始畢期)인 5월과 10월에 농작을 함에 있어서 하늘께 제를 올렸는데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춤추고 노래하며 밤낮으로 즐겼다. 이 때 부르던 가(歌)는 민중이 모여서 팔과 다리를 움직여 춤추고 노래하였다고 적고 있어서 가(歌)이기보다는 요(謠)인 민중의 소리로 보아야 하며 이때의 노래는 다분히 작업적 성격을 띠는 노동요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마한의 제천의식의 형태는 충북 목계별신굿과 같이 민중이 신께 제사하고 모여서 풍장치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형태와 같았음을 알 수 있다.

민요에서 가장 잘 발달되어 있고 세분화되어 있는 것이 노동요다. 노동요는 작업의 노역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농업노동요, 어업노동요, 벌채노동요, 길쌈노동요, 잡역노동요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충북 지역은 주로 농업을 생업으로 삼아 왔기 때문에 농업노동요(農謠)가 고루 잘 발달되었다.

중원군 신니면 마수리 사람들에 의해 전승되어 온 탄금대 방아타령은 농사 과정에 따라 모 찌는 소리(절우자), 모심는 소리(아라성), 논매기 소리(초별), 논매는 노래(이듬매기), 부녀자들의 방아타령으로 이어지는 충북의 대표적인 농요로 평가받고 있다. 어업노동요의 경우 바다를 접하지 않은 내륙지방이기 때문에 찾아보기 힘들으나 강 유역을 중심으로 일부 소리가 전승되고 있을 뿐이다. 벌채노동요는 주로 산에서 나무를 하거나 나물을 뜯으면서 부르는 소리로 비교적 다수가 전승되고 있고, 길쌈노동요는 여성들의 주된 일과였기 때문에 풍성하게 형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 시집살이요가 주를 이루는 부녀요(婦女謠)가 있고, 상여소리, 고사, 살풀이, 성주풀이, 달고소리, 회심곡 등 의식요도 다수 전하고 있다. 그리고 자장가, 애어른소리 등 동심의 세계를 다룬 속요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희아요(戲兒謠)가 충북의 민요로 전래되고 있다.

(2) 농악

농촌에서 집단 노동이나 명절 때 흥을 돋우기 위해 연주하는 음악으로 풍물패, 두레패들이 풍년과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 연행하는 음악이다. 김매기, 논매기, 모심기 등의 힘든 일을 할 때 일의 능률을 올리고 피로를 덜기 위해 행해진다. 각종 명절이나 농공시필기, 동제, 걸립굿, 두레굿과 같은 의식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 요소다.

농악은 팽과리, 징, 북, 장고 등과 같은 타악기를 치는 음악을 지칭하는데 이를 옛날에는 풍장이라 했다. 입상을 목적으로 경연대회에 출연하는 농악은 판굿을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판굿은 구경꾼을 위해서 순수 연희로 치는 일테면 놀이농악을 말한다. 두레풍장, 판굿, 당산굿, 마당밧기, 걸립굿 등 의식농악까지 포함하는 모든 농악을 총칭하는 경우다.

농악에 쓰이는 악기는 풍물이라 하여 팽과리, 징, 북, 장구, 소고, 호적, 나팔 등이 참여한다. 농악은 팽과리가 주가 되며 팽과리 제1주자인 상쇠가

농악대를 지휘한다. 농악은 그 기능에 따라 당굿, 마당 밟기, 걸립굿, 두레 굿, 판굿 등으로 나뉜다. 안성 지방을 중심으로 경쾌한 느낌을 주는 경기농악, 정읍, 전주, 고창, 부안 지방을 중심으로 기교형의 음악으로 사랑을 받는 호남농악, 진주, 삼천포, 동래, 합천을 중심으로 하여 전승되고 있는 씩씩하고 깨끗한 느낌의 영남농악과는 달리 청주농악은 가락이 단순하고 투명하면서도 잔가락이 많고 빠르며 투박한 춤사위의 움직임이 크다. 뒤통수로 상모를 돌리는 것이 특징이며, 상쇠의 흥에 따라 전 농악대원이 일제히 움직이며 연행을 한다. 상쇠 혼자서 가락과 무용을 겸한 부포놀이, 까치걸음 등 현란한 개인기를 발휘한다.

청주농악은 부모산 아래 강서1동 지동동 마을에 전승되고 있는 충북 지역의 대표적인 농악으로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1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밖에도 제22회 전국민속경연대회에서 문화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는 제천의 두학농악과 마산에서 개최된 30회 대회에서 역시 문화부장관상을 받은 청주 웃다리농악이 충북을 대표하는 농악이라 할 수 있다. 청주 웃다리농악은 충청도 지방에서 전승되는 농악으로 평택, 안성, 천안, 대전 등지가 같은 유형이다. 특히 웃다리농악은 전통 옛 가락을 변형 없이 보존하고 있다. 청주농악 판굿(마당놀이)은 여러 순서로 짜여 있으나 자드라기, 칠재라 하는 특이한 가락을 치며, 태극기형으로 돌아가는 오방진(명석말이)놀음, 둥근 원을 돌려 풀면서 한 패씩 안으로 들어와 놀음을 벌이는 꽃봉오리, 열지어 늘어서서 전후로 발맞추어 움직이는 좌우치기 법고놀이와 삼성, 십자, 세조시 놀음이 뛰어나다.

(3) 민속놀이

놀이는 인간의 원초적 유희 본능으로서 지극히 인간적인 표현 방식 중의 하나다. 인간의 삶이 끊임없는 노동의 연속이라면, 동시에 끊임없는 놀이의 연속일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삶이란 마치 ‘일’과 ‘놀이’의 두 축으로

굴러가는 수레와 같다.

‘일’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물질을 준다면, ‘놀이’는 ‘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 ‘일’이 인위적 선택에 의한 인간 행위라 한다면, ‘놀이’는 본능에 의해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인간의 행위이다. ‘일’과 ‘놀이’의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상충의 관계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삶의 긴장과 이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불가분의 관계이다. 이러한 ‘일’과 ‘놀이’의 연결 과정은 ‘현실 인식 → 현실 투쟁 → 현실 해소’로 도식화할 수 있다.

누구나 ‘놀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누구나 일의 주체, 의식의 주체, 공동체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의미와 동일하다. 이러한 ‘놀이’가 민속과 어울리면서 예술성을 획득한다. ‘흥겨움, 힘의 충전, 내적 보완, 구도(求道)를 인간의 염원’으로 승화하면서 민속놀이로 발전하게 된다.

민속놀이의 내용은 그 다양한 소재의 모티브만큼이나 각양각색이지만 대개는 고대 사회에 있어 신을 섬기는 오신행사(娛神行事), 그리고 명절을 맞는 기쁨에서 놀이되어 왔던 오랜 관습이 정형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적으로 신앙성 놀이와 명절놀이가 전체 민속놀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속리산 탐돌이’ 등과 같이 제화초복(除禍招福)의 원시 종교적인 의미를 내포한 신앙성 놀이와, 음성의 거북놀이 등과 같이 삶의 풍습, 혹은 노동 현장을 놀이화한 것, 그리고 우리 고장에서도 행해지고 있는 줄다리기와 같은 경기놀이가 대부분이다.

우리 충북 지방에서 내세울 수 있는 민속놀이에는 우선 속리산 탐돌이를 들 수 있다. 원래 탐은 불교가 전래되기 이전부터 죽은 사람의 추모 공양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전해진다. 불교에서는 석가모니가 입적하자 여덟 개의 탐을 세우고 진신사리를 그 속에 나누어 넣은 뒤 불탐을 건립했다. 이 탐의 둘레를 남몰래 돌거나 여럿이 무리를 지어 도는 것은 생사의 피안에서 열반의 피안으로 건너는 바라밀다 행사 중의 하나였다. 일반 신도들에게 있

어서 이러한 수행과 가장 관계 깊은 것은 절에서 올리는 제다. 제가 끝나면 신도들은 승려와 함께 불탑을 돌면서 부처님의 공덕을 찬미하고 저마다 소원을 빈다. 왕생극락과 국태민안을 소원한다. 원래 탑돌이는 단독으로 자기의 소망을 은밀히 기원하는 것이었으나 제가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자연스레 탑돌이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인원이 많아지고 세월이 흐르면서 형식이 중시되던 탑돌이는 신도뿐 아니라 인근 주민까지 함께 참여하게 되어 민속놀이로 발전해 왔다.

속리산은 산세가 빼어나고 범속을 떠난 듯한 경관으로 법주사를 비롯한 많은 암자가 있다. 법주사에는 국보 55호인 팔상전이 있는데 예부터 불교 신자와 주민, 수도승들이 모여 팔상전을 돌며 불도, 염원, 공덕, 공양을 올렸다. 그리고 이때는 범패에 맞추어 흥겹게 탑돌이를 하였다. 이 탑돌이는 명맥이 끊어졌다가 1970년에 다시 고증 발굴되어 명맥을 잇게 되었다. 이는 11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문화부장관상을 받았다.

속리산 탑돌이와 더불어 괴산 백중놀이를 충북의 민속놀이로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 7월 보름은 백중, 백중, 머슴날 등으로 부르는 농민 명절이다. 이 무렵 농사일이 거의 끝나게 되고 그 동안 논밭을 매고 뜯는데 쓰던 호미가 필요 없게 되어 호미 씻는 날이라고도 부른다. 잠시의 말미를 얻는 여름철 농한기다. 백중날을 전후해서 장이 서고 머슴과 일꾼에게 돈을 주고 새 옷을 해 입혀 즐겁게 놀도록 하는 풍습이 있었다.

괴산 지방에서는 머슴이나 농사꾼들이 백중 한 달 전부터 밤마다 큰사랑이나 동구나무 밑에 모여 명석, 동그넉, 삼태미 등을 만들기 시작하여 백중날 아침이 되면 그 동안 만든 명석 따위를 안마당에 던지면서 “명석 사시오.” 하고 외친다. 이 소리를 들은 집주인은 미리 술과 떡을 준비했다가 새 옷 한 벌과 백중돈을 태워준다. 돈을 탄 머슴이나 일꾼들은 새 옷을 입고 풍장을 치면서 동네 큰마당에 모여 흥겹게 논다. 그 때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고 동네 어른들은 그 해에 농사를 가장 열심히 지은 머슴을 뽑는다. “아

무개가 상머슴이다.”하고 발표되면 모두가 지명된 상머슴을 행가래 치면서 함성을 지른다. 그리고 뽑힌 상머슴을 황소에 태우고 얼굴에는 환칠을 해 주고 버드나무 잎사귀로 관(冠)을 만들어 씌워주고 도롱이를 입힌다. 또 황소에 태워 끌고 다니면서 “상머슴 사시오.”라고 외치며 풍장을 치고 춤을 춘다. 이렇듯 괴산의 백중놀이는 농사를 권장하며 모든 농군들에게 여름철 농사일에 지친 피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 슬기어린 민속놀이이다.

이밖에 20회 대구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은 양진명소오룡굿, 23회 광주대회에서 문화부장관상을 수상한 음성거북놀이, 24회 안동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은 까치내상여놀이, 25회 충주대회에서 역시 문화부장관상에 빛나는 목계별신굿 등이 충북의 민속놀이로 그 보존 가치를 인정받은 중요한 문화재다.

(4) 기타

농악, 민요, 민속놀이의 요소를 지니면서도 어느 한 장르에 가름되기에는 이의가 있을 수 있는 괴산의 전통 혼례, 옥천의 바라무, 영동의 창작 굿판 등도 충북민속경연대회에 출연한 바 있다.

괴산민속팀이 2008년 제15회 충북예술축제에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전텃 혼례는 신식 결혼식에서 볼 수 없는 닭이나 나무로 만든 기러기가 등장한다. 닭은 하루의 시작을 의미하는 동시에 다산을 상징한다. 기러기는 순종(일생 동안 같은 짝을 지키며 살아감), 정조(짝을 잃어도 새로운 짝을 찾지 않음), 종족 본능(어디를 가든 그들의 흔적을 남김)을 상징한다. 전통혼례의 흥기에 준해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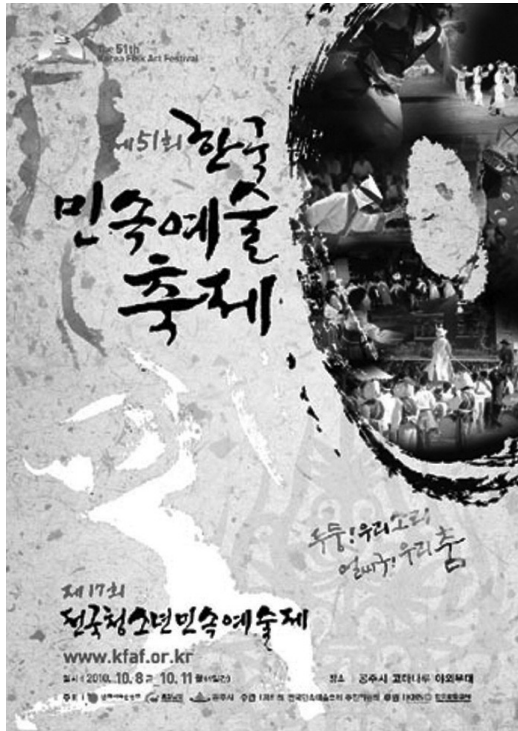
옥천민속팀이 2002년 제9회 충북민속경연대회에 23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감투상을 수상한 바라무는 부처님께 재를 지낼 때, 양손에 바라를 들고 울리며 ‘천수다라니’를 외면서 추는 춤을 말한다. 양손에 바라를

들고 전진, 후퇴, 회전하는 형식이다. 바라무의 종류는 천수바라, 명바라, 사다라니바라, 관육계바라, 막바라, 내림계바라 등이 있다. 명바라는 규모가 큰 재가 아니면 추지 않는다. 복장은 장삼에 붉은 가사를 두른다. 보통 징, 북, 호적 등에 맞춰 추는데,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는 범패에 맞춰 춘다. 악기를 쫓고 도량을 청정하며 마음을 정화하려는 뜻이 담겨 있다.

옥천군 관내에서는 신라 진흥왕 13년(552)에 의신조사가 창건한 용암사를 비롯하여 44개 사찰에 남아 있다. 용암사에서 전승되고 있는 정통법식으로써 바라무를 옥천민속춤연구회 20여 명의 회원들이 재연한다.

창작굿판은 ‘창작풍물굿판’으로 옷다리농악을 중심으로 충청지역의 풍물은 물론 각 지역의 풍물을 함께 엮어 새롭게 재구성한 작품으로써 1998년 제5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출연하여 단체상 부분에서 감투상을 수상하였다.

원진, 을자진, 달아치기진, 오방진, 미지기, 좌우치기 등 여러 가지 진풀이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미지기, 가세진, 방울진은 관을 보다 역동적으로 만들고 있다.



제51회 한국민속예술축제 포스터

4. 맺는말

우리의 향토민속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삶의 양식이다. 우리 민족이 유구한 역사를 살아오면서 축적해온 생활양식 그 자체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사고방식, 더 나아가 생활의 전범(典範)을 규정해온 문화적 기반이며, 한민족을 한민족답게하는 민족적 정체성이 스며있는 유일한 현장이 우리의 향토이다. 따라서 우리의 향토민속은 변형, 탈색 없이 원형질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의 전통보다 외래문화에 더 관심을 두었고, 어느 의미에서는 전통에 집착한 나머지 현대화가 더디고 장애가 되었다는 생각마저 갖게 되어 전통을 하찮게 여기는 그릇된 가치관이 유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그릇된 가치관은 민족의식을 약화시키고 우리의 것을 잃어버리는 비극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민속예술, 민속예술경연대회, 민속예술축제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점검하는 것은 보다 올곧은 자세, 의욕적인 시책으로 민속예술의 발굴, 보존, 계승을 활발하게 효율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사라져 가는 민속예술의 정신적 원형을 복원하고 외형을 실체화하여 이를 민속예술의 가치론적 입장에서 재창조하려는 노력의 일단이라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화는 재창조가 있어야하고 재창조로 발전이 있게 마련이다. 경연을 통해 발굴된 민속예술의 과거를 정립, 정리하고 미래의 예술축제로 발전시켜 재창조에 기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이 책에서는 민요, 농악, 민속놀이의 분야에서 빛나는 연구업적으로 사계의 높은 인정을 받고 있는 세 분 전문가의 해박한 심사 분석, 엄정한 평가, 달통한 견해로서 민속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하고자 한다. <홍강리/시인>



Ⅱ

농악農樂

집필 이창신
(청주대학교 교수)





어린이민속잔치



청주농악

농악경연대회(89. 10. 13)



청주농악



신명나는
농악 한마당



청주시립농악단의 농악놀이 시연



청주국악협회에서 벌인 단오절 국악한마당



제1회 충북농악경연대회에 출전한 웃다리 농악

1 단양 농악

1975년 제16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박진이 개인 공로상을 수상하였다. 1995년 제2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새남 연주자 김규석은 개인부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1) 개 설

단양군 농악의 판제는 강원도·경상북도와 인접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풍기·영주농악 및 제천·영월의 농악가락이 섞여 있다. 또한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3호인 남사당놀이 여섯 마당 중 풍물놀이와 중요무형문화재 제11호-나인 경기도 평택 웃다리농악 및 안성농악과 유사한 판제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단양이 웃다리농악이 연행되는 지역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웃다리 지역의 농악들은 서로가 비슷한 판제를 보이며 나름대로의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다.

단양군 농악이 다른 웃다리농악이 연행되는 지역과 서로 비슷하지만 가락은 남사당놀이 가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은 남사당패 풍물가락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남사당패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는 유랑예인 집단이었기 때문에 남사당패의 풍물가락은 지역성을 띠지 않고 있다.

2) 역대 경연대회에 출전한 농악대 현황

[고증 및 지도]

김규석(1929. 3.16)

- 1929년 충북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출생
- 1980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문화공보부장관상 수상
- 1995년 충북 민속예술경연대회 개인부문 우수상 수상(태평소)

(1) 판제·장단 및 악기구성

① 2001년 제8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판제 : 점고 일채 → 자진가락(이채) → 길군악(입장) → 골뱅이진 → 옆
뛰기(자진가락, 이채) → 인사굿 → 십(十)자진 → 오원(五圓)진 →
합동좌우치기 → 디근(ㄷ)자진(당산별림) → 사방치기 → 벽구놀
이(절구대놀이) → 칠채골뱅이진 → 개인놀이:디근(ㄷ)자진(당산
별림) →설장고놀이 → (소고놀이, 12발 상모놀이) → 원진 → 인
사굿 → 길군악(퇴장)

② 2002년 제9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판제 : 점고 일채 → 자진가락(이채) → 길군악(입장) → 골뱅이진 → 옆
뛰기(자진가락, 이채) → 인사굿 → 십(十)자진 → 오원(五圓)진 →
합동좌우치기 → 디근(ㄷ)자진(당산별림) → 사방치기 → 벽구놀
이(절구대놀이) → 칠채골뱅이진 → 개인놀이:디근(ㄷ)자진(당산
별림) →설장고놀이 → (소고놀이, 12발 상모놀이) → 원진 → 인
사굿 → 길군악(퇴장)

③ 2003년 제10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판제(진법) : 점고 일채 → 자진가락(이채) → 길군악(입장) → 골뱅이진
→ 옆뛰기(자진가락, 이채) → 인사굿 → 십(+자진) → 오
원(五圓)진 → 합동좌우치기 → 디근(ㄷ)자진(당산벌림) →
사방치기 → 벽구놀이(절구대놀이) → 칠채골뱅이진 → 개
인놀이:디근(ㄷ)자진(당산벌림) →설장고놀이 → (소고놀
이, 12발 상모놀이) → 원진 → 인사굿 → 길군악(퇴장)

[고증 및 지도]

김규석(1929. 3.16)

- 1929년 충북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출생
- 1980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문화공보부장관상 수상
- 1995년 충북 민속예술경연대회 개인부문 우수상 수상(태평소)

④ 2004년 제11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판제(진법) : 자른가락 → 입장(삼채) → 인사굿 → 돌림벽구 → 당산벌림
→ 당산벽구놀림(S자 대형) → 오방진(칠채-돌림벽구때 자
른가락) → 당산 → 무동놀이 → 벽구놀음(외줄백이) → 벽
구좌우치기 → 가새벌림 → 사통백이 → 좌우치기 → 네줄
백이 → 개인놀이 → 돌림벽구 → 인사굿 → 퇴장

[고증 및 지도]

최병일(1966. 1. 3.)

- 서울추계예술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석사(타악전공)
-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3호 남사당놀이 전수자(현)
- 평택농악 기능보유자 김용래에게 평택농악 사사
- 2002년 신지식인 선정
- 2003년 단양군민대상 선정
- 현재 단양초등학교 교사

⑤ 2006년 제13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판제(진법) : 점고 일채 → 자진가락(이채) → 길군악(입장) → 골뱅이진
→ 옆뛰기(자진가락, 이채) → 인사굿 → 십(十)자진 → 오
원(五圓)진 → 합동좌우치기 → 디근(ㄷ)자진(당산벌림) →
사방치기 → 벽구놀이(절구대놀이) → 칠채골뱅이진 → 개
인놀이:디근(ㄷ)자진(당산벌림) →설장고놀이 → (소고놀
이, 12발 상모놀이) → 원진 → 인사굿 → 길군악(퇴장)

(2) 출연자 명단

① 1994년 제1회 충북농악경연대회 출연자 명단

상 쇠 : 김병관

쇠 : 이규엽 이찬순

징 : 이재용 최성무

상장구 : 오명환

장 구 : 안미경 손희옥 노영선 강호순 윤금현 김강룡 전창욱 신성철
마정식

북 : 임재민 노태형 문중수 이시완 김정규 조국식 송종근

상 모 : 박준언 신경수 손재명 강명구

② 1999년 제6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손영호 강보영 진성진 김경수 신주하 김종성 최병완 김현구 이숙희 권상용
장영자 심혜우 연동숙 백승희 지명순 장영자 김진순 최옥순 유인순 원순덕
이계원 김선자 김영옥 최월선 김규석 유순옥 장영자 이경표 홍영한 서종덕
황지혜 김미정 김삼기 서은석 이상근 배정연 임종현 최원민 신정환 김영찬
유진영 엄국현 김미영 임종구 유광호 박재엽 박세교 오유진

③ 2001년 제8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웃다리 풍물회)

단장 / 김규석

이경표 권상용 이숙희 장영자 김성미 유진영 김옥자 김상기 연동숙 유인순
배정연 김미영 김미정 박미화 김정희 정혜경 황지혜 서은석 김미영 이순정
김복희 지명순 장영자 최월선 이계원 김선자 김영옥 김진순 최옥순 배옥희
심해우 엄국현 최종분 백승희 조필남 이상근 유순옥 장영자 원순덕

④ 2002년 제9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웃다리 풍물회)

장영자 최월선 김점순 여성자 방숙희 엄영자 연동숙 유인순 용정화 박정순
안철영 김순녀 장정순 김옥자 이춘화 장성자 장영자 배옥희 지명순 김영숙
김영남 유화자 차옥선 김인성 장순녀 허춘복 이복주 서혜순 김선자 김진순
박영순 백승희 박노순 안재순 이옥자 김영옥 박현숙 김귀녀 최종분 홍성모
사공태자

⑤ 2004년 제11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쇠 : 박미화 김복희 오연옥
징 : 홍성모 이남표 권장하
장 구 : 김정희 박옥분 오인숙
북 : 노병진 변운기 정금태
상 모 : 김영희 장순이 박숙녀 김상이 원옥분
무 등 : 김이순 최영순 권금순 김복수

이외에

천금자 이재호 전화숙 이정순 최모근 염재명 이성도 노영선 김순호 조영숙
정지형 박진규 허 준 김용녀

2 제천 농악

1981년 제1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제천두학농악'으로 문화공보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1996년 제3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전통농악'으로 우수상을, 1998년 제5회에서는 '두학농악'으로 우수상, 1999년 제6회 대회에서는 '두학농악'으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1996년 제3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상쇠가 개인 대상을 수상하였고, 1997년 제4회 대회에서는 상쇠 이경재가 개인 장려상, 1999년 제6회 대회에서 꼬마무동 이성민이 개인 장려상, 2002년 제9회 대회에서 상쇠가 개인 대상, 2003년 제10회 대회에서 상쇠가 개인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1) 개 설

1994년 제1회 충북농악경연대회 참가작품인 제천군의 농악싸움은 추석날·정월대보름·단오절 등 주요 명절날 동네별로 농악싸움을 벌려 청룡과 백호 양편으로 나뉜 농기의 맨 꼭대기에 매달린 꿩깃을 먼저 빼앗는 팀이 이기게 된다는 내용으로 흥겨운 마당놀이를 펼치면서 이긴 팀이 형님 농악으로 대우받게 되고, 풍년 농사와 마을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는 농악놀이이다.

그리고 형님농악과 동생농악으로 나누어져 행하는 농기뺏기와 정초에 동생농악이 형님농악의 마을로 가서 노는 기세배놀이, 그리고 길이나 들에서 다른 농악을 만나 힘을 겨루는 농기돌리기 등이 있다.

제천시 농악은 충청북도 북부지역에서 연주되는 쇠가락과 강원도 쇠가락

이 어우러져 힘 있는 독특한 가락을 보이고 있는 전통농악이다. 연행되는 진법은 옛 중국의 제갈공명의 팔진법 놀이와 태극만들기·진싸기·십자놀이·별따기·별림놀이·상모놀이·무등놀이 등이 있다. 1980년 제21회 전국민속경연대회에서는 농악부문 1위, 종합 3위에 입상하였다.

제천의 두학농악은 1981년 제22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경연작품이다.

두학동은 제천 도심에서 4km쯤 떨어진 외곽지역인 순수농촌 마을로 두학은 옛날부터 농악으로 널리 알려진 가운데 이 농악이 보존되어 오고 있다.

노동결사체인 두레조직을 통하여 노동의 흥을 돋우고 일의 고단함을 달래기 위해 놀던 농악이 지금은 지역의 대표적 농악인 두학농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삼채와 칠채 가락을 혼용해 치는 두학농악은 팽과리·북·장고·소고·징·무동·포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진법을 구사한다.

두학농악은 음력 7월 호미씻기 때 날을 받아 마을 주민들과 함께 어울려 놀던 풍속으로 농경민의 의식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일제말기부터 그 맥이 끊겼던 것을 농악에 재주를 가진 상쇠 유봉현씨가 전승 발전시켰으며, 유씨가 작고한 후 이경제(59세)씨가 그 기능을 전승하였다.

해방 후 전국농악경연대회에 수차례 입상한 바 있으나 그 후 중단되었다가 1965년 제천군 먼 대항 농악대회를 계기로 당시 흑석 이장인 허정강을 비롯한 전통 민속 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마을 대표들이 중심이 되어 두학농악대를 결성 출전하여 우수상에 입상하였고, 1975년 제1회 충북농악제에 제천 대표팀으로 출전한 이래 현재까지 매년 참가해 오면서 농악제에서 단체대상을 2회 수상하는 것을 비롯하여 10차례 수상하였고, 1981년 제21회 전국민속예술제에 충북대표로 참가하여 농악부문 1위, 종합순위 3위로 문공부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1986년부터 제천지역 향토문화행사로 개최된 의림문화제에 매년 출연함으로써 전통 민속 보급과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에 앞장서 왔다.

두학농악은 유희적인 남도농악에 비하여 싸움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상이 화려하지 않고 현대농악에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전통을 보존하고 있다. 제갈공명의 팔진법과 오방진치기·사방진치기 등 전투대형이 주종을 이룬다.

처음에 입장하면서 다섯 별 원형의 오방진을 치고 원형이 풀리면서 사방진을 친다. 사방진에서 십자형으로 편을 갈라 교차하며 한바탕 노는데 사이사이에 화동이·포수·샌님 등이 재간을 피워 전체적인 흥을 더한다. 이어서 열두발돌리기·무동타기 등 개인기가 연행되며, 날나리(태평소)·장고·징·북이 빠른 템포로 연주한다.

악기는 날나리·상쇠·부쇠·북잡이·장고·징·소고·무동·무동거리·샌님·포수 등 4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천시 농악의 판제(진법)〉

진 싸 기 : 영기를 중앙에 세우고 둘러싸고 풀어주는 동작을 한다.

십 자 놀 이 : 사물이 일렬로 서면 상모치는 사람은 사물을 중심으로 들어가 십자를 만든다. 십자놀이에 이어서 팔진법놀이가 이어진다.

팔진법놀이 : 사물이 일렬로 서면 상모는 사물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십자를 만들고, 상쇠가락에 맞추어 넷으로 나누어져서 원형을 돈다. 다시 가락에 맞추어 갈라지면 여덟 무더기로 원형을 도는 놀이이다.

별 따 기 : 사물과 상모, 무동이 이열종대로 일어났다가 앉으며 선두에 있는 사람이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을 이룬다.

별 립 놀 이 : 사물과 상모, 무동이 이열횡대로 10m 거리를 두고 서서 서로 위치를 바꾸는 것을 별림이라고 한다. 이어서 상모놀이와 무동놀이가 이어진다.

기세배놀이 : 동생농악이 형님농악의 마을로 가 노는 것이다.

농기돌리기 : 길이나 들에서 다른 농악을 만나 힘을 겨루는 것이다.
이외에 오방진치기·사방진치기 등이 있다.

2) 역대 경연대회에 출전한 농악대 현황

(1) 판제·장단 및 악기구성

① 1994년 제1회 충북농악경연대회

악 기 : 상쇠·부쇠·수징·부징·장구·수북·부북·새납·샌님·대포수·농기·영기·열두발·상벽구·상모·무등(1994년 제1회 충북 농악경연대회 출연자명단)

② 1996년 제3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판제(진법) : 태극만들기·진싸기·십자놀이·별따기·별림놀이·상모놀이·무등놀이

(2) 출연자 명단

① 1994년 제1회 충북농악경연대회

(제천시)

상 쇠 : 정상덕

부 쇠 : 이경민 박찬영 한상덕

수 징 : 권오훈

부 징 : 박태현 김광구 김은환

장 구 : 김정은 이은혜 박차남 권순현

수 북 : 김진성

부 북 : 권세연 공선동 엄대희

새 남 : 이완태
 새 남 : 고덕규
 대표수 : 최종기
 농 기 : 문정보 김운동 김영기
 영 기 : 김동일 박찬영
 열두발 : 김민국
 상벽구 : 김희태
 상 모 : 박인동 장운태 김장한 진병진 유용훈 윤대근 박하영 김규만
 이재상 권오진 김태형
 무 동 : 전수현 김미숙 김정선 최영숙 노정순 장혜진 유은희 김순영
 광미애 이미애

(제천군)

문홍섭 반창환 송순경 김용탁 정범영 채수성 최동삭 이철구 황승복 성덕기
 신재철 이승구 우용식 김대한 이상남 김양숙 백인기 이순자 우춘배 정정임
 우광배 전연옥 전용희 남정녀 여두섭 이영순 반상오 성정자 김옥순 이상미
 장옥라 한영림 이재영 유순행 김순여 유인숙 임은지 전경애 송범식 김옥희
 이광범 유향순 이상근

② 1999년 제6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자 명단(제천시립농악단)

상식 / 이경재

김정봉 최병운 최종성 김세백 이근식 김순영 김규명 원세환 신영기 이완태
 유영선 김운수 김잠화 김현희 강옥자 김계홍 김명희 김진만 박오순 박준선
 유영란 유재원 위영자 이화수 장숙재 최송연 최춘일 최태숙 최홍순 한상희
 허정복 손영호 고숙자 김명희 김정자 장미령 장인현 남궁영숙

③ 2004년 제11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제천 수산오티별신제 중 농악대 명단)

상 쇠 : 신중기
부 쇠 : 신영수 진정선
상 징 : 엄재금
징 : 이종근 최춘일 유영선
상 북 : 박철규
북 : 신동기 광명신
상 장 구 : 한규봉
장 구 : 박창현 김종신
상 벽 구 : 김창성
벽 구 : 이대길 김길수 정해용 엄현용 배순희
중아재파리 : 박중은 주중열
무 등 받 침 : 박수형 신종락 최승덕 유병화 김진수 박준규 김원식



충청북도 민속경연대회(1974. 10. 20) 광경

3 충주 농악

1996년 제3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는 ‘달천풍물’로 노력상을 수상하였다.

1994년 제1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중원군의 ‘웃다리농악’으로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1995년 제2회 대회에서는 ‘무등놀이’로 대상, 1997년 제4회 대회에서는 ‘달천풍물’로 장려상, 1999년 제6회에서는 ‘달천풍물’로 우수상, 2000년 제7회 대회에서는 ‘달천풍물’로 장려상, 2001년 제8회 대회에서는 우수상, 2006년 제13회 대회에서는 ‘충주풍물’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1998년 제5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는 무동 최가현이 개인 장려상, 2003년 제10회 대회에서는 상쇠가 개인 대상을 수상하였다.

1) 개 설

오래 전부터 충주는 달천평야가 있어 논농사가 활발한 고장으로 논매기 두레풍물은 물론 연중 행사인 풍물대회가 7월 백중날에 열렸다. 특히 달천평야에 기반을 둔 달천(호미씻기) 풍물은 역사가 매우 깊은 풍물로서 1947년에 풍물단이 발족되었고, 6.25 전쟁 전에는 경기북부지방을 순회하며 공연하였기 때문에 ‘충주달천사당패’라는 별칭을 얻기도 하였다.

그러나 5.16이후 새마을운동으로 인한 영농기계화 확산과 서양예술의 기세에 밀려 점차 사라져 갔으나 근래에 들어와서 고중 작업을 거쳐 재현을 하였고, 1996년 제3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전한 이후 지금까지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

2004년 제11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품한 작품은 농사를 주업으로 하던 시절 일 년 중 가장 뜻 깊은 날인 백중날(음력 7월 보름날)에 달천 강



충주 달천풍물

변에서 동네 주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한데 어울려 즐기던 농악인데 일명 호미씻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호미씻기는 논밭의 김을 다 매고 난 후 한가한 때에 지금까지의 노고를 위로하는 뜻으로 하는 행사이다. 호미를 다 씻으니 씻어 두어야 한다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달천풍물의 특징은 다른 풍물에 비하여 가락의 종류가 많으며, 그 소리가 은은하고 구수하며 무등을 항상 삼층까지 만든다.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경계에서 발달하여 가락이 매우 섬세하고 구수한 맛이 있다.

역대 수상실적은 다음과 같다.

1995년 제2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

1996년 제3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노력상 수상

1999년 제6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우수상 수상

2000년 제7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장려상 수상

2001년 제8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우수상 수상

2) 역대 경연대회에 출전한 농악대 현황

(1) 판제·장단 및 악기구성

① 1996년 제3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판제(진법) : 무등놀이·동고리물기·진모아풀기·십자진·자리바꾸기·법고놀이

② 2000년 제7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장 단 : 인사가락·행진가락·굿거리·삼채·자진모리·휘모리·찍찍기·칠채·육채

③ 2001년 제8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판제(진법) : 인사·태극기·십자오방진·상모돌리기·무등놀이

악 기 : 상쇠·부쇠·종쇠·북 6명·징 2명·장고 7명·상모 11명·무등 8명(3층 묘기)·기수 1명·태평소 1명

장 단 : 길굿장단·인사장단·이채 휘모리장단·삼채·육채장단·칠채장단·굿거리장단·단모리장단·찍찍이

④ 2003 제10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판제(진법) : 세줄행진·인사·태극기·십자오방진·상모돌리기·무등놀이

악 기 : 상쇠·부쇠·종쇠·북 6명·징 2명·장고 7명·상모 11명·무등 8명·기수 1명·태평소 1명

장 단 : 길굿장단·인사장단·꽃내미장단·이채휘모리장단·육채장단·칠채장단·굿거리장단·단모리장단·찍찍이장단

⑤ 2006 제13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판제(진법) : 세줄행진·인사·태극기·십자오방진·상모돌리기·무등놀이(어

개 위에서 8명이 춤놀기) 3층 무등묘기
장 단 : 길곳장단·인사곳·이채휘모리·삼채장단·육채장단·칠채장단·
 곳거리장단·쩍쩍이장단·단모리장단

(2) 출연자 명단

① 1994년 제1회 충북농악경연대회

대 표 : 강옥자

상 쇠 : 박광웅

부 쇠 : 강옥자 이송자

수 징 : 김상순

부 징 : 노길수 장효삼 김소월

수장구 : 김정순

부장구 : 문혜녀 진재순 김명자 박춘금 전은정 정종원 경석준

수 북 : 곽영주

 북 : 박경남 박영철 이청자 조동식 조명덕

상법고 : 임순배

법 고 : 배동녀 이영휘 박덕내 허남실

잡 색 : 박영덕 김순영 정태정 이정자 박시영

태평소 : 유인중

기 수 : 김창희

영 기 : 김재흠 안낙선

② 1999년 제6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대표 / 최순정, 상쇠 / 전봉근

박광웅 임창식 이청자 오순녀 정춘옥 정화순 김정순 최경숙 정화진 김정숙

최춘순 정재봉 박영철 박영철 최종기 최상식 김을자 김윤중 정태서 김일환

조인형 고종철 황보철 박옥현 고현철 김종순 김을년 장옥선 안경란 허영옥
이영애 장효심 이정자 장수백

③ 2001년 제8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달천풍물)

박광웅 장경석 최종기 최상식 박영철 정재봉 이청자 정춘옥 장한식 김혜상
최춘순 정화순 김정숙 최순정 안경란 이계화 김윤중 이현규 정태서 이한탁
조인형 고종철 고현철 지인배 황보철 박옥현 송은주 신혜인 박민정 손나영
권수현 송민정 원희경 신혜린 최가연 이종환 김진아 김영해 조동식 최동식
김흥덕 김종순 김을년 유인중

④ 2004년 제11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달천호미씻기풍물)

상 쇠 : 전봉근

부 쇠 : 김경태

종 쇠 : 윤경숙

징 : 이청자 유인복

북 : 허숙희 황미자 우연옥 안경란 안기선 유기준

장 고 : 김정순 최춘순 조양강 전계순 김미애 정춘옥 김연옥

상 모 : 정효진 나홍선 조주희 정의학 정해동 정태진 송현주 한상준
이상목

무등(상) : 이정섭 김민정

무등(하) : 김상렬 전철근 이봉희 백남일

태 평 수 : 김철용

기 수 : 김해상

4 음성 농악

1997년 제4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길놀이농악'으로 우수상, 1998년 제5회 대회에서도 '길놀이농악'으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1996년 제3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무동이 개인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2004년 제11회 대회에서 벽구 이광우가 개인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1) 개 설

음성군의 길놀이농악은 가을 추수를 모두 끝내고 난 후 각 마을마다 설날이나 보름 명절 전날에 풍년 농사를 기원하고 각 가정의 평안과 무고를 비는 뜻에서 술과 음식을 정성스럽게 마련하여 마을 주민들이 모두 제를 올리고 흥겨운 풍물가락에 맞춰 마을을 돌면서 즐기는 마을 전체의 축제라 할 수 있다.

이때 길놀이 농악에 쓰이는 가락은 휘모리가락·삼채가락·비나리·칠채가



음성군 길놀이 농악

락·웃다리삼채·찍찍이가락·판굿가락 등이며, 장단 가락이 다채롭게 구성되어 흥을 한층 더한다.

특히 샘굿·주왕굿·성주굿의 독특한 가락을 다채롭게 변화시키며 흥을 더해가고 있다.

악 기 : 상쇠·부쇠·장고·북·징·소고·영기·농기·잡색

장 단 : 휘모리가락·삼채가락·웃다리삼채·칠채가락·찍찍이가락·판
굿가락·비나리

판제(진법) : 상쇠놀이·버나돌리기·무동놀이·12발상모·소고놀이·장고놀이·북놀이(자반)

2) 역대 경연대회에 출전한 농악대 현황

(1) 판제·장단 및 악기구성

① 2000년 제7회 충북농악경연대회

장 단 : 휘모리가락·삼채가락·비나리·칠채가락·웃다리삼채·찍찍이
가락·판굿가락

② 2001년 제8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장 단 : 이채가락·육채가락·칠채가락·오방진·진오방진가락·휘모리

③ 2002년 제9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장 단 : 휘모리가락·삼채가락·비나리·칠채가락·웃다리삼채·찍찍이
가락·판굿가락

④ 2004년 제11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관제(진법) : 소고놀이·장고놀이·북놀이·12발상모·무동놀이·버나들리기·
상쇠놀이

장 단 : 삼채가락·웃다리삼채·칠채가락·휘모리가락·비나리·찍찍이
가락·판굿가락

(2) 출연자 명단

① 1994년 제1회 충북농악경연대회

대 표 : 남상구

총 무 : 권기환

종사원 : 이봉홍 안병덕

상 쇠 : 정기용

부 쇠 : 안병우

장 고 : 권오일 권오달

북 : 박해준 권영우

징 : 우기환 남기수

자 발 : 어인영 안광년

상 모 : 권오정 장영문 권오태 박대병 권오경 박경수 권영출 김혁만
권오근

기 수 : 홍순봉

영 기 : 안광현 권오광

진 사 : 유 관 권영갑

포 수 : 이영후

여장복 : 권용광 김영자 진순자 이상숙 이상수 권명란 이인순 이광기

② 1999년 제6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이병립 권혁모 정은영 지정수 석응정 임종훈 이명우 어완선 서병길 구분범

박제면 이순례 김선종 이성기 양진석 이완호 유구분 정복순 김필수 강춘자
 정정심 김용현 한명예 전윤희 김은숙 안명옥 송영희 박화분 장명덕 김춘녀
 박은숙 정복석 김호연 김이슬 이예슬 정미연 박진경 오준석 정달현 장윤식
 권오정 권오철 박용선 천진규 방경식 김준영 김우림 김효중 윤성운 안대찬
 이성아 한미진 김영란 전해영 권기범 전해지 조새리 이정현 지남수 신옥천
 진주희 조건희 이시춘 김선화 정장춘

③ 2001년 제8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서동기 오광영 박월주 이현숙 허정자 김기수 남진현 이영자 홍혜숙 연향순
 조혜식 이원자 최인자 한정순 한금선 양금덕 최미숙 신동선 이영자 박성국
 김옥자 이순주 이화순 이은정 이수현 육현정 김성월 황순호 고정국 황석희
 김순임 김정숙 황연희 이숙자 김진순 연제숙 안인석 나혜진 박수연 신현희
 최영숙 엄은숙 임필순 오장순 김옥희 민연기 연정임 황우순 박복순 박금순
 안순영 고분남 이성진 반우석

④ 2002년 제9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이성기 이완호 안종진 지정수 유구분 정복순 장춘자 정정심 윤희분 이승순
 김길수 김도화 장명덕 박희분 김춘녀 변영란 유인만 오경숙 전용선 안명옥
 주정재 안문수 광태영 양승돈 윤영기 최문옥 박성규 조제동 장윤식 권오정
 박용선 홍윤표 정우식 김성열 최영광 송중환 김진철 신옥철 주현규 김영석
 유영현 정준영 유덕근 허선자 박인자

⑤ 2004년 제11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음성품물 어우리패)

상 쇠 : 이병립

부 쇠 : 송영희 지정수 박수경 오경숙 피세분

징 : 조재동 이수원

장 고 : 유구분 정복순 강춘자 안명옥 김도화 박예식 박진경 박화분
장명덕 김영숙 이길순 차두희

북 : 안문수 곽태영 주정재 박제면 이재봉 이승백 박보순 윤기환
김영길 신현관

소 고 : 정정심 황의화 김은순 박순이 강정옥 최영희 최재숙 문명숙
김인자

벽 구 : 최영광 김형준 이성기 진용기 이광호 김용길 김운호 김관평
김태완 정양현

깃 대 : 윤경섭 지흥준 이종택

잡 색 : 이인수 김명기 현금자 유흥저

5 진천 농악

1995년 제2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풍년농악'으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2007년 제14회 대회에서 '웃다리농악'으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1994년 제1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상쇠가 개인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1995년 제2회 대회에서 상북 이명우가 개인 장려상을, 2004년 제11회 대회에서 상쇠 차동준이 개인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1) 개 설

진천지역은 예로부터 기후가 온화하고 산물이 풍성하여 살기 좋은 곳이었어서 '생거진천(生居鎭川)'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뿌리 깊게 전해 내려오고 있는 진천농악은 정월 보름맞이, 여름 백중놀이, 팔월 한가위에 연행되었다. 특히 여름 논농사에서는 진천농요와 어우러져 농사일에 지친 농민들의 피로를 잊게 하고 흥을 돋우는 형태로 활성화되어 왔다.

진천군의 상산무등춤 농악놀이(2000년 제7회 충북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작품)는 점차 사라져가는 우리 고유의 농악을 전승보존 하고자 젊은이들로 팀을 구성하였다. 가락은 힘차고 섬세하며, 느리고 빠른 가락이 적절히 섞여있다. 이 농악은 우리 농민들의 근면, 협동정신을 북돋아 한 해 농사가 풍년을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하는 의미가 있다.

상산무등춤 농악놀이 판 구성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인사굿·벽꾸놀이·명석말이·벽꾸시범놀이·무등춤놀이·사통백이·사방놀이·여덩발짝놀이·안으로 여덩발짝 들어가기·12발 상모놀이·합동놀이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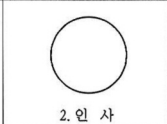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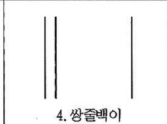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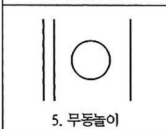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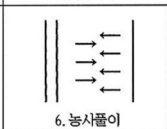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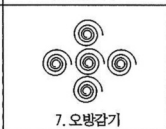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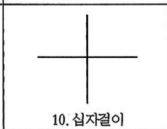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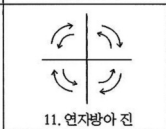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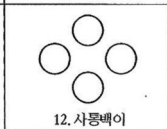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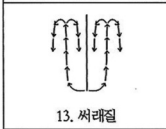



백곡농악(2004년 제11회 충북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작품)은 조선시대부터 충청도 고유한 가락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농악으로 풍성한 수확을 기원하고 마을의 액운을 멀리하여 화합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복을 기원하며 안녕과 평화를 상징하는 한마당 풀이 공연이다.

행진가락으로 입장한 다음, 인사굿을 시작으로 휘모리 장단으로 흥을 돋우고, 풍년을 기원하는 별달거리·명석말이·상쇠놀이·사성놀이, 그리고 인사굿으로 마무리하고 행진가락으로 퇴장한다.

진천 문백풍장은 오래 전부터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에서 면면히 전승되어 내려오는 민속놀이이다. 진천 문백풍장은 농사철의 김매기, 모심기 등 노동의 피로를 덜어주어 농를 올리는 데서 비롯되었다. 두레를 시작할 때에도 마을의 넓은 마당에서 풍장을 울려서 두레가 시작되는 것을 알렸고, 이 소리를 듣고 마을 주민들은 일할 준비를 하여 풍장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였다. 그리고 풍장을 치며 들로 나갔고, 일을 마친 후에도 풍장을 치며 마을로 돌아왔으며, 마을로 돌아온 후에는 하루의 피로를 신명으로 풀었는데, 이때에 행하던 풍장의 연주 및 기능들이 변주·확대되어서 현재의 진천 문백풍장 형태로 발전되었다.

그리고 추석·단오·정월대보름의 명절에도 풍장을 울렸는데, 이는 마을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에서였다. 정월대보름에는 마을 주민들이 잡귀·잡신을 물리치기 위하여 각 가정에서는 지신을 밟아달라고 풍장패에게 부탁하였으며, 이 때 금전이나 곡식 등의 형태로 답례가 이루어졌다. 마을의 모든 가정에 지신을 밟은 후 모인 금전과 곡식은 모두 모아서 불우한 이웃들을 돕거나 마을의 공동기금으로 적립되었다.

이와 같은 전통이 지금의 진천 문백풍장에서 질곤에비오방감기·풍년굿·좌우치기의 형태로 전승되어 왔다. 7월 백중에는 농사일을 잠시 쉬어가는 놀이마당이 있었는데, 이때 모찌기·모내기·김매기·이듬매기의 두레를 흥내

 1. 갈지자진	 2. 인 사	 3. 돌림벼구	 4. 삼줄백이
 5. 무동놀이	 6. 농사놀이	 7. 오방갑기	 8. 춤마당
 9. 명석밭이	 10. 십자결이	 11. 연자밤아진	 12. 사통백이
 13. 씨래질	 14. 네줄백이	 15. 월구놀이	 16. 돌림벼구(열두발)

판제의 종류와 형태

내며 풍장 장단에 맞춰 신명을
돋우는 것이 지금의 진천 문백
풍장의 특징인 농사놀이로 발
전되었다.

문백풍장의 장단은 이 지역
에서 전통적으로 불리고 있는
명칭이 있다. 자진모리는 끈나
비장단, 휘모리는 두마치, 칠
채는 질곤애비, 굿거리는 춤장
단 또는 날풍장 등으로 불리고
있다. 단순한 장단을 반복해서
연주하며 소박하고 투박한 것

이 진천 풍장의 맛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긴 채상의 소고쟁이들에 비해 진천
문백풍장은 예로부터 전승되고 있는 짧은 채상인 세갈래 개꼬리 상모를 돌
리며 연희한다. 또한 초리(생피지)의 넓이가 타 지역보다 월등히 넓은 것이

특징이다. 타 지역은
5cm 내외의 초리를
사용하지만 진천 문
백풍장은 8cm가 넘
는 넓고 풍성한 초리
를 쓴다.

문백풍장의 고증
은 신상하(문백풍장
상쇠), 임의수(문백
풍장 설장고), 임석



동(문백풍장 상복), 임기탁(문백풍장 수벽구)이 하였다.

2) 역대 경연대회에 출전한 농악대 현황

(1) 판제·장단 및 악기구성

① 1996년 제3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판제(진법) : 길놀이·인사굿·돌림벽구·오방진·당산벌림·사통백이·열두발
상모돌리기

② 2000년 제7회 충북 민속예술경연대회

판제(진법) : 인사굿·벽구놀이·명석말이·벽꾸시범놀이·무등춤놀이·사통
백이·사방놀이·여덟발짝놀이·안으로 여덟발짝 들어가기·12
발 상모놀이·합동놀이

③ 2001년 제8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판제(진법) : 칠채놀이·꽃봉우리놀이·법고놀이·삼성놀이·십자놀이·세조시

④ 2002년 제9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판제(진법) : 모임굿·출발준비굿·행진곡·머무름굿 순서로 진행

⑤ 2004년 제11회 충북 민속예술경연대회

판제(진법) : 인사굿·별달거리·명석말이·상쇠놀이·사성놀이·인사굿 등
장 단 : 행진가락·휘모리 장단

⑥ 2006년 제13회 충북민속예술축제

판제(진법) : 갈지자진 → 인사 → 돌림벽구 → 쌍줄백이 → 무동놀이 → 농사풀이 → 오방감기 → 춤마당 → 명석말이 → 십자걸이 → 연자방아진 → 사통백이 → 씨래질 → 네줄백이 → 절구놀이 → 돌림벽구(열두발)로 진행된다. (2007, 8년 제14, 5회 충북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한 작품에는 무궁화꽃, 고동가 같은 판제명칭이 보이고 있다)

장 단 : 곤나비장단·자진가락·두마치가락·춤장단·질곤애비

(2) 출연자 명단

① 1994년 제1회 충북농악경연대회

상 쇠 : 이종관

부 쇠 : 박득천

징 : 안복용 김홍래 남기학

북 : 공봉식 전선채 이재복

장 구 : 김영규 정근수 채수찬

새 납 : 천만성

깃 대 : 안기습

상 모 : 이영우 서정봉 김홍용 류근형 신장호 강영길 김희경 신대식

소 고 : 안정순 노현자 박혜영 성미숙 이인숙 민임조 최화자 서영석

정순자 정화연

② 1999년 제6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단장 / 조용철

김을기 이덕수 박득천 이광섭 엄태현 유병규 서호범 김종덕 이용규 유태근

박춘배 권동주 이재복 이종관 이명우 이근향 임인수 한창수 안복용 현금철

손병철 조덕선 김호준 심재구 정용기 유형준 채수찬 조미선 박미옥 정미라

정해순 천명숙 박종예 정지숙 이대호 이인선 김현희 서동옥 이범민 박윤경
이해자 임성순 이복예 이귀영 강화자 주경란 송종락 박복희 피복남 이정수
안병일 유병타 이합구 이관섭

③ 2001년 제8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김진양 박새득 이정수 남백현 암복용 한창수 한기범 서호범 이명우 김용희
김종덕 노정열 표영석 유달준 심재구 엄태현 이근향 현금철 김근배 채수찬
정명화 김만기 방대원 정찬일 이광섭 김을기 장병우 맹경호 이선영 이규방
김진달 정용기 유명규 손병철 이용규 이재복 한보희 김소심 김옥선 장성돌
최진태 오정희 정춘매 오순환 윤순식 신정식 진정숙 이수남

④ 2002년 제9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단장 / 손영희

박복순 김영길 노점순 김지영 정운학 차두휘 박순희 우영자 박연자 김영숙
장성자 권민자 이길순 김복인 노영희 김기연 신순희 오점순 김숙희 박은희
이승백 김태욱 장원철 유재웅 허 달 유봉현 양재오 이명자 윤춘자 이영순
이순복 이숙자 장숙자 박순단 손점순 방수남 박미진 이승재 김성운 이영일
배무부 이남운 광경호 이두환 이수진 이두진 장형순 박중오 김정환 남구현

⑤ 2004년 제11회 충북 민속예술경연대회(백곡농악대)

상 쇠 : 차동준

부 쇠 : 김영진

삼 쇠 : 송흥섭 이강하

징 : 오태환 강수용 강희봉 강만식

북 : 김형준 오서진 오세덕 오순환 이용안 이범철

장 구 : 강희재 정운용 정광모 장병식 지정제 김창진

호 적 : 장상욱

소 고 : 오영근 정정자 김정순 성명순 안옥분 이금래 정명자 조영순
노경례 이덕순 유경선 이재순 전경근 임정섭 조병순 정언년
노병순 강순재 이종인

농기수 : 심재복

영기수 : 심희준 차준성

잡 색 : 전남주 한옥분

⑥ 2006년 제13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문백풍장)

상 쇠 : 임흥빈

쇠 : 신상하 이준희 동 림 임영섭

징 : 유재구 조성이 이재인

장 구 : 김영주 이성도 박남희 임재우 임의수 장현정

북 : 김명희 조영순 안상화 임기탁 임석동 이상학 김경만

무 동 : 최계순 한춘희 구선자 한정자 김명자 박정복 유혜영 박선태

기 수 : 김흥희 이만호 정성용 최길해

양 반 : 김영인

각 시 : 전영란

포 수 : 김윤년

잡색중 : 김재진

쇠 납 : 김성우

벽 구 : 임창규 윤태양 손장국 문상운 박순범 박상우 최재우 유병

6 괴산 농악

1994년 제1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풍년농악'으로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1995년 제2회 대회에서 '풍년농악'으로 인기상을, 1996년 제3회 대회에서 '전통농악'으로 대상, 1998년 제5회 대회에서 '대덕풍년농악'으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1974년 제15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김영진이 개인공로상을 수상하였고, 1976년 제17회 대회에서는 상쇠 이종환이 개인상, 1991년 제32회 대회에서 개인 공로상을 수상하였다. 1998년 제5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상쇠 김용인이 개인 대상, 2001년 제8회 대회에서 상쇠 차영애가 개인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1) 개 설

괴산은 충청도와 전라도로 교차되었던 지역이며, 소백산맥에서 뺏어 나온 차령산맥의 산악지대에 위치한 농경마을이다.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는 전형적인 농촌마을로서 110여 가구의 농가가 6개의 자연 부락으로 나뉘어 있다. 이 마을에는 1930년대부터 마을 농악이 자생적으로 연행되었으며, 점차 발전하면서 1980년대 초에는 도 단위 각종대회에 출전하여 두 번의 대상을 포함하여 많은 입상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구의 감소로 1990년대에는 농악대가 거의 활동을 하지 못하였다.

괴산군 공무원들이 우리 것을 지키고 재현해 내겠다는 의지로 전국 최초의 공무원 괴산농악대를 1997년 3월 14일 조직하여 사라질 위기에 처한 대덕리 풍년농악을 재현하였다. 이 농악은 마을의 경사스러운 날에 흥겹게

치고 놀던 형태이며, 마당놀이의 주된 판굿에 명석말이·벽구놀이·열두발
상모놀이 등이 있다. 괴산문화제 제8회 준우승, 제9, 11회 괴산문화제 우
승한 수상경력이 있다.

괴산의 백중놀이 농악은 1974년 제15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충청북
도 대표로 참가하였다.

우리나라의 음력 7월 보름은 백중·백중·머슴의 날이라고 부르는 농민의
명절이다. 예로부터 어정 7월 동동 8월이란 말이 있듯이 농촌의 7월은 바
쁜 농번기를 보낸 뒤이면서, 한편으로는 가을 추수를 앞둔 달이어서 잠시
허리를 펼 수 있는 시기이다. 그래서 백중날을 전후해서 장이 서고 머슴들
과 일꾼들에게 돈과 휴가를 주어 즐겁게 놀도록 하는 풍습이 있었다. 따라
서 해마다 백중이 되면 머슴들과 농사꾼들은 특별히 장만한 아침밥상을 받
게 되고 새옷과 돈을 받는데 이것을 ‘백중돈 탄다’고 한다. 경우에 따라 백
중돈은 아이들도 타는데 그날은 백중돈을 탄 머슴이나 일꾼들이 장터에 나
가 물건을 사거나 놀기도 하는데, 이때 서는 장을 특별히 ‘백중장’이라 해서
풍장이 울리고 씨름판이 벌어지며, 그네뛰기 등이 열린다. 장에는 난전이
벌어져 갖가지 흥미 있는 오락과 구경거리가 있어 농사에 시달렸던 머슴이
나 농사꾼들은 마냥 즐길 수 있는 것이었다.

충청북도에서는 청주지방에서 칠월칠석부터 백중장이 섰으며, 괴산지방
에서는 백중날 특이한 ‘백중(중)놀이’가 있었다.

괴산 지방에서는 머슴이나 농사꾼들이 백중 한 달 전부터 밤이 되면 동네
큰 사랑이나 동구 나무 밑에 모여 그 집에 필요한 명석·삼태기 등을 만들기
시작하여 백중날 아침이 되면 그 동안 만든 명석·삼태기 등을 안마당에 던
지면서 “명석 사시오”하고 외친다. 그러면 주인집에서는 미리 술과 떡을 마
련하였다가 새 옷 한 벌과 백중돈을 태워준다. 돈을 탄 머슴이나 일꾼들은
새 옷을 입고 풍장을 치면서 동네 큰 마당에서 모두 모여 흥겹게 논다.

그 때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고 동네 어른들은 그 해에 농사를 가장 열

심히 모범적으로 지은 머슴을 뽑는다.

“아무개가 상머슴이다”라고 발표되면 모두가 지명된 상머슴을 행가래치며 함성을 지른다. 그리고 지명 받은 상머슴을 황소에 태우고 얼굴에는 환칠을 해주고 버드나무 앞사귀로 관을 만들어 씌우고 도롱이를 입힌다. 또 황소에 태워 끌고 다니면서 “상머슴 사시오”라고 외치며 풍장을 치고 춤을 춘다.

이렇게 마을을 순례하는데, 농악을 치면서 소를 탄 상머슴을 앞세우고 호별방문을 한다. 집 대문 앞에서 상머슴을 팔고 집주인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음식 대접을 받는다. 또한 돌아다니다 우물이나 샘 옆을 지날 때는 우물 굿인 용왕풀이를 한다. 이 때 마당 가운데에서는 젊은 아낙네들이 노래를 부르며 또아리 돌리기 등으로 흥을 돋운다.

마지막으로 혼례마당이 펼쳐진다. 동네 어른들은 다시 상머슴을 장가들일 의논을 하고 신부감이 결정되면 모든 움직임은 멈추게 하고 혼인을 알린다. 환성이 터지고 풍장이 울리고 모여든 사람들이 상머슴을 다시 소에 태우고 여자들은 신부를 가마에 태운다. 농악대가 앞장서서 신랑, 신부를 태운 소와 가마가 동네 넓은 마당을 돌고 사람들이 흥겹게 뒤따른다.

이와 같은 일련의 연행을 할 때, 항상 농악을 하는데, 이를 백중 농악이라고 한다.

1976년 제1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연행된 판굿의 순서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외마치 풍년길굿

장원머슴을 소 또는 사다리에 태운 후에 용당기와 농기·나팔·무동 등을 앞세우고 나아간다. 좌도 특유의 길군악(행진굿)에 맞추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소고가 앞을 서고 쇠가 뒤를 따르는 역진(逆進) 방법으로 주인집에 들어간다.

② 문긧

역진에서 정상 행진으로 돌아가 쇠가 앞장을 서서 마당에 들어가 판긧을 한다.

③ 외마치

자진모리에 해당되는 박자로서 좌도긧에서만 볼 수 있으며, 가락이 경쾌하고 흥겹다.

④ 두마치

휘몰이에 해당되는 가락으로 아주 빠르며 우도의 두마치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마치긧을 맺음가락으로도 활용한다.

⑤ 세마치-여섯마치

연속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며 차분하고 무게 있는 가락이 이어진다.

⑥ 일곱마치

한 장단에 징을 일곱 번 치며 좌도 농악에서만 갖고 있는 특유한 가락이다.

⑦ 여덟마치-열두마치

여덟마치는 일곱마치를 변형한 가락이며, 한 박자에 일곱 번의 징을 친다. 마치가 더해짐에 따라 변화 무쌍한 가락으로 빠르게 이어지는데 열두마치는 징을 열두번 친다.

⑧ 품앗이긧

팽과리를 서로 번갈아치며 장고와 쇠쟁이들이 서로 밀고 당긴다. 이것은 농사에서 품앗이를 상징한다.

⑨ 오방진굿

청·백·적·흑·황색 깃발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나누어 잡귀를 몰아내는 굿이다. 마지막에는 중앙으로 모여 명석말이를 하고 다시 풀어 나온다.

⑩ 호호굿·자진호호굿

진영에서 전군을 점검하는데 서로 부르고 대답한다. 부르는 소리는 ‘호호’이고, 대답하는 소리는 ‘허허’로 단결심을 다짐하는 진풀이다.

⑪ 갈림굿

호명을 마친 후 쇠와 북·장고가 서로 갈라지며 진을 다듬는다.

⑫ 걱정굿·자진걱정굿

상쇠와 수장고가 마주보고 만났다가 헤어지며, 각기 반대방향으로 서로 만나서 헤어지는 것을 반복하는 진풀이다.

⑬ 흘영상·곁영상

쇠잡이 둘이 번갈아 치며 놀다가 장고와 마주치면서 흥을 돋운다. 좌도의 특수가락이다.

⑭ 개인놀이

채상놀이·장고놀이·열두발 채상 등 순차적으로 놀이마당이 펼쳐진다. 윗놀이의 발달이 특이하고, 장고가락은 담백한 것이 특색이다.

⑮ 파송굿

적진을 섬멸하고 끝을 알리는 굿이다. 덕삭말이(덕삭마리:전남 우수영 부녀농요에 나오는 원무)를 하면서 판굿 전체가 끝난다.

지역에서 전래되던 한들농악이 점차 사라져서 유명무실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여기던 중 1991년도에 남녀 소방대에서 옛 것을 되살려 보고자 재구성하여 시연한 것이 청천면 농악이다. 청천농악은 들에서 힘겹게 일하는 농부들의 흥을 돋우어 주며,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고, 정초에는 국태민안과 마을의 안녕을 빌고, 양반과 평민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을 도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마당놀이의 주된 판굿에는 달팽이놀이·소고놀이·좌우치기·열두발 상모놀이 등이 있다.

괴산농악은 괴산·진산·무주·용담·진안·장수·운봉·구례 등지에서 연행되는 좌도굿과 유사하며, 지맥을 따라 남북으로 전승되어 왔다. 이것이 다시 호남좌도와 영남 등지로 파급되고 경기지방까지 영향을 주게 되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그 가락과 가림새가 변형되어 지역화 되고 있다.

괴산농악은 반농반군의 농군들로부터 창출된 가락이 다수 사용된다. 전원이 전립을 쓰고, 비교적 간소한 복장을 하고 있으며, 빠른 가락과 동작은 대중의 행진음악과 축원 그리고 한풀이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윗놀이의 기교가 뛰어나며 밑놀이의 굿가락이 담백한 것이 특징적이다.

연행순서는 독립문 → 명석말이 → 행진곡 → 논갈이 → 모내기 식시놀이 → 타작놀이 → 방아놀이 → 삼성놀이 → 함박꽃 → 열두발상모 이고, 판굿의 종류에는 독립문·행진굿·명석말이·벽구놀이·삼성놀이·타작놀이·방아놀이·함박꽃·열두발 상모놀이가 있다.

2) 역대 경연대회에 출전한 농악대 현황

(1) 판제·장단 및 악기구성

① 1976년 제1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판제(진법) : 외마치 풍년길굿·문굿·외마치·두마치·세마치-여섯마치·일

곱마치·여덟마치-열두마치·품앗이굿·오방진굿·호호굿·자
진호호굿·갈림굿·각정굿·자진각정굿·홀영상·겹영상·개인늘
이·파송굿

② 2001, 2년 제8, 9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판제(진법) : 명석놀이·벽구놀이·열두발상모 순으로 진행

③ 2003년 제10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판제(진법) : 달팽이놀이·소고놀이·좌우치기·열두발상모 등으로 진행

(2) 출연자 명단

① 1994년 제1회 충북농악경연대회

상 쇠 : 박동희

부 쇠 : 이상오 정희재

징 : 이재학 오장균

북 : 김환성 배영진 임용석 조일주

장 구 : 이경섭 우병근

대팔이 : 피종선 임병주

법 구 : 최만재 한정관 김경수 이종수 김상운 이규석 정종복 최종오

무 동 : 신순자 권길순 장복순 지옥희 신경순 최천수 최순성 이영해

깃 대 : 강종국 김옥분 전정순 김수남

상 모 : 홍성원 김영일 김명대 한대환

노 인 : 이재열

포 수 : 배운석

② 1999년 제6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상식 / 김용인

황용하 조지영 김태문 김인구 신동규 노은정 정현주 지상연 박지은 백은주
김만재 오을균 광영미 이명민 김은철 최광묵 김강희 전세진 홍혜선 김숙희
이송은 오성복 안광락 안광복 조정주 인내수 정해성 서미숙 이규서 양귀설
김용국 김영근 목용균 강태구

③ 2001년 제8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단장 / 차영예

오성복 송민자 정봉선 신순이 이운자 김미자 오을균 김강희 이정숙 하금화
이순옥 함선화 한상에 광명자 김학순 허윤정 김복임 강정숙 권혁숙 이달순
홍기순 권갑숙 조혜숙 김성아 김순자 안광학 주영서 구분행 김태천 권세익
박연식 박은현 유재국 안종범 이윤화 임용근 하성호 김철준 여태순 최명자
정영순 윤정애 곽효순 변금자 경진수 김춘식 이경옥 이규서 김흥수 오향자
조영화 양규설

④ 2002년 제9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경진수 오성복 정봉선 신순이 이운자 오을균 김강희 이정숙 하금화 함선화
한상에 광명자 김학순 조혜숙 김복임 이달순 홍기순 김성아 안광학 여태순
최명자 김윤순 윤정애 곽효순 차영예 김춘식 황명숙 권복순 홍명덕 신동규
김희환 권용숙 조윤주 김정남 서순옥 박범산 조용문 김광환 김광식 안선주
음정순 이윤순 김말순 연명자 정동화 경현자 서인숙 이기옥 조명자

7 증평 농악

1997년 제4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전통농악'으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1994년 제1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상복이 개인 대상을, 1999년 제6회 대회에서 김용국이 개인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1) 개 설

정월 대보름을 전후로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산신제를 지내고 난 다음 집집마다 다니며 지신밟기를 하였고 달집 태우기도 하였는데, 이 때 산신제를 제외한 모든 일에 풍물을 맨 앞에 두었다.

두레를 할 때도 풍물을 쳤으며, 백중날 모든 주민들이 들과 넓은 마당에 모여 그 해의 풍년을 기원하며 농사일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는 놀이를 했는데, 이때에도 풍물이 놀이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고 한다.



증평 장물풍물

그리고 단오날과 추석날에도 풍물을 쳤다고 한다. 짬이들을 모으는 울림채를 시작으로 장풍장(굿거리)을 치며 놀이마당을 만든 후에 풍물놀이를 하였다.

장들의 풍물은 형태에 있어서 걸립풍물의 성격이 강하고, 판제에 있어서는 농사를 지을 때 행하였던 동작들을 가미시킨 농사풀이가 두드러진다. 장단은 질걸음장단·자진가락·장풍장·두마치 등의 가락이 있고, 치배의 구성에 재기(재파리·바라)라는 조그만 바라를 팽과리 다음에 두어 연행한다. 또한 복식에 있어서 다른 지역과 달리 바지 저고리에 삼색 띠를 두른다. 이와 같은 점이 증평군 풍물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악기 : 상쇠·부쇠·장고·북·징·소고·재기(작은 바라)·포수·각시·농기·영기
장단 : 질걸음장단·자진가락·장풍장·두마치·장풍장(굿거리)·울림채
판제 : 농사풀이·오방감기·찍찍이·풍년굿·인사굿·태극모양만들기·명석말이·십자소고놀이·갈지자·개인놀이 등

2) 역대 경연대회에 출전한 농악대 현황

(1) 판제·장단 및 악기구성

① 1996년 제3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판제(진법) : 인사가락·태극모양만들기·명석말이·십자소고놀이·갈지자

(2) 출연자 명단

① 1994년 제1회 충북농악경연대회

팽과리 : 장지원 연용흠 장광원 장대원

북 : 장병국 장길원 장병한 장현섭 장학원

장 : 장병기 이기봉 권오갑

장 구 : 손순락 서경옥 한동임 김금숙 백정현

소 고 : 최경임 구순희 채영자 김순안 연미자 고춘자 이순임 윤순영

② 1999년 제6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박은숙 이희순 김경애 송귀순 이송자 이순덕 홍성자 윤남수 최경옥 지수열
박영순 홍순옥 정창순 이유미 소미영 박옥란 연제순 안광화 김미석 정순례
김방부 한병임 이효림 이재하 박석규 박윤하 전광열 윤상덕 최정열 최형규
양규진 김상용 최춘노 김진홍 장재순 함윤식 이용진 김영진 이혜지 김민중

③ 2001년 제8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단장 / 박은숙

이희순 김경애 송귀순 이송자 이순덕 홍성자 윤남수 최경옥 지수열 박영순
홍순옥 정창순 이유미 조미영 박옥란 연제순 안광화 김미석 정순례 김방부
한병임 이효림 이재하 박석규 박윤하 전광열 윤상덕 최정열 최형규 양규진
김상용 최춘노 김진홍 장재순 함윤식 이용진 김영진 이혜지 김민중

④ 2002년 제9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단장 / 박은숙

이희순 김경애 송귀순 이송자 이순덕 홍성자 윤남수 최경옥 지수열 연제순
안광화 김미석 정순례 김방부 박영순 홍순옥 정창순 이유미 조미영 박옥란
한병임 이효림 장재순 함윤식 이용진 김영진 이혜지 김민중 이재하 박석규
박윤하 전광열 윤상덕 최정열 최형규 양규진 김상용 최춘노 김진홍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1호(1992.10.23. 지정)이며, 기능보유자는 이종환이다.

1963년 제4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청주농악' 장려상, 1965년 제6회 대회에서 문화공보부장관상, 1966년 제7회 대회에서 문화공보부장관상, 1989년 제30회 대회에서 문화공보부장관상, 1969년 제10회 대회에서 장려상, 2001년 제42회 대회에서 '청주강서농악'으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1997년 제4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전통농악'으로, 2000년 제7회 대회에서는 '강서농악'으로 대상을 수상하였다.

1961년 제2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상쇠 임광식 개인상, 1964년 제5회 대회에서 벽구 김진중 개인상, 1967년 제8회 대회에서 벽구 김윤수 개인상, 1984년 제25회 대회에서 상쇠 이종환이 개인상을 수상하였다.

1) 개 설

(1) 유 래

충청북도 지방은 고구려·백제·신라의 국경선이 인접했던 지역으로서 삼국의 영토분쟁의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었다. 따라서 이 지역의 농악은 전쟁의 영향을 받아서 독특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즉 농악이 군사의 진퇴, 사기진작 등의 군악대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리듬이 단조로우면서도 규칙적이며 활기차다.

청주시 강서1동 지동(池東)마을에 전승되고 있는 청주농악은 충북을 포함하여 충남지방과 경기지방과 같은 문화권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지동마을은 청주에서 서쪽으로 3km정도 떨어진 산간의 조그마한 농촌마을이었으나 지금은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청주시로 편입되

어 청주시 강서1동 지동마을로 되었다. 마을은 농사를 주업으로 하기 때문에 농악은 자연스럽게 번성하게 되었다. 더욱이 농경지 면적이 많은 지역인 일명 ‘뚝개들’에서 많은 농산물이 생산됨으로써 가족노동 머슴노동 품앗이노동 두레노동 등의 농악이 자연스럽게 활성화 되었다.

지동마을은 ‘큰 목골’과 ‘작은 목골’로 나누어져 있다. 이 두 마을은 마을 단위로 세시풍속인 걸립을 하기도 하고, 여름철에 두레굿, 백중날에 머슴 농악을 하면서 두 마을간 경쟁이 붙어 세력과 실력 다툼을 하기도 하였다. 간혹 마을 간의 싸움으로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대개의 경우 싸움은 큰목골에서 이겼는데 이유는 재간과 실력이 있는 힘이 센 농기수를 비롯하여 벽구쟁이들이 큰목골에는 다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항상 분열되어 싸우지만 간혹 두 마을이 농악을 합쳐 화합하고 단결하여 자연스럽게 시련(試鍊)놀이가 전개되기도 하였다.

청주농악이 전승되어 온 것은 80여 년 전 상쇠 이원삼(李元三)과 벽구수 전병수(全炳洙)가 지동 마을에 살면서 시작되었다. 이원삼은 마을 사람들에게 농악을 가르쳐 지동마을을 농악마을로 만들었다고 한다. 지동마을의 노인들에 따르면 1919년 이원삼과 전병수가 중심이 된 농악대가 지동마을에 거주하고 있던 구국 활동가인 송재인(宋在寅, 당시 서당훈장)의 지시에 따라 기미년 3.1운동 당시 청주 쇠전거리에서 만세를 부르기 위한 군중을 모이게 하는데 농악을 쳤다고 한다.

이원삼은 현재 청주농악의 상쇠인 이종환의 부친이다. 이원삼은 김창환(金昌煥)을 후계자로 길렀고, 이종환(李鍾煥)이 그 뒤를 이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전래된 지동마을 농악은 시대변천으로 인하여 자연 쇠퇴하게 되었다. 광복 후 청주를 중심으로 하여 청원 및 강서지역의 지동리 신촌리 서촌리 남촌리 내곡리 원평리 송절리 신대리 비하리에 거주하는 농악인들이 모여 농악대를 만들었다. 이는 해방 후 처음으로 결성된 청주의 유일한 국악인단

체였다고 한다. 지동마을 농악대가 1958년 7월에 강서농악대로 명칭이 바뀌었고, 1968년 5월에 청원군 농악대, 1983년 3월에 청주농악대, 1987년 3월에 청주시립농악대로 바뀌었다.

광복 후에는 걸립농악(乞粒農樂), 마당밧기, 안택매귀(安宅埋鬼)굿 같은 의식농악은 물론 전문적인 농악을 하였다.

한편 충북 국악협회의 창설과 더불어 청주의 대보름 망월제, 오월 단오, 충북향토축제 등 지역을 대표하는 행사에서 많은 공연을 하였다. 1987년 청주시립농악대의 창단에도 당시의 농악인이 주된 구성원으로 활동하였고, 1992년 10월 23일 '청주농악(淸州農樂)'이라는 명칭으로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었으며, 상쇠 기능보유자로 이종환이 함께 지정되었다.

청주농악은 1958년부터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등 크고 작은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문화공보부장관상, 개인상 등 많은 상을 수상하였다.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수상실적

연도	대회명	단체상	개인상
1958	제 1회 대회		상쇠 이종환
1961	제 2회 대회		상쇠 임광식
1963	제 4회 대회	장려상	
1964	제 5회 대회		벽구 김진중
1965	제 6회 대회	문화공보부장관상	벽구 윤석균
1966	제 7회 대회	문화공보부장관상	
1967	제 8회 대회		벽구 김윤수
1968	제 9회 대회	공로상	
1969	제10회 대회	장려상	
1984	제25회 대회		상쇠 이종환
1989	제30회 대회	문화공보부장관상	
1998	제39회 대회	노력상	
2001	제42회 대회	장려상	
2003	제44회 대회	공로상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수상실적

연도	대회명	작품명	단체상	개인상
1995	제 2회 대회	판굿	인기상	상 쇠 정환철
1997	제 4회 대회	전통농악	대 상	상 쇠 정환철
1998	제 5회 대회	웃다리농악	감투상	
1999	제 6회 대회	청주신촌농악	장려상	
2000	제 7회 대회	청주강서농악	대 상	상장고 강선자
2005	제12회 대회	강서농악	우수상	
2006	제13회 대회	청주농악	우수상	상 쇠 박창원
2007	제14회 대회	신촌풍장	감투상	
2008	제15회 대회	신촌풍장	우수상	

이외에 1988년 제14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에서 차상, 1989년 제15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농악(풍물)부 장원을 수상하여 전국적으로 청주농악을 알리게 되었다.

(2) 농악의 종류

청주농악은 하늘에 감사와 축원을 올리는 ‘굿’과 정초에 ‘걸립굿’ ‘고사굿’, 여름철에 ‘두레굿’, 백중날에 ‘머슴굿’ 등의 여러 형태로 전래되어 오고 있다.

2) 청주농악의 특징

청주농악은 다른 지방과 비교할 때, 장단의 다양한 변화와 볶아치는 빠르기에서 신명나는 생동감을 느낄 수 있으며, 진법놀이가 다양하고 정형화되어 있으며, 돌모(상모)를 머리 뒤통수에 쓰고 양상을 세워서 돌리는 것이 특징이다.

청주농악의 장단명은 일반적인 장단 명칭과는 상이하여 꽃나부장단(자진



제39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 작품

모리)·두마치(휘모리)·질곤
애비(칠채)·춤장단(굿거리)
등의 장단명이 사용되고 있
다. 꽃나부장단은 징의 마
치수(치는 횟 수)가 3번으로
삼채(자진모리)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다

북 장단은 충청북도 금강
이남지역(청원·옥천·보은·
괴산·증평·음성·진천·충주·
제천·단양 등)과 강원 영서
(영주·원주·춘천 등) 지방의
농악에서 공통적으로 전승
되고 있다. 또한 끊이지 않

고 번갈아 가며 연주되는 꽃나부장단(자진모리)과 자진가락의 연주가 호남농
악·영남농악·경기농악 등에는 없으며, 꿩과리의 겹장단이 매우 발달하였다.

일반적으로 타 지역의 농악에서 돌모(상모)가 착용되는 위치가 머리의 가
마 부근에서 뒤통수 윗부분인 반면, 청주농악에서는 뒤통수 부분에 착용된
다. 이는 돌모(상모)의 진자, 초리, 생피지(5~7cm 너비의 흰종이)를 몸 옆
에 붙여서 위아래로 돌리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돌모의 착용 위치
로 인하여 원의 반경은 타 지역보다 월등히 크지만 자반뒤집기·두루걸이·
연풍대 등 화려한 기예는 발달하지 않았다. 수수하고 투박한 양상돌리기와
찍음상(나비상)·외사위·얹을상 등은 개인적 기예로 연기한다.

각각의 판제(진법) 연행 과정에는 꽃나부장단을 연주하며, 완성된 판제
(진법) 순간에는 신명나게 북아치는 자진가락으로 연주하고, 상쇠의 신호
장단에 따라 다시 꽃나부장단으로 연주되는 형태는 충북지역 농악에서 일

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타 지역의 농악(호남좌도·우도, 충청·경기 웃다리, 영남) 등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판제(진법)의 명칭도 타 지역과 차별되는 청주농악만의 고유함이 있는데, 태극진·갈지자진(을자진)·새조시(좌우치기)는 타 지역의 농악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청주농악 고유의 판제이다. 청주농악의 판제(진법) 연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의 하나의 판제(진법)을 연행한 후에는 반드시 원형 대형으로 돌아 온 후 다음 판제(진법)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전국적으로 대부분 사용되는 상모의 긴 초리는 신촌풍장에서 시작되었다. 신촌풍장에서는 일제시대 이전부터 길이 110cm 정도의 초리를 사용하였으며, 타 지역의 풍물은 이보다 짧은 약 50cm 정도의 초리를 사용하였다. 많은 풍물인들이 신촌풍장을 다녀가면서 긴 초리가 전국적으로 전파되었다. 이는 김광식·김덕수·최종석·송순갑 등의 풍물인들이 구술하고 있다. 청주농악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음악적 특징

첫째, 청주농악의 채굿은 일채에서부터 칠채까지가 있는데 대개의 경우 일채 이채 삼채 칠채를 여러 가지로 변주한다.

둘째, 일채굿(다드래기굿)은 3분박, 매우 빠른 2박자이다. 쇠가락을 매우 빨리 칠 때 사용된다.

셋째, 이채굿(휘모리)은 2분박, 빠른 4박자(4분의 4박자)이다. 이 쇠가락을 매우 빨리 몰아치는 경우에는 변주하여 사용한다.

넷째, 삼채굿은 의식농악과 판굿 등에서 가장 많이 치는 쇠가락이다. 삼채에서 3분박 4박자(8분의 12박자)는 긴삼채이며, 3분박으로 좀 빠른 4박자는 다드래기 또는 작은 다드래기라 부른다. 본래 삼채는 내드림으로 내치는 암채와 수채를 계속 반복하여 치는 것이나 변주하여 맺기도 하고 풀기도 한다.

다섯째, 청주농악의 특징은 길군악칠채 꽃나부장단 다드래기 춤장단 자진다드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 고유의 가락을 보존하고 있다.

여섯째, 청주농악의 가락은 맺는 가락과 푸는 가락을 계속 빨리 몰아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일곱째, 청주농악의 판굿은 태극놀이 명석말이 꽃봉오리 발림벽구 삼성놀이 십자놀이 사통백이 쓰레질 채상놀이 갈지자놀이 장고놀이 상쇠발림 등 특징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여덟째, 삼국시대에 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군사적 기능이 가미되었다. 즉, 농악이 군사의 진퇴, 사기진작 등의 군악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단조로 우면서도 규칙적인 리듬이 발달했다.

(2) 무용적 특징

청주농악의 소고춤 춤사위는 상모를 쓰고 연행하는 양상모치기와 판굿놀이과정에서 볼 수 있다. 상모를 돌릴 때 소고를 허리 밑에서부터 머리 위로 들어올리는 춤사위가 청주농악의 특징이라고 하겠다.

상쇠 이중환의 춤사위는 단순하고 순수하고 몸놀림이 유연하며, 흥에 겨운 춤사위로서 움직임이 크다. 또한 향토적 색채가 강한 것이 독특하다. 초리의 길이가 다른 지역보다 유난히 길고 두꺼운 점이 특징이다. 상쇠춤의 사위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외사 : 어느 한 쪽으로 부포를 돌리는 사위
- 양사 : 좌우로 1회씩 교대로 부포를 돌리는 사위
- 4사 : 좌로 2회, 우로 2회 하면서 부포를 돌리는 사위
- 6사 : 좌로 3회, 우로 3회 교대로 부포를 돌리는 사위
- 8사 : 좌우로 부포를 돌리다가 부포를 세웠다 꺾는 사위
- 퍼넘기기 : 부포를 앞에서 뒤로 퍼 넘기는 사위

- 산치기 : 부포를 세우는 동작
- 복판치기 : 부포를 곧게 위로 세웠다가 꺾어 내리는 동작(호남우도농악에서만 연행되었음)
- 돛대치기 : 부포를 세우고 앞으로 나가는 동작
- 이슬털기 : 이슬을 털듯이 부포를 세웠다 내렸다 하면서 흔드는 동작

이외에 땅재주넘기 물구나무서기 까치춤 덩덩춤 쇠발림춤 악어걷는춤 등이 있다.

3) 장 단

청주농악에서 사용되는 장단의 종류를 열거하고, 대표적인 장단의 악보를 소개하였다.

(1) 꽃나부 장단

늦은 자진모리 장단에 해당하며, 꽃나비장단·꽃냄이장단 또는 꽃나부장단이라고도 한다. 농악에서 무동을 꽃나부라 부르는데서 나온 말이며, 무동놀이 할 때 치는 장단이라는 뜻이다. 또는 청원·증평·진천·보은·괴산의 농악인들에 의하면 곤나비에서 곤(坤)은 땅을 말하며, 나비는 잔나비의 나비로 '나부댄다', '신명난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곤나비장단은 땅에서 신명나게 즐기는 장단의 의미도 설정되기도 한다.

삼채 및 덩덕궁이와 동일한 가락으로 조금 빠른 속도의 3분박 4박이며, 8분의 12박자의 장단도 있다. 8분의 12박자의 꽃나부장단은 주로 벽구놀이에 쓰인다. 진법놀이 상쇠놀이 행진 등에 쓰이는 다양한 쇠가락이다.

① 각 악기의 꽃나부장단

구분	1	2	3	2	2	3	3	2	3	4	2	3
악기잡이 발디딤	좌			우			좌			우		
벽구	우			우			좌			좌		
벽구	우			좌			우			좌		
상쇠머리장단	갠		그라	갠		그라	갠		그라	개	갠	
팽과리(보통장단)	갠		그라	개	개	개	갠		그라	개	갠	
	그라	개	개	개	개	그	갠		그라	개	갠	
징	징			징			징					
장고	덩	~	따	궁	따	따	궁	~	따	궁	따	
북	덩	~	더	덩	~	더	덩	~	덩	△	덩	
벽구	밑			위			밑			위		

② 상쇠 꽃나부장단

구분	1	2	3	2	2	3	3	2	3	4	2	3
머리장단1	갠		그라	갠		그라	갠		그라	개	갠	
머리장단2	갠		그라	개	개	그	갠		라	개	갠	
머리장단3	그랑		그라	개	개	그	갠		그랑	개	갠	
상쇠장단	그라	갠		그라	갠		그랑		그라	개	갠	
	그랑		그라	개	개	그	갠		그랑	개	갠	
	그라	개	개	개	개	개	갠		그라	개	갠	
	그랑		그라	△	그라	개	갠		그랑	개	갠	
	그라	개	갠	△	그라	개	갠		그라	개	갠	
	그라	갠		그라	갠		그랑		그라	개	갠	
	그랑		그라	갠		갠	△	갠		그라	갠	
맺음장단1	그라	갠		갠		개	갠			딱		
	개	갠		갠		개	갠			딱		

상쇠는 판제의 상황과 각 악기 잡이들의 흐름을 파악하여 꽃나부 장단을 자유로이 변형하여 연주한다.

(2) 자진가락

자지게 볏아친다는 뜻으로 꽃나부장단과 이어가며 연주된다.

자진가락은 상쇠가 꽃나부장단의 맺음장단을 친 다음 연주되며, 자진가락 다음에는 꽃나부장단을 다시 연주한다.

① 각 악기의 자진가락 장단

구분	1	2	3	2	2	3	3	2	3	4	2	3
악기잡이 발디딤	좌			우			좌			우		
벽구 발디딤	우			우			좌			좌		
상쇠머리장단	간		개	간		개	간		그라	간		개
팽과리(보통장단)	간		개	간		개	간		개	간		개
	간		그라	간		그라	간		그라	간		그라
징	징						징					
장고	덩	~	따	궁	따	따	덩		따	궁	따	따
북	덩	~	더	덩	~	더	덩	~	더	덩		더
벽구	밑			위			밑			위		

② 상쇠 자진가락 장단

구분	1	2	3	2	2	3	3	2	3	4	2	3
머리장단	간		개	간		개	간		그라	간		개
상쇠장단	간		개	간		개	간		그라	간		개
	간		그라	간		개	간		그라	간		개
	간		개	간		그라	간		그라	간		개
	간		그라	간		그라	간		그라	간		그라
맺음장단	간		그라	간		그라	간		그라	간		개
	개	간		간		그라	간			딱		

(3) 두마치

휘모리에 해당되며 이채라고도 한다.

두마치 장단은 올림채와 명석말이(칠채 오방감기)의 마지막 중앙 명석말이를 할 때, 그리고 중앙 명석말이에서 거꾸로 돌아 나올 때 연주된다. 두마치 머리장단은 휘모리 두 장단으로 되어 있으며, 두마치 장단 시작 때 한번만 연주된다.

① 각 악기의 머리장단

구분	1	2	2	2	3	2	4	2
상쇠(뿔과리)	그랑		그랑	따	그랑		딱	
	갠		~		갠		~	
징	징		~		징		~	
	징		~		징		~	
장고	딩		따		궁		쿵	
	딩		~		딩		~	
북	딩(강)		더(약)		딩(강)		더(약)	
	딩		~		딩		~	

② 각 악기의 두마치 본장단

구분	1	2	2	2	3	2	4	2
상쇠(뿔과리)	그랑		그랑		그랑		그랑	
	갠		개	개	△	개	갠	
징	징							
	징							
장고	딩		따	따	궁	따	쿵	
	딩		따	따	궁	따	쿵	
북	딩(강)		더(약)		딩(강)		더(약)	
	딩(강)		더(약)		딩(강)		더(약)	

두마치의 본 장단은 상쇠 머리장단으로 시작된 후 상쇠가 맺음장단으로 신호하기 전까지 계속 반복 연주되며, 상쇠·뿔과리는 아래 악보 한 줄의 두마치 장단을 2의 배수 또는 4의 배수로 연주한다. 상쇠는 판제(진법) 연행

과정의 흐름을 파악하여 장단을 변주하고 맺어주며 다음 장단으로 넘긴다.

③ 상쇠·뽕과리 변주 장단

구분	1	2	2	2	3	2	4	2	횟수
상쇠(뽕과리)	그랑		그랑		그랑		그랑		4~20정도로 연주한다
	갠		개	개	△	개	갠		같은 장단이 타법에 의해 변주된다.
	갠		개	개	△	그라	갠		
	그랑		그라	개	△	그라	갠		타법에 의해 변주
	개	개	갠		개	개	갠		
	그라	개	갠		그라	개	갠		
	갠		개	개	갠		개	개	
딱		다	다	딱		다	다	뽕과리 올림을 막고 연주	

각각의 뽕과리 변주 장단은 상쇠가 먼저 변주의 신호나 동작을 하면 시작된다. 각 장단의 연주 횟수는 판제(진법)의 연행 길이와 상쇠의 상황 판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각 장단은 공통적으로 4의 배수에 해당하는 횟수로 연주된다.

④ 두마치 맺음장단

구분	1	2	2	2	3	2	4	2
상쇠(뽕과리)	갠		~		개	개	갠	
	갠							
징	징							
	징							
장고	딩		따	따	궁	따	쿵	
	딩							
북	딩(강)		터(약)		딩(강)		터(약)	
	딩(강)							

두마치 맺음장단은 두마치 장단을 완전히 끝낼 때 연주된다.

이 장단은 올림채에서와 판제(진법)가 모두 끝나고 퇴장한 다음 공연장 내, 혹은 공연장 밖에서 마무리 맺음으로 연주된다.

⑤ 명석말이의 두마치에서 꽃나부장단으로 넘기는 상쇠 신호장단.

구분	1	2	2	2	3	2	4	2
상쇠(팽과리)	갠		개	개	△	개	갠	
	그랑		그라	개	△	그라	갠	
징	그랑		그랑		그랑		딱	
	갠				딱			

명석말이(칠채 오방감기) 과정 중의 마지막 중앙 명석말이를 한 후 거꾸로(뒤돌아 꼬리벽구를 따라 감) 풀어나갈때의 신호장단으로 사용되며, 거꾸로 풀어나간 후 전체가 하나의 원이 되어 다시 뒤돌아 상쇠가 선두가 될 때 연주된다. 이후 두마치와 꽃나부장단으로 이어진다.

(4) 질곤애비

길게 치는 꽃나부 장단을 긴꽃나부 장단이라 부르는데, 긴꽃나부 장단이 ‘질꽃나부’·‘질곤내기’·‘길고내기’·‘길꼬내기’로, ‘질곤내기’는 ‘질곤애비’ 로 변형되었다. 충청·경기 옷다리 풍물 장단 중 ‘칠채’라는 장단을 연주하는데, 징을 치는 횟수가 7번이라 하여 지어진 장단 이름으로 청주농악에서의 질곤애비 장단과 동일하다. 질곤애비 장단은 춤장단(굿거리)으로 연주되기도 한다.

① 각 악기의 기본 장단

□ 팽과리

갠		개	갠		갠		개	갠	
갠		개	갠		개	갠		개	갠
갠		개	갠						
갠		갠		개	갠		개	갠	

□ 징

징				징						
징			징		징					
징										
징										

□ 장고

딩		더	딩		딩		더	딩		
딩		더	딩			딩		더	딩	
딩		더	딩		더					
딩		딩		더	딩		딩			

□ 북

딩		더	딩		딩		더	딩		
딩		더	딩			딩		더	딩	
딩		더	딩		더					
딩		딩		더	딩		더	딩		

(5) 좌우치기

좌·우·전·후로 두 걸음 디디며 연주하는 장단으로 자진가락의 빠르기와 유사하다. 충청·경기 옷다리 풍물을 연행하는 타 지역의 장단은 좌·우·전·후로 세 걸음을 디디며 연주하는 것과 비교된다.

새조시 연행과정 후 4줄로 늘어서며, 4줄로 늘어선 후 상쇠를 기준으로 좌2, 우2, 전2, 후2 걸음을 옮기면서 연주한다.

좌우치기라는 용어는 강릉농악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쇠잡이의 발림춤이나 장구잡이의 설장구 춤사위를 이른다. 쇠잡이의 발림춤은 오른손을 오른쪽 옆으로 벌렸다 다시 왼쪽 옆으로 가져가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이고, 장구잡이의 춤사위는 장구를 위로 올려 좌우로 흔드는 동작을 연행하는 것이다.

구분	1	2	3	2	2	3	3	2	3	4	2	3
상쇠(괘과리)	갠			갠		개	갠		꺄라	갠		개
	갠			개	개	개	갠		꺄라	갠		개
징	징											
	징											
장고	덩			덩		따	궁		따	궁		
	덩			덩		따	궁		따	궁		
북	덩			덩		더	덩		더	덩		
	덩			덩		더	덩		더	덩		
벽구	밧			위			밧			위		
	밧			위			밧			위		

(6) 춤장단

다른 지방의 굿거리와 해당되며, 꽃나부장단을 매우 느리게 치는 것이다. 느린 춤을 출 때 쓰이며, 길굿으로는 쓰이지 않는다.

춤장단은 청주농악의 굿거리 장단인데, 1970년대 중반까지는 판제(진법) 연행과정 및 두레·지신밧기·신명풀이(뒧풀이)등에 연주되었으나, 1980년대 초반에 들어서서 청주농악의 판제(진법)가 정형화됨에 따라 현재는 거의 연주되지 않고 있다.

①각 악기 기본 장단

구분	1	2	3	2	2	3	3	2	3	4	2	3	
괘과리	갠		개	갠	개	개	개	갠	개	개	갠	갠	
	갠	개	개	개	갠	개	개	갠	개	개	갠	갠	
	갠		갠	△	갠	갠	갠	갠	개	개	갠	갠	
	개	갠 ^꺄	개	갠	갠 ^꺄	개	갠	개	갠 ^꺄	개	갠	갠	
징	징		따	따									
	징												
장고	덩			궁	따	따	따	궁	따	따	따	궁	따
	덩	따	따	따	덩	따	따	덩	따	따	따	궁	따
북	덩		더	덩			더	덩		더	덩	덩	
	덩		더	덩			더	덩		더	덩	덩	

②상쇠 장단

상쇠의 춤장단은 잔가락이 발달하였다.

구분	1	2	3	2	2	3	3	2	3	4	2	3
상쇠	꺽	꺽라	꺽	꺽	꺽라	꺽꺽	꺽	꺽	꺽라	꺽	꺽	
	꺽	꺽라	꺽꺽	꺽	꺽라	꺽꺽	꺽	꺽라	꺽꺽	꺽	꺽	
	꺽	꺽라	꺽	△꺽라	꺽	꺽	꺽	꺽라	꺽꺽	꺽	꺽	
	꺽라	꺽	꺽	꺽라	꺽	꺽라	꺽	꺽라	꺽	꺽라	꺽	꺽
	꺽라	꺽	꺽	꺽라	꺽	꺽라	꺽	꺽	꺽라	꺽	꺽	꺽
	꺽	꺽	꺽	꺽	꺽	꺽	꺽	꺽	꺽	꺽	꺽	꺽

*. '꺽' 그리고 '꺽라'의 타법으로 연주하여 팽과리 음을 강·약의 조화를 살려 연주한다.

(7) 들풍장·날풍장·장풍장

들풍장은 들로 들어가며 치는 장단으로 청주농악에서는 질곤애비(칠채)를 연주한다. 날풍장은 들에서 나오며 연주하는 장단으로 춤장단(굿거리)을 일컫는다. 장풍장은 두레패들이 짐을 매면서 치는 쇠가락으로 꽃나부장단과 같다.

(8) 짹짹이

구분	1	2	3	2	2	3	3	2	3	4	2	3
팽과리	꺽		꺽라	꺽		꺽라	꺽		꺽라	꺽		꺽
	꺽			꺽		꺽	△		꺽라	꺽		꺽
	△		꺽	꺽		꺽	△		꺽라	꺽		꺽
징	징			징			징					
	징			징			징					
	징			징			징					
장고	뎡		따	뎡		따	뎡		따	궁	따	
	뎡			따		따	궁	궁	따	궁	따	
	뎡			따		따	궁	궁	따	궁	따	
북	뎡		더	뎡		더	뎡		뎡	△	뎡	
	뎡			뎡			뎡		뎡	△	뎡	
	더	뎡		뎡		더	뎡		뎡	△	뎡	

찍찍이 장단은 꽃나부장단(자진모리) 3장단이 하나의 토리로 형성되어 있으며, 팽과리 장단의 엇박이 특징적이다. 타 지역(경기·충청 웃다리농악)의 찍찍이 장단과 상이하다. 빠르기는 꽃나부장단(자진모리) 정도이다.

(9) 이채·삼채

이채는 두마치(휘모리)장단이며, 1960년대에 타 지역 농악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삼채는 꽃나부장단을 이르며, 근래들어 사용되고 있다.

(10) 칠채

길군악 칠채는 행진에 쓰이는 3분박과 2분박의 매우 까다로운 혼합박자로 질곤애비장단이라고도 한다. 경기농악에서 흔히 보이는 이 가락은 충청북도에서는 중부 이북에서만 쳤다.

1950년대 후반 남사당 풍물 및 타 지역 농악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구분	1	2	3	2	2	3	3	2	3	4	2	3
팽과리	갠		그라	갠		그라	갠		그라	갠		갠
	갠			딱		갠	△		그라	갠		갠
	△		개	갠		갠	△		그라	갠		갠
징	징			징			징					
	징			징			징					
	징			징			징					
장고	덩		따	덩		따	덩		따	궁	따	
	덩			따		따	궁	궁	따	궁	따	
	덩			따		따	궁	궁	따	궁	따	
북	덩		더	덩		더	덩		덩	△	덩	
	덩			덩			덩		덩	△	덩	
	더	덩		덩		더	덩		덩	△	덩	

(11) 다드래기(자드래기)

자진가락 장단을 가리키며, 매우 빠르게 몰아가는 장단이다. 자진모리형이나 단모리형 리듬으로 되어있다. 꽃나부장단을 몰아서 빨리치는 가락을 모두 다드래기라고 한다. 실재는 여러 가지 변주 가락이 있다. 다드래기는 벽구놀이와 상모놀이, 혹은 굿이 끝날 때 속도를 빠르게 하여 휘몰아가며 치는 가락이다. 경상도 농악의 장단이며, 1950년대 후반 남사당 풍물 및 타 지역 농악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12) 행진가락

판제(진법)가 다 끝난 후 퇴장을 할 때 연주하는 장단으로 1960년대 이후 사용되고 있다. 젓가락장단 또는 판따라 장단이라고도 하는 이 장단은 서양음악의 행진곡과 리듬이 동일하다. 근래 젊은이들이 행진하면서 많이 친다.

(13) 인사장단

인사장단은 굿거리 빠르기 정도이며, 인사를 할 때 연주된다.

굿거리 한 장단의 길이인 인사장단을 연주 한 후 마지막 갠·징·덩·덩에 인사를 하며, 때론 연타(連打)하면서 인사하기도 한다.

구분	1	2	3	2	2	3	3	2	3	4	2	3
팽과리	갠	갠		갠	갠		개개	갠	개	갠		개개
	갠											
징	징			징			징			징		
	징											
장고	덩	덩		덩	덩		더더	덩	더	덩		더덩
	덩											
북	덩	덩		덩	덩		더더	덩	더	덩		더덩
	덩											

4) 태평소 가락

청주농악의 태평소 가락은 중원지역의 전형적인 메나리조로 연주되며, 꽃나부장단, 자진가락의 선율은 유사한 가락으로 반복 연주된다. 두마치 또한 장단의 빠르기에 의해 차이는 있으나 꽃나부장단의 태평소 가락 중 상청의 가락을 집중하여 연주한다. 태평소 가락은 청주농악의 최삼룡, 구한조에게 사사 받은 전봉근의 중원메나리 가락을 채보하였다.

(1) 꽃나부장단, 자진가락



(2) 두마치



(3) 춤장단

Musical score for '춤장단' (Dance Jangdan). It consists of four staves of music in a 6/8 time signature, featuring a melodic line and a rhythmic accompaniment line.

(4) 질곤애비(칠채)

Musical score for '질곤애비(칠채)' (Jilgon Aebi (Chilchae)). It consists of five systems of music, each with a treble clef staff and a bass clef staff. The score is in a 12/8 time signature and features a melodic line and a rhythmic accompaniment line.



5) 청주농악의 판제(진법) 순서

청주농악의 구성은 농악대원들이 열을 지어 이리저리 움직이는 진풀이가 있고, 농악의 꽃이라 불리는 벅구놀이(벅구놀이)가 있다. 그밖에 물구나무서기·땅재주·잡색기춤·개인놀이·판굿이 있다. 이외에 고사리쪼기·갈림벅구도 있었다.

청주농악의 연행 순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올림채

올림채는 판제(진법)가 시작되기 전에 3줄 또는 자유 대형으로 서서 농악대원들이 서로 장단과 동작의 호흡을 맞추고 신명을 부르기 위하여, 또한 농악의 시작을 알리기 위하여 연주한다. 가락은 ‘갱갱개개갱’하고 1점씩 치다 점점 빨리 몰아가는 쇠가락으로 ‘굿을 낸다’ 또는 ‘굿을 이룬다’고 말한다. 상쇠 신호가락에 따라 농악수들이 모여 신나게 몰아치는 ‘굿’이다. 장단은 연타로 두드린 한 후 두마치 장단을 연주하며, 연주장단 횟수는 상쇠의 임의대로 결정되며, 4배수 단위로 연주된다.

(2) 입장

농악 관련 대회나 공식적인 공연 행사에 맞춘 형식의 판제이다.

농악 판제(진법)를 연행하기 위해 공연장 또는 마당으로 입장한다.

진행순서는 영기 2개가 선두에 가며, 뒤를 이어 농기·농악대 기·태평소·

상쇠 순으로 입장한다. 상쇠 뒤의 농악 구성원은 금속성 악기인 쟁과리, 징 순의 종(縱) 1열이 자리하며, 중앙열의 왼쪽으로 장고, 중앙열의 오른쪽으로 벽구가 자리하고, 북은 징 후미와 장고 후미에 상북은 장고열, 북2는 쟁과리열, 북3은 장고열, 북4는 쟁과리열로 자리하여 입장한다.

(3) 본부석 인사

본부석의 귀빈이나 대회의 심사위원에 대한 예우이며, 1958년 이후 생겨난 판제로 3줄 횡으로 서서 꽃나부장단과 자진가락 뒤 인사장단을 연주하며 인사한다.

(4) 내빈인사

관객 및 기타의 관람 인사에게 대한 예우로 1개의 큰 원을 만들어 인사장단을 연주하며 인사한다.

(5) 태극놀이

태극놀이의 대략적 진행은 쟁과리·징·장고·북은 바깥의 원을 만들고, 원 안에서 상쇠가 벽구를 이끌어 <ㄷ> 모양으로 도열하게 하여 태극 문양을 만든다. 이후 상쇠의 맺음장단에 농악대원들이과 잡색이 일제히 앉은 후 상쇠가 “태극기”라는 구호를 외치면 나머지 농악대원들이 동시에 “태극기”라고 따라 구호한다.

태극진은 1960년대 초 청주농악 판제에서 글씨놀이를 시작되었다.

(6) 명석말이(칠채 오방감기)

명석을 둘둘 말할 때 나타나는 나선형 문양의 모양처럼 말았다 풀었다 하는 판제(진법)를 연행한다하여 명석말이라고 하며, 방울진, 되풀이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질곤애비(칠채)를 연주하며, 상쇠를 선두로 1줄을 지어

동·서·남·북·중앙의 순으로 또는 동·남·서·북·중앙의 순으로 멍석말이를 한다. 자진모리에서 칠채로 장단이 바뀌면서 큰 원을 그리면 꽃나부장단에 맞추어 원형으로 좁혀 들어간다. 빠른 2채 가락에서 사뿐사뿐 뛰는 걸음으로 하여 다 좁혀지면 1채 가락 양상벽구로 쇠를 멈춘다. 중심에 이른 상쇠는 반대로 나선형으로 풀어가며 짝쇠가락을 치면서 원진을 한다. 이 멍석말이는 전부터 연행되는 청주의 전통농악놀이이다.

(7) 꽃봉우리

꽃의 모양과 같은 판제(진법)라하여 꽃봉우리라 한다. 팽과리·징·장고·북의 사물이 바깥의 원을 그리며 돌고, 그 원안에 벽구잡이들이 원을 만들어 양상을 돌리고, 정중앙에서는 상쇠가 개인놀음을 한다. 충청·경기 농악에서는 내(內)돌림벽구라고 한다. 강원도와 경상도 동해안 지역의 농악에서는 소고잡이가 추는 채상모소고춤의 춤사위를 꽃봉오리라고 한다.

(8) 벽구놀이

자진 삼채장단에서 다시 꽃나부 가락으로 바뀌면 원진(圓陣)을 하다가 상쇠지휘에 따라 사물잡이는 오른쪽으로 돌아 2열 종대로 열을 맞추고 벽구잡이는 왼쪽으로 돌아 1열 종대로 열을 갖춘다. 상쇠의 신호에 따라 악기수들과 서로 마주본다. 벽구잡이는 상모를 돌리면서 전진과 후퇴를 한다. 그 다음에 쇠가락이 멈추고 상모들은 제자리에 서서 신나게 상모를 돌린다.

또는 둥굴배기 대형에서 상쇠가 벽구패를 중앙으로 달고 나와 벽구놀이를 시킨다. 옛날 마을농악의 벽구잡이의 수가 많지 않아 지금처럼 두줄벌림으로 대형을 바꾸어 놀지 않았다고 한다.

따버꾸놀이는 개인놀이로 상쇠가 판, 즉 지정한 특정 벽구잡이의 놀이의 말한다.

돌림버꾸도 전체놀이로 둥굴배기 대형에서 벽구패만 중앙으로 들어가 원

형으로 뱅글뱅글 돌면서 노는 벽구패 갈림놀이이다. 이 돌림버꾸는 1960년대 초 판제에 편성되어 연희하였으나 그 후에는 이 놀이를 변형시킨 ‘꽃봉오리’가 연행되고 있다.

(9) 삼성(三城)놀이

세 개의 원(삼통백이)을 만든다고 하여 삼성(三城)이라 한다. 동글배기 대형에서 팽과리와 징으로 구성된 금속성 악기가 중앙에서 제1원을 만들고, 장고·북으로 구성된 가죽악기가 중앙의 우측에서 제2원을 만들며, 벽구(소고 상모)가 중앙의 좌측에서 제3원을 만드는 판제(진법)이다.

(10) 십(十)자걸이

사물(팽과리·징·장고·북)악기가 상쇠를 선두로 1열 종대로 늘어서고 끝징과 상장고 사이에 횡으로 벽구가 늘어서서 십(十)자의 형태를 만드는 판제(진법)이다.

(11) 사성(四城)

팽과리·징으로 구성된 금속성 악기가 중앙 앞쪽에서 제1원을 만들고, 장고·북으로 구성된 가죽악기가 중앙의 뒤쪽에서 제2원을 만들며, 상벽구에서 정 중앙 바로 앞 벽구까지의 구성원이 중앙의 좌측에서 제3원을 만들고, 정 중앙 벽구에서 꼬리벽구까지가 중앙의 우측에서 제4의 원을 만드는 판제(진법)이다.

(12) 새조시

청주농악의 기능인들에 의하면 새의 걸음처럼 사뿐사뿐 걷는다고 하여 새조시라 하는데 정확하지 않다. 새조시에서의 “새”는 사이(interval)를 이르는 순 우리말이며, 조시(條施)는 거름을 주는 행위를 일컫는다.

(13) 좌우치기

새조시 판제(진법) 후 4줄로 줄지어 서서 좌·우·후·전으로 순서대로 두 걸음을 디디며 연행하는 판제(진법)이다.

이 둥굴배기 좌우치기는 1960년대 청주농악에서 연희하였으나 그 후에 연희되지 않다가 1980년대에 둥굴배기 좌우치기를 네줄배기 좌우치기로 변형하여 지금까지 연희하고 있다.

(14) 열 두발 상모놀음

좌우치기 판제 이후 전체 농악대원들이 큰 한 개의 원을 형성하면 그 원의 중앙에 열두발 상모를 쓴 벽구잡이가 들어가 연희한다. 열두발 상모놀음은 전에는 채상놀이곳에 포함되어 연행되기도 하였다. 상모놀음은 앉아서 돌리기·누워서 돌리기·도랑건너기·거북이걸음·토끼뽀 등이 있다.

(15) 갈지자 대형

칠채를 연주하며 상쇠를 선두로 1열로 전진하며 갈지(之)자 형태를 그리며 판제 한다. 갈지자 장단으로 바뀌면서 다시 원진으로 돌다가 상쇠중심으로 지자(之字) 모양의 대형을 만든다.

(16) 오방감기

오방감기는 전체놀이로 오방(五方) 즉 동·서·남·북·중으로 옮겨가며 원을 만들었다가 푸는 ‘이동오방진(移動五方陣)풀이’로 일명 ‘오방진쌓기’라고도 한다.

이 오방놀이는 1960년대 판제에는 편성되었으나 그 후에는 연희되지 않다가 1990년대부터 오방이 아닌 삼방(三方), 즉 세 곳에서만 나선형을 감으면서 이를 ‘명석말이’라 이름하고 있다.

(17) 쓰레질

쓰레질은 전체놀이로 ‘가새치기’의 별칭이다. 가새치기의 ‘가새’는 ‘가위’의 사투리인데 가위를 한자로 ‘교도(交刀)’라 하듯 가위날과 손잡이가 엇갈려 있어 교차를 의미하기 때문에 가새치기는 교차놀이의 비유어이다.

이 놀이는 오랜 연습과 훈련에도 불구하고 교차할 때 서로 부딪치고 특히 쇠잡이와 벽구잡이의 돌채가 엉키는 경우가 많아 1960년대 초기에 한두 번 연희하다가 중단된 놀이인데 1980년대 중반에 ‘쓰레질’이란 이름으로 다시 연희하다가 1990년대 중반부터 연행되지 않고 있다.

(18) 고사리썬기

고사리썬기는 전체놀이이지만 현재는 거의 연행되지 않는다. 둥굴배기 대형에서 상쇠가 썬이들을 제자리에 세운 다음, 상쇠 혼자 중앙으로 들어가 썬이들을 제자리에 앉게 한다. 그리고 상쇠가 부쇠 앞으로 다가가서 부쇠를 달고 왼쪽으로 가면서 썬이들 사이사이를 한 사람씩 감돌며 지나간다. 이 때 썬이들은 상쇠가 감돌아 나가면 일어나 한 바퀴를 돌고는 꼬리를 물고 따라 간다. 썬이들이 모두가 일어나면 둥굴배기 대형으로 논다.

이 고사리썬기는 청주의 전통농악놀이로 1965년 제6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작품의 판제에 들어가 연희된 바 있으나 그 후에는 연희되지 않다가 2010년부터 연예농악의 판제에 고사리썬기를 넣어 연희하고 있다.

(19) 상쇠놀이

상쇠놀이는 개인놀이로 일명 ‘쇠발림’이라 한다. 둥글배기 대형에서 상쇠가 혼자 또는 부쇠와 함께 중앙에 들어가 쇠놀이를 한다. 농악대 전원이 반원을 만들고 그 중앙에서 개인놀이가 연행된다. 상쇠는 중앙으로 들어와서 부포놀이·쇠발림·까치걸음·물구나무서기·땅재주 등 여러 가지 기예를 보인다. 장단이 빨라질수록 신명이 고조된다. 상쇠가 쇠발림을 할 때는 부

쇠가 농악대를 지휘한다. 상쇠놀이는 꽃봉우리·벽구놀이·삼성·사성·새조시·좌우치기에서 연행된다.

(20) 장구놀이

장구놀이는 혼자 치는 외장구놀이와 둘이 치는 쌍장구놀이, 그리고 4명이 치는 4장구놀이가 있다. 대형은 다수의 장구잡이가 마주보고 하는 갈림놀이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동글배기 대형에서 상쇠가 장구패를 중앙으로 달고 나와 장구놀이를 시킨다. 옛날 마을농악의 장구잡이는 그 수가 한 두명이기 때문에 대개 2명이 마주보고 치는 '쌍장구놀이'를 많이 했다고 하며 또 지금은 청주농악에서 설장구를 치지 않지만 백중농악에서는 설장구도 쳤다고 한다. 이를 근거로 1989년 제30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한 청주시립농악대의 청주 옷다리농악에서 유시라가 설장구를 친 바 있고, 2000년 제7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한 국악협회농악대의 강서농악에서 설장구를 친 강선자가 개인 장려상을 받은 바 있다.

(21) 북놀이

북놀이는 북패의 갈림놀이이다. 동글배기 대형에서 상쇠가 북패를 중앙으로 달고 나와 북놀이를 시킨다. 그리고 놀이를 마치면 북패 스스로 제자리로 돌아간다.

6) 편성악기

청주농악은 구성원 수는 때에 따라 조금씩의 차이가 있으나 대회의 출전과 중요 행사의 구성인원에 기준하여 정리 하였다.

(1) 개요

- ① 팽과리 : 상쇠, 부쇠, 중쇠1, 중쇠2, 종쇠
- ② 징 : 상징, 징2, 중징3, 끝징
- ③ 장 고 : 상장고, 부장고, 중장고3·4·5·6·7, 끝장고
- ④ 북 : 상북, 북2·3·4·5·6·7, 끝북
- ⑤ 법 고 : 상벽구, 벽구2·3·4·5·6·7……, 꼬리벽구
소고를 청주농악에서는 벽구라고 한다. ‘벽구’ 명칭의 유래는 불교의식에 사용되는 벽구(法鼓; 소고, 매구북)가 걸립패에 의해 농악(풍물)에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 ⑥ 포 수 : 총을 들고 사냥한 짐승들을 등에 메고, 잡귀를 내쫓는 역할을 한다.
- ⑦ 양 반 : 도포에 샷갓이나 관을 쓰고 부채를 들며 수염을 단다.
- ⑧ 각 시 : 치마·저고리에 머리에는 흰 수건을 두른다.
- ⑨ 중 : 스님 복장에 목탁의 들고 염주와 시주 가방을 멘다.
- ⑩ 쇠 낱 : 태평소를 일컫는다.
- ⑪ 영 기 : 영기는 약 9자 정도가 되는 긴 대나무에 낫쇠로 된 삼지창을 깃대의 끝에 단다. 깃 폭은 약 2자 반에서 3자 정도이다. 깃발의 모양은 3각형이고 바탕색은 남색과 홍색바탕이다. 그리고 중앙에 노랑색으로 ‘영(令)’자를 쓴다. 깃 폭의 둘레에는 붉은색과 초록색 천으로 지네발 5개씩을 단다.
- ⑫ 농 기 : 농기는 농악대를 상징하는 깃발이다. 청주 두레패 농기의 깃대 길이는 약 20여자 정도가 되는 긴 대나무 끝에 꿩꼬리 깃털로 장식하여 깃봉을 만든다. 깃발의 폭은 약 2자, 길이는 약 8자 정도이고 무명천으로 되어있다. 흰 바탕에 검은 색으로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또는 신농유업(神農遺業)이라는 글씨를 쓰고 있다. 깃발의 세로 변에는 12개의 검

정(또는 남색) 지내발을 달고, 가로변 밑에는 5개의 검정색 (또는 남색) 지내발을 단다.

〈청주농악의 편성악기와 인원수〉

구분	인원수	명칭
팽과리	5	상쇠, 부쇠, 중쇠1, 중쇠2, 끝쇠
징	4	상징, 중징1, 중징2, 끝징
장고	8~10	상장고, 부장고, 중장고3·4·5·6·7· · · 끝장고
북	8~10	상북, 중북2·3·4·5·6·7· · · 끝북
벽구	8~14	상벽구, 벽구2·3·4·5·6·7· · · · · , 꼬리벽구
기수	4~6	영기(2명), 농기(1명), 명칭기(1명), 기타(1~2명)
잡색	4	포수, 양반, 중, 각시(가장녀), 도령 등
쇠납	1	태평소
계	42~54	

7) 의상(복색)

청주농악대에서는 농악대원들의 농악복을 군복이라고 불렀으나 최근에는 농악단복이라고 한다. 무명바지와 저고리로 소매폭은 좁고 옷깃은 길며 깃을 밀어 띠로 매게 되어 있었으나 요즘은 앞에 단추를 달아서 매고 있다. 바지는 다리에 행전을 착용하고 대님을 매고 짚신을 신는다. 형겅으로 된 황색띠과 적색띠를 합하여 어깨에 두르는데 오른쪽으로부터 왼쪽방향으로 맨다. 이것을 청색띠로 허리에 매면서 고정시킨다.

(1) 각 잼이 의상

- ① 영기수 : 흰색 바지저고리에 먹장삼을 입고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르고,

패랭이를 쓴다. 상의에 색띠를 두르지 않는다.

- ② 농기수 : 농기를 든 사람은 두레패와 같이 바지저고리에 흰 수건을 쓴다.
- ③ 호적수 : 호적을 연주하는 사람은 두루마기를 입고 갓을 쓴다.
- ④ 상 쇠 : 상쇠는 농악복에 상모를 쓴다.
- ⑤ 징 수(鉦手) : 농악복에 머리에는 고깔을 쓰지만 상모를 쓰기도 한다.
- ⑥ 부징수(副鉦手) : 상쇠와 같이 농악복을 입고 부포 깃을 단 상모를 쓴다.
- ⑦ 장고수 : 농악복에 머리에는 고깔을 쓰는 것이 원칙이나 상모를 쓰기도 한다.
- ⑧ 대고수 : 농악복에 머리에는 고깔을 쓰는 것이 원칙이나 상모를 쓰기도 한다.
- ⑨ 벽구수 : 농악복에 색띠를 매고 돌모고니 끝에 긴 부전지를 달고 돌모를 쓴다.
- ⑩ 양 반 : 도포를 입고 정자관을 쓴다. 담뱃대를 들고 미투리를 신는다.
- ⑪ 도 령 : 무명 바지저고리를 입고 패랭이를 쓴다.
- ⑫ 가장녀 : 붉은 치마와 노랑저고리를 입는다. 흰 수건을 쓰고 손에는 수건을 든다.
- ⑬ 대포수 : 포수복 차림에 털모자를 쓰고, 총을 메고 핑이 달린 망태기를 멘다.
- ⑭ 무 동 : 무동은 꽃나부라고도 하며 장삼을 입고 고깔을 쓴다.

청주농악의 의상은 해방 이후 여러 차례 변화가 있었다. 농악대원들의 변화된 의상을 시대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1950년대 이전

구분	형식(형태)		색상
바지·저고리	무명 바지 · 저고리		흰색 또는 누런색
래저(더그레)	없는 경우가 많음		없음
삼색띠	X자로 맨다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골반으로	파랑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골반으로	빨강
		허리에 두른다.	노랑
고깔(상모)	두레풍장에서는 착용하지 않으며, 걸립 또는 풍장을 할 때 흰 고깔을 사용함. 벽구잡이들은 30~50cm 초리를 달고 돌렸다.		
신발	짚신을 착용함.		

(3) 1950년대 중반 ~ 1960년대 후반

1958년부터 시작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충청북도 대표로 1969년까지 연속 10회 출전하며 의상(복색) 및 소품 그리고 판제의 체계가 전문 연희 농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구분	형식(형태)		색상
바지·저고리	무명 또는 나일론 소재의 바지 · 저고리		백색
래저(더그레)	남색, 하늘색, 검정색 등을 사용		없음
삼색띠	한쪽 어깨에 두겹매기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골반으로	청색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골반으로	황색
		허리에 두른다.	적색
고깔(상모)	초기 경연대회에서는 흰 고깔을 착용하였으나 후에 좌·우에는 흰색, 앞쪽은 적색, 중앙·위쪽은 황색, 뒤쪽은 청색을 달았다. 남사당 전문 예인의 영향으로 전 농악대원들이 상모를 착용하기도 하였다. 벽구의 상모의 초리 길이가 이 시기에 길어 졌다.		백색 또는 4색 (청·적·황·백)
신발	운동화 착용		백색

(4) 1960년대 후반 ~ 1980년대 중반

1968년 5월 한국국악협회 충북지부가 결성되어 1970년대 들어 향토민속 놀이인 정월의 망월제, 5월 단오제, 10월에 풍년제 등 각종 행사가 청주농악이 주축이 되어 진행 되었다. 또한 1970년대 후반부터 청주KBS 한국방송공사에서 충북농악제가 1980년 중반 이후까지 열려 농악의 부흥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구분	형식(형태)		색상
바지저고리	나일론 소재의 바지 · 저고리		백색 또는 분홍
괘재(더그레)	남색, 하늘색, 검정색, 자주색		없음
삼색띠	한쪽어깨 두겹매기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골반으로	청색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골반으로	황색
		허리에 두른다.	적색
고깔(상모)	경연대회에는 농악대 전체가 상모를 착용하고, 일반 행사에는 고깔을 착용한다. 뽕과리는 항상 상모를 착용한다.		백색 또는 4색 (청 · 적 · 황 · 백)
신발	운동화 착용		백색

(5) 1980년대 중반 ~ 1990년대 후반

청주농악은 충북 국악협회 구성의 청주농악대 명칭으로 활동하던 중 1987년 청주시립농악대가 창설되어 충북 국악협회 농악대와 청주시립농악단으로 활동함에 따라 청주농악은 전문적인 연희농악으로 발전되었다.

의상(복색)의 디자인이 간편하게 실용화되고 색상이 화려하게 변하였다.

구분	형식(형태)		색상
바지저고리	나일론 소재		백색 또는 분홍
괘재(더그레)	남색, 하늘색, 검정색, 자주색 등으로 제작		없음
삼색띠	한쪽어깨 3겹 박음질 어깨매기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골반으로 내려 착용한다.	적 색 청 색 황 색
		적 · 청 · 황색 순으로 각각의 색천을 약3~4cm 넓이로 박음질하여 제작한다.	
		허리에 두른다.	청색

고깔(상모)	팽 과 리 : 상모(중이부포) 징 · 장고 · 북 : 고깔 법 고 : 상모(긴 채상) 기 수 : 전립	백색 또는 4색 (청 · 적 · 황 · 백)
신발	운동화 착용	백색

8) 구성원

(1) 기능보유자

- 성 명 : 이종환(李鍾煥, 1924년생)
- 기 능 : 상쇠(上鉞) 기능보유자
- 지정년도 : 1992년 10월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
- 주 소 : 청주시(淸州市) 강서(江西)1동 지동(池東) 169-5

① 농악경력

- 1937 -1940 김창환(金昌煥)으로부터 쇠를 전수(傳受)
- 1940 -1949 송순갑(宋淳甲)으로부터 쇠발림, 부포놀이 전수(傳受)
- 1946 以後 지동리(池東里) 농악대(農樂隊)에서 활동(活動)
- 1958 以後 강서 농악대에서 활동
- 1968 以後 충청북도 청원(淸原) 농악대에서 활동
- 1983 以後 충청북도 청주농악대에서 활동
- 1987 以後 청주시립농악대에서 활동
- 1958 以後 청주 농악대의 상쇠가 된 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등 여러 대회에서 단체상과 개인 연기상 등 수상.

(2) 전수교육조교

기능보유자 이중환의 추천으로 충청북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선정되었다.
2010년까지 선정된 전수교육조교는 6명으로 다음과 같다.

9) 역대 경연대회에 출전한 농악대 현황

(1) 판제·장단 및 악기구성

① 1989년 제30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판제 : 명석말이·갈림벽구·벽구놀이·상쇠놀이·장구놀이

장단 : 길군악·꽃나부장단·다드래기·춤장단·신식행진가락·장풍장

② 1994년 제35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판제(진법) : 본부석인사(삼채, 자드래기) → 내빈인사(삼채, 자드래기)

→ 태극기형(삼채, 자드래기) → 명석말이(칠채, 휘모리, 짝

쇠) → 꽃봉우리(삼채, 자드래기) → 벽구놀이(삼채, 자드래

기) → 삼성(삼채, 자드래기) → 십자(삼채, 자드래기) → 사

성(삼채, 자드래기) → 새조시(삼채, 자드래기, 휘모리) →

채상(삼채, 자드래기) → 갈지자(삼채, 자드래기, 휘모리)

악 기 : 팽과리4·징4·장고8·북8·소고12·돌모12·태평소2·패랭이모

자3·갓3·건1·도포4·복주머니(검은색)5·대감건1·지동기1·농

기1·영기2

③ 2006년 제13회 충북민속예술축제

판제(진법) : 인사굿·태극기굿·칠채명석놀이·꽃봉우리·법구놀이·삼성놀

이·십자놀이·사성놀이·새조시·좌우치기·갈지자굿·채상놀

이·퇴장

(2) 출연자 명단

- ① 1994년 제35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 지 도 : 박용환
농악기 : 윤씨만
농 기 : 강부원
영 기 : 신명선 이기복
호적수 : 전봉근 김준일
대포수 : 우광홍
선 비 : 강선자
가장녀 : 김복주
푸 로 : 김영찬
상 쇠 : 이종환
부 쇠 : 류승백
중 쇠 : 박창원 정환철
끝 쇠 : 전봉근
수 징 : 김대관
부 징 : 김영희
중 징 : 전대성
끝 징 : 조일용
수장고 : 유석향
부장고 : 정복철
중장고 : 김을선 이용신 이종국 김재훈 김동현
끝장고 : 강창규
수 북 : 김영준
부 북 : 한인식
중 북 : 공상원 정찬일 신원철 이상호 홍종현

끝 북 : 박용주

상법고 : 방대원

부법고 : 홍복용

중법고 : 김희식 변주섭 김동화 정기홍 김만기 김윤수 임순배 허남실 이
홍대

끝법고 : 윤석균

② 1994년 제1회 충북농악경연대회 출연자명단

지부장 : 박용환

상 쇠 : 이종환

부 쇠 : 유승백 박창원 정환철

상 징 : 김대관

중 징 : 김영희 전대성 이상호

상장고 : 이종국

증장고 : 우수례 김을선 김종춘 김경흠 심광자 강선자 정찬일 최병술

상 북 : 김영준

중 북 : 김영찬 한인식 우광홍 고상원 신원철

상법고 : 방대원 홍복용 김희식 변주섭 김동화 변중익 정기홍 김만기 김
윤수

끝법고 : 윤석균

농 기 : 강부원

영 기 : 박용주

오방기 : 김진해 강창규 홍종헌 박은규

태평소 : 박창래

징 : 이기복

③ 1999년 제6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상쇠 / 조진국

송성빈 전인근 박상인 임대원 김보년 이상호 안일삼 김행덕 정은면 연정식
조성기 오도진 윤종근 임재원 강태경 남성혁 최 준 이정필 이우성 김형선
윤상훈 김동민 김경식 배혜국 노희열 이찬호 전병문 최영호 이태준 윤석준
조성기 조만범 이상훈 박종태 김병규 황보미 이청림 이보미 홍숙자 이인경
이은정 송경미 서은옥 최광선 윤혜경 이명효 김기철 윤태성 안주훈

9 청원 농악

1994년 제1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호미씻기놀이'로 대상을 수상하였고, 1995년 제2회 대회에서 '풍년농악'으로 우수상, 1998년 제5회 대회에서 '웃다리농악'으로 장려상, 1999년 제6회 대회에서 '두레농악'으로 우수상, 2000년 제7회 대회에서 '두레농악'으로 감투상, 2003년 제19회 대회에서 '전통농악'으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1998년 제5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장고 박종모가 개인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1) 개 설

청원 두레농악은 마을에서 공동으로 농사일을 하면서 치던 농악으로 일명 '두레풍장' 또는 '두레풍물'이라고도 한다. 이 지역의 농악은 청주시 강서동 지동 마을에서 발생하여 청주 청원지방에 전승되어 오는 농악으로 청주농악과 유사한 점이 많다.

본래는 정월에 풍년을 기원하는 동제의 뒷풀이로 행하던 탐돌이나 지신밟기의 행악으로, 또는 들로 일하러 갈 때나 마을로 돌아올 때 행악으로 치는 농악이다.

농악의 편성은 농기와 팽과리·징·장고·북·소고·잡색 등으로 구성되며, 가락은 기교나 세련미가 적은 소위 '논두렁 가락'을 치며, 놀이도 소박한 춤사위나 단순한 동작을 보여준다. 복장은 농복을 그대로 착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옛날 청원지역의 농악이 대체로 이와 같은 두레농악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나 현재는 농촌마을에서 공동 작업으로 행하던 두레가 없어지면서 두



청원 전통농악

레농악도 사라져가고 있다.

청원 농악은 기수(농자대본기·용당기·영기·오방기수), 긴나발, 상쇠, 쇠납·부쇠, 종쇠, 징, 장구, 북, 소고, 열두발상모, 산나비, 중꽃나부, 양반, 각시, 포수로 편성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편성은 다분히 유동적이다.

농악대의 복장은 원래 농민들의 평상복인 바지 저고리였으나 경연대회가 열리면서부터 농악복이 생겼다고 한다.

기본적인 복장은 청색이나 검정색 조끼를 입는다. 일반적으로 상쇠는 상모나 색주, 조끼 등으로 일반 사물의 복색과 구별되게 장식하지만 이 지역에서는 차이가 없다. 사물은 전립 복상을 쓰고 소고는 전립 채상을 쓴다. 중꽃나부는 흰 장삼을 입고 꽃이 없는 고깔을 쓴다. 피조리(무동)는 노란 저고리, 빨간 치마에 청색 쾌자를 걸치고 흰 수건을 착용한다.

1997년 제3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와 함께 개최된 제4회 청소년 민속예술경연대회에는 청원강내풍물이 출품되었다. 발굴 및 연출과 고증한 명단은 다음과 같다.

발굴 및 연출 : 조진국

고 증 : 이중환(충청북도무형문화재 제1호, 76세)

임광식(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 교사, 52세)

김덕수(사물놀이 연주자, 45세)

신상철(1960년대 청원강내풍물대장, 79세)

신원철(현지주민, 76세)

송순갑(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호, 83세)

청원강내풍물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경기·충청 옷다리 풍물의 특징은 벽구잡이들의 상모 돌리는 윗상질이 발달되어 있고, 쇠가락의 부드러움과 북잡이들의 특유한 덩더궁이 가락과 판제의 군사적 형태와 농자놀이의 가미가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청원 강내풍물의 특징 또한 위의 모든 것을 지녔으며, 특이할만한 것은 벽구잡이들이 뒤통수 뒤에 상모를 착용하는 점이다. 판제에서는 농사풀이의 형태가 특징적으로 나타나며, 군사적인 형태의 놀이가 뚜렷하다.

청원 강내풍물의 판제 종류는 다음과 같다.

- ① 인 사 굿 : 질곤애비(칠채 또는 굿거리)를 치며 경연장으로 입장하여 동그란 원을 그린 후 관중을 향해 인사한다.
- ② 내돌림벽구 : 자진가락을 치며 벽구잡이가 안의 원을 만들고, 사물의 잡이들이 바깥의 원을 그린 후 두마치(휘몰이)가락으로 넘긴다. 빠른 양사와 허튼상·옆사위를 뛰며 돈다.
- ③ 쌍줄백이 : 농사풀이라고도 한다. 사물잡이들은 왼쪽에 늘어서고, 벽구잡이들은 오른쪽에 서서 서로 마주보며, 이 때 상쇠의 신호에 의해 벽구잡이들이 농사풀이를 연행한다. 곧나비장단을 친다.
- ④ 오방감기 : 칠채(질곤애비)를 치며 동·서·남·북·중앙의 다섯 방향에 방을 쌓은 후 마지막에 육채을 친 후 두마치(휘몰리)를 치고, 옆사위를 뛰며 돈 후 상쇠의 신호에 의해 뒤를 돌아서 진을 풀어 나온다.

- ⑤ 십자걸이 : 덩더궁이를 치며, 벽구잡이는 횡으로 늘어서고, 사물잡이 들은 종으로 서서 십(十)자 모양을 만든다.
- ⑥ 사통백이 : 십자걸이 후에 4개의 방으로 나누어져 원을 그리며 돈다.
- ⑦ 짹 짹 이 : 짹짹이 장단에 맞추어 네 걸음을 뛰고, 제자리에서 두 장단의 춤을 추는 것을 4번 반복한다.
- ⑧ 굿 거 리 : 춤을 추며 굿거리장단(춤장단)을 친다.
- ⑨ 원 좌우치기 : 원의 형태를 갖춘 상태에서 왼쪽으로 3걸음, 오른쪽으로 3걸음, 앞으로 3걸음, 뒤로 3걸음씩 움직이며, 좌치기 가락을 친다.
- ⑩ 세줄 좌우치기 : 원 좌우치기의 방법을 세 줄로 서서 행한다.
- ⑪ 당산별림 : 쌍줄백이와 동일하다.
- ⑫ 절구대놀이 : 벽구잡이들의 원 좌우치기와 두루걸이를 한 후, 홀수와 짝수로 나누어 번갈아가며 앉고 서기를 반복한다.
- ⑬ 개인놀이 : 개인놀이에는 상쇠놀이·벽구놀이·열두발놀이·무동놀이가 있다.
- ⑭ 외돌림벽구 : 덩더궁이를 치며, 사물이 안 원을 그리고, 벽구가 바깥 원을 그린 후 두마치(휘몰이)를 치며 돈다.
- ⑮ 인 사 굿 : 인사굿을 한 후 퇴장한다.

2) 역대 경연대회에 출전한 농악대 현황

(1) 판제·장단 및 악기구성

① 2003년 제10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판제(진법) : 장미꽃놀이(5분) → 명석놀이(5분) → 범고놀이(5분) → 삼성놀이(2분) → 학놀이(2분) → 상쇠놀이(2분) → 무동놀이(2분) → 열두발

놀이(2분) 총 25분

(2) 출연자 명단

① 1994년 제1회 충북농악경연대회

팽과리 : 서병진 유승백 서용석 서석원

징 : 서병노 서세원 용도차 서인원

북 : 서관석 서정주 서금석 서관석 서종석 서길석

장 구 : 강석본 전태성 서구원 손성수 서정부 이영순

기 수 : 서광석 서운세 서호석

탈 춤 : 서학석

새 납 : 김문업 서정옥 연명화

소 고 : 신주성 서명원 서행원 서인원 서학석 서동일 서정웅 서범원

② 1999년 제6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박종모 장천교 박영순 송성빈 서기원 유재열 이견주 조성천 노희열 유일남

박종헌 한창석 조득준 김용석 성구용 정승모 박상묵 김상권 남기웅 박현규

변대균 오학세 김정호 박은래 정승환 안영관 최현기 박홍순 윤광우 김종복

박연균 변홍균 박중복 홍춘식 김정모 김종숙 김기철 김옥순 남남옥 김동순

한금석 정명자 강점단 김정숙 이순무

10 옥천 농악

1994년 제1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웃다리풍물'로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1995년 제2회 대회에서도 '웃다리풍물'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1997년 제4회 대회에서 '전통농악'으로 감투상을, 1998년 제5회 대회에서 '웃다리농악'으로 감투상, 2001년 제8회 대회에서 '청산풍장'으로 감투상, 2003, 4, 5, 6년 제10, 11, 12, 13회 대회에서 '웃다리농악'으로 인기상과 감투상을 수상하였다.

1) 개 설



옥천 청산풍장

옥천군 군서면은 대전과 충청 금산과의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충청남 및 대전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농악 또한 충청남부 지역의 전통가락과 대전지역의 가락이 조화를 이룬 독특한 가락으로 형성되어 있다.

군서농악회에서 공연하는 웃다리농악은 충청도 어느 지방과 같이 칠채가락에 북을 적게 쓰고 팽과리를 많이 쓰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옥천군 군서지방에서 전래되어 오는 느린 가락과 빠른 가락이 섞여 사용되고 있다.

또한 짝쇠놀이가 발달하여 숫쇠와 암쇠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 가락이 부드럽고 세밀하게 구성·표현되고 있다. 가락의 맛은 단순하며 대체적으로 끈끈하게 늘어나 두마치는 박진감 있게 빠르고 경쾌하다.

특히 무동괘자놀이는 1960년대 전후의 남사당 판제에서 영향을 받았다.

악 기 : 상쇠·부쇠·중쇠·장구·북·징·소고·용기·영기·농기·양반·마님·스님·색시·도령·포수·무등

2) 역대 경연대회에 출전한 농악대 현황

(1) 판제·장단 및 악기구성

① 1994년 제1회 충북농악경연대회

판제(진법) : 고사리썰기 등 16마당으로 연행하였으며, 순서가 바뀌는 경우도 있다.

② 2003년 제10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판제(진법) : 삼채로 입장하여 인사굿 → 외돌림벽구 → 당산벌림 → 칠채오방감기 → 소고절구대놀이 → 무동괘자놀이 → 원좌우치기 → 4열좌우치기 → 짹짹이 → 풍년굿 → 개인놀이(상쇠놀이, 벽구놀이, 무등타기, 12발 상모놀이) → 내벽구놀이 → 인사굿

③ 2004년 제11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판제(진법) : 삼채로 입장하여 인사굿 → 외돌림벽구 → 당산벌림 → 칠채오방감기 → 소고절구대놀이 → 무동괘자놀이 → 원좌우치기 → 4열좌우치기 → 짹짹이 → 풍년굿 → 개인놀이(상쇠

놀이, 벽구놀이, 무등타기, 12발 상모놀이) → 내벽구놀이
→ 인사굿

(2) 출연자 명단

① 1994년 제1회 충북농악경연대회

대표자 : 정옥희

기 수 : 이용분 이금자 신윤수

영 기 : 괄옥자 조영아

상 쇠 : 김옥향

부 쇠 : 남희선 김미자 김광자

수 징 : 황정열

부 징 : 최계선 강대옥 오순자

수장구 : 정옥희 괄 상 성기숙 강완희 홍정자 황경희 육길자 전옥순

수 북 : 박선예

부 북 : 이명자 김영숙 이영숙

상법고 : 염영란

부법고 : 김영숙 정영희 김수자 이순예 이석예 이인숙 오재금 허언연 이
영자 김창수 황옥순

② 2001년 제8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단장 / 김기화

한광순 양갑순 권상호 김대식 이종옥 유정림 여운식 박순식 이준호 김현희
정연옥 김명옥 윤금순 고복순 김대식 황진구 배정숙 전영옥 김순임 이현우
양택수 김영채 최석환 이갑기 박범수 홍준희 박봉옥 최연옥 김영옥 황혜숙
김말자 이연숙 박희연 김선완 신연경 조선희 박영숙 임철수 최기선

③ 2004년 제11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상 쇠 : 하옥수

부 쇠 : 김재성

종 쇠 : 권태열

징 : 이선임 조순희

장 구 : 고연순 박성열 유영미 박희숙 이복순 신복순

북 : 서남이 최월례 장대순 김영숙

소 고 : 채상임 문옥금 금명숙 조종희 김진옥 박향숙

대표기 : 오순자

용 기 : 주경자

농 기 : 신금자

영 기 : 최옥선 유오순

양 반 : 김정희

마 님 : 백정다

스 님 : 이영자

색 시 : 황명자

도 령 : 조정희

포 수 : 최옥자

새 미 : 임진솔 이하영 이은주 박미정 공연아 김지수

무 등 : 공지연 김지연

무등수 : 이영호 김종기

11 보은 농악

1995년 제2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물다리기풍물굿’을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1996년 제3회 대회에서 ‘풍년농악’으로 감투상, 2006년 제13회 대회에서 ‘보은농악’으로 인기상, 2007년 제14회 대회에서 ‘속리산농악’으로 감투상을 수상하였다.

1) 개 설

보은군 보은읍은 예부터 우(牛)시장이 번성하여 주변지역(경북 상주, 충북 영동, 옥천, 대전 등)의 상인 및 농부들이 자주 왕래하여 문화의 교류가 잦았으며, 풍요로운 생활환경 속에서 보은 농악이 증추적 문화공연 형태로 발전해왔다.

보은농악은 농업의 기계화와 농민인구의 감소로 인한 전통 민속농악이 인멸됨에 따라 지역민들이 보은농악보존회를 결성하여 지역 원로들과 함께 보은농악의 원형을 복원·재현하고자 힘쓰고 있다.

질나래비(굿거리)·세마치(자진모리)·자진가락·두마치(휘모리)·질구람 등의 장단이 전승되고 있다. 장단의 구성이 단조로우며 투박한 맛이 특징이다.

연행순서(판제, 진법) : 질나래비의 춤마당 터 울림을 시작으로 인사 → 멍석말이 → 쌍줄백이 → 벽구놀이 → 사방치기 → 사통백이 → 돌림벽구 → 개인놀이 → 멍석말이 → 인사

2) 역대 경연대회에 출전한 농악대 현황

(1) 판제·장단 및 악기구성

① 1996년 제3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판제(진법) : 인사가락·소고놀이·북·장고춤·모내기

② 2006년 제13회 충북민속예술축제

판제(진법) : 질나래비의 춤마당 터 울림을 시작으로 인사 → 명석말이
→ 쌍줄백이 → 벽구놀이 → 사방치기 → 사통백이 → 돌림
벽구 → 개인놀이 → 명석말이 → 인사

장 단 : 질나래비(굿거리)·세마치(자진모리)·자진가락·두마치(휘모리)·질구람

(2) 출연자 명단

① 1994년 제1회 충북농악경연대회

상 쇠 : 김은숙

부 쇠 : 김춘자 김준성

징 : 서정애 안정자

장 고 : 김길자 김용숙 김정환 이달순 김계순 박옥순 김영자 라석순

북 : 안춘선 강영자 김옥순 김언년 이기순 한용자

소 고 : 박기자 김점례 최영복 우영순 김일훈 이일순 김재수 이경분

기 수 : 박복례 이옥순

양 반 : 연용덕

각 시 : 김예용

포 수 : 김영금

태평소 : 한종례

12 영동 농악

1994년 제1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풍년농악’으로 감투상, 1995년 제2회 대회에서 ‘풍년이왔네’로 인기상, 1996년 제3회 대회에서 ‘전통농악’으로 인기상, 1997년 제4회 대회에서 ‘영동농악’으로 인기상, 1998년 제5회 대회에서 ‘창작굿판’으로 감투상, 2001년 제8회 대회에서 ‘심천면농악’이 장려상, 2002년 제9회 대회에서 ‘호미씻기’로 장려상, 2006, 7년 제13, 14회 대회에서 ‘꽃반굿’으로 인기상을 수상하였다.

1994년 제1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새납이 개인 장려상, 1996년 제3회 대회에서 12발상모가 개인 우수상, 2007년 상쇠가 개인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1) 개 설

호미씻기는 머슴날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7월 15일을 전후하여 마을의 형편에 따라 날자를 정하여 술과 음식을 마련하고 산이나 계곡 같은 곳에 모여 노래와 춤으로 하루를 즐겼는데 ‘철렵’이라고도 한다. 이 작품은 농군들이 모여 흥겹게 놀며 즐기던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풍물과 진풀이를 통해 즐거운 한판놀이를 보여준다.

〈관굿(진법의 종류)〉

- ① 입장굿 : 풍물의 시작을 알리는 굿내는 가락과 관 안으로 입장(들어섬)한다.
- ② 삼방울진 : 삼진삼퇴의 형태가 잘 나타난다.
- ③ 사채가락

- ④ 호허굿 : 지배들이 “호호”, “허허”하며 논다.
- ⑤ 가새진 : 지배들이 엇갈려서 또는 빗겨서서 논다.
- ⑥ 을자진 : 지배들의 이동과 진과 진 사이를 지나간다.
- ⑦ 미지기 : 서로 마주서서 밀고(전진), 당기는(후퇴) 행동을 한다.

영동군 추풍령면은 영동군과 김천시의 중앙에 있으며, 우리나라 내륙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행정구역은 충청도이지만 생활권, 문화권은 김천지역의 영향을 많이 받아 김천지방의 풍물굿과 유사한 점이 많다. 추풍령 풍물은 정초와 명절 때 마을에서 풍물패를 만들어 한 해의 풍년을 빌며 마을마다 축원덕담을 많이 하였으며 기금도 마련하여 마을 공동체 기금으로 쓰며 단합된 힘을 과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농사굿의 형태보다 군사굿의 형태가 많이 보인다.

2) 역대 경연대회에 출전한 농악대 현황

(1) 판제·장단 및 악기구성

① 2001년 제8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판제(진법) : 인사굿·돌림벽구·네줄좌우치기·칠채오방감기·끝인사

(2) 출연자 명단

① 1994년 제1회 충북농악경연대회 출연자 명단

상 쇠 : 김광수

쇠 : 지주야 신경난 김용광 서영애

징 : 박경난 김계순 김현수 김옥순

북 : 홍정옥 박점순 김재록 한성택

장 구 : 정경순 박명옥 김영자 이정자 강이분
소 고 : 이금선 장임순 심옥자 장준희
기 : 송재구 고월남
농 기 : 최준식
포 수 : 윤상집
여 인 : 이은경 김길순 김동임 박숙자 이은경
진 사 : 이종화
상 모 : 육용길 안병일 김진용 안치유

② 1999년 제6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상쇠 / 손미애

장윤순 신상순 김정옥 조희순 박수연 박정혜 김청자 설분조 강영정 이순희
박영혜 손해연 김태숙 최정의 박종연 신귀출 유순자 김복실 김종선 권경숙
김순자 이경분 이순자 전미화 이기옥 이명희 배경수 김남돌 손영복 김기성

③ 2001년 제8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김태연 김인순 남순자 김미희 임순자 전영숙 전순옥 임영순 이미자 송미숙
김순호 장복남 김순화 강향자 손명숙 김기숙 박정순 변금선 함순희 이연식
김길임 김순복 광계순 최숙희 임남덕 여운미 문명선 성영숙 김기채 안순단
윤귀인



III

민요 民謠

집필 김 영 진
(전 청주대학교 교수)





탄금대 방아타령



현도 풍물팀이 보여준 청원 물다리기





진천 모심기민요와 덕산 들노래, 농자놀이



영동 설계리 농요



현도 두레농요

1 단양 민요

1) 매바위골 동요

단양 매바위골동요는 1975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16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영동 설계리농요'와 함께 '단양동요'로 처음 출연한 작품이다.

출연 : 단양 대강초등학교 학생

고증 : 권오성(한양대 교수)

구성연출 : 박 진(청주교대 교수)

□ 해 설

단양 매바위골 동요는 권오성이 단양 대강면 용부원리 매바위골에서 김기용과 윤만수의 어린시절 기억을 되살려 채집한 노래로 민속예술축제에 출연한 충북의 전래동요이다.

전래동요는 자연발생적으로 생겨서 구전되는 동안에 어린이들의 마음에 맞도록 다듬어지고 형식적인 틀도 어느 정도 잡히게 된 가요인데 단양 매바위골 동요 찌득이 타령은 집에서 기르는 짐승, 그 중에서도 소의 몸에 붙어 피를 빨아 먹고사는 작은 기생동물(寄生動物) 찌득이를 노래한 것이고 살구대노래는 그 어원이 확실하지 않으나 어린이 둘이 두 손을 맞잡고 틀을 만들어 밀고 당기면서 부르는 유희요이다.



□ 구 성

찢득이타령 : 어린이들이 소를 빙둘러 싸고 손벽을 치며 노래한다.

살구대타령 : 어린이들이 돌 싹 짝을 지어 두 손을 맞잡고 노래한다.

□ 노 래

● 찢득이 타령

노래 : 김규용(남, 1898년생)

찢득아 찢득아 쫓쫓쫓쫓

무얼먹고 살았니 쫓쫓쫓쫓

오뉴월 염천에 쫓쫓쫓쫓
 쇠부랄 밑에 쫓쫓쫓쫓
 대롱대롱 쫓쫓쫓쫓
 달렸다가 쫓쫓쫓쫓
 똑 떨어지니 쫓쫓쫓쫓
 길을 가던 쫓쫓쫓쫓
 행인이 쫓쫓쫓쫓
 질경밧아 쫓쫓쫓쫓
 시키면 피가 쫓쫓쫓쫓
 짚금났네 쫓쫓쫓쫓

전득이 타령

노래 : 김규용
 채보 : 권오성

전득아 전득아 입³술타령 뭘먹고살았니 오뉴월염천에
 전득아 전득아 입³술타령 어디에숨었니 오뉴월염천에

쇠³부랄밑에 디롱테롱 달렸다가
 풀³실에숨었다 전득아 전득아 어디에불었니

똑³떨어지니 길로가는 행인이
 오뉴월염천에 쇠부랄밑에 디롱테롱

짚³금밧아 시키면피가 짚금났네
 오뉴월염천에 쇠부랄밑에 디롱테롱

● 살구대노래

노래 : 윤만수(남, 1917년생)

꼬끄대 꼬끄대 꼬끄대틀이 늦어가네
저리세 저리세 갈보야빗칩 저리세

살구대 살구대 실구대틀이 늦어가네
저리세 저리세 유리야장판 저리세

실구대타령

노래 : 윤만수
체보 : 권오성



2) 매폏민요

매폏민요는 1980년 제주에서 개최된 제21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처음 출연하여 문화공보부장관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출연 : 매폏주민과 학생

고증 : 박재용(매폏중 교장)

구성·연출 : 박재용(매폏중 교장)

□ 해 설

매폏민요는 박재용(매폏중 교장)이 매폏에서 채집한 여러 민요, 즉 ‘짐배노래’ ‘자장가’ ‘널뛰기노래’ ‘송아지노래’를 엮은 것인데, 이 중 ‘짐배노래’는 남성요이고 ‘자장가’와 ‘널뛰기노래’는 여성요이고 ‘송아지노래’는 동요이다.

□ 구 성

짐배노래 : 여러 사람이 짐배를 타고 장대로 배를 밀면서 노래한다

자장가 : 부녀자가 어린 아이를 안고 노래한다

널뛰기노래 : 여자들이 널을 뛰면서 노래한다

송아지노래 : 아이들이 노래의 마디를 나누어 부르다가 합창한다.

□ 노래

● 짐배노래

노래: 이춘하(남)

영월영춘에 흐르고 내리는물은 도담삼봉 안고돌고
 도담삼봉 흐르는물은 만학천봉 안고도네
 만학천봉 흐르는물은 옥순봉을 안고돌고
 옥순봉에 흐르는물은 흘러흘러 잘도나가네

영월영춘에 흐르고 내리는 물은 도담삼봉 안고돌고
 앞편강에 띄우는배는 입을실은 꽃배인데
 뒤편강에 띄우는배는 노래하는 놀배인데
 얼시구 좋다 절시구 좋아 술렁술렁 잘도나가네

짐배노래

노래 : 이춘하
 채보 : 박진

영월에 영춘에 흐르고 내리는 물은 도담 삼봉 안고 돌고
 도담 삼봉 흐르는 물은 만학 천봉 안고 도네
 앞편 강에 띄우는 배는 입을 실은 꽃배인데
 만학 천봉 흐르는 물은 옥순 봉을 안고 돌고
 뒷편 강에 띄우는 배는 노래 하는 놀배이 고
 옥순 봉에 흐르는 물은 흘러 흘러 잘도 가네
 얼 씨구 좋다 절 씨구 좋아 술렁 술렁 잘도 가네

● 자장가

노래 : 흥할머니(여)

아강아강 우지마라 느어머이 낀조밥이
씩이나면 온다더니 아강아강 우지마라
우리어머이 찢조밥이 싹이나도 안오시네

아강아강 우지마라 느어머이 삶은팥이
씩이나면 온다더라 아강아강 우지마라
우리어머이 삶은팥이 싹이나도 안오시네

아강아강 우지마라 느어머이 그린황계
채치거든 온다더라 아강아강 우지마라
울어머이 그린황계 화를쳐도 아니오네

● 널뛰기노래

노래 : 흥할머니(여)

쿵더쿵 쿵더쿵 널뛰는데
싸래기 받아서 닭주고 왕겨는 받아서 개주고
종드래기 옆에차고 하늘에 별따러 가세

● 송아지노래

노래 : 흥할머니(여)

송아지 따세 송아지 따세
집의소는 무슨소 우리집 소는 검은소
저기저기는 우리소 저기저기가 우리소라네
아니오 우리소요 우리소는 검정 점박이소
우리소도 점박이소 우리소라네 우메-

3) 매폏뻗노래

매폏뻗노래는 1990년 제주에서 개최된 제31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단양 띨뻗 노래'로 출연하고 2008년 청주에서 개최된 제5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남한강 뻗 소리'로 출연하여 장려상을 받은 작품이다.

출연 : 매폏주민과 학생
고증 : 김동식(단양군청)
구성·연출 : 김동식(단양군청)

□ 해 설

남한강은 강원도 영월을 거쳐 단양·충주를 지나 서울로 통하는 중요한 교통로와 젓줄의 구실을 했는데 상류지역에서는 나무를 묶어 땃목을 이용하여 농산물과 임산물을 싣어 보내고 하류로부터는 소금과 건어물 등 그 밖의 필요한 물품을 싣은 배가 왕래하는 뻗길문화가 발달하였다.

특히 소금배는 강변사람들에게 아주 반가운 배였으며 소금을 가득 싣고 돛을 올리고 노와 사대를 이용해 올라오던 소금배가 여울을 만나면 여러 개의 줄을 뻗전에 걸고 뻗사공은 물론 인근 마을 주민들이 힘을 합쳐 배를

끌어 올려서 도담삼봉(島潭三峰)까지 도착하여 부르는 ‘띠뱃노래(소금배소리)’와 짐을 싣고 한양(漢陽)으로 내려가면서 부르는 ‘짐배노래’가 전해져오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 정이 든 뱃사람들과 지역 주민들이 이별을 아쉬워 하면서 배의 안전을 기원하며 고사를 지내고 함께 즐겼는데 남한강 뱃소리는 바로 이것을 재연한 소리이다.

□ 구 성

들어가는소리	‘다듬이소리’를 부른다
띠뱃노래	합창
만남의 장	놀이굿 짐싣기
용왕제	고사떡담하고 음복하기
이별	‘주모의 이별노래’를 부른다
답가	‘사공의 이별노래’를 부른다
짐뱃소리	합창
인사굿	퇴장

□ 노 래

● 띠뱃노래

올라왔오 소금배가 도담삼봉 양반들아
 금년에도 철썩철썩 소금배가 당도했네
 기다리던 양반손님 어서나와 반기시오

강물따라 떠나면길 뚝대달고 올라왔오
어서어서 불어주게 동남풍아 불어주게

영월영춘 올라가네 도담삼봉 주모들아
술걸러서 가져오게 목이말라 못가겠네
수리술렁 내려올제 다시한번 놀다가세

● 주모의 이별노래

못믿을진 한양손님 닳줄하나 끌러놓니
부지거쳐 떠나가네 인제가면 언제오나
기약없이 떠나가네 잘가시오 한양손님
떠나면길 이별일세

● 사공의 이별노래

잘있거나 주모들아 변치말고 잘있으면
명년삼월 돌아와서 다시한번 만나보세
어이가나 한양뱃길 비틀비틀 소금배야
서러워서 못가겠네

● 짐배노래

영월영춘에 흐르고 내리는 물은 도담삼봉 안고돌고
도담삼봉 흐르는 물은 만학천봉 안고도네
만학천봉 흐르는 물은 옥순봉을 안고돌고
옥순봉에 흐르는 물은 흘러흘러 잘도나가네

영월영춘에 흐르고 내리는 물은 도담삼봉 안고돌고
앞편강에 띄우는 배는 입을실은 꽃배인데
뒤편강에 띄우는 배는 노래하는 놀배인데
얼시구종다 절시구종아 술렁술렁 잘도나가네

● 뱃줄다리는 노래

올라간다 올라가 산은첩첩 금수산
천하절경 옥순봉 물은출렁 한강수
철석철석 뱃전에 한강수가 덤빈다
요놈들아 파도야 뭐를먹어 사니
구름먹어 사니 지름먹어 사니
부자통을 먹었니 목화숨을 먹었니
바람통을 먹었지 거북바우 다왔다
주막거리 저기다

2 충주 민요

1) 탄금대방아타령

탄금대 방아타령은 1972년 대전에서 개최된 제13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한 '충북의 농요'가 '탄금대 방아타령'으로 대통령을 받은 작품이다.

출연 : 중원 마수리 주민과 영동여고학생
고증 : 김영진(청주대 교수)
구성·연출 : 박 진(청주교대 교수)

□ 해 설

탄금대 방아타령은 1968년 서울중앙방송국 권오성이 충북 중원군 신니면 마수리에서 채집한 '중원농요'와 1971년 청주국악원장 윤혁남이 청주에서 채집한 '방아타령'을 합성한 '충북의 농요'로 출연한 작품이다.

중원농요는 마수리 지남기(남)가 선창한 노래이고 '방아타령'은 청주에 사는 이선례(여)가 불렀는데 그의 고향이 영동군 학산이라 처음에는 '영동방아타령'으로 이름하고 그의 고향사람들을 출연시키려고 하였으나 어려움이 있어 영동여고 학생 1백여 명을 출연시켜 후렴을 부르게 하였다⁶⁾. 그러나 '중원농요'와 '영동방아타령'으로 구분하는 것보다 중원지역의 농요와 방아타령으로 연희하는 것이 편리하고 또 입상하는데도 유리할 것이라는 집행부의 판단에 따라 '영동방아타령'을 '중원방아타령'으로 바꾸고 그 자진가락의 이름을 <탄금대 방아타령>이라 하였는데 그것은 중원의 토속민요로

부각시키기 위하여 작명한 것이다.

그런데 이 ‘충북의 농요’가 대통령상으로 발표되면서 수상작품을 가락의 이름인 탄금대방아타령으로 발표되어 오늘날 충주지방의 대표적 민속예술로 충주의 향토축제 우륵문화제에서 매년 공연되고 있다.

□ 구 성

제1부 남성노작요 : 중원농요

- 1) 모찌는노래 모찌기를 연희하면서 노래 부른다
- 2) 모심는노래 모심기를 연희하면서 노래 부른다
- 3) 초별매기노래 논매기를 연희하면서 노래 부른다
- 4) 두별매기노래 논 뜯기를 연희하면서 노래 부른다

제2부 여성노작요 : 방아타령

- 1) 중원방아타령 방아짚기를 연희하면서 노래 부른다
- 2) 탄금대방아타령 방아짚기를 연희하면서 노래 부른다

탄금대방아타령



□ 노래

① 중원농요

● 모찌기노래

메김 : 지남기(남, 1922년생)

후렴 : 중원 마수리 주민

여보시오 농부님들 이뭇자리를 절우소
 절우자 절우자 이모자리를 절우자
이뭇자리를 얼른절워 저논뻘이 모를심어
 절우자 절우자 이모자리를 절우자
일년중에 장한것은 농사밖에 더있는가
 절우자 절우자 이모자리를 절우자
중원평야 신미뜰에 신남께서주신 영광이네
 절우자 절우자 이모자리를 절우자
달래강 뱃사공도 이한철 우리에게만 부리요
 절우자 절우자 이모자리를 절우자

모찌기노래

노래 : 지남기
체보 : 권오성

The musical score is written on two staves in a 6/8 time signature with a key signature of two flats (B-flat and E-flat). The melody is simple and rhythmic, with lyrics written below the notes. The first line of music corresponds to the first line of the lyrics, and the second line corresponds to the second line. The lyrics are: '절우자 절우자 이뭇자리를 절우자' and '여보시오 농부님들 이뭇자리를 절우소'.

● 모심는노래

메김 : 지남기(남, 1922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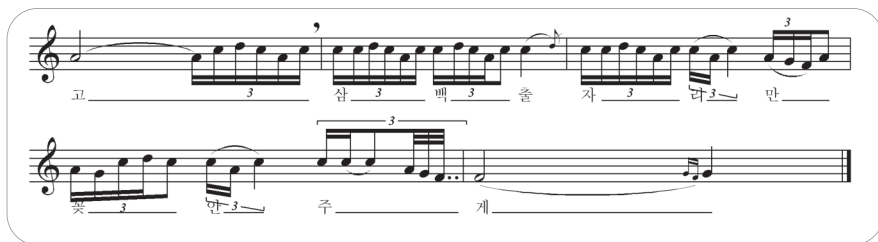
후렴 : 중원 만수리 주민

여기꽃고 저기꽃고 삼백출자리만 꽃아주게
 아라성아 아라성아 아리랑얼싸 아라성아
 이논빼미 모를심어 장잎이 헐헐 영화로다
 아라성아 아라성아 아리랑얼싸 아라성아
 앞뜰에다 논을사고 뒤뜰에다 밭을사서
 아라성아 아라성아 아리랑얼싸 아라성아
 오곡잡곡 농사질때 오곡잡곡 잘자라서
 아라성아 아라성아 아리랑얼싸 아라성아
 풍년이오니 영화로다 아리랑얼싸 아라성아
 아라성아 아라성아 아리랑얼싸 아라성아

모심는노래

노래 : 지남기
 채보 : 권오성

(후렴) 아 라 성 아 아 라 - 서 - - 영
 아 리 랑
 얼 싸 아 라 성 아
 (메기소리)
 여 기 꽃 고 저 기 꽃



● 초벌매기노래

메김 : 지남기 (남, 1925년생)

후렴 : 중원 마수리 주민

- 긴방아타령

여보시오 농부님들 이내말씀 들어보소

에이헤 에이헤 에이라 방아허

농자는 천하지대본 농사밖에 더있는가

에이헤 에이헤 에이라 방아허

천황씨 탄생후 지황씨 탄생하고

에이헤 에이헤 에이라 방아허

복희신농 탄생하여 농사짓기 일년이라

에이헤 에이헤 에이라 방아허

열두달 놀지말고 일을하여 영화로다

에이헤 에이헤 에이라 방아허

초벌매기노래

노래 : 지남기
채보 : 권오성



- 중거리

여보시오 농군님들 초한농부 들어보소

에이히 에이히 에이허라 방아호

일반사 쓸데없고 기가세 할일없다

에이히 에이히 에이허라 방아호

초를장차 일단말가 초군님들 들어보소

에이히 에이히 에이허라 방아호

방안초제 삼길려고 부모처자 다버리고

에이히 에이히 에이허라 방아호

초군중에 잡혀와서 가진고생 다하노라

에이히 에이히 에이허라 방아호

중거리

노래 : 지남기
체보 : 권오성



● 두별매기노래

메김 : 지남기(남, 1925년생)

후렴 : 중원 마수리 주민

여보소 농군님들 이내 말씀 들어보소

어화굼실 대허리야 어화굼실 대허리야

일년이나 열두달에 삼백 예순날 놀지말고

어화굼실 대허리야 어화굼실 대허리야
 쉬지말고 일을허세 이논빼뻬이 어른매여
 어화굼실 대허리야 어화굼실 대허리야
 해마다 풍년이 드니 이런영화 더있느냐
 어화굼실 대허리야 어화굼실 대허리야

두벌매기노래

노래 : 지남기
 채보 : 권오성

어 화 굼 실 대 허 리 야
 어 보 소 농 부 님 들
 논 매 기 도 좋 다 마 는

② 방아타령

● 긴방아타령

메김 : 이선례(여)

후렴 : 영동여고 학생

지조창생 하연후에 탄금대가 여기로다
 여기야 에헤로 방아로다 여기야 에헤로 방아로다

청풍명월 우리고장 방아소리로 이름났네

어기야 예헤로 방아로다 어기야 예헤로 방아로다

이방아가 뉘방안가 강태공의 조작방아로다

어기야 예헤로 방아로다 어기야 예헤로 방아로다

신농씨에 뿌린씨를 이방아로 찌어보세

어기야 예헤로 방아로다 어기야 예헤로 방아로다

태고나 천황씨도 이목덕으로 당했으니 락이 아니 중할소냐

어기야 예헤로 방아로다 어기야 예헤로 방아로다

쌍삼하다 고추방아 꼬스럼하다 깨방아로다

어기야 예헤로 방아로다 어기야 예헤로 방아로다

● **짚은방아타령(탄금대방아타령)**

메김 : 이선례(여)

후렴 : 영동여고 학생

어유하 방아호

어유하 방아호

지조창생 하연후에

어유하 방아호

탄금대가 여기로다

어유하 방아호

3 진천 민요

1) 벚틀노래

진천벚틀노래는 1971년 진주에서 개최된 제12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처음 출연하여 문화공보부장관상을 받은 작품이다.

출연 : 진천부녀회원
고증 : 김영진(청주대 교수)
구성·연출 : 윤혁남(청주국악원장)

□ 해 설

벚틀노래는 부녀자들이 벚틀에서 피륙을 짜면서 부르는 여성노동요이다. 진천 벚틀노래는 청주 벚틀노래의 변이형으로 처음에 벚틀의 부분명칭을 들어서 재미있게 엮어 나가다가 나중에 님의 죽음으로 끝을 맺는 내용은 청주 벚틀노래와 동일하다.

벚틀가는 혼자 부르는 것이 일반이나 대회에 여러 사람이 출연하면서 한 사람이 메기고 여러 사람이 받는 선후창으로 불렀고 또한 본래에 없던 장단을 덧붙여 메나리조의 굿거리에 맞추었는데 이것은 하나의 민요를 가지고 연희해야 하는 작품의 구성과 연출에서 공연성을 높이기 위한 편법이다.

□ 구 성

- ① 물레노래 : 물레를 놓고 물레질을 하면서 합창한다.
- ② 베틀노래 : 베틀을 놓고 베를 짜면서 선후창으로 노래한다

□ 노 래

● 물레노래

노래 : 이희순

물레야 물레야 돌아라
가락을 빼여 명을갓네
이무명을 다 갓으니
베틀노래나 불러보세

물레노래

노래 : 이희순
체보 : 한만영

♩ = 72

물 레 야 물 레 야 돌 아 라 가 락 을 빼 여 명 을 갓 네
이 무 명 을 다 갓 으 니 베틀 노 래 나 해 나 보 세

● 베틀노래

메김 : 이희순(여)

하늘에 노던선녀 지하땅에 내려와서
좌우산천 둘러보니 옥난간이 비였구나
 덩더리쿵 곧은나무 둥두리쿵 넘어가네
이산저산 꼭대기에 걸고보니 베틀일세
베틀다리는 네다리요 선녀다리는 두다리요
 덩더리쿵 곧은나무 둥두리쿵 넘어가네
앞을깨라 앞은선녀 양귀비의 냇이로다
앞은진김에 하는것이
 덩더리쿵 곧은나무 둥두리쿵 넘어가네
말코라고 생긴양은 삼대나독신 내아들이
명지나 공포가 갱겼도다
 덩더리쿵 곧은나무 둥두리쿵 넘어가네
도토마리라 생긴양은 억만군사를 거느리고
칩첩산중에 섰다가앉아
 덩더리쿵 곧은나무 둥두리쿵 넘어가네
비경이는 심어지고 울렁술렁 올라가네
 덩더리쿵 곧은나무 둥두리쿵 넘어가네
용두머리라 생긴양은 현신쪽에 목을매고
큰애기앞만 쳐다보네
 덩더리쿵 곧은나무 둥두리쿵 넘어가네
부테라고 두른양은 구름이나안개나 행긴듯이
큰애기 허리만 안고논다
 덩더리쿵 곧은나무 둥두리쿵 넘어가네
사칠이라 질린양은 동서남북 우죽이나 걸린듯이

서쪽서역에 걸렸구나

 덩더리쿵 곤은나무 동두리쿵 넘어가네
북이라고 드나드는양은 저건너 왕대밭에
금비들기 알을낳고 알콤달콤 드나듯이

 덩더리쿵 곤은나무 동두리쿵 넘어가네
하나짜고 두아짜고 새암치를 끊었도다
앞넷가에 빨아다가 뒷넷가에 바랬도다

 덩더리쿵 곤은나무 동두리쿵 넘어가네
홍독두께에 다리미해여 서울가신 선비님의
중의도포 말라보세

 덩더리쿵 곤은나무 동두리쿵 넘어가네
중의도포 마를적에 은가위로 끊어가듯
중침놀때 상침놓고 상침놀때 중침놓고

 덩더리쿵 곤은나무 동두리쿵 넘어가네
중의도포 지어놓고 오동나무 장롱에다
시레살작 들퍼놓고 대문밖을 썩나서니

 덩더리쿵 곤은나무 동두리쿵 넘어가네
뒤집이라 선비님은 과거장으로 보고오네
뒤집이라 선비님아 우리야선비 안오시나

 덩더리쿵 곤은나무 동두리쿵 넘어가네
오기야 오건만은 칠성판에 누어오네
애고답답 내일이야 한모랭이 돌아가니

 덩더리쿵 곤은나무 동두리쿵 넘어가네
닭의뿔로 망태걸고 진애빠서 상에걸고
애고답답 내일이야 두모랭이 돌아가니

 덩더리쿵 곤은나무 동두리쿵 넘어가네

요령소리가 진동하네 애고답답 내일이야
 스물네명 장꾼들이 발맞춰서 잘모시게
 텅더리쿵 곧은나무 둥두리쿵 넘어가네
 애고답답 내일이야 목마르고 대간할제
 요기나 점름 진정하세

텅더리쿵 곧은나무 둥두리쿵 넘어가네
 서울이라 너른곳에 약이없어 죽었걸랑
 약을보고 일어나소 애고답답 내일이야

텅더리쿵 곧은나무 둥두리쿵 넘어가네
 서울이라 너른곳에 임이없어 죽었걸랑
 나를보고 일어나소 애고답답 내일이야

텅더리쿵 곧은나무 둥두리쿵 넘어가네
 서울이라 너른곳에 돈이없어 죽었걸랑
 돈을보고 일어나소 애고답답 내일이야

텅더리쿵 곧은나무 둥두리쿵 넘어가네
 스물네명 장꾼들이 발맞춰서 잘모시게
 애고답답 내일이야 애고답답 내일이야
 텅더리쿵 곧은나무 둥두리쿵 넘어가네

베틀노래

하늘에나-노던선너 지하땅에나-내려와서
 차광산천둘러-보니 옥-단-간이비었도다
 (후렴) 텅더리쿵 곧은-나무 중주리쿵-넘어가네

2) 용몽리농요

진천 용몽리농요는 1999년 진천에서 개최된 제6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생거진천농요'로 출연하여 대상을 받아 그 이듬해 2000년 순천에서 개최된 제41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충북대표로 출연하여 문공부장관상을 수상하고 2001년 괴산에서 개최된 제8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하여 감투상을 받은 작품이다.

출연 : 진천민속팀(대표 조용철)

고증 : 임동철(충북대 교수)

구성·연출 : 임동철(충북대 교수)

□ 해 설

진천 용몽리농요의 작품명의 생거진천은 “생거진천(生居鎭川) 사거용인(死居龍仁)”이란 속언에서 따온 말로 오늘날 진천의 수식어로 쓰이는 말로 진천의 농요를 의미하나 정확하게 말하면 진천 용몽리농요의 이름이다. 진천 용몽리농요는 옛날 농사두레에서 소리꾼이 풍장을 치면서 부르던 남성 노동요 ‘두레소리’(모찌는소리·모심는소리·논매는소리·논뜯는소리)를 엮어 연희하면서 노래하는 것이 특징이다. 남성노동요인 벼농사노래의 엮음인데 모내기노래 다음에 이 마을의 전설노래인 ‘방골큰애기’ 노래를 부른다.

□ 구 성

모찌는노래 : 모찌기를 연희하면서 노래한다

모심는노래 : 모심기를 연희하면서 노래한다

방골큰애기 :

논매기노래 : 논매기를 연희하면서 노래한다

논뜯기노래 : 논 뜯기를 연희하면서 노래한다

□ 노 래

● 모찌는소리

메김 : 박득천(남 1915년생)

후렴 : 용몽리 주민

몽치세 몽치세 어히야 이모판 몽치세
 몽치세 몽치세 어히야 이모판 몽치세
생거진천 너른들에 모두들 농사를 지어보세
 몽치세 몽치세 어히야 이모판 몽치세
일년삼백 육십오일 걷어붙이고 들어가서
 몽치세 몽치세 어히야 이모판 몽치세
몽둥몽둥 묶어주오 얼른이모판 묶어주오
 몽치세 몽치세 어히야 이모판 몽치세
여기저기 거친모를 제쳐나가서 무여주게
 몽치세 몽치세 어히야 이모판 몽치세
천하지대본은 농사인데 농사밖에 또있는가
 몽치세 몽치세 어히야 이모판 몽치세
알삼함력 힘을합쳐 이들모들을 몽쳐주오
 몽치세 몽치세 어히야 이모판 몽치세
힘을합쳐 몽친모가 갈지자가 되었는데
 몽치세 몽치세 어히야 이모판 몽치세

잘도하오 잘도하오 우리네농군들 잘도하오

 mungchise mungchise ehiya imopwan mungchise
일락서산 지는해는 이논배미를 돌려주게

 mungchise mungchise ehiya imopwan mungchise
달아달아 밝은달아 이태백이가 놀던달아

 mungchise mungchise ehiya imopwan mungchise
저기저달 쳐다보니 계수나무가 걸렸으니

 mungchise mungchise ehiya imopwan mungchise
옥토끼로 찍어내서 금도끼루다 다듬어서

 mungchise mungchise ehiya imopwan mungchise
거북등에다 칼을갈아 초가나삼칸 집을내어

 mungchise mungchise ehiya imopwan mungchise
이모자리를 엮어다가 삼백출로 심어주게

 mungchise mungchise ehiya imopwan mungchise
mungcheonaise ehiyaonaise eokasaniya mungchise

 mungchise mungchise ehiya imopwan mungchise
이모판에 자란모를 mungcheonaise mungcheonaise

 mungchise mungchise ehiya imopwan mungchise
이모판에 모를찌서 저기논에 던져보세

 mungchise mungchise ehiya imopwan mungchise
잘두한다 잘두한다 우리농부들 잘두한다

 mungchise mungchise ehiya imopwan mungchise
여보시오 농부님네 이모자를 mungchise

 mungchise mungchise ehiya imopwan mungchise
이모자리 얼른mungcheonaiseonaiseonaise 모를심세

 mungchise mungchise ehiya imopwan mungchise

춘하추동 사시순환 우리농부들 위함일세
 뭉치세 뭉치세 어히야 이모판 뭉치세
 봄이되니 밭을갈고 씨앗뿌려 가꿔보세
 뭉치세 뭉치세 어히야 이모판 뭉치세
 신농씨가 뿌린씨가 일취월장 자라날제
 뭉치세 뭉치세 어히야 이모판 뭉치세
 속있나고 겉있자라 일취월장 자랐으니
 뭉치세 뭉치세 어히야 이모판 뭉치세
 우리농부 힘을들여 정성드려 가꿔보세
 뭉치세 뭉치세 어히야 이모판 뭉치세
 일년중에 증한것이 농사밖에 또있는가
 뭉치세 뭉치세 어히야 이모판 뭉치세

모찌는소리

조순현재보
박득천 장

뭉 치 세 뭉 치 세 어 히 야 이 모 판 뭉 치 세
 생 기 진 권 - 너 른 들 에 모 두 들 농 사 를 지 어 보 세
 일 년 삼 백 육 십 오 일 건 어 불 이 고 들 어 가 서
 뭉 통 뭉 통 뭉 어 주 오 열 른 이 모 판 뭉 어 주 오 -

● 모심는소리

메김 : 박득천(남 1915년생)

후렴 : 용몽리 주민

여기도 허하나 에하 저기도 허하나
여기도 허하나 에하 저기도 허하나
여보시오 농부님네 이내말씀을 들리보소
여기도 허하나 에하 저기도 허하나
일년삼백 육십오일 춘하추동은 사시철에
여기도 허하나 에하 저기도 허하나
꽃이피고나 잎이나고 화초에일색은 춘절이오
여기도 허하나 에하 저기도 허하나
잘하고도 잘도하오 너무나잘하고 잘도하오
여기도 허하나 에하 저기도 허하나
여기저기 심은모는 장잎이훤훤 영화로다
여기도 허하나 에하 저기도 허하나
여기꽃고 저기꽃고 삼배출자리로 심어주세
여기도 허하나 에하 저기도 허하나
우리농부 일을하여 나라에는 충성하고
여기도 허하나 에하 저기도 허하나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식효부도 하여보세
여기도 허하나 에하 저기도 허하나
아버님전 뼈를받고 어머님전 살을받아
여기도 허하나 에하 저기도 허하나
이내몸이 태어나서 금지옥엽 자라날제
여기도 허하나 에하 저기도 허하나

여름날엔 더울세라 겨울날엔 추울세라
 여기도 허하나 예하 저기도 허하나
 사시사철 걱정하며 곱게곱게 기른공을
 여기도 허하나 예하 저기도 허하나
 머리깎아 신을삼아도 부모은공 다못갚겠네
 여기도 허하나 예하 저기도 허하나
 일년이라 열두달은 사백이라 육십오일
 여기도 허하나 예하 저기도 허하나
 놀지말고 일을하면 년년이 풍년이
 여기도 허하나 예하 저기도 허하나
 시화연풍 국태민안 대풍년이 돌아온다
 여기도 허하나 예하 저기도 허하나
 왔다갔다 하지말고 부지런히 일을하세
 여기도 허하나 예하 저기도 허하나
 이논배미 다심고서 저논배미로 넘어가세
 여기도 허하나 예하 저기도 허하나
 부지런히 일을하세 반달만큼 남았구나
 여기도 허하나 예하 저기도 허하나
 잘두한다 잘두한다 우리농부 잘두한다
 여기도 허하나 예하 저기도 허하나
 여기심구 저기심구 부지런히 모를심세
 여기도 허하나 예하 저기도 허하나

모심는소리

조순현체보
박득천 창

메기기



여 - 기 도 허 하나 - 이 하 지 기 도 또 하나

받기



여 - 기 도 허 하나 - 지 하 지 기 도 또 하나



여 보 시 요 농 부 님 네 - 이 내 말 씀 을 들 - 어 보 소 -



일 년 삼 백 육 십 오 일 - 천 하 주 동 은 사 시 철 에 -

● 방골큰애기

메김 : 박득천(남 1915년생)

후렴 : 용몽리 주민

진천에 방골 큰애기는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납채를 받아놓고 죽었다네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납채를 받아서 연습을 하고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잔치술 가지고 군정주네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진천에 방골 큰애기는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대사를 지내다 죽었다네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대사꽃 보려고 왔던 손님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장사를 보고서 눈물짓네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진천에 방골 큰애기는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꽃가마 타고서 시집을 가네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상여를 타고서 떠나가네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방골큰애기

채보 : 조순현
 (메) : 박득천
 (반) : 이광섭외
 보존회원

(메)

 진 천 에 방— 골 큰 애 기 는 남 케 를 받 고 서 죽 었 다 네

(반)

 아 리 아 리 쓰 리 쓰 리 아— 라 리— 요 아 리 랑 고 개 로 넘 어 간 다

(메)

 남 케 를 받 아 서 엮 습 하 고 강 지 술 가 득 뵈 주 경 주 네

(메)

 진 천 에 방— 골 큰 애 기 는 대 사 를 지 내 다 가 죽 었 다 네

● 논매는소리

메김 : 박득천(남 1915년생)

생거진천은 농사한철 힘을쓰네
 오호하 오호 이에 하오하
 여기저기 심은모는 장리빛한창 영화로세
 오호하 오호 이에 하오하

여러분네도 농사를지어 영화한세상 누리보세
 오호하 오호 이에 하오하
 먼데사람들 듣기좋고 우리네농부들 소리좋네
 오호하 오호 이에 하오하
 여보시오 농부님네 이내말씀 들어보소
 오호하 오호 이에 하오하
 농자는 천하지대본 농사밖에 또잇는가
 오호하 오호 이에 하오하
 천황씨 탄생하고 지황씨 탄생하여
 오호하 오호 이에 하오하
 복희씨 탄생하여 농사짓기 일년이라
 오호하 오호 이에 하오하
 놀지말고 일을하세 쉬지말고 일을하세
 오호하 오호 이에 하오하
 이논배미 얼른매고 저논배미로 넘어가세
 오호하 오호 이에 하오하
 해마다 풍년드니 이런영화 더잇느냐
 오호하 오호 이에 하오하
 우리농군 할일이란 농사밖에 더잇는가
 오호하 오호 이에 하오하
 올해도 풍년이오 내년에도 풍년일세
 오호하 오호 이에 하오하

논매는소리

후렴 조순현 체보
박득천 창

오 오 호 오 - - 이 예 야 - 호 -

생 기 진 천 은 - 농 사 한 천 험 을 쓰 네

여 기 저 기 심 은 모 는 - 장 리 밋 한 광 영 화 로 세 -

여 리 분 네 도 농 사 를 지 어 영 화 한 세 상 누 리 보 세 -

● 논뜯는소리

메김 : 이광섭(남 1939년생)

후렴 : 용몽리 주민

얼렁얼 상사데야

얼렁얼 상사데야

여보시오 농부님들

얼렁얼 상사데야

상사소리를 들어보소

얼렁얼 상사데야

여기저기나 풀을뜯고

얼렁얼렁 상사데야
풍년농사 지어보세
얼렁얼렁 상사데야
여보시오 일꾼네들
얼렁얼렁 상사데야
이내말씀 들어보소
얼렁얼렁 상사데야
천허지대본 농사로다
얼렁얼렁 상사데야
풍년들게 논을매세
얼렁얼렁 상사데야
부지런히 논을매서
얼렁얼렁 상사데야
점심참에 쉬어보세
얼렁얼렁 상사데야
땀이나게 일을하세
얼렁얼렁 상사데야
금년농사 풍년들게
얼렁얼렁 상사데야
우리농부 호강이오
얼렁얼렁 상사데야
금년농사 풍년들면
얼렁얼렁 상사데야
이팔청춘 소년들아
얼렁얼렁 상사데야
늙은부모 봉양하고

얼릴릴 상사데야
 어린자식 공부시켜
 얼릴릴 상사데야
 자식노릇 부모노릇
 얼릴릴 상사데야
 남과같이 하여보세
 얼릴릴 상사데야
 이팔청춘 소년들아
 얼릴릴 상사데야

논뜯는소리

조순현 채보
이광섭 창

메기기 받기
 얼릴릴리 상사 데야 얼릴릴리 상사 데야
 메기기 받기
 어보시오 농부님들 얼릴릴리 상사 데야
 상사 소리를 들어보소 얼릴릴리 상사 데야
 여기저기나 풀을 뽑고 얼릴릴리 상사 데야

4 괴산 민요

1) 연풍머슴신세타령

괴산 연풍머슴신세타령은 2005년 음성에서 개최된 제12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한 작품이다.

출연 : 괴산국악협회 회원

□ 해 설

이 노래는 경상도에서 서울 가는 길목인 이화령 골짜기에 자리한 괴산군 연풍면 이우리골에서 옛날 머슴들이 부르던 신세타령 노래의 엮음이다.

□ 노 래

- 신세타령

노래 : 김인태(남, 1938년생)

동삼절 다가고 봄은 돌아왔네
앞산 잔등에 초목들은 울긋불긋 푸르르고
아지랑이 아롱아롱 저 먼 들판에

열두칸 기차는 고향가자고 소리소리치고 가는데
어찌다 이내신세 고향한번 못가보고
낫설은 타향땅 돌고돌아 이우리골 산천에
나 여기왔네 이이후 후후후후후

울고가는 저기러기야 우리부모 계시는곳 알면
이 불초소생 잘있다고 일자상서 전해주렴
남 낱을적에 나도나고 나 낱을적에 남도 낱았건만
어떤사람 팔자좋아 고대광실 높은집에
예쁜처자 거느리고 잘사는데 어이해 이내신세
살으려니 상투가 있나 죽어지니 무덤이 있나.
이이후 후후후후후

날만새면 지개목발 등에 업고
이산저산 골짜기마다 정드리고 산새소리 벗을 삼고
무정한 머슴살이 청춘가도 백발오니
일락서산 해는지고 갈곳없는 이내신세
무정한 세월따라 정처없이 나는가네
이이후 후후후후후

2) 문법리농요

괴산 문법리농요는 1991년 여수에서 개최된 제32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괴산 농요’로 출연한 작품이다.

출연 : 괴산 문광면 문법리 주민
고증 : 이소래(문화재전문위원)

□ 해 설

괴산 문법리농요는 옛날 농사두레에서 소리꾼이 풍장을 치면서 부르던 남성노동요 ‘두레소리’(모찌는소리·모심는소리·논매는소리·논뜯는소리)에 ‘갈까는 노래’와 ‘디딜방아노래’를 첨가하여 연희하면서 노래하는 것이 특징이다.

□ 구 성

모심기노래 : 모심기를 연희하면서 노래한다

아시매기노래 : 논매기를 연희하면서 노래한다

이듬매기노래 : 논뜯기를 연희하면서 노래한다

□ 노 래

● 모심기노래

메김 : 이광영(남. 1917)

후렴 : 괴산 문법리 주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헤헬싸 에헤리송아

이야이야 아라리오 아리랑헤헬싸 에헤리송아

여기뵈고 저기꽃아 삼배출자리로만 꽃아주게

이야이야 아라리오 아리랑헤헬싸 에헤리송아

이논자리에다 모를심어 장잎이훤훤에 영화로구나

이야이야 아라리오 아리랑헤헬싸 에헤리송아
해는저서 서산에넘구후 골골마루야 연기나네

이야이야 아라리오 아리랑헤헬싸 에헤리송아
요놈에야 일본정치가 언제 물러나고

이야이야 아라리오 아리랑헤헬싸 에헤리송아
독립에나야 태극깃발이 언제나 날리나

이야이야 아라리오 아리랑헤헬싸 에헤리송아
피땀흘려 지은농사를 공출로 다뺏기고

이야이야 아라리오 아리랑헤헬싸 에헤리송아
어린자식 밥달라는데 이내간장이 다늑네

이야이야 아라리오 아리랑헤헬싸 에헤리송아
여기뽑고 저기뽑고 삼백출짜리로 꽃아주소

이야이야 아라리오 아리랑헤헬싸 에헤리송아

● 논매기노래 1

메김 : 이광영(남, 1917)

후렴 : 괴산 문법리 주민

- 긴방아

여봐라 농부야 말들어라 점심때가 되었고나

에이 에라 방아호

꽃같은 아주머니 행주치마 두르고 광주리이고 나온다

에이 에라 방아호

천지조종은 곤륜산이오 우주조종은 황해수라

에이 에라 방아호

이방아가 뉘방안가
에이 에라 방아호
강태공의 조작방아
에이 에라 방아호
해는지고 저문날에
에이 에라 방아호

- 잣은방아
에이여라 방아호
에이여라 방아호
이방아가 뉘방안고
에이여라 방아호
강태공에루 조작방아
에이여라 방아호
강태공은 간곳이없고
에이여라 방아호
빈방아만 걸렸구나
에이여라 방아호
여보시오 농군들아
에이여라 방아호
이내한말을 들어보소
에이여라 방아호
논서마지기 논배미가
에이여라 방아호
반달만치 묶였구나
에이여라 방아호

니가무슨 반달인가
 에이여라 방아호
초생달이 반달일세
 에이여라 방아호
이논배미를 얼른매고
 에이여라 방아호
장구배미로 올라가세
 에이여라 방아호
슬슬동풍에 굶은비오고
 에이여라 방아호
서산낙조에 해는지고
 에이여라 방아호
우리야 농군들 농악을치며
 에이여라 방아호
동내마을을 찾아가니
 에이여라 방아호
아주먼네들 거동보소
 에이여라 방아호
행주치마를 앞에입고
 에이여라 방아호
너풀너풀 춤을춘다
 에이여라 방아호

● 논매기노래 2

메김 : 이광영(남, 1917)

후렴 : 괴산 문법리주민

어하슬슬 대허리야
어하슬슬 대허리야
목마르고 허리아파
어하슬슬 대허리야
해꼬바리는 머리에엮고
어하슬슬 대허리야
호맹이는 허리에 꼽고
어하슬슬 대허리야
두손모아 논이듬하니
어하슬슬 대허리야

● 이듬매기노래 1

메김 : 이광영(남 1917)

후렴 : 괴산 문법리주민

잘하네 못하네 에이야후이야 잘하네
잘하네 못하네 에이야후이야 잘하네
요논배미를 얼른매구 장구배미루 올라가세
잘하네 못하네 에이야후이야 잘하네
잘하기는 뭘잘해요 얼카산이가 또잘하지
잘하네 못하네 에이야후이야 잘하네
밀치구 닥쳐라 베폍사이만 금치계

잘하네 못하네 에이야후이야 잘하네
우리농부 여기서놀다 내일또다시 상봉하세
잘하네 못하네 에이야후이야 잘하네

● 이듬매기노래 2

메김 : 이광영(남 1917)

후렴 : 괴산 문법리주민

얼렁얼 상사디야
 얼렁얼 상사디야
상사소리를 잘하고보면
 얼렁얼 상사디야
술이적어도 삼잔일세
 얼렁얼 상사디야
후원초당에 양귀비지니
 얼렁얼 상사디야
상사소리에 젊은이늬네
 얼렁얼 상사디야

5 증평 민요

1) 둔덕농요

증평둔덕농요는 2002년 영동에서 개최한 제9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증평두레놀이'로 처음 출연하여 우수상을 받았고 2003년 제천에서 개최한 제10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장뜰두레놀이'로 출연하여 대상을 받아 2004년 부여에서 개최한 제45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충북작품 '증평 장뜰두레놀이'로 출연하여 공로상을 받았고 같은 해 증평에서 개최한 제11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장뜰두레놀이'로 출연하여 감투상을 받았다. 그리고 2005년 음성에서 개최한 제12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둔덕두레놀이'로 출연하여 우수상을 받았고 2006년 보은에서 개최한 제13회 충북민속예술축제에 '장뜰두레농요'로 출연하여 대상을 받아 2007년 사천에서 개최한 제48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충북작품 '증평 장뜰두레농요'로 출연하여 은상을 받은 작품이다.

출연 : 증평 장뜰두레농요보존회 회원

고증 : 이보형(전 문화재전문위원)

구성·연출 : 조진국(신명풍물패 대표)

□ 해 설

증평 둔덕농요는 남성노동요 벼농사노래의 엮음인데 여기에 물 푸는 고지질소리와 보리방아 찼는소리를 추가하여 농사소리의 모음으로 구성한 연희작품이다.

□ 구 성

- ① 고리질소리 : 고리질을 연희하면서 노래한다
- ② 모찌기소리 : 모찌기를 연희하면서 노래한다
- ③ 모심기소리 : 모심기를 연희하면서 노래한다
- ④ 초듭매기소리 : 논매기를 연희하면서 노래한다
- ⑤ 이듭매기소리 : 논 뜯기를 연희하면서 노래한다
- ⑥ 보리방아찝기소리 : 방아찝기를 연희하면서 노래한다
- ⑦ 세듭매기소리 : 논 뜯기를 연희하면서 노래한다

□ 노 래

● 고리질소리

메김 : 정달훈(남 1928년생)

후렴 : 장뜰두레농요보존회원

이논자리로 말하면
 고리야 두레야
김서방네 논자리로
 고리야 두레야
서마지기 논자린데
 고리야 두레야
이논베미가 세마지긴가
 고리야 두레야
양팔에 힘을주어

고리야 두레야
허리를굽혀서 줄을놓아요
고리야 두레야
앞줄을 좋아서 양줄을 당겨라
고리야 두레야
양줄을 당겨서 뒷줄을 놓아라
고리야 두레야
이듬병으로 말하자면
고리야 두레야
물량이 천고래요
고리야 두레야
씨래질이 잘되도록
고리야 두레야
물량을 충분히넣게
고리야 두레야
네귀통이에 물이돌게
고리야 두레야
힘을주어 품어주게
고리야 두레야
김서방은 어디갔나
고리야 두레야
소를몰고 빨리와서
고리야 두레야
씨래질이나 하여주오
고리야 두레야

● 모찌기소리

메김 : 정달훈(남 1928년생)

후렴 : 장플두레농요보존회원

오늘씨는 모자리는
 뭉치세 뭉치세
한섬지기 모자린데
 뭉치세 뭉치세
양팔로 감아돌려
 뭉치세 뭉치세
세주먹자리로 감아주오
 뭉치세 뭉치세
새이참이 되기전에
 뭉치세 뭉치세
빨이빨리나 감아주오
 뭉치세 뭉치세
오늘해도 중천에가고
 뭉치세 뭉치세
못자리판이 다되어가는데
 뭉치세 뭉치세
새이그릇은 보이지않고
 뭉치세 뭉치세
술단지가 깨졌다
 뭉치세 뭉치세
금년에도 독신이좋아
 뭉치세 뭉치세

(메기느소리) (받느소리)
 요 내 말 씀 좀 들 어 어 보 소 뭉 치 세 뭉 치 세

(메기느소리) (받느소리)
 뭉 치 세 뭉 치 세 뭉 치 세 뭉 치 세

● 모내기소리

메김 : 정달훈(남 1928년생)

후렴 : 장뜰두레농요보존회원

아리랑 말년에는 난리가 나고
 갑인년 이후로 통평이 났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바람이 불라면 동남풍이나 불고
 풍년이 들라면 쌀풍년이냐 들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세월이 갈거면은 저혼자 가지
 알뜰한 이내청춘 왜다리고 가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저건너 묵밭은 작년에도 묵더니
 올해도 날과같이 또 묵었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풍년농사 될것이오
 뭉치세 뭉치세
 집집마다 일손을모아
 뭉치세 뭉치세
 심지뽑기 순서대로
 뭉치세 뭉치세
 가는일손 오는일손
 뭉치세 뭉치세
 내일은 누구차례
 뭉치세 뭉치세
 소아비이 김서방아
 뭉치세 뭉치세
 우리논좀 쓸어주게
 뭉치세 뭉치세
 모찌기가 끝나면은
 뭉치세 뭉치세
 모내기로 들어가세
 뭉치세 뭉치세

모찌기소리

♩ = 40

노래 : 정 달 훈
 채보 : 이 창 신

(메기논소리) (받논소리)

뭉 치 세 뭉 치 세 뭉 채 세 뭉 치 세

(메기논소리) (받논소리)

너 부 - 님 네 잡 풀 들 은 뭉 치 세 뭉 치 세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여기도 꽃고 저기도나 꽃고
 삼백출 자리로만 꽃아나 주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시어머니 잔소리는 설비상 같고
 우리님 잔소리는 꿀맛 같아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자식에 애정은 버릴수 있지만
 부모님 효행은 버릴수 없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선조님들이 지켜온 문화전통
 대대손손 후손들이 이어가고 있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호박은 늙을수록 색깔이 나건만
 인간은 늙을수록 피깔이 없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우리가 살면은 만년 사나
 인간백년 단칠십도 못사는 인생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이제나 언제나 유정님 만나

요세상 백년을 잘살아 볼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타고난 팔자는 변할수 없어
사람마다 직업은 천충만충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오늘살다 내일 이맘때 죽더라도
내뱃속만 든든하면은 근심걱정없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동지선달 쌓인눈은 봄이되면 풀리건만
이내가슴 쌓인수심은 하절이되도 안풀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날가라네 날가라네 날 가라네
시집살이 못한다고 날 가라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시집살이 못하는건 배우면 하지
아들딸을 못낳는건 가라면 가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시어머님 드리려고 호박을 삶았더니
잠결에 잘못삶아서 요강단지를 삶았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오늘해도 다 넘어가고
 집집마다 저녁연기만 나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시집살이 잘한다고 칭찬을 했더니
 요강단지 부셔다가 찬장속에 넣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부령청진 가신님은 돈이나벌면 오련만
 공동묘지 콩팔리가신님 어느시절에 오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무정한 우리님아 가지마오
 임없는 요세상 어떻게 살아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오다가다 만난사람 정으로 살고
 귀밑머리 마주푼건 법으로 사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뒷동산에 도라지꽃 모록모록
 우리집에 상고머리 거덜거덜 놓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세월에 청춘은 젊어오고

인간의 청춘은 늙어만 가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아리랑 고개는 몇고갨가
 인생에 이구비는 한이없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일도많고 말도많은 시집살이
 시어머니 미운시누 말도 많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엄중한 아버지에게 효자나고
 엄중한 어머니에게 효녀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서산에 지는해는 지고싶어 지나
 나를두고 가시는임 가고싶어 가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일락서산 지는해는 거의 지는데
 골골마다 저녁연기 나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시어머니 죽으라고 백일정성 하였더니
 친정어머니 죽었다고 부고가 왔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아리랑타령 잘하기는
 말동서 잡년도 잘잘하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양산도타령을 잘하는
 이모집 딸년도 잘잘하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몸철인지 가을철인지 나는 몰랐더니
 뒷동산에 매화춘절이 나를 알려주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앞이나고 꽃이피는 춘삼월이면
 산채나물만 뜯어먹어도 봄은 살아나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모내기소리

♩ = 40
(받는소리)

노래: 정달훈
체보: 이창신

아 리 - 랑 아 리 - 랑 아 라 - 리 요 - - -

아 리 라 오 고 래 로 - - 나 를 넘 겨 주 - 소

(메기느소리)

저 권 너 - - 목 바 트 은 작 너 니 에 도 목 더 - - 니 - - -

을 해 - - 도 - 날 과 같 이 나 - - 또 목 었 - 네

(메기느소리)

서 산 에 - - 지 는 해 - - 는 지 고 - 싶 어 지 - - - 나 - - - -

나 르 버 리 고 - 가 시 는 - - 니 - - 가 고 싶 어 가 - 나

● 초듬메는소리

메김 : 정달훈(남 1928년생)

후렴 : 장플두레농요보존회원

어허슬슬 더듬어주세
 어허슬슬 더듬어주세
 천지 만물중에
 어허슬슬 더듬어주세
 사람밖에 또있는가
 어허슬슬 더듬어주세
 이세상에 나올적에
 어허슬슬 더듬어주세
 아버님전 뼈를빌고
 어허슬슬 더듬어주세

어머님전 살을빌어
어허슬슬 더듬어주세
칠성님전 영을빌고
어허슬슬 더듬어주세
지성님전 복을빌어
어허슬슬 더듬어주세
이내일신 탄생하야
어허슬슬 더듬어주세
살두살에 유포양육
어허슬슬 더듬어주세
회전취습 세탁부경
어허슬슬 더듬어주세
연고토감 위조아업
어허슬슬 더듬어주세
원행억염 구경연민
어허슬슬 더듬어주세
회탁수호 임산수고
어허슬슬 더듬어주세
열칠팔세 생자망우
어허슬슬 더듬어주세
다생부모 십전대은
어허슬슬 더듬어주세
부모님은혜 다갠을손가
어허슬슬 더듬어주세
더더없이 가는인생
어허슬슬 더듬어주세

누가능히 막을손가
 어허슬슬 더듬어주세
 저승길에 가는길에
 어허슬슬 더듬어주세
 머리깎아 짚신삼아
 어허슬슬 더듬어주세

초둑매기

♩ = 50 노래 : 정달훈
체보 : 이창신

(메기느소리) (받는소리)
 이 허슬 슬 더듬 어 주 우 세 이 허슬 슬 더듬 어 주 우 세

(메기느소리) (받는소리)
 요 리 조 리 - 손 을 - 두 어 이 허슬 슬 더듬 어 주 우 세

(메기느소리) (받는소리)
 천 지 - 지 간 - 만 물 - 중 에 이 허슬 슬 더듬 어 주 우 세

(메기느소리) (받는소리)
 사 람 - 밖 에 - 또 있 - 는 가 이 허슬 슬 더듬 어 주 우 세

● 이듬메는소리

메김 : 정달훈(남 1928년생)
 후렴 : 장플두레농요보존회원

이방아가 뉘방안가
 에헤라 방아호

우리농부 디딜방아
에헤라 방아호
명사십리 해당화야
에헤라 방아호
꽃이진다 서러워마라
에헤라 방아호
명년춘삼월이 돌아오면
에헤라 방아호
너는다시 피련마는
에헤라 방아호
인간아치 죽어지면
에헤라 방아호
씩이돈나 읊이나나
에헤라 방아호
초로같은 우리인생
에헤라 방아호
한번가면 못온다네
에헤라 방아호
공수거 고수래라
에헤라 방아호
인간의 본능이라
에헤라 방아호
어사맘세 빨리냄세
에헤라 방아호
오칸댕이로 매어나주소
에헤라 방아호

칠년대한 구년치수
에헤라 방아호
오갓재난 다겪으며
에헤라 방아호
농사의전통 이어왔네
에헤라 방아호
보리타작 해야되고
에헤라 방아호
보리밭망도 세싸야되고
에헤라 방아호
콩밭도 심우야되고
에헤라 방아호
참깨들계도 심우야되고
에헤라 방아호
손이열개라도 모자란일손
에헤라 방아호
어느사람 팔자좋아
에헤라 방아호
고대광실 기와집에
에헤라 방아호
부귀영화 누리건만
에헤라 방아호
이놈팔자 기박하여
에헤라 방아호
빈공간만 먼치못해
에헤라 방아호

운명에 팔자로다
에헤라 방아호

이듬매기

노래 : 정달훈
체보 : 이창신

♩ = 3 5

(메기느소리) (받는소리)

에 에 라 방 아 호 에 에 라 방 아 호

(메기느소리) (받는소리)

이 방 - 아 가 - 뉘 방 안 가 에 에 라 방 아 호

(메기느소리) (받는소리)

강 태 - 공 에 - 조 작 방 아 에 에 라 방 아 호

(메기느소리) (받는소리)

밭 에 루 - 고 루 갖 추 어 에 에 라 방 아 호

● 보리방아짚기소리

메김 : 정달훈(남 1928년생)
후렴 : 장뜰두레농요보존회원

덜크덩쿵쿵더쿵 짚는방아
가운데동세가 더잘짚네
덜크덩쿵 쿵더쿵 짚는방아
언제나 다짚고 밤마실 가나

영감아 땡감아 개떡죽 먹게
 방아팜 팔아서 개떡죽을 쑤었네
 덜크덩쿵 쿵더쿵 찝는방아
 언제나 다짚고 밤마실 가나
 풋보리 꺾어서 떡보리하고
 꺾꺼러운 보리떡 꿀맛같이
 덜크덩쿵 쿵더쿵 찝는방아
 언제나 다짚고 밤마실 가나
 울다리 밑에서 꼴비는 총각
 눅치나 있거든 떡받아 먹게
 덜크덩쿵 쿵더쿵 찝는방아
 언제나 다짚고 밤마실 가나
 떡은 받아서 물팽개 치고
 손목만 쥐고서 별별 떠네
 덜크덩쿵 쿵더쿵 찝는방아
 언제나 다짚고 밤마실 가나
 팔라당 팔라당 홍갑사댕기
 고운때도 안묻어 사주가 왔네
 덜크덩쿵 쿵더쿵 찝는방아
 언제나 다짚고 밤마실 가나
 사주는 받아서 옆에다 놓고
 한숨만 쉬어서 동남풍 되네
 덜크덩쿵 쿵더쿵 찝는방아
 언제나 다짚고 밤마실 가나
 눈물은 흘러서 한강수 되고
 이내생활 가는게이 여자일생

덜크덩쿵 쿵더쿵 짙는방아
 언제나 다짙고 밤마실 가나
 대추나무 뽕날때가 어려운 계절
 딸자식 집어도 가지를 마오
 덜크덩쿵 쿵더쿵 짙는방아
 언제나 다짙고 밤마실 가나
 칙뿌리 캐어서 가루 내어
 칙떡엿 수제비를 먹어를 봤나
 덜크덩쿵 쿵더쿵 짙는방아
 언제나 다짙고 밤마실 가나
 첫달라고 우는자식 등에 업고
 아침방상 마련하러 절구방아
 덜크덩쿵 쿵더쿵 짙는방아
 언제나 다짙고 밤마실 가나
 고대광실 높은집에 대청마루
 김대감 상투가 흔들흔들
 덜크덩쿵 쿵더쿵 짙는방아
 언제나 다짙고 밤마실 가나
 김대감 상투가 풀럭하니
 담넘어 큰애기 손짓하네
 덜크덩쿵 쿵더쿵 짙는방아
 언제나 다짙고 밤마실 가나
 놀다가게 놀다가게 놀다가게
 스무사흘 달뜨도록 놀다가게
 덜크덩쿵 쿵더쿵 짙는방아
 언제나 다짙고 밤마실 가나

놀다가 가는님은 졸장부요
잠자다가 가는님은 내님이지
 털크덩쿵 쿵더쿵 찡는방아
 언제나 다짚고 밤마실 가나
시어머니 죽어서 좋았더니
보리방아 물뵈놓니 또생각나네
 털크덩쿵 쿵더쿵 찡는방아
 언제나 다짚고 밤마실 가나
열라는 콩밭은 왜아니 열고
아주까리 동백은 왜요리 열려
 털크덩쿵 쿵더쿵 찡는방아
 언제나 다짚고 밤마실 가나
아주까리 동맥아 열지마라
우리집 삼동서 줄난봉나네
 털크덩쿵 쿵더쿵 찡는방아
 언제나 다짚고 밤마실 가나
아실아실 추운것도 큰병인데
요내품에 들면은 날 병일세
 털크덩쿵 쿵더쿵 찡는방아
 언제나 다짚고 밤마실 가나
무명질삼 못하는건 배우면 하지
아들딸 못낳는건 가라면 가지
 털크덩쿵 쿵더쿵 찡는방아
 언제나 다짚고 밤마실 가나
아이고배야 지고배야 딸날뻘세
삼신할머니 물떠놓고 비나이다

덜크덩쿵 쿵더쿵 짙는방아
 언제나 다짙고 밤마실 가나
 오늘떠날지 내일갈지 모르는데
 호박넝쿨 박넝쿨은 담넝어스게
 덜크덩쿵 쿵더쿵 짙는방아
 언제나 다짙고 밤마실 가나
 물레방아 풍패는 잘도나 돌고
 연자방아 돌매방아 잘돌아가네
 덜크덩쿵 쿵더쿵 짙는방아
 언제나 다짙고 밤마실 가나
 논가리 밭가리 우리집 소님
 저녁이면 돌매방아 돌려야되요
 덜크덩쿵 쿵더쿵 짙는방아
 언제나 다짙고 밤마실 가나
 사시사철 바쁜일손 가꾼전답
 일한만큼 소득이와도 가질게 없어
 덜크덩쿵 쿵더쿵 짙는방아
 언제나 다짙고 밤마실 가나
 일년이면 삼백육십 열두달인데
 여십사계절 석달씩 나눠보세
 덜크덩쿵 쿵더쿵 짙는방아
 언제나 다짙고 밤마실 가나
 동쪽은 청목이오 봄에 계절
 1 2 3월 모든수목이 싹트는 계절
 덜크덩쿵 쿵더쿵 짙는방아
 언제나 다짙고 밤마실 가나

남쪽은 적하요 여름계절
 4 5 6월 모든식물이 꽃피는 계절
 덜크덩쿵 쿵더쿵 짙는방아
 언제나 다짙고 밤마실 가나
 서쪽은 황금이오 가을계절
 7 8 9월 모든곡식이 열매맺는 계절
 덜크덩쿵 쿵더쿵 짙는방아
 언제나 다짙고 밤마실 가나
 북쪽은 백동이오 겨울계절
 10 11 12월 황금추수 수확계절
 덜크덩쿵 쿵더쿵 짙는방아
 언제나 다짙고 밤마실 가나
 소나무피 말려서 가루내어
 소나무 송편 먹어봤나
 덜크덩쿵 쿵더쿵 짙는방아
 언제나 다짙고 밤마실 가나
 사람이 빈곤하면 지혜가 짧고
 사람이 복 많으면 마음이 험통
 덜크덩쿵 쿵더쿵 짙는방아
 언제나 다짙고 밤마실 가나
 엄중한 아비밑에 효자나고
 엄중한 어미밑에 효녀난다
 덜크덩쿵 쿵더쿵 짙는방아
 언제나 다짙고 밤마실 가나
 어려서 안배우면 후회해요
 늙으면은 무능해서 설대가 없네

덜크덩쿵 쿵더쿵 찢는방아
언제나 다짚고 밤마실 가나

● 세듭매는소리

메김 : 정달훈(남 1928년생)

후렴 : 장뜰두레농요보존회원

천지시간 말물중에
 홍개방개가 논다
음양으로 태어나서
 홍개방개가 논다
오행에조화 살아가며
 홍개방개가 논다
천간삼광 지지오복
 홍개방개가 논다
잡풀도많고 곱풀도 많네
 홍개방개가 논다
참방개도 너무나 많은데
 홍개방개가 논다
요리조리 손을 맞추어
 홍개방개가 논다
말끔이나 흠쳐주오
 홍개방개가 논다
한나절이 다되어가도
 홍개방개가 논다

주인양반은 보이지 않네
 홍개방개가 논다
 만고영웅 조명덕도
 홍개방개가 논다
 나죽는 날은 몰랐었나
 홍개방개가 논다

세듬매기

♩ = 60 노래: 정달훈
체보: 이창신

(메기느소리) (받느소리)
 홍 개 방 개 가 노 은 다 홍 개 방 개 가 노 은 다

(메기느소리) (받느소리)
 참 방 - - 게 두 나 너 무 나 많 고 홍 개 방 개 가 노 은 다

(메기느소리) (받느소리)
 요 리 - - 조 리 로 손 을 맞 추 어 홍 개 방 개 가 노 은 다

(메기느소리) (받느소리)
 말 끄 이 나 흠 처 주 소 홍 개 방 개 가 노 은 다

6 청주 민요

1) 강서농요

청주농요는 1977년 수원에서 개최된 제1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청원농요'로 출연하여 문화공보부장관상을 받았고 1997년 익산에서 개최된 제3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강서농요'로 출연하여 노력상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2001년 괴산에서 개최된 제8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청주농요'로 출연하여 우수상을 받고 선소리꾼 김만기가 개인상을 받았다. 이어 2002년 영동에서 개최된 제9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신촌두레농요'로 출연하여 대상을 받고 2003년 제천에서 개최된 제10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원마루들노래'로 출연하여 우수상을 받고 2004년 증평에서 개최된 제11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지동두레농요'로 출연하여 우수상을 받은 작품이다.

출연 : 청주국악협회 회원
고증 : 박 진(청주교대 교수)
구성·연출 : 박 진(청주교대 교수)

□ 해 설

청주 강서농요는 옛날 농사두레에서 소리꾼이 풍장을 치면서 부르던 남성노동요 '두레소리'(모찌는소리·모심는소리·논매는소리·논뜯는소리)를 엮어 연희하면서 노래하는 것이 특징이다.

□ 구 성

모찌기노래 : 모찌기를 연희하면서 노래를 부른다.

모심기노래 : 모심기를 연희하면서 노래를 부른다.

양팡계 : 서서 노래를 부른다.

논매기노래 : 논매기를 연희하면서 노래를 부른다.

논뜯기노래 : 논뜯기를 연희하면서 노래를 부른다.

□ 노 래

● 모찌기노래

메김 : 고종운(남, 1916년생)

후렴 : 지동마을 사람들

몽치고 정치세 이뭇자리를 몽쳐주게
 몽치고 정치세 이뭇자리를 몽쳐주게
에워내고 에워내세 이뭇자리를 에워내세
 몽치고 정치세 이뭇자리를 몽쳐주게
시집가고 장가가네 이뭇자리는 시집가고
 몽치고 정치세 이뭇자리를 몽쳐주게
부잣집 만며누리 되어서루 이뭇자리는 들어내고
 몽치고 정치세 이뭇자리를 몽쳐주게
여보시오 농부님네 이뭇자리를 들어내고
 몽치고 정치세 이뭇자리를 몽쳐주게
몽쳐라 정치라 에히야 못자리 정치라

모찌는소리

M. M. ♩ = 44 (시작은 약간 느리다) (앞소리)

노래: 고종운
체보: 박진



(뒤틀소리)



● 모심기노래

메김 : 고종운(남, 1916년생)

후렴 : 지동마을 사람들

에헤이 이히여하 상사가 논다
 에헤이 이히여하 상사가 논다
 한섬지기 논배미가 반달만치 남았는데
 에헤이 이히여하 상사가 논다
 서른마지기 논배미 짓을달아 놓았으니
 에헤이 이히여하 상사가 논다
 우리동내 홀로된분 어느사람 팔자가좋아
 에헤이 이히여하 상사가 논다

나는모를내며 상사소리를 하는데 우리집낭군은 어딜갔나

에헤이 이히여하 상사가 논다

창호중에 좋은술은 어느낭군이 맛을보며

에헤이 이히여하 상사가 논다

태호중에 좋은술은 어느낭군이 맛을보나

에헤이 이히여하 상사가 논다

우리낭군 떠나실적에 명년춘삼월 오신다더니

에헤이 이히여하 상사가 논다

꽃이피고 잎이저도 우리낭군 안오시네

에헤이 이히여하 상사가 논다

사래차고 장찬받은 어느낭군이 갈아주나

에헤이 이히여하 상사가 논다

나간길 바라보며 이마위에 손을 얹고

에헤이 이히여하 상사가 논다

망부석이 되단말가 망부석이 되단말가

에헤이 이히여하 상사가 논다

어린자식 애비불러 애비간장 다독인다

에헤이 이히여하 상사가 논다

모심기소리

M. M. ♩ = 76 (두마디정도의시창은느리게뽑는다)

노래 : 고종운
체보 : 박진

에 헤 이 이 히 여 하 상 - 사 - 가 노 다

에 헤 이 이 히 여 하 상 - 사 - 가 노 다

(앞소리)

한 십 지기 — 온 배 미 가 반달 만 짐 — 은 남았는 데

(받느소리)

에 해 이 이 히 여 하 — 상 - 사 - 가 노 다

● 양팡계

앞소리 : 이현기(남, 1905년생)

뒷소리 : 고종운(남, 1916년생)

신동준(남, 1919년생)

양팡계 에에에야

양팡 에에게로다

양팡계 에에에야

양팡 에에게로다

양팡계 소리

소리 : 이현기
채보 : 박진

(앞소리)

안 팡 — — — 계 — 에 — 에 — 에 — 야

(2)

안 팡 — — — 에 — 에 — 게 — 로 — 다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the song 'Nonmaegi Noe'. It consists of two staves of music in G major (one sharp). The top staff is marked with a '3' and '(뒷소리)', indicating a triplet. The lyrics under the top staff are '안 팡 - - - 에 - - - 계 에 - 에 - 야'. The bottom staff has lyrics '안 팡 - - - 에 에 계 다'. There are dynamic markings 'f' and 'V' (crescendo) in both staves.

● 논매기노래

메김 : 고종운(남, 1916년생)

후렴 : 지동마을 사람들

에헤헤 어아호호
 여보시오 농부님네
 이내말씀 들어보소
 날일자로 가지말고
 반달같이 올라를가세
 백구야하늘 나지를마라
 승상이 바렸으니
 너를쫓을 내아니다
 춘사흘 일을두고
 너잡을 내아니로다

논매기 노래

노래 : 고종운
채보 : 박진

$\text{♩} = 69$

에 헤—헤어 하호 호어 어 하어 야오 호
 3 여 보시오 농부 님 네어 어 하어 야오 호
 5 이 네말 씬들 어보 소어 어 하어 야오 호
 7 날 일자로 가지를말고 어 어 하어 야오 호
 9 반—달가치만 올라를가 세어 어 하어 야오 호
 11 백구야하늘 가지를말어라 어 어 하어 야오 호
 13 승상이바렸—으니어 어 하어 야오 호
 15 너를 쫓을 내아니로 다어 어 하어 야오 호
 17 춘사흘 일음—두고어 어 하어 야오 호

7 청원 민요

1) 낭성산판소리

낭성산판소리는 1985년 강릉에서 개최된 제26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한 작품이다

출연 : 청원 낭성 및 미원주민
고증 : 박진(청주교대 교수)
구성·연출 : 박진(청주교대 교수)

□ 해 설

산판소리는 옛날에 산에 있는 풀이나 나무를 함부로 베지 못하게 말리어 가꾸는 말림갯에서 관청의 허가를 받아 나무를 베거나 나르는 산판(山坂)에서 일꾼들이 부르는 별목노동요이다.

낭성은 청주 상당산의 동쪽에 있는 속칭 ‘산안’으로 산이 많고 큰 나무가 많아 인근 고을에 집 지을 재목이나 청주읍내의 땀감을 공급 또는 조달하던 곳으로 산판업자들이 허가를 받아 일꾼을 모아 나무나 풀을 베었는데 위험하고 힘든 일이지만 품삯이 좋아 낭성 미원 가덕과 청천의 장정들이 모여들어 별초와 별목을 하였다. 특히 베어놓은 큰나무를 옮길 때는 여러 사람이 목도로 운반하는데 목도하는 사람 수에 따라 4목도 8목도 10목도 12목도라 하고 아무리 큰 나무라도 12목도가 옮길 수 있게 짜른다고 한다.

□ 구 성

- 산 오르기 : 일꾼들이 산으로 올라가며 ‘나무 베러가는노래’를 부른다
풀을 베기 : 벨 나무 밑의 잡풀을 낫으로 베면서 ‘꼰베는 총각’을 부른다.
나무 베기 : 나무를 두 사람이 톱으로 자르면서 ‘톱질하는 노래’를 부른다.
휴식과 춤 : 휴식하면서 ‘나무꾼 노래’를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춘다.
목도소리 : 일꾼들이 목도로 나무를 옮기면서 ‘목도소리’를 한다.

□ 노 래

● 나무 베러가는 노래

노래 : 박동식(남. 1935년생)

가세가세 어서가세 산에올라 나무해서
방뜨시게 불을때면 우리살림 활작피네
나무베서 불을때면 방뜨거워서 부모좋아
나도좋아 부인도좋아 자식도좋아 잘살아보세
여보시오 인부님네 빨리빨리 어서가세
산에가야 나무베여 산천경계 둘러보세
나무베서 하산하면 무엇하나 걱정말게
나라에바쳐 충성하고 대궐궁궐 지어보세

● 꼰베는 총각

노래 : 박동식(남. 1935년생)

올넘머 담넘어 꼴베는 총각
눈치나 있거들랑 떡받아 먹게
떡일랑 받아서루 품에다 품고
내손목 잡구서 척 늘어지네
참나무 모시대 살어진 골로
뒷집에 김도령 꼴비러 가세

● 톱질하는 노래

메김 : 홍순기(남. 1930년생)

후렴 : 낭성 · 미원 주민

슬그슬금 톱질이야
 아야라 밀어라 톱질이야
어서베자 어서베자
 아야라 밀어라 톱질이야
어서달려라 빨리당겨
 아야라 밀어라 톱질이야
좌측으로 넘겨보자
 아야라 밀어라 톱질이야

슬그슬금 톱질이야
 아야라 밀아라 톱질이야
어느사람을 구하던가
 아야라 밀어라 톱질이야
나도한번 힘을내여

아야라 밀어라 톱질이야
톱질한테 안지겠다
아야라 밀어라 톱질이야

● 나무꾼 노래

노래 : 박동식(남, 1935년생)

에헤라 산이야 오호
서리같이 드는도끼 어깨위에 번쩍들어
천장만장 되는낭굴 증등찍어 버혀놓고
반달같은 굵은낫을 한손으로 쥐어잡고
에헤라 산이야 오호

우리 동포들아 이내말씀 들어보소
초동목수의 신분되야 산림규칙 모르던가
예전습관 그저있어 범률저촉 되나이다
에헤라 산이야 오호

장자일꾼은 소를몰고 아래일꾼은 지개지고
무주공산 들어가서 내맘대로 나무하세
어린낭구 남겨두고 장작발인 소에실세
에헤라 산이야 오호

단을뭍어 지개하고 석양산 굵은길로
주춤주춤 내려오다 객사청천 흐르는물을

곁에두고 고이얏아 곰방대를 툭툭털며
에헤라 산이야 오호

탄식하는 말이허허 세월도 덧없구나
인경산 청천목이 밀집같이 자랐더니
운화채를 못면하여 옆에동택이 되었구나
에헤라 산이야 오호

● 목도소리

메김 : 흥순기(남. 1930년생)

허영차 허영차 에헤어이 허영차
헤어이 헤여 허영차 허영차 아흥 허영차

2) 동평들노래

동평들노래는 1993년 청주에서 개최된 제34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하여 문화공보부장관상을 수상하고 소리꾼 손영만이 개인상을 받은 작품다.

출연 : 청원 동평리 주민
고증 : 김영진(청주대 교수)
구성·연출 : 임동철(충북대 교수)

□ 해 설

동평들노래는 옛날 농사두레에서 소리꾼이 풍장을 치면서 부르던 ‘두레 소리’(모찌는소리·모심는소리·논매는소리·논뜯는소리)를 엮어 연희하면서 노래하는 남성노동요이다.

□ 구 성

모찌는 노래 : 모찌기를 연희하며 선후창으로 부른다.

모심는노래 : 모심기를 연희하며 선후창으로 부른다.

논매는노래 : 논매기를 연희하며 선후창으로 부른다.

□ 노 래

● 모찌는 노래

메김: 강헌달(남, 1922년생)

후렴: 동평리 주민

mungchise mungchise eheya motjari mungchise
mungchise mungchise eheya motjari mungchise
urine nongbudeul imotjarileul mungchise
mungchise mungchise eheya motjari mungchise
imotjari jangcheseo ditnenedo moseulsimgo
mungchise mungchise eheya motjari mungchise
geumnyeonongsa jaljiae sambaekchullo haebopsida

뭉치세 뭉치세 에헤야 못자리 뭉치세
 뭉치세 뭉치세 에헤야 못자리 뭉치세
 뭉치세 뭉치세 에헤야 못자리 뭉치세
 우리네 농부꾼 농사밖에 더있는가
 뭉치세 뭉치세 에헤야 못자리 뭉치세
 해는떠서 날씨좋고 동남풍이 불어오니
 뭉치세 뭉치세 에헤야 못자리 뭉치세
 금년시절 좋을시고 가을추수 대풍이라
 뭉치세 뭉치세 에헤야 못자리 뭉치세
 뭉치세 뭉치세 에헤야 못자리 뭉치세
 앞산에는 꽃이피고 뒷산에는 녹음이라
 뭉치세 뭉치세 에헤야 못자리 뭉치세
 집집마다 웃음이오 마을마다 노래로다
 뭉치세 뭉치세 에헤야 못자리 뭉치세
 이논에서도 뭉치고 저논에서도 장치네
 뭉치세 뭉치세 에헤야 못자리 뭉치세
 뭉치세 뭉치세 에헤야 못자리 뭉치세
 아침에 먹은밥이 반나절에 허기지네
 뭉치세 뭉치세 에헤야 못자리 뭉치세
 이논주인 어디가서 새이참을 잊었는가
 뭉치세 뭉치세 에헤야 못자리 뭉치세
 동네쪽을 바라보니 흰연기만 나는구나
 뭉치세 뭉치세 에헤야 못자리 뭉치세
 뭉치세 뭉치세 에헤야 못자리 뭉치세

몽치세 몽치세 에헤야 못자리 몽치세
 어딜갔나 어딜갔나 이놈주인 어딜갔나
 몽치세 몽치세 에헤야 못자리 몽치세
 배는끓아 허기지고 노랫소리 힘이없네
 몽치세 몽치세 에헤야 못자리 몽치세
 젊은사람 빨리빨리 늙은이는 느릿느릿
 몽치세 몽치세 에헤야 못자리 몽치세
 몽치세 몽치세 에헤야 못자리 몽치세
 몽치세 몽치세 에헤야 못자리 몽치세
 이팔청춘 소년들아 백발보고 웃지마라
 몽치세 몽치세 에헤야 못자리 몽치세
 춘삼월에 피던꽃도 오뉴월에 꽃이지고
 몽치세 몽치세 에헤야 못자리 몽치세
 오뉴월에 푸른낭구 구시월에 낙엽되네
 몽치세 몽치세 에헤야 못자리 몽치세
 몽치세 몽치세 에헤야 못자리 몽치세
 몽치세 몽치세 에헤야 못자리 몽치세
 젊어서는 사서고생 옛말에도 있건만은
 몽치세 몽치세 에헤야 못자리 몽치세
 늙어지면 못논다고 텃병텃병 노지마라
 몽치세 몽치세 에헤야 못자리 몽치세
 늙어지면 병이들고 병이들면 죽어간다
 몽치세 몽치세 에헤야 못자리 몽치세
 몽치세 몽치세 에헤야 못자리 몽치세
 몽치세 몽치세 에헤야 못자리 몽치세

● 모심기노래

메김: 강헌달(남, 1922년생)

후렴: 동평리 주민

에헤야에 에헤헤야 상사디어
 에헤야에 에헤헤야 상사디어
에헤야에 에헤헤야 상사디어
 에헤야에 에헤헤야 상사디어
여보시오 농부님네 모심기노래를 하여보세
 에헤야에 에헤헤야 상사디어
오늘날은 여기서놓고 내일날은 어디가노나
 에헤야에 에헤헤야 상사디어
가는세월 잡을이없으니 슬렁슬렁 돌아보세
 에헤야에 에헤헤야 상사디어
세월아네월아 가지를마라 아까운청춘이 다늠어간다
 에헤야에 에헤헤야 상사디어
여보시오 농부님네 이내말씀을 들어보소
 에헤야에 에헤헤야 상사디어
천지지만 만물중에 사람밖에 또있는가
 에헤야에 에헤헤야 상사디어
이세상에 나온사람 누덕으로 태어났나
 에헤야에 에헤헤야 상사디어
석가여래 공덕으로 칠성님의 명을받아
 에헤야에 에헤헤야 상사디어
아버님전 뼈를받고 어머님전 살을받고
 에헤야에 에헤헤야 상사디어

이내일신 태어나서 금지옥엽으로 자라날제
 에헤야에 에헤헤야 상사디어
 젖은자리는 비켜놓고 마른자리에 골라누이며
 에헤야에 에헤헤야 상사디어
 여름날에는 더울세라 겨울날에는 추울세라
 에헤야에 에헤헤야 상사디어
 사시사철 걱정하며 곱게곱게 기른은공
 에헤야에 에헤헤야 상사디어
 한두살에는 청을몰라 부모님은공 못다갠고
 에헤야에 에헤헤야 상사디어
 태산같은 부모은공 어느날에나 다갠을까
 에헤야에 에헤헤야 상사디어
 머리털깎어 신을삼고 혀를빼여 신창을대여
 에헤야에 에헤헤야 상사디어
 수천리를 다달려도 부모은공 다못갠네
 에헤야에 에헤헤야 상사디어
 산지조종은 곤륜산이오 수지조종은 황해수라
 에헤야에 에헤헤야 상사디어
 곤륜산 일지맥이 주춤주춤 내려와서
 에헤야에 에헤헤야 상사디어
 충청북도 청원군에 이마음이 생겼도다
 에헤야에 에헤헤야 상사디어
 미호천의 맑은물이 넓은들녘 흘러가고
 에헤야에 에헤헤야 상사디어
 앞뜰논도 천석지기 뒷뜰논도 만석지기
 에헤야에 에헤헤야 상사디어

풍년새가 날라나들어 노적가리에 올라앉아
 에헤야에 에헤헤야 상사디어
 두날개를 후다닥치니 일이천석에 쏟아진다
 에헤야에 에헤헤야 상사디어
 쌀인곡식 방아를짚어 백옥같은 흰쌀밥에
 에헤야에 에헤헤야 상사디어
 늙은부모님 봉양을하고 어린자식 배불리먹여
 에헤야에 에헤헤야 상사디어
 가내태평 누리시고 태평가나 불러보세
 에헤야에 에헤헤야 상사디어

● 논매기노래

메김 : 김정식(남, 1920년생)

후렴 : 동평리 주민

어화렐렐 상사디어
 어화렐렐 상사디어
 어화렐렐 상사디어
 어화렐렐 상사디어
 여보시오 일꾼네들
 어화렐렐 상사디어
 이내말씀 들어보게
 어화렐렐 상사디어
 천하지대본 농사로다
 어화렐렐 상사디어

이논땀이 논을매세
어화렷렷 상사디어
풍년들게 논을매세
어화렷렷 상사디어
여기과고 저기과고
어화렷렷 상사디어
부지런히 논을매세
어화렷렷 상사디어
점심참이 오기전에
어화렷렷 상사디어
얼른매고 쉬어보세
어화렷렷 상사디어
쉬지말고 논을매세
어화렷렷 상사디어
땀이나게 일을하세
어화렷렷 상사디어
금년농사 풍년들게
어화렷렷 상사디어
우리농부 호강이요
어화렷렷 상사디어
금년농사 흥년들면
어화렷렷 상사디어
우리농부 고생일세
어화렷렷 상사디어
여기과고 저기과고
어화렷렷 상사디어

골골마다 정성들여
 어화렷렷 상사디어
내논같이 매어보세
 어화렷렷 상사디어
이팔청춘 소년들아
 어화렷렷 상사디어
백발보고 웃지마라
 어화렷렷 상사디어
나도어제는 청춘이더니
 어화렷렷 상사디어
백발되니 한숨난다
 어화렷렷 상사디어
이팔청춘 소년시에
 어화렷렷 상사디어
부지런히 일했으면
 어화렷렷 상사디어
이고생을 안했을걸
 어화렷렷 상사디어
주색잡기에 돈날리고
 어화렷렷 상사디어
늪으막에 고생이네
 어화렷렷 상사디어
생각하면 후회로다
 어화렷렷 상사디어
이팔청춘 소년시에
 어화렷렷 상사디어

젊어서는 놀지말고
어화렷렷 상사디어
부지런히 일을하고
어화렷렷 상사디어
나이먹고 병이들면
어화렷렷 상사디어
편안하게 놀고먹자
어화렷렷 상사디어
우리농부 눈만뜨면
어화렷렷 상사디어
농사밭에 더있는가
어화렷렷 상사디어
부지런히 농사지어
어화렷렷 상사디어
늙은부모 봉양하고
어화렷렷 상사디어
어린자식 공부시켜
어화렷렷 상사디어
자식노릇 부모노릇
어화렷렷 상사디어
남과같이 하여보세
어화렷렷 상사디어
여보시오 일꾼님네
어화렷렷 상사디어
내애기를 새겨듣고
어화렷렷 상사디어

부지런히 일음하계
어화렐렐 상사디어
남았구나 남았구나
어화렐렐 상사디어
반달만큼 남았구나
어화렐렐 상사디어
이게무슨 반달인가
어화렐렐 상사디어
짚신만큼 남았구나
어화렐렐 상사디어
여기과고 저기과면
어화렐렐 상사디어
이논배미 다땀구나
어화렐렐 상사디어
이여호호(합창)

3) 미호천방축노래

미호천방축노래는 1973년 청주에서 개최된 제14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처음 출연한 작품이다.

출연 : 청원 강서지동및 고락동 주민

고증 : 김영진(청주대 교수)

구성·연출 : 윤혁남(청주국악원장)

□ 해 설

방축은 홍수의 범람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물을 저장하기 위하여 흙으로 둑을 쌓는 일을 말하며 이 때 부르는 방축노래는 주로 가래질, 즉 한 사람이 가래자루를 잡고 두 사람이 가랫줄을 잡아당기어 흙을 모으거나 옮기면서 부르기 때문에 일명 ‘가래질노래’라 하는 남성노동요이다. 그러나 미호천방축노래는 가래질노래와 함께 돌이나 나무통을 묶어 여럿이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면서 땅을 다지는 땅다지기 노래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미호천방축제



□ 구 성

보제지내기 : 제물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고 음복한다

가래질노래 : 가재질하면서 노래한다

땅다지기노래 : 땅을 다지며 노래한다

□ 노 래

● 가래질노래

천지현황 생긴후에

에- 일성 가래야

신농씨 본을 받아

에- 일성 가래야

이농사를 지을적에

에- 일성 가래야

수제공급 으뜸이라

에- 일성 가래야

우리농군 마음합쳐

에- 일성 가래야

이보위에 가래흙이라

에- 일성 가래야

태산같이 높이올려

에- 일성 가래야

바위같이 다져놓세

에- 일성 가래야
장줄잡은 힘썌일꾼
에- 일성 가래야
경줄잡이 옆눈모아
에- 일성 가래야
소리맞춰 당겨주소
에- 일성 가래야

● 느린가래질노래

수로지신님께 섬김을 받아
에- 일성 가래야
신농씨의 가르침을 받아
에- 일성 가래야
우리대본에 방뚝가래로다
에- 일성 가래야
아양산하 너른들에
에- 일성 가래야
오곡풍년이 들리로다
에- 일성 가래야
이가래 한삽에 만년뚝이로다
에- 일성 가래야
가문가문 만년뚝이로다
에- 일성 가래야
가문가문 만복가래로다

에- 일성 가래야
여보아라 우리일꾼들
에- 일성 가래야
줄에 힘주어 당겨나 주오
에- 일성 가래야

● 자진가래질노래

조근조근 당겨주소
에 일성 가래
뚝방밑이 깊어진다
에 일성 가래
우리보퉁은 높아지고
에 일성 가래
문전옥탑이 따로있나
에 일성 가래
가래소리에 옥답이된다
에 일성 가래
부모산에 기름진땅
에 일성 가래
우리조상의 터전일세
에 일성 가래
수문잡고 보를치면
에 일성 가래
양양창창 봇물일세

에 일성 가래
아양산하 너른들에
에 일성 가래
만곡풍년이 들리로다
에 일성 가래
여보시오 농부님들
에 일성 가래
쉬지말고 다려만주소
에 일성 가래

● 땅다지기 노래

에헤 드렸다 지점이야
에헤 드렸다 지점이야
웅천상지 상광이오
에헤 드렸다 지점이야
비인간지 오복이라
에헤 드렸다 지점이야
한번다져서 천석이면
에헤 드렸다 지점이야
두번다져 만석일세
에헤 드렸다 지점이야
이뚝다지가 뉘뚝인가
에헤 드렸다 지점이야
부모산아래 미호뚝일세

에헤 드렸다 지점이야
만년뚝을 다졌으니
에헤 드렸다 지점이야
금년해도 풍년이로다
에헤 드렸다 지점이야
조상님이 물린터전
에헤 드렸다 지점이야
우리네 힘으로 지켜가세
에헤 드렸다 지점이야
미호천들에 풍년이드니
에헤 드렸다 지점이야
부모산하 태평건곤
에헤 드렸다 지점이야
용왕님전에 비를빌고
에헤 드렸다 지점이야
일월성신께 풍년빌세
에헤 드렸다 지점이야
부모산 방죽에 뭉친힘은
에헤 드렸다 지점이야
향우장산들 당할손나
에헤 드렸다 지점이야

4) 현도두레농요

현도두레농요는 2008년 서귀포에서 개최된 제49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처음 출연하여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같은 해 청주에서 개최한 제15회 충북민속예술축제에 출연하여 특별상을 받은 작품이다.

출연 : 청원 현도두레농요보존회
고증 : 이보형(전 문화재전문위원)
구성·연출 : 조진국(신명두레 대표)

□ 해 설

현도 두레농요는 옛날 농사두레에서 소리꾼이 풍장을 치면서 부르던 두레소리(모찌는소리·모심는소리·논매는소리·논뜯는소리)에 ‘물푸기’ ‘물까불기’ ‘논두렁밧기’ ‘종달호’ 등을 첨가한 농사소리로 엮어 연희하면서 노래하는 것이 특징이다.

□ 구 성

모찌기 : 모찌기를 연희하면서 노래를 부른다.
모심기 : 모심기를 연희하면서 노래를 부른다.
점심참
물푸기 : 물푸기를 연희하면서 노래를 부른다. :
초듬매기 : 초듬매기를 연희하면서 노래를 부른다.
물까불기 : 물까불기를 연희하면서 노래를 부른다.
논두렁밧기

이듬매기 : 이듬매기를 연희하면서 노래를 부른다.

종달호 : 노래를 부른다.

신명풀이 :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른다.

□ 노 래

● 모찌기노래

메김 : 오영수(남, 1932년생)

후렴 : 현도두레농요보존회 회원

여보시오 농부님네 이내말씀 들어보오

 mungchisejeongchiseeheyae imojari mungchise

천하근본 이농사를 한침두침 mungchejuo

 mungchisejeongchiseeheyae imojari mungchise

여기도뜯고 저기도뜯고 세주먹자리로 mungchejuge

 mungchisejeongchiseeheyae imojari mungchise

농사천하지 대본이라 이농사가 제일일세

 mungchisejeongchiseeheyae imojari mungchise

천하태평 좋다한들 이못자리만 하겠는가

 mungchisejeongchiseeheyae imojari mungchise

오곡백곡이 많다한들 이못자리만 못하리라

 mungchisejeongchiseeheyae imojari mungchise

mungchise mungchejuo imojarile mungchejuo

 mungchisejeongchiseeheyae imojari mungchise

한손에는 못침들고 한손에는 짚을들고

뭉치세 정치세 에헤야 이모자리 뭉치세
 다된모는 뒤에다놓고 에헤야 이못자리뭉치세
 뭉치세 정치세 에헤야 이모자리 뭉치세
 힘을내어 뭉쳐내야 해지기전 다심는다네
 뭉치세 정치세 에헤야 이모자리 뭉치세
 우리농부 뭉친모는 올가을에 풍년일세
 뭉치세 정치세 에헤야 이모자리 뭉치세
 다되었네 다되었네 이모자리가 다되었네
 뭉치세 정치세 에헤야 이모자리 뭉치세
 이못자리를 다뭉치고 건너배미로 건너가게
 뭉치세 정치세 에헤야 이모자리 뭉치세

● 모심기노래

메김 : 오영수(남, 1932년생)

후렴 : 현도두레농요보존회 회원

여보시오 농부님네 이내말씀 들어보소
 에헤야헤 에헤여라 상사디야
 여기도꽃고 저기도꽃고 심배출자리로 꽃아주게
 에헤야헤 에헤여라 상사디야
 천하지대본은 농업인데 농사밖에 또있디냐
 에헤야헤 에헤여라 상사디야
 이농사를 마련할때 신농신의 지업으로
 에헤야헤 에헤여라 상사디야
 밭을갈고 논을갈아 밭에다는 낙종하고

에헤야헤 에헤여라 상사디야
 눈에다는 이종하여 장잎이훤훤 영화로다
 에헤야헤 에헤여라 상사디야
 이농사를 얼른지어 부모봉양 하연후에
 에헤야헤 에헤여라 상사디야
 봉지사 접빈객을 남과같이 하여보세
 에헤야헤 에헤여라 상사디야
 여보시오 농부님네 인간내력을 알아보세
 에헤야헤 에헤여라 상사디야
 칠성님전 명을빌고 제석님전 복을받아
 에헤야헤 에헤여라 상사디야
 석가여래 은덕으로 이세상에 태인자식
 에헤야헤 에헤여라 상사디야
 마른자리 진자리를 이리저리 골라뉘고
 에헤야헤 에헤여라 상사디야
 곱게곱게 길러낼때 금자동아 옥자동아
 에헤야헤 에헤여라 상사디야
 금을준들 너를사라 은을준들 너를사라
 에헤야헤 에헤여라 상사디야
 다리도아파 허리도아파 잠시잠간 놀다가세
 에헤야헤 에헤여라 상사디야
 놀다가죽어도 원통한데 밤낮을모르고 일만하네
 에헤야헤 에헤여라 상사디야
 늦어가네 늦어가네 점심참이 늦어가네
 에헤야헤 에헤여라 상사디야
 뗏구나뗏어 무엇이뗏나 밥광우리가 저기뗏네

에헤야헤 에헤여라 상사디야
다되어가네 다되어가네 이논배미가 다되어가네
에헤야헤 에헤여라 상사디야
일락서산에 해는지고 월출동녘에 달이솟네
에헤야헤 에헤여라 상사디야

● 물품기노래(용질소리)

노래 : 오영수(남, 1932년생)

백급은 초열이라 열어야 하나 열어야 들인데 둘은 서여 너덧이로다
이십은 갓스물 스물은 하나 스물은 둘인데 둘은 서어 너덧이로다
삼십은 백공산 서른은 하나 품어도 품어도 끝이없구나
사방이 물천지라 마흔은 하나 마흔은 둘인데 둘은 서이 너덧이로나
오십은 반평생 시흔은 하나 시흔은 둘인데 둘은 서이 너덧이로나
육십은 환갑이라 예순은 하나 예순은 둘인데 둘은 서이 너덧이로나
인간은 칠십이라 일흔은 하나 일흔은 둘인데 둘은 서이 너덧이로다
조선은 팔도라 여든은 하나 여든은 둘인데 둘은 서이 너덧이로다
구름이 춤을추네 아흔은 하나 아흔은 둘인데 둘은 서이 너덧이로다
백년은 대길이라 하나로구나 하나는 둘인데 둘은 서이 너덧이로다
백이여 허어

● 초뜸매기노래

매김 : 오영수(남, 1932년생)
후렴 : 현도두레농요보존회 회원

여보시오 농부님네 이내말씀을 들어나보게

어허털털 상사되야

산은높고 물은깊은데 상사소리가 처량하네

어허털털 상사되야

먼데사람은 듣기나 좋게 곁에사람은 보거나 좋게

어허털털 상사되야

만승천자 진시황은 아방궁을 높이 짓고

어허털털 상사되야

만리장성을 굳게 쌓고 불사약을 구하려고

어허털털 상사되야

동남동녀 오백인을 먼남쪽에 파견할제

어허털털 상사되야

장성불사 하려다가 그도역시 죽었으니

어허털털 상사되야

삼천갑자 동박삭은 명이 짧아 죽었는가

어허털털 상사되야

천하일색 양귀비는 인물없어 죽었는가

어허털털 상사되야

초로같은 우리농군 아차한번 죽어지면

어허털털 상사되야

움이날까 짝이날까 가련한게 인생인데

어허털털 상사되야

불상한것은 농군이로다 여보시오 농군님네

어허털털 상사되야

이내말씀 들어보소 다되어가네 다되어가네

어허털털 상사되야

이논배미가 다되어가네 어하널널 상사되야
어허럴럴 상사되야

● 이듬매기노래

메김 : 오영수(남. 1932년생)

후렴 : 현도두레농요보존회 회원

잘하구 잘도하네 우리야농군들 잘하네
잘하고 잘하네 에헤야 산이도 잘하네
잘하니까 잘한다지 못하는데 잘한다나
잘하고 잘하네 에헤야 산이도 잘하네
저기가는 저할머니 딸이야있으면 사위나삼게
잘하고 잘하네 에헤야 산이도 잘하네
딸이야 있다마는 아이가어려서 못주겠네
잘하고 잘하네 에헤야 산이도 잘하네
여보할머니 그말씀마오 참새가작아도 알을낳고
잘하고 잘하네 에헤야 산이도 잘하네
제비가 강남을가고 적은고추가 맵기만하네
잘하고 잘하네 에헤야 산이도 잘하네
저기가는 저처자야 뒷태도 둘러봐라
잘하고 잘하네 에헤야 산이도 잘하네
오동지설달 서남풍에 사쿠라꽃이 피었구나
잘하고 잘하네 에헤야 산이도 잘하네
농사농자는 누가지었나 골곡자밀에 별진자라
잘하고 잘하네 에헤야 산이도 잘하네

일락서산에 해는지고 이논배미가 다되어가네
 잘하고 잘하네 예헤야 산이도 잘하네
잘하고 잘하네 얼카산이로 넘어가네
 잘하고 잘하네 예헤야 산이도 잘하네

- 자진가락

좌우적불은 우겨주고
 얼카산이야 얼카산이다
한불농부는 소리만하게
 얼카산이야 얼카산이다
다되었네 다되었네
 얼카산이야 얼카산이다
이논배미가 다되었네
 얼카산이야 얼카산이다
서마지기 논배미가
 얼카산이야 얼카산이다
반달만치 남었구나
 얼카산이야 얼카산이다
니가무슨 반달이나
 얼카산이야 얼카산이다
초생달이 반달이지
 얼카산이야 얼카산이다
초생달이 반달이나
 얼카산이야 얼카산이다
그믐달도 반달이지
 얼카산이야 얼카산이다

얼카산이야 얼카산이다
얼카산이야 얼카산이다

- 모듬이소리
호야 호야
아아 헤에
아아 야호
히 히오

● 종달호노래

노래 : 오영수(남, 1932년생)

열어라 종달호
종달호 팔아서 술받아 먹세
종달호 팔으면 몇푼이나 만나
열어라 종달호

5) 화당길쌈놀이

화당길쌈놀이는 1996년 청주에서 개최한 제3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처음 출연하여 장려상을 받은 작품이다.

출연 : 청원군 남일면 화당리 고가마을주민
고증 : 김영진(청주교 교수)
구성·연출 : 김영진(청주대 교수)

□ 해 설

길쌈은 동식물의 섬유를 가공하여 피륙을 짜는 일로 이 때 부르는 길쌈노래는 여성요를 대표하는 내방문학(內房文學)의 하나이다. 화당길쌈놀이는 길쌈을 연희하면서 목화씨를 빼는 씨아질을 하면서 부르는 씨아노래, 고치로 실을 뽑는 물레질을 하면서 부르는 물레질노래, 베틀에서 피륙을 짜면서 부르는 베틀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 구 성

씨아노래 : 씨아질을 하면서 노래한다.

물레질노래 : 물레질을 하면서 노래한다.

베틀노래 : 베틀에 앉아 베를 짜면서 노래한다.

□ 노 래

● 씨아노래

노래 : 김선녀(여, 1916년생)

이내손목 씨아들은 뱅뱅뱅뱅 잘도는데
이사람의 사주팔자 어떻게나 생겼길래
우리집에 저명청이 나안고서 못돌아가네
안방에는 시어머니 눈만뜨면 잔소리요
어린새끼 눈치없이 칭얼칭얼 짓달라고

하나있는 시누이년 여기저기 말썽피네
시집온지 삼년되두 친정가란 말도없이
해가뜨면 들일하고 밤이오면 길쌈하네
애고답답 여자신세 길쌈으로 늙어가네

● 물레질노래

노래 : 김선녀(여, 19162년생)

우릉우릉 물레질은 늙은할미 노리개요
소삭소삭 바느질은 젊은여자 노리개요
장기들고 밭갈기는 농부님네 노리개요
붓대들고 글쓰기는 선비님네 노리개요
여보시오 청춘들아 이내말씀 들어봐요
천지시간 만물중에 사람만이 제일인데
세상만사 다버리고 노리개나 만져봐라
올해하고 내년하고 죽어지면 끝이날까
앞집에- 김도령아 뒷집에- 이도령아
팔자좋은 양반놀음 날때부터 즐겼건만
이내팔자 여자되어 밤낮으로 길쌈하네
애고답답 내팔자야 어느세월 편히살고
이세상에 태어날때 아녀자로 태어나서
해가뜨면 들일이오 해가지면 길쌈이라
저승땅에 가더들랑 하나님께 애원하여
머승아로 태어나서 이고생을 면해보세

● 베틀노래

노래 : 김선녀(여, 1916년생)

앞기 좋고 나온맘개 사겨왔네 사겨왔네
저산은중 너울쓰고 이마을로 사겨왔네
김정승아 어딜갔나 만년가락 배웠어요
앞산은 저산이오 뒷산은 남산이라
섬에섬섬 별이떴네 옥별인가 금별인가
저게무슨 옥별이오 저게무슨 금별인가
하날에서 희롱하던 저선녀가 죄를짓고
이세상에 귀양와서 하올일이 전혀없어
사방을 둘러보니 옥난간이 비었구나
물레줄은 팔형제요 공굴레 줄을매고
백모같은 제가락에 참깨공물 똑찍으니
비비뱅뱅 비비뱅뱅 절로절로 잘도도네
베틀연모 차려놓니 베틀다리 사형제요
앞다리는 솟아놓고 뒷다리는 낮혀놓고
가룟대라 찌른양은 월수강에 다리놓듯
얹은깨라 놓은양은 우리나라 상감님이
경복궁에 차려놓은 용상자리 분명코나
안을깨에 얹은치녀 옷맵씨도 곱거니와
제판관의 딸이런가 귀공자의 아내런가
부테라고 두른양은 북두칠성 두른듯이
말코라고 찌른양은 철모르는 유복자가
엄마품에 안기어서 짓만치는 형상이라
체발이라 두른양은 황해정승 찌른듯이

북이라고 드나드니 황학이가 대동강에
백사장에 알을낳고 알푼은듯 넘나든다
북바디기 치는양은 천등같은 저골짜기
일락서산 좁은골에 소리 좋게 들리누나
잉아대는 삼형제요 놀림대는 독신이라
잉아라고 걸린양은 당나라에 장군이고
삐걱삐걱 삐검이는 일등명기 취검인가
포장을 둘러치고 아랑타령 하는것네
옥종자야 금동자야 두리둥실 솟아났네
아름다운 도투마리 동남풍이 불어들어
웅장어도 넘나든다 깃덕이며 넘나든다
배탱이가 놓인양은 쿵덕쿵덕 놓였구나
용두머리 우는소리 삼신산에 신선들이
옥통수를 입에물고 휘룩휘룩 우는구나
끝개신이 오가는양 춤잘추는 화랑인가
기럭기락 저기러기 날아가며 우는구나
이럭저럭 짜고나니 백여자가 넘는구나
한쪽찢어 바지깃고 두쪽찢어 도포지어
샛별같이 살콰살작 윤이나게 다려놓고
앉았은들 님이오나 누었으니 잠이오나
대문밖에 썩나서서 과거산천 바라보니
과거장은 다파하고 선비들은 돌아갔네
저기오는 저선비야 우리선비 안오는가
오시기는 오네마는 칠성판에 누어와요
어와어와 내팔자야 내팔자도 기구하다
세살먹어 부친없고 일곱살에 모친이라

십팔세에 남편조차 어와어와 잃었구나
내가살아 무엇하랴 내가살아 무엇하랴
삼단같은 이내머리 가닥가닥 풀어들고
한모퉁이 돌아가니 옹기대가 비취도다
두모랭이 돌아가니 요령쟁이 소리하고
서른두명 상여꾼이 발을맞춰 돌아오네
철성판은 요를삼고 유소포장 이불삼아
말도없이 누웠구나 입아입아 가지마오
북망산천 가신님은 어느시절 오시런가
방안으로 들어가니 임이없는 빈방안은
방은추워 한냉하고 배는골아 등에붙고
벽을이고 등을삼아 등잔불로 벗을삼아
하엽없이 앉았으니 흐르나니 눈물이라
면경체경 있건만은 서방없는 이년팔자
누굴위해 화장하며 칠보단장 소용없다
면경체경 둘러치고 이것저것 다던지고
애고애고 내팔자야 답답하다 내팔자야

1) 보은들노래

보은들노래는 2002년 영동에서 개최한 제9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처음 출연하여 장려상을 수상하고 2003년 제천에서 개최한 제10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다시 출연하여 장려상을 받은 작품이다.

출연 : 수한 '해돋이' 풍물패
 고증 : 조용기
 구성·연출 : 조용기

□ 해 설

보은 들노래는 옛날 농사두레에서 소리꾼이 풍장을 치면서 부르던 두레 소리(모찌는소리·모심는소리·논매는소리)에 뒷놀이로 부르는 '칭칭이'를 첨가하여 연희하면서 노래하는 남성노동요이다.

□ 구 성

모찌는소리 : 모찌기를 연희하면서 노래한다.
 모심는소리 : 모심기를 연희하면서 노래한다.

논매는소리 : 논매기를 연희하면서 노래한다.

칭칭이 : 춤을 추면서 노래한다.



들노래

□ 노 래

- 모찌기소리

메김 : 서정각(남, 1929년생)

후렴 : 마을사람들

들어내세 들어내세 이모자리를 들어내세
들어내세 들어내세 이모자리를 들어내세
뭉쳐내세 뭉쳐내세 이모자리를 뭉쳐내세
뭉쳐내세 뭉쳐내세 이모자리를 뭉쳐내세
잡아가게 잡아가게 이모자리를 잡아가게
잡아가게 잡아가게 이모자리를 잡아가게

● 모심는소리

메김 : 서정각(남, 1929년생)

후렴 : 마을사람들

담상담상 닷마지기 반달같이나 깃을달세
담상담상 닷마지기 반달같이나 깃을달세
제가야무슨 반달인가 초생달이 반달일레
제가야무슨 반달인가 초생달이 반달일레
초승달만 반달인가 그믐달두 반달일레
초승달만 반달인가 그믐달두 반달일레
그믐달만 반달인가 우리님두 반달일레
그믐달만 반달인가 우리님두 반달일레
우리아임만 반달인가 남의님도 반달일레
우리아임만 반달인가 남의님도 반달일레
그대문은 거기두고 다른노래를 하여보세
그대문은 거기두고 다른노래를 하여보세

저기야가는 저마누라 속곳가랭이 들고가네
 저기야가는 저마누라 속곳가랭이 들고가네
 들고야가건 놓고가건 그대도령에 계관인가
 들고야가건 놓고가건 그대도령에 계관인가
 계관이사야 없건만은 요내마음이 산란하이
 계관이사야 없건만은 요내마음이 산란하이
 그대야마음 산란하면 후면초당을 찾아오소
 그대야마음 산란하면 후면초당을 찾아오소
 후면초당 찾아오면 눈만살짜기 감겨줍세
 후면초당 찾아오면 눈만살짜기 감겨줍세
 아주야 감으면 봉사되고 반만살짜기 감겨줍세
 아주야 감으면 봉사되고 반만살짜기 감겨줍세
 아주야 감으면 봉사되고 열무김치 초친듯이
 아주야 감으면 봉사되고 열무김치 초친듯이
 열무김치 초친듯이 새콤달콤에 감겨줍세
 열무김치 초친듯이 새콤달콤에 감겨줍세
 그대문은 거기두고 다른노래를 하여보세
 그대문은 거기두고 다른노래를 하여보세

● 논매는소리

메김 : 서정각(남, 1929년생)

후렴 : 마을사람들

어허구 저러한다

어러호 저로허한다

오늘날은 여기서매구
어러호 저로허한다
내일날은 어디가매나
어러호 저로허한다
여보시오 농부님네
어러호 저로허한다
이내말쌈 들으시오
어러호 저로허한다
어떤사람은 팔자가좋아
어러호 저로허한다
고대광실 높은집에
어러호 저로허한다
호의호식 하건만은
어러호 저로허한다
우리아농부들 팔자가기박하여
어러호 저로허한다
불과같은 뜨거운날에
어러호 저로허한다
날구장천 땅만파네
어러호 저로허한다
에헤루 저로호한다
어러호 저로허한다
우측질잡이 썩나서매고
어러호 저로허한다
성큼성큼 매어가세
어러호 저로허한다

어러호 저로허한다
어러호 저로허한다
내일날은 건너논으로
어러호 저로허한다
논매루 갈것인데
어러호 저로허한다
오늘날은 매조시하세
어러호 저로허한다

● 칭칭이

메김 : 서정훈(남, 1933년생)

후렴 : 마을사람들

칭이나 칭칭나네
칭이나 칭칭나네
노자좋다 절어나놀아
칭이나 칭칭나네
늪구병들면 못노나니
칭이나 칭칭나네
칭이나 칭칭나네
칭이나 칭칭나네
오늘날은 여기서놀구
칭이나 칭칭나네
내일날은 어디가노나
칭이나 칭칭나네

명사십리 해당화는
 칭이나 칭칭나네
봄이오면 피련만은
 칭이나 칭칭나네
초로같은 우리인생
 칭이나 칭칭나네
아차한번 죽어지면
 칭이나 칭칭나네

9 옥천 민요

1) 집터다지기

옥천 집터다지기노래는 1988년 전주에서 개최된 제29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하여 문화공보부장관상을 수상하고 소리꾼 신기현이 공로상을 받은 작품이다.

출연 : 옥천 청전리 주민
고증 : 김영진(청주대 교수)
구성·연출 : 윤혁남(청주국악원장)

□ 해 설

집터다지기는 집을 지을 때 달고를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집터를 다지는 일인데 이 때 부르는 집터다지기노래는 남성노동요이다.

□ 구 성

- ① 달고노래 : 달고질을 하면서 노래를 부른다.
- ② 천명보기 : 말뚝을 박고 문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 ③ 모탕고사 : 터주고사를 지내고 잔치를 한다.
- ④ 달고노래 : 달고질하면서 노래를 부른다.

□ 노래

● 달고질노래

에헤 달기호
에헤 달기호
여보시오 군정님네
에헤 달기호
번쩍들고 힘껏농소
에헤 달기호
먼데양반 듣기 좋게
에헤 달기호
목청높혀 소리하구
에헤 달기호
옆에손님 보기 좋게
에헤 달기호
석자세치 띄워주소
에헤 달기호
산지조정은 백두산
에헤 달기호
편안도로 들어가서
에헤 달기호
묘향산이 되었구나
에헤 달기호

10 영동 민요

1) 설계리길쌈노래

설계리길쌈노래는 1992년 구미시에서 개최된 제33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하여 문화부장관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출연 : 설계리 부녀회원
고증 : 김영진(청주대 교수)
구성연출 : 임동철(충북대 교수)

□ 해 설

길쌈은 동식물의 섬유를 가공하여 피륙을 짜는 일로 이 때 부르는 길쌈노래는 여성요를 대표하는 내방문학(內房文學)의 하나이다. 설계리길쌈놀이 는 목화씨를 빼는 씨아질을 하면서 부르는 씨아노래, 고치로 실을 뽑는 물레질을 하면서 부르는 물레질노래, 베틀에서 피륙을 짜면서 부르는 베틀노래를 연희하면서 부르는 여성노동요이다.

□ 구 성

씨앗는노래 : 씨아질을 연희하면서 노래한다.

명타는노래 : 명타기를 연희하면서 노래한다.

물레질노래 : 물레질을 연희하면서 노래한다.

베짜는노래 : 베짜기를 연희하면서 노래한다.

□ 노 래

● 씨앗는노래

노래 : 안옥임

씨를앗세 씨를앗아 씨앗아보세
몽싱몽실 실명을따다 씨앗아보세
사누올캐 마주앉아 씨앗아보세
빼그덕 빼그덕 씨앗아보세
뇌성소리 나면은 쏘낙비오고
쏘낙비 오면은 흰구름가네
씨를앗세 씨를앗아 씨앗아보세
사누올캐 다정하게 씨앗아보세

● 명타는노래

노래 : 안옥임

명을타세 명을타세 명을타보세
두둥통 두둥통 명을타보세
오뉴월에 저녁무렵 흰구름처럼

몽실몽실 부풀도록 명을타보세
하루종일 밤새도록 명을타보세
검은치만지 흰치만지 분간을못해
명을타세 명을타세 명을타보세
골방안에 가득파게 명을타보세

● 물레질노래

노래 : 안옥임

물레야 물레야 돌아라
만구공산을 돌아라
부르릉 부르릉 잣는명을
어서잣세 어서잣세
한가락 잣아놓고
두가락 잣아놓고
밤새도록 찾고보니
열두가락을 빼어났네
하루잣고 이틀잣아
열흘간을 잣고보니
세필내기를 다잣네
이명을잣아 무엇을하나
시아버지 도포짓고
시어머니 옷도짓고
낭군님옷도 지어보세
물레야 물레야 돌아라

만구공산을 돌아라
부르릉 부르릉 잣는명을
언제나 다갓고 밤마실가나

● 베짜는노래

노래 : 안옥임

월궁에 노던 선녀 지하나땅에 내려서니
옥난간이 비었구나 이산에 저산에 낭굴비어
겉고보니 베틀일세 베틀다리는 네다리요
선녀다리는 단두다리 앞다리랑 솟아놓고
뒷다리랑 낮춰놓고 앉을개나 앉은양은
우리나라 상감님이 용상에좌개나 하신듯이
덩더리쿵 곧은나무 정저리쿵 넘어가네
허리부테 두른양은 만첩산중 들어가서
허리안개나 돌렸구나 말코라고 생긴양은
삼대독자 외아들이 명과나복과나 갱겼도다
양금에진금에 건느네 체활장은 동해나
동창무지개가 서창에가서 걸렸구나
북이라고 드나드는 양은 갈대밭에 금비들기
알을낱고 살품에 살품에 드나드는구나
바디집이라 치는양은 만첩산중 들어가서
나무찍는 소리로다
잉아대는 삼형제요 놀림대는 독신이라
잉아대는 삼형젠데 억만군사 거느리고

슬렁에 슬렁에 넘어간다
 세모지기 비기미는 흥연문이나 잔칠런가
 백포장을 둘러치고 우수나없이 앉았구나
 용두머리라 우는양은 새벽바람 찬바람에
 짝을잃은 외기러기 짝찾으러 가느라고
 끼우룩 끼우룩 하는구나
 베틀신대 굵은나무 헌집새기 목을매고
 큰애기 앞만 바라보네
 뱃대기라 치는양은 이두나지고 저두나지네
 도투마리라 지는양은 오뉴월이라 쏘낙비에
 청동치는 소리로다
 하루짜고 이틀짜니 베틀필을 다짚도다
 덩더리쿵 곧은나무 정저리쿵 넘어가네
 은가새로 싹싹비어 앞넷물에 씨쳐빨고
 뒷넷물에 행귀빨아 풀다듬이 곱게하여
 임이나 도포한별말라 굵은바늘로 상침놓고
 가는바늘로 중침놓아 장롱안에야 들떠리는양은
 열쇠야 자물통아 아주나 잘각 잠기지마라
 덩더리쿵 곧은나무 정저리쿵 넘어가네
 앞집에 김선비야 뒷집에 박선비야
 우리야 선비오든가 안오든가
 오기야 오데마는 칠성판에 실려오네
 바드네밥상을 밀어치고 보선발로 뛰어나가
 한모링이 돌아가니 까막까치가 진동하네
 두모링이 돌아가니 여우야짐승이 진동하고
 세모링이 돌아가니 일산대는 어디가고

영정공포가 앞을섰네
 네모링이 돌아가니 쌍마나쌍가마 어디두고
 수물네명 당군들이 상여를매고 돌아오네
 덩더리쿵 곶은나무 정저리쿵 넘어가네
 아이구답답 내신세야 지구답답 내팔자야
 돈이그리워 죽었거든 돈을보고 일어나소
 임이그리워 죽었거든 나를보고 일어나소
 돈도임도 내다싫고 북망산천에 내가고싶어
 덩더리쿵 곶은나무 정저리쿵 넘어가네
 앞산에다 묻지말고 뒤산에다 묻지마오
 연당이라 한가운데 이내몸이나 묻어주오
 가랑비가 오거들랑 연꽃따서 덮어주고
 굽은비가 오거들랑 연꽃따서 덮어주오
 장대비가 오거들랑 연꽃따서 덮어주오
 덩더리쿵 곶은나무 정저리쿵 넘어가네

2) 설계리농요

설계리농요는 1975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16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단양동요와 함께 출연하여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메김소리꾼 서정숙이 개인상을 받은 작품이다.

출연 : 설계리부녀회 회원
 고증 : 권오성(한양대 교수)
 구성연출 : 박 진(청주교대 교수)

□ 해 설

설계리농요는 옛날 설계리 마을의 농사두레에서 소리꾼이 풍장을 치면서 부르던 남성노동요 ‘두레소리’(모찌는소리·모심는소리·논매는소리)를 연희하면서 노래하는 것이다.

□ 구 성

모찌기노래 : 모찌기를 연희하면서 노래한다.

모심기노래 : 모심기를 연희하면서 노래한다.

초별매기노래 : 논매기를 연희하면서 노래한다.

이듬매기노래 : 논뜯기를 연희하면서 노래한다.

□ 노 래

● 모찌기노래

메김 : 서정숙(여, 1917년생)

후렴 : 설계리 마을사람들

들어내세 들어를내세 요뭇자리 들어내세

들어내세 들어를내세 요뭇자리 들어내세

전등같은 팔단지로 몽정몽정 들어내세

들어내세 들어를내세 요뭇자리 들어내세

나무가락 세가락에 날랜가락 들어내세

들어내세 들어를내세 요뭇자리 들어내세
쌈을싸세 쌈을사세 요모조모 우겨나싸세

들어내세 들어를내세 요뭇자리 들어내세
곰달잇만 쌈일런가 상추쌈도 쌈일러라

들어내세 들어를내세 요뭇자리 들어내세
무주용담 곰달잇에 요모조모 우겨나싸세

들어내세 들어를내세 요뭇자리 들어내세
영동군수 상추쌈을 요모조모 우겨나세

들어내세 들어를내세 요뭇자리 들어내세
상추쌈만 쌈일런가 해우쌈도 쌈일러라

들어내세 들어를내세 요뭇자리 들어내세
해우쌈만 쌈일런가 두팔쌈도 쌈일러라

들어내세 들어를내세 요뭇자리 들어내세
무주용담 곰달잇에 요모조모 우겨나싸세

들어내세 들어를내세 요뭇자리 들어내세
불러주게 불러나보세 노래한쌍 불러나보세

들어내세 들어를내세 요뭇자리 들어내세
이삼십을 넘어서면 노래정도 간곳없네

들어내세 들어를내세 요뭇자리 들어내세
노래수도 자시하면 청방예방 첩이되세

들어내세 들어를내세 요뭇자리 들어내세
청방예방 첩이되면 앉어먹고 누어나먹지

들어내세 들어를내세 요뭇자리 들어내세

-늦모찌기

에워주세 에워나주세 노쳐녀를 에워나주세

들어내세 들어를내세 요뭇자리 들어내세
 노처녀에 병난 것은 노총각이 약이로다
 들어내세 들어를내세 요뭇자리 들어내세
 상주함창 공갈곳에 연밥따는 저처자야
 들어내세 들어를내세 요뭇자리 들어내세
 연밥줄밥 내따줄게 내품안에 잠을자게
 들어내세 들어를내세 요뭇자리 들어내세
 잠자기는 어렵잖아도 연분없이 잠을자나
 들어내세 들어를내세 요뭇자리 들어내세
 연분이라 따로있나 자고나면 연분이지
 들어내세 들어를내세 요뭇자리 들어내세
 저기가는 저할머니 딸이나있거든 사위보세
 들어내세 들어를내세 요뭇자리 들어내세
 사위보기는 어렵잖아도 딸이어려 못보겠네
 들어내세 들어를내세 요뭇자리 들어내세
 아이고 할머니 그말씀마소 참새가 적어도 알을 낳고
 들어내세 들어를내세 요뭇자리 들어내세
 제비가 적어도 강남을 가고 할머니 년갑에 외손자 봤네
 들어내세 들어를내세 요뭇자리 들어내세

● 모심기노래

독창 : 서정숙(여, 1917년생)

담송담송 닷마지기 반달만큼 짓다랠네
 네가무슨 반달인가 초생달이 반달이지

초생달만 반달인가 그믐달도 반달이지
 그믐달만 반달인가 우리남도 반달이네
 너희님만 반달인가 우리님도 반달이네
 달도밝고 명랑한데 님에생각 절로나네
 장잎이훑훑 영화담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구나
 한마지기 푸드리면 일천석이나 쏟아지네
 일천석만 석일런가 이천석도 석이로다
 앞노죽을 지어놓고 뒷노죽도 지어나왔네
 앞노죽을 둘러나보니 금비둘기 집을짓네
 금비둘기 쌍을지어 알품달품 날아드네
 만져보고 쥐어보고 못가본게 한이로다
 뒷노적을 둘러나보니 황세봉에 집을짓네
 황세복은 물고들고 금소에복은 실코나드네
 이명당에 대주복은 지고나고 물고나드네
 구렁이복은 설이들고 쪽제비복은 물고나드네
 강태공에 조작방아 삼성미를 골라냈네
 삼성미를 고른방아 부모처자 봉양하세
 나랏님께 봉양한뒤 먹고남고 먹고쓴뒤
 이덕이 누덕인가
 신농씨가 마련하고 만백성을 봉양했네
 순에씨는 불을내어 임엔화식 식귀냈네
 불어주자 불어주자 이명당을 불어주자
 알금살금 고운치녀 뒷골재로 넘나드네
 날며들며 빛만뵈고 장부간장 다늑인다
 찔레꽃을 따다가서 임에보선 불거렸네
 입을보고 보선보니 임에줄듯 전혀없네

방실방실 웃는님을 못다보고 해다지네
오늘날로 못다본님 내일날로 다시보세
병풍치고 불췌방에 임도왔고 나도왔세
임도방실 나도방실

● 초벌매기노래

매김 : 손양기(남, 1917년생)

후렴 : 설계리 마을사람들

어러구 저러구한다
 이러구 저러하네
 에헤야 산이가 저러하네
우리일꾼들 썩잘도하네
 이러구 저러하네
 에헤야 산이가 저러하네
앞베루잡일랑 찍어나맹기고
 이러구 저러하네
 에헤야 산이가 저러하네
뒷베루잡일랑 밀어나주게
 이러구 저러하네
 에헤야 산이가 저러하네
이삼십이 넘어서면
 이러구 저러하네
 에헤야 산이가 저러하네
기운없어 못파겠네

이리구 저러하네
 에헤야 산이가 저러하네
 앞나걸랑 그만가게
 이리구 저러하네
 에헤야 산이가 저러하네
 개구망둑 두지말고
 이리구 저러하네
 에헤야 산이가 저러하네
 제구턱배기로 파올려라
 이리구 저러하네
 에헤야 산이가 저러하네
 이논베미 얼른매고
 이리구 저러하네
 에헤야 산이가 저러하네
 장구배미로 올라나서자
 이리구 저러하네
 에헤야 산이가 저러하네
 장잎이훤훤 영화로다
 이리구 저러하네
 에헤야 산이가 저러하네
 우리가언제나 이걸하면
 이리구 저러하네
 에헤야 산이가 저러하네
 농군에 보배는 농사로다
 이리구 저러하네
 에헤야 산이가 저러하네

유산자 무산자 탄식은 말고
이러구 저러하네
에헤야 산이가 저러하네
부귀와 영화는 돌고돌아간다
이러구 저러하네
에헤야 산이가 저러하네
우리네 일꾼들 씨잘도하네
이러구 저러하네
에헤야 산이가 저러하네

● 두벌매기노래

메김 : 손양기(남, 1917년생)

후렴 : 설계리 마을사람들

어러구 저러구한다
어러구 저러구한다
어허농사 일꾼들아
어러구 저러구한다
어허농사 장하도다
어러구 저러구한다
베루잡이는 앞을서고
어러구 저러구한다
이쪽저쪽 후려쥐자
어러구 저러구한다
이논배미 심은모를

어러구 저러구한다
돌도돌도 돌고보니
어러구 저러구한다
우리농군 잘도한다
어러구 저러구한다
앞에다리는 돌아놓고
어러구 저러구한다
뒤에다리는 버터틀고
어러구 저러구한다
앞을잡아 나가보니
어러구 저러구한다
칼등같은 눈뚫이나와
어러구 저러구한다
어허농사 일꾼들아
어러구 저러구한다
오향으로 돌리잡이
어러구 저러구한다
베루잡이를 따라드니
어러구 저러구한다
차츰차츰 번어난다
어러구 저러구한다
뒷다리는 버루면서
어러구 저러구한다
앞손을랑 후려잡자
어러구 저러구한다
이러그려 패고보니

어러구 저러구한다
우리앞을 다매엇고나
어러구 저러구한다
이앞을 들러놓고
어러구 저러구한다
어허농사 일꾼들아
어러구 저러구한다
어허농사 장하도다
어러구 저러구한다

3) 용산꽃반굿

용산꽃반굿은 2006년 보은에서 개최된 제13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하여 인기상을 받고 2006년 옥천에서 개최된 제14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하여 인기상을 받은 작품이다.

출연 : 영동민속팀

□ 해 설

꽃반은 걸립농악에서 성주고사를 할 때 고사상으로 차리는 ‘화반(花盤)’의 우리말이고 꽃반굿은 ‘성주고사’를 뜻한다. 성주고사는 터주고사나 조왕고사보다 그 노랫말이 길어 상쇠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히 소리꾼으로 하여금 고사소리를 시키는 경우가 많다. 영동 꽃반굿은 영동 용산면 가곡

리 소리꾼 민병제의 성주고사소리다.

□ 구 성

덧자리 위에 흰 쌀과 흰 실, 그리고 정화수를 올려놓은 꽃반 앞에서 농악대가 당산벌립으로 서 있고 그 앞에 한복에 고깔을 쓴 소리꾼이 팽과리를 치면서 고사소리를 한다.

● 꽃반굿 소리

소리 : 민병제 (남, 1936년생)

고시고실 고사로다 사바하니 고사로다
산지조종은 곤륜산 수지조종은 황해수
곤륜산 명기가 푹떨어져 어디로 간지 몰랐더니
이택에 집터가 되었고나 이집터를 볼작시면
앞으로보면 일산봉 뒤로보면 감투봉
옆으로보면 연적봉 그아니 좋을시고
앞으로보면 일산봉이니 고관대작 날자리요
뒤로보면 감투봉이니 삼정승이 날자리요
옆으로보면 연적봉이니 육조판서 날자리니
그위에 더바랄소냐 이집터를 잡았으니
집터를 닦아라 집터를 닦을적에
우각불이 좌각불이 배흘려 기사주바리
바리바리 실어다가 높은데는 밀어내고
낮은데는 돌아놓아 이리저리 닦은후에

재목이있어야 집을짓지 집재목을 구하려고
앞집에 김대목은 금도끼를 째어지고
뒷집에 박대목은 옥도끼를 째어지고
경상도 안동땅 제비원을 찾았구나
제비원을 찾아가서 솔씨하나 던졌더니
그솔씨가 점점자라 소부동이 되었구나
소부동이 점점자라 대부동이 되었구나
대부동이 점점자라 황장목이 되었으니
그냥구를 베려하고 나무끝을 바라보니
까막까치 집으짓네 나의성주 함으려고
남의성주 베일소냐 그냥구를 거기두고
만첩산중 들어가니 성주목이 완연하네
금도끼로 땅땅베어 옥도끼로 다듬어서
짚은나무 곱다듬고 곱은나무 곱다듬어서
바리바리 실어다가 안채는 임구자요
사랑채는 갈지자요 이구는십팔이라
열여덟간을 멋들어지게 지어놓고
네끼에 풍경다니 동남풍이 건뜻불어
딩그렁 땡그렁 소리난다
방안살림 보아라 방안살림 불작시면
오동장롱 잣베개에 자개함룡 반다지는
보기 좋게 포개놓고 긴담뱃대 질요강은
빨쫂빨쫂 밀어놓고 공단이불 열두채
맹단이불이 열두채 수단이불이 열두채
저불을 꺼라 이불을 덮으리라
공단수단이 칼춤을 춘다

4) 영동 질곡광산노래

질곡광산노래는 2005년 음성에서 개최된 제12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질곡목도요'로 출연하여 감투상을 받고 2008년 청주에서 개최된 제15회 충북민속예술축제에 '질곡막장소리'로 출연하여 우수상을 받은 작품이다.

출연 : 영동 용산면 부상리 주민

□ 해 설

영동 용산면 부상리 질곡에는 고아산이 있고 고아산에는 형석이 채굴되어 조선중기부터 1980년 경부고속도로 폐광되기까지 많은 광부들이 일을 하였다.

이 때 망치로 돌을 깨는 것을 '맹이질'이라 하고 혼자 맹이질을 하는 것을 '홀맹이질', 둘이 맹이질하는 것을 '쌍맹이질'이라 하며 두 사람이 쌍매질하면서 주고 받는 소리를 '쌍맹이소리'라 한다.

□ 구 성

쌍맹이소리 : 쌍맹이질을 연희하면서 노래를 부른다.

□ 노 래

- 쌍맹이소리

메김 : 김복한(남, 1937년생)

받음 : 박희주(남, 1935년생)

민병제(남, 1936년생)

어허 산이야 때리고 때려라

너도 산이야

산이가 산이고 어허 산이다

c너도 산이야

한모랭이를 여기도 때리는데

어허 산이오

천돈이 나가는 한번 때리는

어허 산이야

발팔하면

너도 산이지

현초강이

너도 산이지

하늘진다 한치두치

어허 산이야

금강산도

어허 산이요

조물주가

나도 산이지

만들었어도

너도 산이야

어허 산이다

어허 산이야

낙동강피꼬리 올너머 가는데
너도 산이요
사다리가
나도 산이지
최고지만 산너머 가는데
나도 산이야
강건너 가는데
너도 산이오
나룻배가 너도 산이야
나도 산이야
최고드라 어허 산이야
너도 산이지
강태공이 잘도 때린다
어허 산이야
낙시질 할적에 나도 산이지
나도 산이지
영등포 기생아
어허 산이야
술잔을 부어라
어허 산이야
때리고 때려라 산이가 산이고
어허 산이지
어허 산이지 어허 산이지
어허 산이다.

5) 영동 질곡목도소리

질곡목도소리는 2005년 음성에서 개최된 제12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질곡목도요'로 출연하여 감투상을 받은 작품이다.

□ 해 설

목도는 무거운 나무나 돌을 밧줄로 얹어 어깨에 매고 옮기는 일로 보통 2명 4명 6명이 짝이 되어 맞메고 밧을 맞추어 가는데 2명이 목도하면 2목, 4명이 목도하면 4목 6명이 목도하면 6목이라 한다. 목도할 때는 반드시 소리를 하며 밧을 맞추는데 이 때 부르는 소리가 바로 목도소리이다. 질곡목도소리는 옛날 질곡광산에서 큰 돌을 옮기며 부르던 남성노동요이다.

□ 구 성

목도소리 : 2목·4목·6목으로 돌을 옮기며 소리를 한다.

□ 노 래

● 목도소리 1

메김 : 김복한(남, 1937년생)

차정 우이

혜
허어
허어
허여 호
허여
허여
혜야
하지
허야
혜여 호
이여
올라간다
허야
어여차
허야
이리가자 혜
허야
올라서라
허야
난간이다
허야
조심하고
허야
허저 허
허야
앞철풍

허야
끌어주고
허야
뒤뫼랑
허야
밀어주자
허야
허지허
허야

● 목도소리 2

메김 : 민병제(남, 1936년생)

허 저~~~~~
허이~
허여어 허여어
허여어 허여
아짜아 허야
허저어 허여
어허 허
허여차 허여
잘도간다 허여
허여차 허여
앞채는 땡겨주고
허여차 허여

뒷채는 히여어
 히여차 히여
 밀어주고 히여
 히영차 히여
 잘도하네 히여어
 히영차 히여
 돌아간다 히여어
 히여차 히여
 가자가자 히여어
 감나무다 히여
 오자오자 히여어
 웃나무다 히여
 김씨거리다 히여
 히여차 히여
 꽃거리다 히여
 히여차 히여
 맨드라미 히여
 봉선화다 히여
 잘도돈다 히여
 잘도돈다 히여
 아하 놓고
 -신다-



IV 민속놀이

집필 안 상 경
(충북대학교 강사)



음성거북놀이



까치내 상여놀이



숫대놀이



미호천 방축놀이



단양 띠벚놀이



제천 봉양 파대놀이



영동 길쌈놀이



속리산 탐돌이



집터 다지기

1 단양 민속놀이

1) 각기선돌봉치기

각기선돌봉치기는 2007년 제14회 충북민속예술축제에 53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인기상을 수상하였으며, 개인상 부문에서 소리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출연 ; 단양민속팀

□ 해 설

각기선돌봉치기는 단양군 적성면 각기리에서 전승되었던 선돌제의 민속놀이를 말한다. 각기리에는 선돌이 앞말 부락 어귀에 동쪽과 서쪽으로 짝을 이루고 서 있다. 암수의 성을 형상하듯이 뾰족한 형태와 둥근 형태를 띠고 있다. 남성을 형상하는 서쪽의 남근석은 높이 275cm, 너비 220cm, 두께 60cm 규모로 세모꼴 형태에 가깝다. 흔히 ‘숫바위’라고 한다. 여성을 형상하는 동쪽의 치마석은 남근석과 17m 간격을 두고, 높이 180cm, 너비 171cm, 두께



각기리 암바위



각기리 숫바위



봉치기 하는 장면

37cm 규모로 아담한 형태이다. 흔히 ‘암바위’라고 한다. 두 선돌에는 지름 5~8cm, 깊이 2~3cm 가량의 다양한 성혈들이 남아 있다. 그리고 남근석 둘레에는 길이 4m, 너비

3.5m, 높이 60~70cm 규모의 원추형 돌탑이 있다. 제의를 위해 조성한 제단으로 추정되고 있다. ‘각기리’라는 명칭도 ‘돌기둥이 뿔같이 솟았다’는 데서 유래하였다. 각기선돌봉치기에서 ‘봉치기’는 ‘잘 보관한다’ 또는 ‘잘 싸매어 두다’라는 의미로 부락민들이 선돌을 공경해 제의를 받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각기리에서는 매월 정월 초사흘 밤에 생기복덕을 가려 선정된 제관 및 집사들이 서낭제를 지낸다. 이튿날 아침에는 부락민들이 모여 제물을 음복하고 선돌에 옷(짚)을 입혀준다. 남근석에는 용마름을 덮어주고, 치마석에는 이영을 두른다.

□ 구 성

출연진은 농악대 19명(뽕과리 3명, 징 3명, 북 3명, 장구 3명, 새납 1명, 소고 3명, 법고 3명), 깃발 4명(영기 2명, 농기 1명, 서낭기 1명), 소품 7명(지계 5명, 이영받침 1명, 용마름 1명), 부락민 23명(촌장 1명, 제관 3명, 집사 2명, 축관 1명, 제의 참여자 16명) 등 전체 53명이다. 촌장의 사설을 시작으로 출연진 전체가 남근석과 치마석에 재배한다. 이어 선돌을 보관하는 의식을 치른다.

(1) 입장

원형으로 정렬하여 관객에게 인사한다. 촌장이 “서낭제도 잘 치렀고 음복례도 마쳤으니 선돌에나 내려가 보세”라고 하면, 그 소리에 맞춰 한 바퀴 흥겹게 돈다. 농악대는 가장자리로 물러선다. 부락민 대표 두 명이 짚단에 불을 붙이면, 출연진 전체가 불을 타 넘어 한 바퀴 돌아 선돌 앞에 모인다.

(2) 선돌제

제물을 진설하고 출연진 전체가 남근석과 치마석에 재배한다. 부복한 후 고축한다. “유세차 모년 정모월 간지 삭 초사일 간지 선돌제 상향”

(3) 봉치기

부락민들이 한쪽에서는 용마름을 틀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엉을 엮는다. 일부는 새끼줄을 꼰다. 남근석에는 용마름을 덮은 후 새끼줄로 단단하게 맨다. 치마석에는 이엉으로 치마를 두른 후 새끼줄로 단단하게 맨다. 남근석 앞에서는 여성들이 집안의 복락을 기원한다. 치마석 앞에서는 남성들이 장난을 친다. 치마석의 치마를 들추기도 하고, 성혈을 보며 모의 성행위를 하기도 한다. 이 모습에 여성들은 작대기를 들고 남성들을 휘몰아친다. 남성들은 혼비백산 도망가다가 멈춰 서서 여성들 앞에서도 모의 성행위를 한다. 여성들은 작대기를 들고 다시 남성들에게 달려든다. 이때 촌장이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닌가? 그만들 하게나”라고 하면, 바로 농악대가 신명 나는 판을 만든다.

□ 소 리

● 노래가락

엄동설한에 쓰라린 선들은 봉치기로 넘기고
 우리낭군 거시기는 오늘밤만 기다린다
 삼봉에 떠오른 달빛은 내일이면 다시보구요
 서울간 낭군님은 언제 돌아오려나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억수장마 질라나
 선돌에 도타운 봉치기 우리네 마음일세
 남석봉치기 여석봉치기 겹겹이 하구요
 마을에 좋은 일들이 막 몰려 오리네
 주야장창 지키는 선들은 마을에 보배구요
 우리색시 지키는 이내 맘은 가문에 보배라오
 후렴 ;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고개로 날 넘겨주게

2) 도담삼봉용왕제

도담삼봉용왕제는 2000년 제7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50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2005년 제12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도담삼봉용왕제소리로 55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감투상을 수상하였다.

출연 ; 향토문화연구회(2000년), 매편주부농악(2005년)

□ 해 설

용왕제는, 원칙적인 의미에서 풍어를 기원하는 무당굿 중심의 마을굿이라고 할 수 있다. 주로 당골의 무당굿에 마을의 풍물굿이 참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내륙에서는 용왕제를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 단양군에서 전승되었던 도담삼봉용왕제의 의미를 이러한 전승의 특수성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도담삼봉용왕제는 단양군 삼봉나루에서 소금 배의 수로 안녕을 기원하던 뱃사람들의 의식이다. 삼봉나루에서 소금 배의 운항은 7~8월에 장마가 진 후, 즉 남한강의 수량이 풍부해진 후부터 본격화되었다. 도담삼봉용왕제는 소금배가 한양 뱃길을 무사히 왕래하기를 기원하던 제의로 소금 배를 처음 띄울 때 뱃사람들을 중심으로 삼봉나루에서 이루어졌다. 제관은 어떤 제약 없이 뱃사람들 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당연직으로 선정되었다. 한편 소금 배가 여울을 건널 때는 전문 여울꾼은 물론 인근의 주민들까지 힘을 합쳤다. 소금 배가 여울을 건너면 뱃사람들과 주민들은 작별하며 소리로써 함께 즐겼다. 이 소리를 흔히 '도담삼봉용왕제소리'라고 한다.

□ 구 성

2005년 제12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한 도담삼봉용왕제소리는 입장(깃발, 사물, 부녀자, 아동, 뱃꾼) → 인사굿 → 한마당놀이굿 → 용왕제 준비 → 길치우기(금줄치기, 길쓸기, 진흙뿌리기) → 제사상차리기 → 용왕제 고사덕담풀이 → 소지올리기 → 뒷풀이굿 → 인사굿 → 퇴장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 소 리

● 띄뱃노래(소금배 노래)

올라왔소 소금배가 도담삼봉 양반들아
금년에도 철석철석 소금배가 당도했네

기다리던 한양손님 어서나와 반기시오
강물따라 머나먼길 돛대달고 올라왔소
어서어서 불러주게 동남풍아 불어주게
영월영춘 올라가네 도담삼봉 갈보들아
술걸러서 가져오게 목이말라 못가겠네
수리술렁 내려올때 다시한번 놀다가세

못믿을건 한양손님
달출달아 클러놓니 부지거쳐 떠나가네
인제가면 언제오나 기약없이 떠나가네
잘가시오 한양손님 머나먼길 이별일세
잘있거라 갈보들아 변치말고 잘있으면
명년삼월 돌아와서 다시한번 만나보세
어이가나 한양뻬길
비틀비틀 소금배야 서러워서 못가겠네

● 용왕제

해동조선국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면 도담리
앞강물에 거하시는 용왕님전 노구메다 정성드리올제
상탕에는 메를짓고 중탕에는 목욕하고
향노향합 불갓추고 양초한쌍 불켜놓고
소지삼장 드린후에 시루덧번 바를적에
일등미를 골라다가 한번씨러 하생미요
두번씨러 중생미요 세번씨러 삼생미요

스물한번 씨른후에 여섯구멍 동시루요
 여덟구멍 증시루고 열두구멍 대시루에
 시루덧번 발라놓고 정화수를 드릴적어
 은하수를 길러가니 선녀들이 목욕한물 부정하다 제쳐놓고
 동해수를 길러가니 흑룡들이 놀다간물 부정하다 제쳐놓고
 남해수를 길러가니 황룡들이 놀다간물 부정하다 제쳐놓고
 서해수를 길러가니 청룡들이 놀다간물 부정하다 제쳐놓고
 길을곳이 바이없이 용궁속에 옥조수요 흘러가는 비껴수를
 열손으로 길러다가 일월같이 받쳐놓고
 하느님전 빌자하니 구만리요 장천이라
 멀리계서 못빌고서 터주님전 빌자하니
 삼천리라 이강산에 찾을곳이 바이없고
 서해용왕 빌자하니 육로길로 천리되고 수로길로 만리되니
 가야할길 너무멀어 이곳명당 한강수라
 도담삼봉 앞강물에 거하시는 용왕님전
 노굽에정성 드리오니 소례로서 드린정성
 대례로서 받으시고 대례로서 받은정성
 빛으로서 흠향받아 고맙다고 하옵시고
 일년이면 열두달에 과년이면 열석달에
 한달이면 서른하고 반달이면 보름이라
 하루하면 열두시를 두리둥실 우리선원
 수로천리 한양길을 무사하게 왕래토록 제발점지 하옵소서

2 제천 민속놀이

1) 농악싸움

농악싸움은 1994년 제1회 충북농악경연대회에 43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인기상을 수상하였으며, 1995년 제2회 충북농악경연대회에 45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감투상을 수상하였다.

출연 ; 화당농악대(1994년), 백운화당농악대(1995년)

□ 해 설

제천시 백운면에서는 정월 대보름, 단오, 추석 등 주요 명절을 기해 농악 싸움을 벌였다. 백운면의 각 부락이 청룡 편과 백호 편으로 나뉘어 농기의 꼭대기에 매달린 봉깃(핑깃)을 먼저 빼앗으려고 했다. 흥겨운 마당놀이를 펼치는 가운데 봉깃(핑깃)을 먼저 빼앗은 편이 '형님농악'으로 대우를 받았다. 풍농을 기원하는 동시에 부락의 화합을 다지는 민속놀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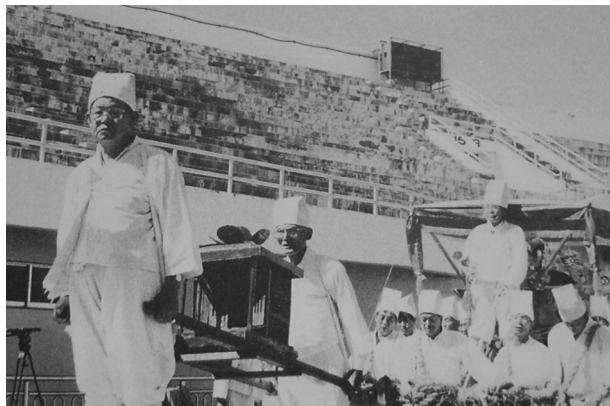
2) 명도상여놀이

명도상여놀이는 2000년 제7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33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인기상을 수상하였으며, 개인상 부문에서 한태우가 소리로 대상을 수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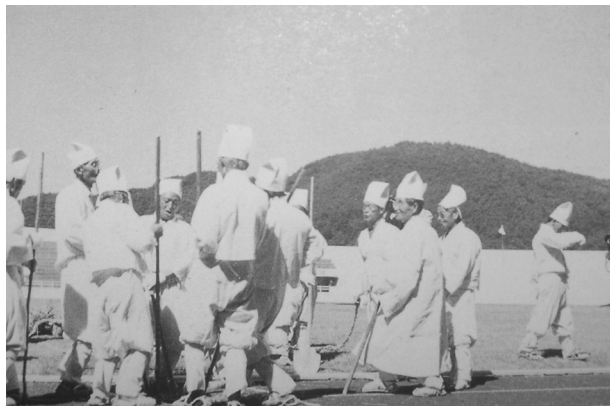
출연 ; 제천문화원

□ 해 설

제천시 명도리에는 대틀, 중틀, 소틀 등 규모에 따른 세 종류의 상여가 있다. 대틀은 32명의 행상꾼들이 메며, 소틀은 20명의 행상꾼들이 멘다. 다만 틀을 멘 후 연춧대를 하나 더 끼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4명의 행상꾼들이 가감된다. 명도리에서는 주로 소틀을 사용한다. 상여놀이는 ‘장례놀이’라고도 하는데, 출상 전날 밤에 상여를 미리 틀어놓고 노는 ‘대돋움’, 이튿날 상여를 장지까지 메고 나가면서, 그리고 상여를 해체하고 봉분을 다질 때 노는 ‘회다지’, 행상꾼들이 특히 만사위를 데리고 노는 ‘진사놀이’ 등을 아우른다. 발인날 아침에 장지로 나아가는 상여 행렬을 보면, 먼저 명정이 서고, 그 뒤로 요여, 앞소리꾼, 상여, 상주, 참례자 등이 늘어선다. 행상꾼들은 앞소리꾼의 소리에 따라 호흡을 맞춰 일의 수고로움을 던다. 장지까지 평탄한 길이 있는가 하면, 비탈길도 있고 때로는 다리가 있기도 하다. 비탈길 앞에서는 “상여가 가질 않는다”고 상여를 앞으로 뒤로 뺀다 하며 장난을 친다. 다리 앞에서도 “사우 다리 놓아라”고 장난을 친다. 상주들은 행상꾼들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한다. 담배를 선물하며 달래기도 한다. 이런 방식으로 행상꾼들이 잠시 휴식을 취한다. 그러나 상여를 뒤로 물리는 법은 절대 없다.



명도상여놀이 - 상여 운반



명도상여놀이 - 달구질

□ 구 성

명도상여놀이하는 상여가 집안을 출발하여 장지에 이르기까지, 또 시신을 매장하고 달구질하기까지 장례 과정을 상여소리, 외나무다리건너기, 시신 매장, 달구소리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선소리꾼이 <상여소리>를 선창하고, 상여꾼들이 뒷소리를 받는다. 행렬은 명정, 앞소리꾼, 상두꾼, 만장행렬, 애도행렬 등의 순이다. 극적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여꾼들이 외나무다리 건너기를 시연한다.

□ 소리

<상여소리>는 상여를 운반할 때 부르는 노래이다. 앞소리꾼이 메기고 행상꾼들이 받는 형식이며, 상황에 따라 두 가지 박자를 사용한다. 집안에서 떠나올 때는 “오호 오호” 두 박자를 사용하고, 장지로 가다가 쉼 때까지는 짝소리를 사용한다. “오호 오하”는 세 박자로 맞춘다. 장지에 도착하면 세 박자로 끝내고 “와~~” 하면서 상여를 내려놓는다.

● 상여소리 일부

어허 오호아 아헤이요

어허 오오하

어허 오하 에헤이요

(선) 어허 어허 오오하 에헤이요

(후) 어허 어허 오오하 에헤이요

(선) 여보시오 기오님네 이내소리 들어보소

(후) 어허 어화아 에헤이요

이제가면 나온사람

● 상여소리 일부

어허호야 에헤이어호 (후렴)

여보시오 방근님네

이내소리 좋다말고 어이나갈꼬 어이나갈꼬

실낱같은 약한몸에 태산같은 병이들어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진다고 서러마라

명년봄이 돌아오면 목련꽃이 피건만은

우리인생 한번가면 다시오기 어려워라

일가친척 많다해도 오늘누가 대신갈까

저승길이 멀다더니 대문밖이 저승이네

〈회다지 소리〉는 봉분을 다지고 만들 때 부르는 노래이다. 광중에 하관하고 사방으로 흙과 회를 친 다음 봉분을 쌓는데, 봉분이 무너지지 않도록 행상꾼들이 발을 번갈아 가며 밟는다. 또 연춧대를 빼어 짓누르고 박으며 흙을 다지는 행동을 계속한다. 이때 행상꾼들은 앞소리꾼의 메기는 소리를 받는다. 〈회다지소리〉는 산과 강의 근원을 나열하고 그 지맥으로 형성된 전국의 명산과 강을 거론한 다음, 이 뒀자리가 명당이라는 것을 설명한다.

● 회다지소리 일부

에호리 다래 (후렴)

여복소 기원님네 이내소리를 들어보소
 광증안에는 햇내가나고 광증바깥은 슬래로다
 선천지 후천지는 억만세계 묶었니라
 산지조종은 곤륜산이요 수지조종은 황하수라
 곤륜산 일진맥으로 우리조선 생겼어라
 백두산은 주산되고 한라산은 안산됐네
 팔도강산 굽어보니
 함경도라 백두산은 압록강이 둘러있고
 평안도라 묘향상은 대동강이 둘러있고
 황해도라 구월산은 재경강이 둘러있고
 경기도라 삼각산은 임진강이 둘러구나
 강원도라 금강산은 세계의 명산이고 천하의 제일이라
 충청도라 계룡산은 공주금강 둘러있고
 전라도 지리산은 섬진강이 둘러있고
 경상도 태백산은 낙동강이 둘러구나
 에호리 다래 이산묘터 잡을적에 누구누구 잡았던고

3) 오티별신제

오티별신제는 2001년 제8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47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2002년 제9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47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개인상 부문에서 상쇠로 대상을 수상하였다. 2003년 제10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47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2004년 제11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48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2005년 제12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는 52명이 출연하였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출연 ; 제천민속팀(2001~2003년), 오티별신제보존회(2004~2005년)

□ 해 설

오티별신제는 충청북도의 유일한 서낭별신제이다. 오티별신제의 유래는 명확하지 않다. 제천시 수산면 오티마을이 약 400년 전에 형성되었다는 것으로 미루어 오티별신제의 유래를 추정할 따름이다.

오티마을에는 다섯 개의 자연마을마다 각기 서낭을 모시고 있다. 마을의 주산(主山)에 마을 최고신인 산신을 모시고, 마을 입구 및 다섯 봉우리마다 서낭신을 모신다. 이를 흔히 상·하당으로 일컫는다. 별신의 뒷풀이격인 축제마당에는 음주가무를 곁들인 제의형 풍물놀이가 행해진다. 또한 별신제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영신 → 오신 → 송신의 전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 구 성

(1) 입장

농악대, 제의 수행자, 주민들 순으로 입장한다. 농악대는 농기를 선두로 하며, 두 사람이 서낭대를 잡고 그 뒤를 따른다. 다음으로 여장이 다르며, 법고-장고-북-징-재파리-뽕과리 등 순으로 입장한다.

(2) 농악놀이

농악대는 상쇠와 부쇠를 선두로 재파리-징-북-장구-법



오티별신제 - 강신



오티별신제 - 본당 제물



오티별신제 - 허재비놀이



오티별신제 - 허재비놀이

고-여장 등의 순으로 원을 만들어 돈다.

(3) 상당서낭제

농악대와 제의 행렬이 상당에 도착하면, 농악을 울리며 상당을 중심으로 나선형으로 두 바퀴 돈다. 농악대는 제물을 진설하는 동안 상쇠와 부쇠를 선두로 재과리-징-북-장구-범고-여장 등의 순으로 원을 만들어 돈다. 원 안에서는 여장, 무동, 포수, 새납 등이 흥겹게 춤을 춘다. 제의는 재배, 헌작, 소지 순으로 진행한다. 소지는 대동소지를 올린다.

(4) 강신

농악대의 농악 가락이 빨라진다. 무동과 여장은 신이 내리기를 바라며 손을 계속해서 앞뒤로 움직인다. 무동이 제일 앞줄에 서서 춤을 추고, 그 뒤로 여장이 선다. 이어 범고-장구-북-징-새납 등이 서고, 상쇠와 부쇠는 제관의 측면에 선다. 제관은 농악대 맞은편에서 서낭대를 향해 배례하고 잠시 뒤 서낭대의 흔들림으로 신의 강림을 확인한다. 농악대는 농악을 일시 중단한다. 제관은 신이 강림함에 감사의 기원을 올린 후 하당으로 내려가시기를 청한다.

(5) 작은재서낭, 구실재서낭, 흰뜨재서낭제

상당서낭제와 제의 절차 및 진행 방식이 동일하다

(6) 본당서낭제

본당 입구에서 “와~” 하고 함성을 지르며 뛰어 들어온다. 농악대는 느티나무를 두 바퀴 돌며 요란하게 쇳소리를 낸다. 이곳에 지금까지 모셔온 다섯 서낭신과 붉은당[산신당] 서낭신, 느티나무 서낭신을 좌정시킨다. 제의는 재배, 헌작, 소지 순으로 진행한다. 다른 서낭당과 달리 본당에서는 제

의를 진행하는 동안 농악을 울리지 않는다.

(7) 허재비놀이

신명꾼 두 명이 농악대의 가락에 맞춰 허재비를 들고 춤을 춘다. “자! 당나라야~ 너도 가자 나도 가자. 아! 서낭님은 다 집으로 돌아가셨어. 당나라 너희들은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했으니 …… . 떡에다가 저 술에 한 잔 먹고 놀고서 썩 물러가야지, 그러지 않으면 어디 가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니, 여기서 떡에다가 술에다가 목욕을 하고 고기에다 양치질해가지고 쳐먹구서 잘 놀다가 돌아가라. 당나라야 술술 놀아라 …… .” 이때 제관의 사설에 맞춰 허재비를 어르기도 하고 허재비에게 싸움을 시키기도 한다. 혹은 모의 성행위를 하거나 춤을 추는 등 역동적인 움직임을 펼친다. “여기서 한 번 놀았으니, 떡이랑 술 한 잔 먹고 또 한 번 놀아야지. 당나라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아. 몽둥이로 두들겨 맞아. 군말 없이 돌아가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 매를 맞아. 마지막으로 이 술 한 잔 먹고서는 다시 한 번 놀아보자.” 다시 농악대의 농악에 맞춰 신명꾼이 허재비를 들고 춤을 춘다. 제관은 ‘허재비가 말을 듣지 않으니 매를 때릴 수밖에 없다’고 호령하며 신명꾼에게 매질을 하라고 한다. “멈춰라! 당장 멈춰라. 당나라 너희들이 이래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매를 맞아야지 이래 가지고서는 안 되니께 여갓다 얹어라. 종아리를 때려야지 안 되겠다.” 신명꾼이 허재비를 땅에 눕혀 놓고 몽둥이로 내리친다. 얼마간 허재비를 때리다가 제관이 ‘이제 되었으니 그만두라’고 한다. “이제 맞을 대로 맞았으니께, 다리 몽텅이가 똑 부러지도록 맞았으니께 한 번 더 놀려봐.” 신명꾼은 허재비를 들고 춤을 추며 어르다가 모의 성행위를 하며 한바탕 논다. 제관은 허재비가 마을의 액운을 모두 가져가 주기를 기원한다. “가만히 듣고 있어. 이 놈들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예! 마른 것은 싸 가지고 가고 진 것은 다 먹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칼로 배지를 갈라버릴 테니, 두 말 들을 것 없이 오티

에 있는 액이라는 것은 싹 끌어안고 싹 물러가야지 그러지 않으면 혼나.” 한바탕 농악을 치며 돌다가 제관이 농악을 멈추게 하고 한 번 더 허재비에 게 호령한다. 신명꾼에게 허재비가 도무지 말을 안 들으니 바닥에 내리치라고 한다. “멈춰라! 당장 멈춰라. 당나라 너희들이 이래가지고는 안 디겠다. 매를 맞아야지 이래 가지고는 안 되니께 여 갔다 얹어라. 여 바박에 내 쳐야지 안 되겠다.” 신명꾼이 허재비를 바닥에 내리치면, 수수팔떡으로 화살로 쏘고 이어 술잔을 얹어버린다. 제관이 바가지에 술을 가득 붓고 미리 준비한 칼로 술을 저으며, “액운을 모두 가져가라”고 기원한다. 농악을 멈추게 하고 바가지의 술을 모두 허재비를 향해 뿌리며 “액운을 가지고 멀리 가라”고 호령한다. 신명꾼은 허재비를 마을 바깥쪽으로 가져다 놓는다. 농악을 울리며 놀다가 중단하고 칼을 뽑아 멀리 집어던진다. 이때 칼끝이 바깥쪽으로 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반복해서 칼을 집어던진다. 제관은 바가지를 땅에 얹어놓고 칼날이 허재비가 있는 방향이 되도록 땅에 꽂아 놓는다. “에! 이제 니가 주위를 돌아보면 안 되어. 안 가고 어슬렁거리면 대번 배지를 갈라버려. 에이 튜!” 침을 뱉고 수수팔떡을 올려놓았던 나무판을 발로 힘껏 밟는다.

(8) 오신

제의 수행자와 농악패가 한데 어울려 흥겹게 논다.

(9) 송신

농악놀이가 끝나면 본당에서 다시 신을 청배한 후 송신한다. 제의 행렬은 본당 서낭당을 중심으로 무동-여장-농악대 순으로 배열한다. 청배를 기원하는 동안 농악대는 빠르게 농악을 울리고, 무동과 여장은 손을 앞뒤로 움직이며 춤을 춘다. 제관은 신을 좌정시키고 송신한다. “여러 서낭님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정성을 받들어주시니, 우리 동민은 뭐라고 애

기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반갑다고 감응해주시니 감사하고, 이제 여러 서낭님도 자기 자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내 자리는 내가 찾아가야 하고, 그 저 이렇게 내려오셨으니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기왕 이렇게 오셨으니 한 번 더 술술 놀아주시고 그저 내 자리를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악대는 농악을 울리고, 대잡이는 춤을 춘다. 제관도 박수를 치는 등 어울려 춤을 춘다. 제관은 신목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며 예를 갖춘다. 농악은 더욱 빨라지며, 대잡이도 격렬하게 춤을 춘다.

(10) 뒤풀이마당

제의 수행자, 주민, 농악패가 한데 어울려 무동놀이를 하며 한바탕 논다.

4) 파대놀이

파대놀이는 2006년 제13회 충북민속예술축제에 53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개인상 부문에서 지휘로 대상을 수상하였다. 2007년 제14회 충북민속예술축제에 60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2008년 제15회 충북민속예술축제에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출연 ; 제천민속팀

□ 해 설

파대(破帶)는 가을철 논밭에서 새를 쫓기 위한 민속도구이다. 짚을 꼬아 만든 줄끈에 삼이나 말총, 또는 짐승 가죽 따위를 엮어 만든다. 파대를 둘러치면 그 끝이 휘감기어 총소리와 같은 소리가 난다. 파대는 태백산맥에 근접해 있는 지역에서 많이 사용했다. 제천시에서는 파대 치는 행위를 흔



파대놀이 - 입장

곡리, 마곡리, 삼거리 일대에서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히 ‘태기치기’ 또는 ‘태기친다’라고 하며, 1960년대까지 광범위하게 전승되다가 단절되었다. 오늘날에는 제천시 봉양읍 구

□ 구 성

(1) 입장

농악대(상쇠-부쇠-징-북-장구)가 앞서며, 그 뒤를 주민들이 따라 입장



파대놀이 - 파대틀기

한다. 주민들 가운데 소녀 세 명은 머리를 숙인 채 슬픈 양 입장한다. 소녀 세 명은 머리를 잘라 바칠 선발 인원으로서 전년도에 대동계에서 선발된 후 마을에서 규정한 금기를 준수하며 머리카락 유지관리에 정성을 다했다. 소녀들의 안타까움을 나타내기 위해 농악을

매우 느리고 조용한 가락으로 연주한다. 주민들도 숙연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2) 원형진 구성

관중석에 인사한 후, 촌장이 “오늘 파대놀이에는 굴탄리 마을의 김서방을 대장으로 정했으니 잘 따르시게” 하면, 지명된 자는 주민들 앞으로 나와 큰 절을 올리고 대장의 명을 받는다. 촌장은 대장에게 파대 한 개를 전하며 파대놀이의 시작을 알린다.

(3) 머리 자르기

소녀 세 명이 원형진 가운데 앉는다. 파대꾼 세 명은 소녀들의 머리 자를 준비를 한다. 소녀들을 위로하는 내용의 사설과 함께 소녀들의 머리를 자른다.

(4) 파대 틀기

삼삼오오 짝(조)을 이루어 파대 틀기 준비를 한다. 파대를 강하게 당기어 틀면 강도가 세지기 때문에 한 사람이 중심을 잡고 세 명씩 삼각형으로 앉아 파대 틀기 대형을 갖춘다. 이때 소녀들의 머리카락을 파대 틀기 재료로 사용한다. 선소리꾼의 소리에 맞춰 파대 틀기를 시작한다.

(5) 파대 다듬기

잘 튼 파대일지라도 짚공예 특성상 짚이나 말총 또는 머리카락 등이 빠져 나와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다듬기를 한다.

(6) 축원

파대를 대장에게 건네주면, 대장은 파대 날개를 뭉쳐 잡고 머리 위로 들

어 올린다. 파대꾼들은 파대 머리를 잡고 원형으로 둘러선다. 대장의 선창으로 축원을 시작한다. 대장과 파대꾼들은 원형을 유지한 채 오른쪽을 돌며 사설과 후렴구를 주고받는다. 이렇게 한 판 놀고, 각자 자리로 돌아가 정렬한다.

(7) 축이기

파대를 본격적으로 치기 전에 파대를 물에 눅인다. 대장이 “축이세”라고 선창하면, 파대꾼들은 파대를 물 향아리에 담가 충분히 물을 먹인다. 물 향아리는 동서남북 지점 네 곳에 놓여 있다.

(8) 고르기

파대 머리를 잡고 전체가 땅에 닿도록 내리친다. 대장이 “고르세”라고 선창하면, 파대꾼들은 “어이~” 하며 몸을 크게 뒤로 젖혔다가 내리친다. 고르기 동작을 3회 반복한다.

(9) 분칠하기

파대의 날개와 꼬리에 찹쌀가루를 골고루 묻힌다. 대장이 “분칠하세”라고 선창하면, 파대꾼들이 찹쌀가루를 담은 향아리에 파대를 담가 충분히 찹쌀가루를 묻힌다. 찹쌀가루 향아리는 동서남북 지점 네 곳에 놓여 있다. 이후 풍물에 맞춰 몸을 흔들며 파대치기 대형을 갖춘다.

(10) 파대치기

윗마을과 아랫마을, 건너마을과 안마을이 경쟁하듯 파대 소리를 크게 낸다. 파대 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 ① 채 치기(세로 치기) : 팔을 앞으로 반쯤 뻗어 머리 위로 끌어올렸다가 순간적으로 내려치는 방법이다. 여러 명이 동시에 소리를 낼 때 사용

한다.

- ② 꺾어 치기 : 좌측이든 우측이든 한 방향으로 돌리다가, 파대 끝을 순간적으로 공중으로 치켜 올렸다가 수직으로 빠르게 꺾어 치는 방법이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 ③ 가록 역(逆) 치기 : 한 방향으로 돌리다가 일정한 지점에서 반대 방향으로 잡아채는 방법이다. 파대 길이가 가장 긴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소리가 장중하다. 다른 방법에 비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11) 퇴장

수장이 “오늘은 파대놀이가 마을간 잘~ 어우러지고~ 파대치기는 소리도 좋고~ 대동단결을 통해 들판에 풍년들고 마을이 화평하니 그만 치세나~” 하면 참여자 전원이 가운데 모여 풍물 가락에 맞춰 한바탕 논 후 퇴장한다.

□ 소 리

● 머리 자르기

우지마라 우지마라 애기들아~
머리는 혼줄인 것을 내 어찌 모르겠나마는~ 우지마라 우지마라
풍년농사를 위야 내 눈물로써 자르노니~ 우지마라 우지마라
마을에서는 너희들의 헌신을 반다시 기억하도록 신신당부 할지니~ 우지
마라 우지마라
산천초목이 보고 있으니 모다 알것지만은~ 우지마라 우지마라
집사는 대동계보에 기록하여 후대에 전하라~ 우지마라 우지마라 애기들아

● 파대 틀기

들어간다 얼레야 땡겨라~ 얼레야 틀어라~ 얼레야 돌리고~ 얼레야
곧추서고 얼레야 땡겨라~ 얼레야 틀어라~ 얼레야 돌리고~ 얼레야
감아쥐고 얼레야 땡겨라~ 얼레야 틀어라~ 얼레야 돌리고~ 얼레야
뒤로밀어 얼레야 땡겨라~ 얼레야 틀어라~ 얼레야 돌리고~ 얼레야
흔들어잡고 얼레야 땡겨라~ 얼레야 틀어라~ 얼레야 돌리고~ 얼레야
엮어잡고 얼레야 땡겨라~ 얼레야 틀어라~ 얼레야 돌리고~ 얼레야
세워돌아 얼레야 땡겨라~ 얼레야 틀어라~ 얼레야 돌리고~ 얼레야
마무리짓고 얼레야 땡겨라~ 얼레야 틀어라~ 얼레야 돌리고~ 얼레야

● 파대 다듬기

정월에는 새끼 꼬아라~ 얼레야 다듬이
이월이네 가마니 짜고~ 얼레야 다듬이
삼월이면 짚신 삼아서~ 얼레야 다듬이
사월이니 장석 말아라~ 얼레야 다듬이
오월이로다 자리 깔고~ 얼레야 다듬이
유월이요 도롱이 엮고 ~ 얼레야 다듬이
칠월칠석에 파대 틀고~ 얼레야 다듬이
팔월이면 명석 메고야~ 얼레야 다듬이
구월이면 삼태기 묶어~ 얼레야 다듬이
시월이면 이엉 잇고서~ 얼레야 다듬이
동짓달손 용구새 놓고~ 얼레야 다듬이
선달에는 한숨 자세나~ 얼레야 다듬이

● 축원

선남선녀 청춘을 잘라만든 이파대는 얼레야 어얼레
우리마을의 액운을 파대에 실어보내고 얼레야 어얼레
산천의 온갖 날것들을 마을에서 내몰아 얼레야 어얼레
풍년농사로 천석만석 곡간을 채워 얼레야 어얼레
옥이야 금이야 키운자식들 시집장가 보내고 얼레야 어얼레
부모님 공양에 효자되고 마을에 화평들어 얼레야 어얼레
삼천리 방방곡곡에 천둥처럼 번지리라 얼레야 어얼레

5) 팔진법놀이

팔진법놀이는 1994년 제1회 충북농악경연대회에 25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감투상을 수상하였다.

출연 ; 의림농악대

□ 해 설

제천시 의림농악대는 삼한시대에 축조된 의림지 및 의림지의 농경문화를 테마로 제천시 전통농악의 보존, 계승에 앞장서고 있다. 팔진법놀이는 순수농악으로 판굿에서 특히 채상모놀이가 돋보인다. 대체적으로 힘차고 빠른 가락이 다채로워 흥겨움을 더한다.

3 충주 민속놀이

1) 목계별신제

목계별신제는 2007년 제14회 충북민속예술축제에 60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2008년 제15회 충북민속예술축제에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출연 ; 목계별신제보존회

□ 해 설

목계별신제는 충주시 엄정면 목계마을에서 상권의 강화 및 벼사람의 안녕을 위해 정기적으로 치렀던 축제형 마을제사이다. 목계마을은 1930년대 이전까지 남한강 수운의 중심지였다. 목계마을 장시의 확대는 새로운 장시 문화의 형성으로 이어졌다. 누구든 이곳에 모여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접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고, 잔치를 벌이거나 공동의 놀이를 통해 결속을 다지면서 단조로운 일상에서 벗어났다. 투전, 골패 등의 도박은 물론 상업적 성격이 강



목계별신제 - 암줄과 솃줄



목계별신제 - 줄 이동

한 유흥의 공간이 마련되었다. 기녀의 노랫가락이 우선하였지만, 봉건사회의 분화에 따라 토지를 잃고 유랑하며 걸식하는 이들이 집단을 이루어 광대짓을 하는 사당패나 걸립패도 목계마을 장시의 유흥을

돋우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장시의 활성화는 유흥문화의 발달을 가져왔다. 그러나 목계마을의 장시는 근대화 과정의 발달과 비례하여 쇠퇴하였다.

1925~1930년 사이에 중부의 내륙지역을 관통하는 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그리고 충주~조치원간 충북선 열차가 개통되면서 목계나루의 활기는 점차 시들었고, 1973년에 콘크리트 다리가 가설되면서 나룻배도 사라졌다. 한 해 뱃길의 무사와 상권의 활성화를 기원하던 뱃고사나 별신제도 사라졌고, 이 과정에서 행했던 대규모의 줄다리기나 남사당놀이도 사라졌다. 오늘날에는 삼거리에 세워놓은 '목계 줄다리기와 별신제 유래비'를 통해서 이전의 번성함을 짐작할 뿐이다. 전문에는 팔도에 서 가장 흥청댔던 다섯 도시 가운데 하나였고, 또 중원문화의 발상지였으며 중심지였다는 지역적 자부심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 그리고 도시가 융성했던 만큼 상권의 활성화 및 그 보존을 위한 당고사, 뱃고사, 별신제를 올렸으며,



목계별신제 - 줄다리기 1



목계별신제 - 줄다리기 2

난장을 벌여놓고 남사당패를 불러들인 가운데 대규모의 줄다리기를 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구성

(1) 입장

신장대를 앞세운 무당, 농악 A팀, 농악 B팀, 제머리마빡, 비너목, 줄꾼 등의 순으로 입장한다.

(2) 별신굿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전승되어 왔던 제의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당고사

당고사는 성황제의 제의 양상을 띠고 있다. 제장은 목계인도교 옆 봉제산(봉산, 부영산, 부흥산 등) 중턱에 위치하고 있는 목조와가 양식의 부흥당(富興堂)이다. 당내에는 중앙 정면에 서낭각시도(城隍閣氏圖)를, 우측에 용신도(龍神圖)를, 좌측에 산신도(山神圖)를 봉안하고 있다. 당고사는 원래 정월 5일부터 10일까지 지속되었다. 정월 5일 즈음에 단골무당이 광대와 약사를 대동하고 3일 동안 광대놀이를 하였다. 정월 9일에는 아침부터 각 가정을 돌며 지신을 밟는 등으로 축원을 하였으며, 밤에는 제관의 집에서 안반굿(案盤-)을 하였다. 그러나 남한강의 수운이 쇠퇴하면서 지역의 경기가 침체되자, 40여 년 전에 마을회의를 열어 제일을 정월 9일로 고정하였다. 오늘날에는 제관의 선출이 엄격하지 않다. 한 해 동안 특별하게 부정한 일이 없으면, 관례적으로 마을 최고 원로와 이장[구장]이 맡는다. 제물은 비교적 단순한 편이다. 10여 년 전만 해도 무당이 ‘조배술’을 당 안에서 직

접 담그는 등 진설의 원칙에 충실했지만, 오늘날에는 어느 지역의 동제와 마찬가지로 약식의 제물을 진설한다. 제의 당일 해질 무렵 오후 7~8시 즈음에 마을원로 및 제관 등이 복색을 갖추고 무당과 함께 제장으로 올라 촛불과 향을 지핀 후에 본격적으로 의례를 행한다. 유교식 예법에 따라 제물을 진설한 후, 무당이 〈부정풀이〉를 구송하여 제장을 정화시킨다. 제차(祭次)는 시종 엄숙하며 분향-헌작-재배-축-소지 등 유교식 진행이다. 제의 후 약간의 떡을 떼어놓고 하산한다.

② 뱃고사

뱃고사는 남한강의 용신을 대상 신격으로 하여 ‘운항의 안전’을 기원하는 의식이다. 그래서 제장을 용신과 조우할 수 있는 목계강변의 나루터[선착장]로 삼았다. 제일은 정월 14일을 특정일로 고정하였다. 정월에 당고사를 올리기도 했지만, 뱃사람은 자신들을 위한 자신들의 제의를 통해 자신들의 기원을 용왕에게 전달하려 했다. 따라서 선주나 뱃사람이 직접 제관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제일 전 15일부터 나루터에 금줄을 치고, 이곳을 통과하는 뱃사람들에게 경비를 각출하여 제물을 마련하였다. 참고로 목계나루가 한창 활기를 띠고 있었던 1909년의 자료를 살펴보면, 한 해에 목계지역을 통과했던 배는 무려 827척이었다. 이 중에 441척은 청풍까지, 71척은 단양까지, 65척은 영월을 넘어 영춘까지 왕래를 하였다. 행례는 제일 15일 전에 선착장에 금줄을 둘러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전통신앙의 관념 속에서, 뱃사람들은 그들의 생명을 관장하고 있는 용왕에게 지극한 정성을 다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운항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 모두가 제의에 참여했다. 유교식 제차(祭次)에 의해 의례를 마친 후 약간의 음식을 떼어놓는 식의 진행이었지만, 누구든 용왕에게 배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따라서 당고사보다 훨씬 성대했으며 요란했다.

③ 별신제

별신제는 지역의 상권 활성화 및 지역의 안녕을 기원하는 무속제의이다. 보통 3~4년을 주기로 4월 초파일을 전후한 2~3일 동안 영신굿-오신굿-송신굿의 순으로 굿판을 벌였다. 지역의 동회장을 중심으로, 중원지역은 물론 전국 팔도의 무당들이 제의를 주관하였다. 무엇보다 팔도의 명무(名巫)들이 그들의 기예를 선보이면서 다양한 축원을 했기 때문에 각지에서 구경꾼들이 몰려들었다. 지역민들은 물론 이곳을 수시로 드나들던 상인들, 그리고 인근지역의 외지인들까지 한데 열려 흥청댈 수 있던 장소와 시간을 목계별신제가 제공했다. 중원의 모든 무당들이 별신제를 주관했다는 김춘식의 1985년도 기록자료를 통해, 별신제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근대화가 진척되면서 원형의 별신제가 단절되었다. 1925~1930년 사이에 중부의 내륙지역을 관통하는 도로가 개통되면서, 그리고 충주~조치원간 충북선 열차가 개통되면서 목계나루의 활기는 점차 시들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별신제의 명맥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던 것이다.

(3) 줄다리기

줄다리기는 3년을 주기로, 2월 말경에서 3월 초순 사이에 4~5일 동안 행하였다. 인근의 각 동리뿐만 아니라 충주, 원주, 장호원 등지에서 농악기를 앞세운 수 만여 명의 인파가 몰려 대성황을 이루었다. 줄은 정월 농한기를 이용하여 짚으로 꼬았다. 동편[동계·내계]은 동편에서, 서편[서계]은 서편에서 짚을 마련하였다. 약 800토매의 짚을 마련하였는데, 짚을 마련하는 데만 20여 일이 소요되었다. 동편은 평산에서, 서편은 샨터산에서 10여 일 동안 줄을 꼬았다. 일단 상속회(원줄)만 끈 후에 강변으로 나가서 종속회[매기수염]를 꼬았다. 상속회를 꼰 때는 산자들을 이용하였다. 비너목은 남성을 상징하는 동편에서 마련하였는데, 재질은 소나무 내지 향나무를 사

용하였다. 줄[용신]은 한쪽의 길이가 대략 백여 척에 달하는 쌍줄이었으며, 표면에는 상중석회를 붙였다. 상속에서 중속회[매기수염]를 한 가닥씩 뽑게 되므로 뒤로 갈수록 상속회가 기늘어졌다. 용두[용마루·용머리]의 길이는 7척 가량이었으며, 용목의 굵기는 1~1.5척 정도나 되었다. 결줄의 굵기는 5cm쯤 되었으며, 침을 합해서 묶었다. 이렇게 끈 줄의 한쪽의 길이가 70~80m 가량이 되었다. 연행 공간은 남한강변의 공터를 삼았는데, 이곳을 흔히 ‘줄터’라고 불렀다. 편은 ‘동 ↔ 서’를 경계로 나누었다. 동편은 동계와 내계를 아울러 구성하였으며, 서편은 서계 단독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동남서녀(東男西女) 및 남청여홍(男靑女紅)의 구분에 대한 인식이 엄격하였기 때문에 동편이 이겨야 풍년이 든다고 여겼다. 각 편에서 2~3명의 편장을 선출하였고, 또 이들 중에서 도편장을 선출하였다. 줄다리기 경합에 앞서, 이장[구장] 및 마을원로가 주축이 되어 약식의 당고사를 올렸다. 줄꾼들이 도편장의 지휘에 따라 일정 지점까지 이동하여 양편이 마주 서게 되면 본격적으로 용두를 걸었다. 양편의 줄꾼들이 어느 정도 다가서면, 한편의 도편장이 “슬렁수”를 띄웠는데, 이때 상대방에서는 “꼴레꼴레”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암줄과 숫줄이 처음으로 맞닿게 되면 양편의 줄꾼들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다. 이런 과정을 보통 세 번 거친 후에야 ‘줄을 걸자’는 도편장의 구호가 떨어지며, 이어 “늑혀!·당겨!” 하는 등의 지시에 따라 용두를 걸게 된다. 양편의 실랑이가 때로는 석전(石戰)으로 확대되기도 줄을 당기기 시작하면, 남성을 상징하는 동편[동계와 내계]의 승리가 이미 보장되었더라도 줄꾼들은 온 힘을 다해 줄을 당겼다. 더욱이 승벽이 매우 심해서 동편은 “서편은 동에 똥물 먹고 죽어라!”며, 서편은 “동편은 서에 똥물 먹고 죽어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여성들도 끌려가지 않기 위해 치마폭에 자갈을 싸안고 악착같이 줄을 당길 정도였다. 줄의 움직임에 따라 도편장이 휴전을 제안하기도 하였는데, 불리한 쪽에서는 경기지역이나 강원지역에서 청병을 하기도 하였다.

(4) 송신굿

참여자 모두가 뱃길의 무사안녕 및 풍농을 기원하는 송신굿을 펼친다.

(5) 퇴장

줄을 어깨에 메고 물결을 상징하는 하늘색 천을 흔들며 퇴장한다.

2) 무등놀이

무등놀이는 1995년 제2회 충북농악경연대회에 45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출연 ; 한마음농악대

□ 해 설

무등놀이는 무등을 타고 노는 민속놀이이다. 달리 '무등타기'라고도 한다. 원래 남사당패의 놀이였지만 일반 농악놀이로 확산되었다. 무등타기는 무동들의 깨끼춤과 동리, 삼동, 곡마단, 논고리, 맞동리 등 놀이 유형이 다양하다. 충주시에서는 달천지역에서 무등놀이가 전승되었다. 7월 호미씻이를 할 때 무등을 타고 놀았다. 또 면 대항 풍물놀이에서 달천풍물팀이 무등을 타고 놀았다.

□ 구 성

무등놀이는 인사굿, 명석말이, 십자걸이, 자진몰이, 씨래질, 상모놀이, 무등놀이, 짹짹이, 사통백이, 좌우치기, 굿거리, 12발상모놀이 등으로 진행된다. 가락은 인사가락, 행진가락, 굿거리, 자진가락, 삼채(꽃나부장단), 육채, 칠채, 짹짹이장단 등이다. 놀이의 형태가 자주 변하기 때문에 박진감이 넘쳐 저절로 흥을 돋운다. 놀이대는 평과리(상쇠, 부쇠, 종쇠) 3명, 징 2명, 장구 8명, 북 8명, 상모 8명, 잡색이(양반, 할멈) 2명, 농기 1명, 영기 2명, 무등 8명 등으로 편성하고 있다.

놀이대는 일정한 대열을 갖추어 입장한다. 판의 중앙에서 칠채로 명석말이를 하고, 꽃나부장단으로 동서남북 십자걸이를 한다. 십자걸이를 풀어 자진몰이로, 자진몰이를 풀어 삼채로 연행하다가 씨래질을 통해 자리를 바꾼다. 이어 상모놀이를 하는데, 한 줄에서 두 줄로 갈랐다가 다시 한 줄로 만든다. 놀이대는 다시 중앙으로 집결하여 8무등 8법구로 무등놀이를 한다. 무등춤을 추다가 양쪽으로 갈라져 무등 자리바꿈을 한다. 자리바꿈을 통해 북판에서 원을 그린다. 한참 무등춤을 추다가 중앙에서 삼층무등을 만든다. 무등놀이가 끝나면 짹짹이장단에 맞춰 가다가 서서 우측으로 숙이고, 좌측으로 숙이고, 그러다가 앞으로 전진, 또 장단에 맞춰 가다가 서서 우로 좌로 짹짹이를 한다. 이어 사통백이, 좌우치기, 굿거리를 한다. 마지막으로 12발상놀이를 한다. 이때 상쇠놀이를 겸한다.

3) 양진명소오롱굿

양진명소오롱굿은 1979년 제20회 전국민속경연대회에 출연하여 문화공보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후 2005년 제12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43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인기상을 수상하였다.

출연 ; 충주국악협회



양진명소오룡굿 - 영신굿



양진명소오룡굿 - 오신굿

□ 해 설

양진명소(揚津溟所)는 탄금대 서쪽 대금산 아래 나루터로 달리 '금휴포(琴休浦)'라고도 한다. 신라시대부터 양진명소에 사당이 하나 있었는데, 나라에서는 춘추(春秋)로 향을 내려 양진명소의 제신인 오룡(五龍)에게 국태민안을 기원했다. 가뭄이 들 때면 기우제를 올리기도 했다. 치성을 올릴 때에는 무당이 굿을 했으며, 주민들도 농악가락에 맞춰 춤추고 노래하며 어울렸다. 이를 '오룡굿'이라고 했다. 오룡은 동서남북과 중앙을 지키는 다섯 마리 용을 상징했고, 예부터 동쪽은 파란색, 서쪽은 흰색, 남쪽은 붉은색, 북쪽은 검은색, 중앙은 노란색으로 방위를 표시했다.

□ 구 성

양진명소오룡굿은 영신, 봉신, 봉신제, 대축사, 오신놀이, 송신 등으로 진행하고 있다. 1979년 제20회 전국민속경연대회에 충청북도 대표로 출연하여 문화공보부장관상을 수상하기

도 했는데, 당시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영신굿

영신굿은 오룡을 청배하는 곳이다. 미리 준비한 물바가지를 띄워놓고 주민들이 노래에 맞춰 물바가지 끈을 서서히 잡아당긴다. 물바가지가 당도하면 물바가지로 물동이에 물을 퍼 담는다. 주민들은 농악가락에 맞춰 흥을 돋우며 한판 놀이를 펼친다. 이후 오룡을 모시고 제단 쪽으로 전진한다.

(2) 봉신굿

봉신굿은 오룡을 지정한 장소에 모시는 곳이다. 오룡을 청색기, 적색기, 백색기, 흑색기, 황색기로 상징하여 오룡대 앞에 세우고 제례를 올린다. 제례는 대축관의 홀기에 의해 초헌, 아헌, 종헌의 순으로 진행한다. 초헌 후에는 축문낭독을 행하며, 종헌 후에는 무당이 대축사로 굿을 펼치며 독령한다.

(3) 오신굿

오신굿은 오룡을 달래는 곳이다. 다섯 물동이 위에 오룡이 올라 무악에 맞춰 춤을 춘다. 문중 대표는 문중기를 흔들며 주민과 흥겹게 논다. 오룡은 한참 동안 춤을 추다가 무악과 함께 동작을 멈춘다. 사방이 조용해지면 중앙에 위치한 황룡이 공수를 한다. 다시 무악이 울리면 오룡이 춤을 추며 오룡대에서 내려온다.

(4) 송신

송신굿은 오룡을 돌려보내는 곳이다. 영신할 때 행렬과 같이, 처음 오룡을 영신한 곳에서 다 함께 흥을 돋우며 춤을 춘다.

4) 충주호상놀이

충주호상놀이는 2002년 제9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41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인기상을 수상하였다.

출연 ; 충주민속팀

□ 해 설

충주호상놀이는 충주시에서 행했던 옛 호상놀이를 재연한 작품이다.

□ 구 성

충주호상놀이는 대돋움(빈상여놀이), 노상가(상여소리), 회다지소리, 진사놀이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대돋움은 발인하기 전날 저녁에 상두꾼들이 빈 상여를 메고, 선소리꾼의 상여소리에 발을 맞춰 보는 민속놀이이다. 진사놀이는 붕분제를 올린 후 사위에게 재담을 하며, 줍으로 안경을 만들어 씌우기거나 얼굴에 솟검정을 칠하고, 연춧대에 묶어 칠끈으로 끄는 등 장난을 치며 귀가하는 민속놀이이다.

4 음성 민속놀이

1) 특실가재줄다리기

특실가재줄다리기는 2002년에 ‘음성향토문화연구회’를 통해 발굴되었다. 2003년 제10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78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인기상을 수상하였으며, 2008년 제15회 충북민속예술축제에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출연 ; 음성민속팀

□ 해 설

특실가재줄다리기는 정월 대보름에 서낭제를 마치고 마을잔치를 하며 행하던 민속놀이이다. 큰줄다리기에 앞선 애기줄다리기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특실가재줄다리기와 비슷한 형태의 놀이로 경남 밀양군 부북면 감내마을에서 전승되고 있는 ‘게줄다리기’와 경남 함양군 일대에서 전승되고 있는 ‘거북이 힘내기’가 있다. 음성군 특실가재줄다리기는 큰줄다리기의 연행 목적 및 경합 방식과 차이가 있다. 큰



특실가재줄다리기 - 줄당기기 1



특실가재줄다리기 - 줄당기기 2

줄다리기는 힘겨루기가 치열하며 승패를 중시한다. 그러나 특실가재줄다리기는 승패보다는 마을의 화합을 중시하며, 겨울동안 움츠렸던 아이들의 생기를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줄은 마을에서 추렴한 벼짚으로 엮는다. 굵기는 가래줄 정도이며, 길이는 9~10m이다. 편은 '윗담'과 '아랫담'으로 가르는데, 체격을 기준으로 가능한 비슷하게 가르다. 또 두 명이 한 조가 되어 개인적으로 줄을 당기기도 한다.

줄을 목에 걸고 가랑이 밑으로 빼어 두 어린이가 서서 반대 방향을 보고 무릎과 팔꿈치를 땅에 대고 엎드린다. 그러면 '줄도감'이 징을 쳐 시작을 알린다. 상대방보다 줄을 많이 당기거나 상대방을 넘어뜨리면 승리한다. 보통 3~4회 반복한다.

□ 구 성

특실가재줄다리기의 재현 공연은 길놀이 → 서낭제 → 마당놀이 → 가재줄다리기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1) 놀이대 편성

특실가재줄다리기 놀이대는 당기 → 농기 → 놀이기 → 제관 → 풍물꾼 → 가재줄다리기 놀이대 등으로 편성하고 있다. 서낭고사를 올리기 위해 서낭당으로 이동하며 길놀이를 하는 동안 이 편성을 유지한다.

(2) 길놀이

놀이대는 편성에 따른 대형을 갖추고, 풍물꾼이 연주하는 길군악 가락에 맞추어 마을로부터 사당당으로 이동한다.

(3) 당집 풍물

서당당에 도착한 후, 우선 풍물꾼이 당집을 돌며 서당신께 풍물로써 서당제를 알린다. 이때 풍물은 휘몰이 가락과 고사굿 가락으로 이루어진다.

(4) 서당제

풍물꾼의 풍물이 끝나면, 제관의 주재로 서당제를 올린다. 제관은 정월 초에 생기복덕을 가려 연장자 순으로, 제관 3인, 공양주 1인을 선출한다. 제관을 중심으로 당집의 이영을 보수하며 금줄을 둘러쳐 외부인의 출입을 금한다. 제물로서 돼지머리, 밤, 대추, 곶감, 사과, 배, 술, 백설기, 톱포 등을 진설한다. 제의는 유교식 절차에 따라 분향-초헌-아헌-종헌-고축-소지올림 등으로 진행한다. 성황제 축문은 다음과 같다. “惟歲次 ○○一月 ○○朔 十五日 ○○ 沙谷二里 居住代表 ○○○ 敢昭告于 城隍之神 時維孟春 本洞居住 人人安樂 家家太平 農事豐作 家畜繁盛 三災掃滅 萬事亨通 冀賴 神沐 謹以酒果 敬神奠獻 尙 飭食”

(5) 놀이마당

- ① 서당제를 올린 후, 놀이대는 편성에 따른 대형을 다시 갖추고 풍물을 울리며 가재놀이마당으로 이동한다.
- ② 가재놀이마당에 도착한 후, 둥글게 돌아가며 마당놀이를 펼친다. 이때 주민들은 물론 어린이들까지 참여하여 흥겨운 판을 만든다.

(6) 가재줄다리기 대형

풍물을 멈추고, 어린이들이 가재줄을 가지고 가재줄다리기 대형을 만든다. 이때 서낭당기, 농기, 놀이기, 영기 등은 가재줄다리기 대형 끝에서 정면을 보고 횡대로 서서 깃발을 오르내린다.

(7) 가재줄다리기 줄당기기

- ① 줄도감이 징을 쳐 줄당기기 시작을 알린다. 줄당기기가 시작되면 주민들과 풍물꾼은 응원의 구호를 연신 외친다.
- ② 2~3회에 걸쳐 줄당기기를 한다. 줄당기기가 끝나면 어린이들, 주민들, 풍물패가 한데 열려 농악놀이를 한다. 이로써 행사를 마친다.

2) 거북놀이

거북놀이는 1994년 제1회 충북농악경연대회에 39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2005년 제12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41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감투상을 수상하였으며, 2006년 제13회 충북민속예술축제에 50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감투상을 수상하였다.

출연 ; 갑산농악대(1994년), 거북놀이보존회(2005년), 음성민속팀(2006)

□ 해 설

거북놀이는 추석날 밤에 행하는 민속놀이로, 수숫대를 벗겨 거북이 모양을 만들어 2~3명이 그 속에 들어가 마치 거북이가 돌아다니듯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한바탕 논다. 그러다가 거북이가 힘이 빠진 척 쓰러져 꼼짝하지 않는다. 질라아비가 “이 거북이가 동해를 건너 여기까지 오느라고 힘이 지쳐 누웠으니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라고 하면, 집주인은 송편, 떡, 과실

등을 내어놓는다. 질라아비가 “거북아! 먹이가 나왔으니 인사나 하고 가자”고 하면, 거북이는 넙죽 절을 하고 한 바탕 뛰며 놀다가



거북놀이 - 길놀이



거북놀이 - 마당놀이

또 다른 집으로 간다. 이 놀이를 통해 집집마다 장수, 무병하게 되고, 동네의 잡귀신을 쫓는다고 생각했다. 거북놀이는 한 해의 풍년을 축원하는 풍년제의 성격과 마을과 집안의 잡귀를 몰아내어 안녕을 기원하는 무속신앙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음성군을 기준으로 거북놀이의 전승지역을 살펴보면, 경기도의 여주시, 이천시의 경계를 이루는 청미천을 중심으로 감곡면,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금왕면, 맹동면 등지에서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 구 성

(1) 거북이 형태와 질라아비 복장

① 거북이 형태

몸통은 대나무 또는 나뭇가지를 엮어 만들며, 수수잎으로 몸통의 틀을 덮어 이엉을 엮는다. 그리고 몸통 용구새를 약 20cm 정도로 틀어 이엉 위에 엮는다. 또한 짚이나 수수잎으로 새끼거북이를 만든다. 머리는 짚으로 멧방석을 만들 듯 엮어 만들며,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할 수 있도록 끈을 매단다. 꼬리는 수수잎을 엮어 빗자루 모양으로 만든다.

② 질라아비 복장

치마는 수수잎을 엮어 만든다. 머리쓰개와 발차개(정강이 가리개)를 같은 방식으로 만든다.

(2) 거북놀이 놀이대 편성

놀이대는 용기수, 농기수, 영기, 거북이, 질라잡이, 어릿광대(양반), 의원, 남중, 여중, 꼬추, 머슴, 농악대(상쇠, 부쇠, 징, 북, 재파리, 장고, 소고), 구경꾼 등으로 편성하고 있다. 1976년에 발간한 『한국민속종합조사 보고서』에는 용기수 1명, 질라아비 1명, 거북이 안에 들어가는 사람 2명, 어릿광대 1명, 의원 1명, 여중 2명, 남중 2명, 용기잡이 1명, 상쇠 1명, 부쇠 1명, 징 1명, 북 1명, 재파리 1명, 장고 1명, 소고 1명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3) 거북놀이 연희 내용

① 길놀이

마을 어귀나 공터에서 놀이대가 길놀이를 시작한다. 놀이대는 길가락(종다가락)에 맞춰 정해놓은 집으로 이동한다.

② 문굿

정해놓은 집에 도착하면, 농악대는 오방진 앞가락의 변형 가락을 치다가 상쇠의 신호에 따라 농악을 멈추고 문굿을 한다. 질라아비는, “천석거북이 들어갑니다. 만석거북이 들어갑니다. 문을 열면 만복이 들어오고, 땅을 쓸면 황금이 쏟아져 나오니, 이 덕의 문을 활짝 열어주소서” 하며 덕담을 한다. 집주인이 문을 열어주면, 거북이를 앞세우고 놀이대가 집안으로 들어간다. 이어 용기, 농기, 영기가 뒤따른다.

③ 샘굿(용왕굿)

놀이대는 샘 주위에 둘러서, 농악대의 칠채가락 → 육채가락 → 다드래기가락 → 휘몰이가락에 맞춰 춤을 춘다. 상쇠의 신호에 따라 농악을 멈추고 샘굿을 한다. 질라아비는 “용왕님 용왕님 사해용왕님, 동해용왕 광연왕, 남해용왕 광덕왕, 서해용왕 광진왕, 북해용왕 광태왕, 이 댁에 샘물이 팔팔 솟게 하여 주소서. 동에는 청연수, 남에는 정연수, 서에는 백연수, 북에는 흑연수, 중앙에 황연수 모아다가 이 댁 가중으로 들어오게 하여, 이 물로 밥을 지어 잡수시면 일 년 열두 달 과년 열석 달 삼백육십오일 내내 갈지라도, 근심걱정 무안질병 삼재팔난 하나 없이 천지 점지하여 주소서” 하며 덕담을 한다. 질라아비의 덕담이 끝나면, 상쇠가 꿩과리를 치며 “뚫어라 뚫어라 물구멍만 뚫어라”고 한다. 이를 농악대가 후창한다.

④ 터주굿

놀이대는 장독대 옆에 있는 터주가리로 이동하여 농악대의 자진모리가락과 휘몰이가락에 맞춰 춤을 춘다. 상쇠의 신호에 따라 농악을 멈추고 터주굿을 한다. 질라아비는, “말을 먹이면 용마가 되고, 소를 먹이면 억대우가 되고, 닭을 먹이면 봉황이 되고, 개를 먹이면 마구할미 청삽사리 네눈박이가 되고, 이 집 문간 중방에 턱을 걸고 오시는 손님 받아들이고, 킁킁 짓는 소리, 이 근방 만금복록 이 댁으로 무럭무럭 들어오게 하여 주소서” 하며 덕담을 한다.

⑤ 조왕굿

놀이대는 부엌으로 이동한다. 질라아비는 부엌 문턱에서 거북이에게 큰 절을 시킨다. 농악대는 자진모리가락과 휘몰리가락을 치다가 멈춘다. 질라아비는, “조왕님 조왕님 삼만육천 성주대신 팔만사천 제대조왕 삼불제석 산신님네 산신국사 토지시신 조상부모 혼령님네 조왕님 조왕님 검은 술에

화식 익혀 먹을 때도 아무 거침없이 수복다남 부귀영화 누리게 하소서” 하며 덕담을 한다.

⑥ 마당놀이

농악대는 풍다가락, 오방진가락, 칠채가락, 육채가락으로 흥을 돋운다. 다드래기가락과 휘몰이가락으로 놀이판의 흥을 절정으로 이끈다. 이때 거북이가 마당을 돌며 놀다가 갑자기 쓰러진다. 질라아비는 거북이가 쓰러졌다고 소리친다. 놀이대는 거북이 주위로 모여든다. 질라아비는 “이 거북이가 동해바다를 건너서 이 산골까지 오느라 과로해서 병이 났나보구나” 하며 종을 시켜 의원을 불러오게 한다. 의원은 거북이를 진찰하고, “병이 너무 깊게 들었습니다” 하며 손을 떼려 한다. 질라아비는 의원이 손을 떼지 못하도록 집주인에게 음식과 술을 내오라고 한다. 집주인은 추석명절에 준비한 음식을 푸짐하게 내어놓는다. 놀이대는 음식을 먹고 한바탕 질펀하게 논다. 질라아비는 “거북아 거북아 놀아라. 천냥 거북아 놀아라. 만냥 거북아 놀아라. 즐겁게 받으시고, 마음잡게 받으시고, 형그럽게 받으시고. 거북아 거북아 실컨 놀아보자. 재주대로 놀아보자. 형그럽게 놀아보자. 천금 만냥 벌여주소. 우리 거북님 빌어주소. 모두가 거북님 덕택일세. 지성이면 감천일세. 거북님의 덕택일세. 나라님의 만수무강, 백성들의 만사태평, 이택에는 여의대통. 거북님아 거북님아 빌어주소” 하며 덕담을 한다. 놀이대는 다시 한바탕 질펀하게 논다.

□ 소 리

〈거북이 노래〉는 1976년에 음성군 금왕읍 금석 2리에 거주하던 이해룡(당시 64세)으로부터 채록한 자료이다.

● 거북이 노래

거북아거북아 놀으라 천년거북아 놀으라
형향그럽게 놀아라 기분이 좋게 노르라
팔월한가위 너르르섯는 거북이한쌍을 드려노니 거북이귀히 놀아볼제
머리개실 자라시고 꼬리를 툭탁치면서
먹을전 놀아불어주구 입을전 놀아불어주구
먹구나랑께나 점지하구 입구나랑께 즐거할제
이축원이발원 드릴적에 거북이신령이 없으리까
천년거북아 놀아보아라 만년거북아 놀아보아라
활바하기를 누르익지 기분 좋게 내리시구 기분 좋게 받으시구
우리거북이 한쌍이내려와서 다시한번 둘러보고
이터전으로 들어와서 사명당으로 안장하고
안개작자나 좌기나안정허리게
송편공양을 받으실제 반갑게 각계즐것게 나나받으리오
거북이에 축원을드릴제는 어제는 다섯가지은혜요
나란님전에 충성하고 부모님전에 충성하고오
동기부모님전에 효성하고 동기나간에 우애하고
내우나간에 금실 좋고요 일가나친척 화목하고 친구나벗님 유정터니
거북이타령을 불러볼제 거북아거북아 너~말해
천년거북아 놀아보자 만년거북아 놀아라
이사상에 태인인간덜 살피시구 굶으시구
거북이신령이 없으리까 입힌덕도라 만사오니 새루나덕을 입혀주소
천하지대본은 농사나바끼 또잇는가
집픈데는 눈을치구 높은데는 발을쳐서
오곡백화 씨를뿌려 오~갱이 양겨주고 사해용앵이 물을주고
무슨곡석을 심엇던가 산골로들어 산다닥 들러나들어 들청비

새누가나온 시연비 칠십팔십에 노인배 연년충신에 효도배
 기운요본에 팔다리 이름종흔에 십삼어 걸꺼덕푸드딩 쟁끼찰
 안성육인에 양푼찰 혼자먹는에 대지찰 알록달록 따뜨리차
 으슴양심에 별덕찰 욕심많을제 쪽제비찰
 여기나저기 심어놓고 적꼭갓절 심얼적엘
 봄에 나간다라 봄보리 갈에 나간다라 갈보리
 용모보리 쌀보리 안질뱅이나 키다리 오목조목에 갯뚱주
 질꺼리나 사벌주 수수면동에 적도와 얼꽁청둥 청대콩
 방정맛다라 춘연이콩 말기나대국에 강낭콩 독수공방에 흘애비콩
 흑두적도동년 고추참깨들깨 여기저기 심었는데 편지청천에 대보래콩
 한국단풍에 들어오니 억조창생 농민덜아 천마대번에 힘쓸쓸제
 이때까중에 물을손가 일매나같은 일꾼들 무드렁낫얼 썩씩갈아서
 이리비구루 저리놓고 물매나같은 일꾼들 지게바쳐 저드리고
 앵두나같은 종덜언 딸이나바쳐 여드리고
 두격뿌리 자각뿌리 천지각이나 쌍족발이나동경수
 나갈제 빈다리요 들었을게 찬발어러아
 우곡저곡 쓸어들여 묵구낭께나 점지하고 애꾸자남께 점지하고
 에~야 노적딘노적 멩에나노적 참께노적 담얼담얼 쌓아놓으니
 남데나없는 봉백산으로 활얼날어들어 사랑봉에 터를닦고
 중봉에는 기를들어 한나중봉개는 기를들어
 한날개 특탁치면 일만석이 쏟아지고
 또한날개가 특탁치면 옥동같은 비는자손 칠팔형제 점지한다
 부귀공명에 점지할제 황금으로 담을쌓고 물명절으나 올대메고
 술러는 모욕하고 고기론 양체하야 이라소지 황금출이네
 지칠개문에 만복래라 소원성취 발원할제
 당상각발 양친부모 오동나무가 상낭가지 봉황같이 점지하고

없는애기는 생남아를 있는애기는 수명장수
진명언 설여담구 짜른에명언 이서담어
석중에도 복을빌고 강태공에도 나이빌어
상팔재 훗팔재 예백예순 점지키를 제석님에 덕택이요
제삼신이 내덕택이요 제석님과 삼신님은
예명땅으로 나리시고 소망성취를 이루소사

● 거북이 노래

거북아거북아 놀아봐라
천년거북아 놀아봐라
만년거북아 놀아봐라
팔월한가운날에 송편을 빚어놓니
예문전에 가서 거북타령을 혈적에
예레놀구 저리나놀구
기분 좋게 놀으소사
거북이야 말을 잘들으쇼

5 진천 민속놀이

1) 집터다지기

집터다지기는 2005년 제12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60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인기상을 수상하였다.

출연 ; 덕산농악대

□ 해 설

집터다지기는 집터를 다지고 집을 지을 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함께 일하고, 또 축하하는 공동작업이자 민속놀이이다. 낮에는 가래질로 집터를 모으고, 저녁에는 지더미돌로 집터를 다진다. 이때 ‘가래질소리’와 ‘지더미소리’가 일의 진행을 돕는다.

□ 구 성

집터다지기는 입장, 가래질(가래질소리), 지더미(지더미소리) 등으로 진행하고 있다. 출연진은 농악 15명(상쇠 1명, 부쇠 1명, 징 3명, 북 4명, 장구 4명, 깃대잡이 2명, 가래질꾼 30명(장치꾼 6명, 줄꾼 24명), 지더미꾼 20명(햇불 6명, 줄꾼 14명) 등 60여 명이다. 가래질꾼이 지더미꾼을 겸하

기도 한다. 집터를 다질 때에는 ‘오목가래’를 사용한다. 장치꾼 1명, 줄꾼 (앞줄, 목줄) 4명이 필요하다. 지더미는 밤에 행하는데 광솔불로 주변을 밝혀 일을 진행한다.

□ 소 리

● 가래질소리

이집터를 모을적에 가래질로 집터를 모으고~ 어하딩실 가래요
경복궁을 지을때도 가래질로 집터를 모으고~ 어하딩실 가래요
법주사를 지을때도 가래질로 집터를 모으고~ 어하딩실 가래요
(후략)

● 지더미소리

함박산주렴이 뚝떨어져서~ 어허지더미호
이집터를 마련하고~ 어허지더미호
이집터를 마련할제~ 어허지더미호
토선대사가 집터를잡고~ 어허지더미호
무학대사가 좌향을놓으니~ 어허지더미호
천하의명당은 여기로구나~ 어허지더미호
좌청룡이 잘되었으니~ 어허지더미호
아들자식이 잘될것ियो~ 어허지더미호
우백호가 잘되었으니~ 어허지더미호
딸자식이 잘될것이라~ 어허지더미호

6 괴산 민속놀이

1) 상여놀이

상여놀이는 2004년 제11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44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개인상 부문에서 김민태가 소리로 대상을 수상하였다. 2007년 제14회 충북민속예술축제에 55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인기상을 수상하였다.

출연 ; 괴산민속팀



상여놀이 - 외나무다리 건너기

□ 해 설

상여놀이는 가난한 선비의 아내가 어린 6남매를 남겨두고 별세하여, 상주뿐만 아니라 온 부락민들이 슬픔에 잠겨 상여를 떠나보내는 모습을 재현한 작품이다.

□ 구 성

상여놀이는 출상, 상여놀이, 외나무다리 건너기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1) 출상

상여꾼들이 상여 옆에 도열한다. 선소리꾼이 상여 주위를 돌며 ‘요령 잡이소리’를 부르며, 상여꾼들은 상여를 메고 일어선다. 농악대 악사는 ‘향토가’를 부르며 상여의 선두를 이끌고 집을 나선다.



상여놀이 선소리꾼 - 노영길

(2) 상여놀이

악사, 방상씨, 명정, 만장, 지전, 공포, 불삼, 초연, 혼백, 상여, 운삼, 상주, 복재기, 조객 등의 순으로 대열을 이루며 길을 나선다. 이때 특유의 선소리를 주고받으면서 상여를 뒤로 밀듯 앞으로 나간다.

(3) 외나무다리 건너기

상여 앞에 개천이 나오면 물속에 동발을 박고 통나무 2~3개를 한데 묶어 발판을 만든다. 그리고 발판 위에 뗏장을 얹어 외나무다리를 만든다. 상여꾼들은 V자 형태를 유지하며 외나무다리를 건넌다.

2) 지경다지기

지경다지는 2006년 제13회 충북민속예술축제에 35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출연 ; 괴산민속팀

□ 해 설

지경다지기는 새 집을 지을 때 집터를 다지는 공동작업을 말한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하는 협동노동으로써 재앙을 쫓는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괴산군에서는 지경다지기와 관련해서 ‘가래질소리’, ‘목도소리’, ‘지경다지기 소리’ 등이 전승되고 있다.

□ 구 성

지경다지기는 토지지신 제사, 설계, 가래질, 돌운반, 지경다지기 등으로 진행하고 있다. 먼저 토지지신에게 이곳에 집터를 닦을 것이라는 사실을 고한다. 여러 명이 작대기로 주춧돌 자리를 다지고, 집의 면적을 표시하는 말뚝을 박아 지경 다질 준비를 한다. 가래질이 끝나고 지경을 다지기 위해 지경석을 네 명이 목도에 메어 짊어지고 목도소리에 맞춰 지경석을 집터로 옮긴다. 선소리꾼이 소리를 메기면 지경석을 짊어진 목도꾼이 뒷소리를 받아 발을 맞춰 집터 중앙으로 지경석을 옮긴다. 이어 지경줄을 맨다. 지경줄은 열두 명이 들 수 있도록 매며, 12지간의 방향으로 늘어서 지경 다질 준비를 한다.

□ 소 리

● 토지지신

병술년을 맞이하여 자좌오향에 집을지어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축원하나이다

● 가래질소리

대명당에 집을지니 우리모두 합심하여~ 에라 청청 가래호
높은곳을 가래질해 낮은곳을 잘매우세~ 에라 청청 가래호
이집지어 자손만대 영화누려 잘살겠네~ 에라 청청 가래호
성인군자 날터이니 우리모두 기원하세~ 에라 청청 가래호
삼정승에 육판서가 이자리서 나온다네~ 에라 청청 가래호
어지간히 골랐으니 쉬었다가 다시하세~ 에라 청청 가래호
지경돌로 다질테니 판판하게 잘고르세~ 에라 청청 가래호
이집터가 명당이니 우리마을 흐뭇하네~ 에라 청청 가래호
가래질은 그만하고 지경돌로 다져보세~ 에라 청청 가래호

● 목도소리

(메기는 소리) 차정~ 허어 에에이

(받는 소리) 차정~ 허어 에에이

허제~ 해야~ / 허제~ 해야~ 허야 허차

허제~ 해야~ 허야 허차 / 허제~ 해야~ 허야 허차

허어 으야 으으 허야 / 허어 으야 으으 허야

허어 으야 으으 허야 / 허제~ 허 잘 한다 허제~

허제~ 허자 어기 허차 / 허제~ 허자 어기 허차

허제~ 허자 어기 허차 / 허제~ 허제 어기 허차

허제~ 허자 어기 허차 / 허제~ 허자 어기 허차
허제~ 허제 어기 허차 / 허제~ 허기 어차 어 놓고~

● 지경다지기 소리

에헤에~ 지데미호 천개의자 생천이요
지벽이 조축땅 생길제 음과양의 조화로다
남섬부주 내달아서 해동제일 대한민국
백두산에 서린정기 태백산을 건너뛰어 소백산에 서렸구나
군자산이 주산이요 오봉산이 안산되고 좌청룡에 우백호라
동진강으로 수구막고 괴강으로 둘러치니 대명당이 예로구나
학의등에 터를닭고 지경소리나 올려보세
천근바위를 지어다가 십이지간 동아줄을 휘휘칭칭 잡아매어
대길일을 택하여서 지경다지를 하여보세
먼데사람은 듣기도 좋게 근동사람은 보기도 좋게
높이높이 들었다가 쿵쿵쿵쿵 다저를보세 보기도 좋게 다저를보세
이집한채를 잘지어서 자손만대 부귀영화 세세연년 만복이라
에헤에 지데미호

7 증평 민속놀이

1) 밀양북놀이

밀양북놀이는 1994년 제1회 충북농악경연대회에 25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인기상을 수상하였다.

출연 ; 용강농악대

□ 해 설

북놀이는 산대놀이 따위에서 북을 떼고 나와 벌이는 민속놀이를 말한다. 밀양북놀이는 밀양백중놀이에서 연행되는 북놀이이다. 밀양북놀이는 ‘외북놀이’ 이외, 북잡이 다섯 명이 합주하는 ‘오북춤’이 특징이다. 오북춤은 다섯 명의 북잡이가 원형을 이루어 춤을 추는데, 큰 보폭과 대담한 동작을 선보이는 남성적인 춤이다. 오행(五行)과 오기(五氣)가 순조롭고, 오체(五體)가 경건하며 오곡(五穀)이 풍성해 오복(五福)을 누릴 수 있도록 기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북춤을 출 때에는 맨발에 흰 바지저고리를 입는데, 바지를 무릎까지 걷어 부치고 머리에는 수건을 동여맨다. 악기는 타악기들로 쟁과리, 징, 장고, 북, 물장고, 사장고, 나발 등을 사용한다.

8 청주 민속놀이

1) 소래울장치기

소래울장치기는 1996년 제3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130명의 대단위 인원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출연 ; 소래울민속놀이팀

□ 해 설



봉치기 하는 장면

소래울은 청주시 흥덕구 내 곡동의 옛 지명으로, '큰 소래울'과 '작은 소래울'이라는 두 개의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래울장치기는 나무를 하기 위해 산에 올랐다가 그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행했던 청·장년층의 유희적 민속놀이이다. 풍농을 기원하고 부락의 화합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 구 성

나무 채는 1m 가량의 단단한 나무 끝을 구부러트려 공을 치기 편하게 만든다. 공은 소나무의 옹이가 있는 부분이나 고양이나무, 박달나무 같이 굳은 나무를 둥글게 깎아 만든다. 길이 40~50m, 너비 30~40m 정도의 장소에 가운데에는 공이 들어갈 만한 구멍이를 판다. 놀이는 두 편으로 갈라 하되, 한 편을 10명 정도로 구성한다. 사방에 네모 구역을 만들고 가운데에 중앙선을 정한다. 공채로 공을 쳐서 상대방의 골라인을 많이 넘기는 편이 이긴다. 놀이 방식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아래짱'으로, 구멍에 공을 놓고 양편이 동시에 시작하는 방식이다. 둘째, '웃짱'으로 공을 제3자가 위로 똑바로 던진 다음 떨어지는 공을 서로 쳐서 시작하는 방식이다. 셋째, '소래기'로 이긴 편이 공을 위로 던지면 양편이 한 바퀴 돌면서 떨어지는 공을 쳐서 시작하는 방식이다. 놀이 방식에 따라 격문을 만들기도 하지만 기본 방식은 동일하다. 놀이에는 반칙과 벌칙이 주어진다. 반칙은 공이 몸의 일부에 닿는 것, 상대방의 공채를 몸으로 막는 것, 상대방의 몸을 공채로 치거나 치려고 하는 것, 상대방의 경기활동을 몸으로 막는 것, 공을 격장의 선 밖으로 쳐내는 것, 공을 횡선 밖으로 쳐내는 것 등이다. 벌칙은 몸을 한 바퀴 돌려서 공을 치는 물레공, 공을 굴려주는 굴러공, 구멍공치기 등이 있다.

9 청원 민속놀이

1) 길쌈놀이

길쌈놀이는 1996년 제3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36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출연 ; 화당길쌈놀이팀

□ 해 설

길쌈놀이는 7~8월에 부녀자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공동으로 두레길쌈을 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에 따라 ‘모시두레’, ‘돌개삼’이라고도 한다. 여름 밤에 한곳에 모여 두레길쌈을 하는데, 이때 우스갯소리도 하고 옛날이야기도 하고, 또 노래도 부른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의 단조로움과 고달픔을 더는 것이다. 특히 8월 보름, 추석날밤에는 그 동안 노고를 털어버리기 위해 음식을 푸짐하게 장만하고 가무로써 한껏 즐긴다.

□ 구 성

청원군 남일면 화당리에서 전승되었던 길쌈놀이를 씨앗질 → 활질 → 고치말기 → 물레질 → 씨날매기 → 베짜기 등 목화로부터 무명을 짜기까지

일체의 과정으로 재연하고 있다.

2) 부강호상놀이

부강호상놀이는 1997년 제4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개인상 부문에서 최명옥이 잡색으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출연 ; 화당길쌈놀이팀

□ 해 설

부강호상놀이는 발인하기 전날 저녁에 상여꾼들이 빈 상여를 메고 선소리꾼의 상여소리에 발을 맞춰 보는 민속놀이이다.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에 사는 호상일 경우 상여꾼들이 빈 상여를 메고 인근에 있는 망자와 가까운 친지들의 가정을 방문한다. 이때 재간꾼이 상여 위에 올라 상제와 같이 곡하는 시늉을 하며 놀이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를 흔히 ‘대도둑’이라고 한다.

3) 수살제마당놀이

수살제마당놀이는 2001년 제8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48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감투상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제9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청원수살제라는 명칭으로 37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감투상을 수상하였다.

출연 ; 청원민속팀

□ 해 설

수살제마당놀이는 청원군 가덕면 삼항리 하촌마을에서 전승되고 있는 산신제와 수살제를 공연화한 작품이다. 삼항리 하촌마을 산신제와 수살제의 일시는 정월 14일 자시로 고정하고 있다. 정월 초에 한 해 부정 여부 및 생기복덕 합당 여부를 가려 세 명의 제관을 선정한다. 제관은 대문에 금줄을 치고 매일 목욕재계하는 등 삼일금기를 준수한다. 산신제 제당은 마을 뒷산 참나무 숲에 위치하고 있다. 높이가 2m 가량의 바위이며, 그 앞에는 자연석 제단이 있다. 수살제 제당은 마을 입구에서 있는 두 기의 선돌로 동쪽의 것을 천하대장군, 서쪽의 것을 지하대장군이라고 부른다. 천하대장군은 높이가 0.7m 폭 0.5m 두께 0.3m이며, 지하대장군은 높이가 1.2m 폭 0.4m 두께 0.3m이다. 산신제는 자시를 전후하여 3명의 제관이 주재한다. 제물로서 삼색실과, 백설기(3되 3흡), 명태포, 메밀묵, 메, 술 등을 진설한다. 술은 제장에서 직접 빚는데, 이를 '조라술'이라고 한다. 제의는 분향, 초헌, 독축, 아헌, 종헌, 소지 등 유교식 절차를 좇아 진행한다. 산신제를 지낸 후에는 마을 사람들이 참여하여 수살제를 지낸다. 제물로 돼지머리, 메밀 1그릇을 진설한다. 제의는 산신제와 동일하게 진행한다. 이때 참여한 사람들 누구나 소지를 올린다. 이후 풍물을 울리며 음복한다.

□ 구 성

풍물패가 마을을 한 바퀴 돌며 수살제의 시작을 알린다. 세 명의 제관이 맨 앞에 서고, 그 뒤를 풍물패 및 마을 사람들이 따른다. 우선 산제당에서 산신제를 올린다. 산신제가 끝나면 풍물패가 앞서 풍물을 치고, 그 뒤를 제관이 따르면서 곳곳에 황토를 뿌린다. 이렇게 출연진이 수살제 위치로 이

동한다. 산신제와 같은 방식으로 수살제를 올린다. 제의가 끝나면 음복하고 풍물과 더불어 한바탕 논다.

4) 현동시동물다르기

현동시동물다르기는 2004년 제11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50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2006년 제13회 충북민속예술축제에도 40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이후 2007년 제14회 충북민속예술 축제에 51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출연 ; 청원민속팀

□ 해 설

현동시동물다르기는 청원군 현도면 시동리에서 전승되고 있는 우물기원제이다. 시동리 사람들은 마을공동우물의 시원이 고람산 열골샘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믿고 있다. 열골샘은 고람산의 열고개 너머에 위치하고 있는 웅달샘으로 가뭄과 한발에도 절대 마르지 않는다. 농번기가 본격화되는 4~5월에 풍장패를 위시한 마을 사람들이 고람산에 올라 산신제를 지낸다. 이후 열골샘으로 이동하여 아낙네들이 호리병이



현동시동물다르기

나 물동이에 물을 기른다. 호리병이나 물동이의 주둥이를 솔잎으로 틀어막고, 고람산으로 다시 올라 그곳에서부터 한 방울 한 방울씩 물을 떨어뜨리며 마을공동우물까지 내려온다. 이렇게 다다라 남은 물을 마을공동우물에 쏟아 붓는다. 이어 우물고사를 지낸 후 풍장을 울리며 신명나게 논다.

□ 구 성

현동시동물다르기는 현장에서의 전승 양상 그대로 고람산 오르기 → 산신제 → 열골샘 물담기 → 고람산 오르기 → 물다르기 → 마을우물에 물붓기 → 우물고사 → 신명풀이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5) 호미씻기놀이

호미씻기놀이는 1994년 제1회 충북농악경연대회에 46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출연 ; 장재농악대

□ 해 설

호미씻기놀이는 청원군 북이면 장재1리에서 전승되었던 호미씻기 농악을 재현한 민속놀이이다. 청원군 북이면 장재1리 농악대는 1964년에 35명으로 창단되었다. 농악대는 정월 대보름이나 추석을 기해 각 가정을 돌며 지신을 밟았으며, 백중을 기해 호미씻기 농악을 벌였다. 이를 상쇠 서병진을 비롯한 46명이 재연하고 있다

10 보은 민속놀이

1) 기세배

기세배는 1998년 제5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출연 ; 보은민속팀

□ 해 설

보은군 북실은 본디 산내면 지역이었던 보은읍 종곡리, 성족리, 누정리, 강신리 일대를 지칭하는 말로, 누밀, 강청이, 외뿔, 동메, 동편, 삼성골, 모종골, 다라니, 소라리, 배니, 안양, 세말 등 열두 개 부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열두 개 부락은 경주 김씨의 대표적인 집성촌이며, 매년 7월 20일을 전후해서 호무시(호미씻이)를 먹었다. 이때 열두 개 부락이 모여 풍물을 치고 기세배를 하며 농사일의 고단함을 잠시 잊었다. 각 부락마다 용기를 들고, 두레풍물이 형성된 순서에 의해 정한 형제의 서열에 따라 용기를 수그러 절을 했다. 평소에도 들녘에서 농사일을 하다가 형 마을의 농기가 들녘을 지날 때면, 일손을 멈추고 황급히 뛰어나와 세워 놓았던 농기를 세 번 흔들며 절을 했다. 행렬을 멈추고 기다렸던 형 마을 기는 정중히 답례하고 삼색천을 답례로 선물했다. 이 예를 행하지 않으면 형 마을의 풍물패가 기목을 뽑아 자기 깃대에 거꾸로 매다는 형벌을 가했다. 북실 기세배는 1950년대 초반까지 전승되었다.

□ 구 성

각 부락의 풍물패가 풍물을 치며 마을 앞 강변으로 집결한다. 먼저 만형기가 풍물을 뿜내고 자리를 마련한다. 둘째 마을기는 만형기 앞으로 이동하여 영기로 인사할 것을 고한 다음, 영기를 낮게 세 번 쓸고 한 번 숙여 절을 한다. 만형기는 살짝 숙이는 것으로 답례를 한다. 절이 끝나면 둘째 마을기는 만형기 왼편으로 이동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세배를 계속 진행한다. 기세배가 끝나면 농기를 차례로 세워놓고 각 풍물패와 주민이 한데 어울려 대동판을 마련하고 놀음놀이를 한다.

2) 물다르기

물다르기는 1997년 제4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감투상을 수상하였다.

출연 ; 보은민속팀

□ 해 설

보은군 산외면 백석 1리(일명 흰돌부락)에는 두 개의 큰 샘이 있다. 샘의 수원이 뒷산 유방혈의 두 젓무덤이기 때문에, 흰돌부락 사람들은 마을의 풍요와 안녕이 샘의 석천수로부터 비롯된다고 여기고 있다. 이 샘은 물맛도 좋을 뿐만 아니라 수량이 풍부하여 300여 년이 넘도록 마른 적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이웃마을의 시샘을 받아 왔다. 실제로 50년 전만 해도, 정월이 되면 장갑 2리(일명 나막이부락)에서 물의 근원을 뺏으려 했다. 이를

흔히 물다르기(충청도 방언 ; 물 빼앗기)라고 하는데 오늘날에는 일종의 민속놀이로 전승되고 있다.

□ 구 성

물다르기는 1987년 제2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보은흰돌) 물다리 기놀이’로 출연하여 단체 부문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당시 출연한 작품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출연 부락 및 인원 구성

- ① 보은군 산외면 백석 1구 주민 45명 ; 농악대 12명, 양병꾼 10명, 놀이패 23명
- ② 보은군 산외면 장갑 2구 주민 45명 ; 농악대 12명, 양병꾼 10명, 놀이패 23명

(2) 내용 구성

- ① 두 부락(흰돌부락, 나뭇이부락)의 농악대 24명이 농악을 치며 입장한다. 뒤를 따라 양병꾼 20명, 놀이패 40여 명이 춤을 추며 입장한다.
- ② 인사를 하고 두 부락으로 나누어 정렬한다. 흰돌부락은 두 개의 샘 중에서 아랫말 샘부터 샘고사를 올리고, 나뭇이부락은 산제를 올린다.
- ③ 나뭇이부락은 자기네 마을의 우물이 마른 것을 알고 흰돌부락으로 물을 다리러 간다.
- ④ 흰돌부락에서 아랫말 샘고사에 이어 웃말 샘고사를 올리고 있는 틈을 타, 나뭇이부락의 청년 뺨병꾼(양병; 주둥이가 좁고 배가 볼록한 질그

룻병, 일명 오지병)과 놀이패는 뽕병을 지고, 메고 뒷산을 넘어가 흰 돌부락의 물을 몰래 퍼 담아 뽕병에 술까지를 박고 줄줄 흘리며 물의 근원을 빼앗아 온다.

- ⑤ 나뭇이부락의 청년 뽕병꾼은 나뭇이부락 농악대의 환영을 받으며 “물 다리 왔다”고 외친 후 흰돌부락에서 몰래 퍼 담아 온 물을 자기네 샘물에 쏟아 붓는다.
- ⑥ 물을 다리 온 나뭇이부락 사람들은 농악으로 축제를 펼친다.
- ⑦ 흰돌부락에서도 나뭇이부락에서 축제를 펼치는 동안, 양병꾼과 놀이패를 보내어 물을 되찾아 오도록 한다. 흰돌부락의 청년 뽕병꾼은 “물 다리 간다”고 외치며 나뭇이부락으로 향한다.
- ⑧ 물을 되빼앗긴 나뭇이부락의 양병꾼과 놀이패가 흰돌부락으로 다시 물을 다리러 간다. 농악대가 한데 어울려 두 부락이 싸움을 벌인다.
- ⑨ 물을 되빼앗긴 흰돌부락은 온갖 연장을 동원하여 나뭇이부락으로 간 물줄기를 되돌려 놓는다.
- ⑩ 두 부락의 합성과 축제 속에 농기가 앞서 서로 화해하고 전체가 어울려 한바탕 놀이를 벌이다가 퇴장한다.

3) 송이놀이

송이놀이는 2001년 제8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51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개인상 부문에서 김영래가 연출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속리산 송이놀이라는 명칭으로, 2004년 제11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55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감투상을 수상하였다.

출연 ; 보은민속팀

□ 해 설

속리산은 우리나라의 명산으로, 신라시대에는 국가 차원에서는 국행제(國行祭)를 지냈다. 그리고 산중 사람들은 매년 10월 범날에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 속리산 산신을 맞이하여 천왕굿을 올렸다. 이때 산신에게 공물로 남근을 바치고 축제를 벌였다. 산신에게 남근을 바치는 것은 모방주술이라고 할 수 있다. 주술은 상징적 의미에서 소원을 표현하기 때문에 생산의 신성이 있는 여신에게 성력이 있는 남근을 바침으로써 신성혼인에 의한 효과적인 생산 혹은 풍요를 기원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이다. 따라서 속리산산신제에서 남근을 바쳤다는 것은 바로 속리산 산신을 여신으로 이해한 것이며, 또한 속리산 산중 사람들이 속리산 여신에게 남근을 바친 것은 효과적인 생산 내지는 풍요를 기대하는 주술적인 기원이라고 할 수 있다. 송이는 승려들이 쓰는 남근의 은어이므로, 송이놀이는 ‘남근놀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데 남근의 상징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속리산 승려들은 속리산 산신을 부처가 성도할 때 방해한 욕계마왕으로 인식하여 속리산 산신을 욕보이기 위해 산신제의 마지막 날에 남근공이를 변형하여 놀이했다.

□ 구 성

송이놀이는 사또행차, 물건(송이)찾기, 오방기놀이 등으로



송이놀이 - 입장굿



송이놀이 - 사또입장



송이놀이 1



송이놀이 2

진행하고 있다. 제물을 진설하고, 산신제와 무당굿을 펼친 후 신분에 맞는 의상을 갖춘 현감, 이방, 포졸 등이 자리 잡고 풍자와 해학이 넘치는 송이 찾기를 전개한다. 출연진은 기수 2명, 쇠 3명, 징 2명, 바라 1명, 장고5명, 북 4명, 소고 4명, 사또 1명, 이방 1명, 관속 6명, 포졸 7명, 무당 3명, 양반 3명, 디딜방아 3명, 절구 4명, 다듬이 2명, 맷돌 2명, 약초꾼 5명, 키질 4명, 도리깨 4명, 양반댁 아낙 1명, 무동 2명 등이다.

(1) 모임굿

이채가락으로 흥을 돋우며 출발 준비를 한다. 출연진은 각자 공물로 바칠 송이를 소지한다.

(2) 입장

길거리장단(칠채변형가락)에 맞추어 기수, 풍물패, 사또, 관속, 주민들 순으로 입장한다. 제사상 앞에서 원진을 그린다. 원진이 완료되면 가락을 3채가락(자진모리)으로 바꾸어 돌며, 양반과 주민들은 안으로 원진을 그린다. 기수를 중심으로 사또와 관속들은 가운데 원 안에서 자연스럽게 위치를 정한다.

(3) 무당굿

풍물패의 자진가락에 맞추어 세 명의 무당이 무당굿을 준비한다. 큰무당의 가락에 맞추어 작은 무당들이 춤을 춘다. 곧 산신제의 축원굿을 시작한다. 무당춤이 점점 빠르고 힘차게 진행되면 주민들은 허리를 굽혀 합장하고 기원한다. 무당춤이 절정에 이르면 큰무당은 가락을 바꿔 사설을 시작한다. 주민들은 준비한 남근 모형의 송이를 제단 위에 바친다. 나머지 주민들과 풍물꾼은 계속 허리를 굽혀 합장하고 기원한다. 주민대표가 가장 큰 공물을 바치면 큰무당이 사설을 마친다. 풍물패는 자진가락으로 주민들 사

이에서 달팽이진을 그린다. 주민들은 각자 위치에서 절구질, 방아질, 멧돌, 타작 등을 하고, 약초꾼은 춤을 추며 논다. 이때 사또, 관속, 포졸 등이 풍물패 소고 끝을 따라 돌다가 판굿이 끝나갈 무렵에 사또가 사인교에 앉아 행차 준비를 한다.

(4) 사또 입장

풍물패와 주민들이 흥겹게 노는 사이에 사또 행렬이 입장한다. 이방의 “물러거라 사또마님 행차시다” 하는 소리에 판굿을 멈춘다. 포졸들이 재차 “사또마님 행차시다”하고 하면, 주민들은 일을 멈추고 제자리에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한다. 풍물꾼은 북을 울리면서 뒤로 물러난다. 사또가 입장할 때, 기수들은 가운데를 향해 45도 기를 기울여 예의를 표한다. 사또는 판의 중앙에 좌정하고, 육방관속은 2열중대로 벌려서고, 포졸은 사또 뒤에 선다. 풍물패는 사또 뒤에서 양옆으로 자연스럽게 서서 장단을 맞춘다.

(5) 송이놀이

대본에 따라 송이놀이를 한다.

(6) 북춤

송이놀이가 끝나면, 육방관속은 송이를 떼고 사또를 따라 원진을 그린다. 그 뒤를 주민들이 따라 가며 원을 그린다. 풍물패는 송이와 같은 방향으로 원진을 그리다가, 안으로 반대 원을 그리면서 북춤 준비를 한다. 북춤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하나의 원을 만든 후 을자진을 이용해 남근 및 사또, 관속들을 가운데로 모아 원진을 그린다. 판 중앙에 위치한 남근의 귀두에 사또가 오방색 천을 매단다. 무당의 간단한 의식에 의해 송이를 천천히 세운다.

(7) 방아찝기

자진가락에 맞춰 오방색 천을 향해 주민들이 춤을 춘다. 이어 적당한 간격으로 서서 방아찝기를 한다. 3채 한 가락으로 들어가 한 가락 놓고, 3채 한 가락으로 놀며 나온다. 자진가락으로 모든 출연진이 춤을 춘다. 이어 송이를 보관할 뒷간으로 향한다. 뒷간 옆에 송이를 세워놓고 모든 출연진이 한바탕 눈 후에 천천히 퇴장한다.

□ 소리[물건(송이)찾기 대본]

현감 : 여봐라! 이방~

이방 : 예~ 이 (허리를 굽히며 목소리를 끌어올린다)

현감 : (앉아서 무게 있는 목소리로 천천히) 이곳 속리산에 와 보니 산수가 수려하고 듣던 대로 천하제일 명산이로구나! 예로부터 이곳 속리산에는 굵직굵직한 송이가 많이 난다고 들었다. 대부인 마님께 갖다드릴 물건이니 어서 가서 아주 크고 쓸 만한 물건하나 구해오너라.

이방 : (낮은 소리로) 예~

행진가락

이방은 여기저기를 둘러보며 찾아다니다가 멧돌 손잡이만한 것을 찾아온다.

이방 : 사~또! 여기 대령하였습니다!

현감 : (허리를 굽혀 보고, 기가 차다는 듯) 예끼! 이 놈아! 그것도 물건이란 말이나? 어떻게 너는 생긴 것처럼 그렇게 주변머리가 없느냐? 썩 나가서 더 큰 것을 구해 오너라.

이방 : (놀라 어쩔 줄 모르며) 예~

관아 육방관속들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이다. 밖으로 나가 다듬이 방망이를 들고 들어와 현 감에게 보인다.

이방 : 사또! 여기 대령 하였습니다. 이만하면 쓸만 하온지요?

현감 : (일어서서 다가와 보고는 어이가 없다는 듯) 기가 막히는구나! 그걸 어디다 쓰라는 것이냐? 망망대해 일엽편주, 아니 송사리 같은 이걸 물건이라고 가져 왔느냐? (획 집어던진다)

이방 : (던진 물건을 다시 집어들고) 아이구, 사또~ 이것도 작단 말입니까?

현감 :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연못에 송사리 한 마리가 노닌다고 파도가 이는 것을 보았느냐? 이놈아 썩 물러가지 못하겠느냐?

이방 : (한참을 꾸밈한 후에 물건을 들고) 어~ 허, 대부인마님 취미도 참 고상 하시네. 아 이보다 더 큰 물건을 구해다 무엇에 쓰려는 것인지 원. (포졸들을 가리키며) 좀 찾아보게나.

풍물가락에 맞춰 송이를 찾아다닌다.

이방 절구공이를 보고는 깜짝 놀라며, 다가가 포졸을 감싸안는다.

이방 : 사또~ 여기 쓸 만한 물건을 구해 왔습니다.

현감 : (앉은 상태로 허리를 굽혀 보다가) 그것이 무엇이나?

이방 : (웃으면서) 대부인 마님께 바칠 물건이옵니다.

현감 : (화가나 획 돌아앉으며) 어림없다.

이방 : 어림없으시다니요?

현감 : 이놈아! 그것으로는 마님 귀후비개도 못되겠다.

이방 : 예? 이것이 작단 말씀입니까?

현감 : 잔말 말고 어서 가서 더 큰 것을 구해 오너라.

이방은 어디로 가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 난감해 한다. 아전들은 재미있어 야단을 한다. 이방은 아전들에게 눈을 흘기다가 포졸1을 오라고 한다. 이어 의기양양하게 방아공이를 들고 들어온다.

이방 : 사또~ 드디어 구했습니다.

현감 : (옆으로 돌아앉았다가 바로 앉으면서) 어디보자~ (실망한 표정으로) 아니, 이 동네는 그렇게도 쓸 만한 물건이 없단 말이나?

이방 : 사또! 이것도 안 된단 말씀이시오?

현감 : 어림없다. 어서 가서 더 크고 굵은 것을 구해오너라.

이방 : 얼마나 커야 하는지요?

현감 : (팔뚝을 걷어 보았다가 다시 바지가랭이를 걷어 보고는 그것도 안 되겠다 싶은지, 양손으로 발끝부터 온몸을 훑으며) 이만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방 : (깜짝 놀라 넘어졌다 일어서며) 아니~~ 사또! (원망스럽게) 그렇게 큰 물건이 있을지요?

현감 : 대부인 마님이 한 번에 만족하여야 하느니라! 여러 말 하지 말고 어서 가서 구해 오너라, 이놈아!

이방 : 예.

황급히 나가서는 관중들에게 하소연을 한다.

이방 : 이것 참 큰일 났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내노라는 물건은 다 갖다 보여 드려도 안 된다 하시니 이걸 어찌하면 좋단 말이오? 누구 좋은 물건 있는 곳 아는 분 없소? (사람들의 사타구니를 훑치는 시늉을 한다) 좋은 물건 있는 사람 있으면 잠시 빌려라도 주시오. 이러다간 내가 제명에 못 죽을 것 같소이다. 내 평생 이렇게 큰 물건

이 필요하다라는 말은 보도듣도 못했소.

이방이 이 사람 저사람 닥치는 대로 붙들고 하소연을 하자, 관중들이 ‘절구공이를 구해가면 어떻겠느냐’고 일러준다. 이방은 좋은 생각이라는 듯 얼른 포졸1과 2를 데리고 가서는 절구공이로 만든 남근을 들고 사또 앞으로 등장한다.

이방 : 사~또~ (오두방정을 떨며 자신만만하게) 드 드 드디어 제대로 된 물건 구해왔습니다. 어디 한 번 보시지요.

현감 : 그래 어디보자. (절구공이를 자세히 훑어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그래 그만하면 길이는 뭐 아쉬운 대로 되겠는데, 물건이 그렇게 가느다랑 해셔야 쓰겠느냐? 어디 더 굵직한 것은 없더냐? 대부인마님이 한 번에 만족 하셔야 되느니라. 수고스럽지만 다시 한 번 구해보도록 해라.

이방 : 사또~ 차라리 이 놈을 죽여주십시오. 이보다 더 큰 물건은 이 세상에 없는 줄로 아옵니다.

현감 : 이 놈아, 네 놈이 정녕 죽고 싶어 환장 했구나! 썩나가 구하지 못할까?

이방 : 하지만 사또~ 이보다 더 큰 물건을 어디 가서 구합니까? (사또에게 반항하듯 말한다)

현감 : 이놈아! 대부인마님 거시기가 커서 그런다! 낸들 어찌겠느냐! 어서 구해오너라.

이방 : (포졸들과 절구공이를 바닥에 내동댕이치고는 주저앉아 포졸들에게 다그친다) 야, 이놈들아! 너희도 좀 찾아봐라.

졸들은 혼잣말로 “아,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물건이 어디 있단 말이요?”

사방으로 흩어진 포졸들이 서로 부딪치며 찾는 시늉을 한다. 이때 구경하고 있던 아전 한 사람이 이방에게 다가와 귓속말로 속삭인다. 이방이 포졸들을 불러 모아 큰 물건이 있는 곳으로 간다. 얼마 후 네 명의 포졸이 큰 물건을 메고 힘겹게 비틀거리며 사또 앞으로 간다.

이방 : 사~또, 드디어 구했습니다. 사또 온 나라를 다 뒤져서 구해온 물건이니 어디 한 번 살펴보시지요?

현감 : 아~ 파야~ 하! 하! 이만하면 아쉬운 대로 쓸 만 하겠구나! 그런데 이 물건은 어디서 구했느냐?

이방 : (고개를 뺏뺏이 세우고 바라보면서 자신 있게) 전국 방방곡곡을 헤매다 구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길에 사또 사랑채를 바라보는 순간, 아! 이 좋은 물건이 서까래로 지붕을 딱~ 하고 바치고 있지 않지요. 그래서 냅다 사랑채를 헐어 제치고 가져 왔습니다.

현감 : 아이구 죽일놈들~ 내가 아끼는 사랑채를 헐다니! 아무튼 잘 했다. 이제 이 물건을 대부인마님께 갖다드려야 하니 그것을 메고 나를 따라 오너라.

4) 전통혼례 행렬과 호상놀이 징검다리 건너기

전통혼례 행렬과 호상놀이 징검다리 건너기는 2005년 제12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61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개인상 부문에서 흥만기가 소리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2008년 제15회 충북민속예술축제에도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출연 ; 내북면 풍물회

□ 해 설

청원군 내북면 창리에는 ‘주성교’라는 옛 돌다리가 있다. 이 돌다리를 매개로 전통혼례 행렬과 호상놀이 징검다리 건너기가 전승되었다. 한쪽에서는 신랑신부를 태운 말과 가마가 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상여 행렬이 온다. 돌다리를 사이에 두고 서로 양보하라며 편싸움을 한다. 결국 산 사람이 양보한다는 의미에서 상여 행렬이 먼저 돌다리를 건넌다.

□ 구 성

전통혼례 행렬과 호상놀이 징검다리 건너기는 신부가 부모님과 이별하는 장면, 풍악소리에 맞춰 신랑신부가 떠나는 장면, 함진아비와 하인들이 집을 짊어지고 가는 장면, 호상인 만큼 만장을 들고 행렬하는 장면, 혼백을 모신 작은 상여를 메고 가는 장면, 시신을 모신 큰 상여를 메고 가는 장면, 신랑신부의 말, 가마와 상여가 징검다리를 건너는 장면 등으로 진행하고 있다. 출연진은 대감 2명, 풍악대 5명, 신랑신부 2명, 말과 돌다리 3명, 가마꾼 4명, 함진아비 5명, 만장 10명, 작은 상여 2명, 큰 상여 18명, 상주 5명, 문상객 5명 등 총 61명이다.

□ 소 리

- 상여소리1 ; 굿거리장단

어하 어하 에허 어하~ 어하 어하 에헤이 에하

우리야인생 태어날제 누구의은덕으로 태어났나~ 에헤 어하 에헤이
 하나님전 은덕으로 아버지전 뼈를빌어~ 어하어하 에헤이 에하
 어머니전에는 살을빌고 칠성님전에는 명을빌고~ 어하어하 에헤이 에하
 제석님전에는 복을빌고 석가여래 시주하고~ 어하 어하 에헤이 에하
 이세상에 탄생을하여 십오세에 철을몰라~ 어하 어하 에헤이 에하
 이삼십을 당하고보니 가옥 한두칸살이~ 어하 어하 에헤이 에하
 무정세월은 덧업이 인생칠십을 다못사네~ 어하 어하 에헤이 에하
 인간은 칠십이면 돌아오니 걱정이 절러나네~ 어하 어하 에헤이 에하
 눈어둡고 귀가먹으니 망년든다고 흥을보며~ 어하 어하 에헤이 에하
 구석구석에 흥을보니 애가달고 절통이나네~ 어하 어하 에헤이 에하
 흥안이백발이 되었으니 다시야젊지는 못하겠네~ 어하 어하 에헤이 에하
 인간이백년을 산다고하지만 잠든날이며 병든날이며~ 어하 어하 에헤이
 에하
 걱정근심을 다제하고보며는 단사십을 못사나니~ 어하 어하 에헤이 에하
 어제날도 성튼양반이 저녁나절 병이들어~ 어하 어하 에헤이 에하
 천상약질 약한몸에 태산같이 병이드니~ 어하 어하 에헤이 에하
 부르는건 어머니요 찾는것은 냉수로다~ 어하 어하 에헤이 에하
 어허 어허 술한자 먹고서 같이가세~ 어하 어하 에헤이 에하

● 상여소리2 ; 자드래기장단

어허 어하 어허 어하~ 어허 어하 어허 어하
 신선되려 가나~ 어허 어하
 문등삼산 캐러가나~ 어허 어하
 어허이 에하 어허 어하

더존뾰를 찾아가나~ 어허 어하
 백지암에 주인되어~ 어허 어하
 감로선인 하리가나~ 어허 어하
 저녁잘집 찾는새야~ 어허 어하
 요지원에 놀리가나~ 어허 어하
 낭중일자 호유되어~ 어허 어하
 명문가를 찾아가나~ 어허 어하
 팔도강산 유람하고~ 어허 어하
 자진몸이 되어가나~ 어허 어하
 수면장수 부군되야~ 어허 어하
 부자몸으로 태여가나~ 어허 어하
 어차 어차 어차 어차 어차~ 우여 우여 우여 우여 우여

5) 탕골개상제(탕골풍년제)

탕골개상제와 탕골풍년제는 동일한 작품이다. 탕골풍년제는 1999년 제6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50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감투상을 수상하였다. 탕골개상제는 2000년 제7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50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인기상을 수상하였으며, 개인상 부문에서 김인각이 연출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출연 ; 산외면 풍물보존회

□ 해 설

보은군 산외면 길탕리는 ‘탕골’과 ‘질골’이라는 두 개의 자연부락으로 구

성되어 있다. 탕골에서 ‘개상제’가 전승되고 있다. 개상제는 개상질(벧가리를 마당에 쌓아놓고 탈곡하는 행위)을 끝낸 후 올리는 제의를 말한다. 일종의 추수감사제 성격을 띠고 있으며 대동놀이를 포함하고 있다. 개상제를 달리 ‘풍년제’라고도 한다.

□ 구 성

2000년 제7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한 탕골개상제의 재현 공연은 모임굿 → 점고 → 입장 → 원진 → 인사굿 → 을자진 → 일자진 → 모내기 → 김매기 → 벼베기 → 탈곡(자리개질, 홀태질, 도리개질) → 개상제(풍년제) → 정선 → 말질 → 대동놀이(을자진, 달팽이진) → 원진 → 4열중대 → 인사굿 → 퇴장 등으로 진행하고 있다. 출연진은 기수(개상제행사기, 농기, 풍물보존회기, 주부대학기) 4명, 상쇠 1명, 부쇠 2명, 수징 1명, 부징 2명, 수장고 1명, 부장고 3명, 끝장고 1명, 수북 1명, 부북 1명, 끝북 1명, 선소리꾼 1명, 소고 8명, 태평소 1명, 양반 2명, 잡색이 21명, 아동 2명 등 52명이다.

(1) 모임굿

태평소를 불며 모임굿을 시작한다. 상쇠는 치배들에게 농악놀이의 시작을 알린다. 이채가락으로 치배들과 잡색들의 흥을 돋워준다. 치배들은 휘모리장단으로 흥을 돋은 후 길굿(입장)을 준비한다.

(2) 길굿

칠채(질군애비장단)에 맞춰 행사기 → 개상제기 → 농기 → 풍물기 → 주부대기 → 치배 → 소고(모잡이) → 잡색이 등의 순으로 원진을 그리며 입

장한다. 개인별 간격을 유지하며 농사도구를 들고 원진으로 입장한다. 기수를 앞세우고 원진으로 행진하다가 기수가 단상 정면에 위치하면 상쇠가 원진 가운데 서서 가락을 멈춘다.

(3) 인사굿

상쇠의 장단에 맞춰 안으로 한 번, 관중을 향해 한 번 정중하게 인사한다. 이어 약간 빠른 자진가락으로 원진을 그린다. 기수들은 단상 오른쪽에서 기를 약간씩 움직이면서 대기한다.

(4) 모내기

모잡이들은 상쇠의 자진가락에 맞춰 원진으로 돌다가 지개꾼의 지개에 실려 있는 모를 들고 춤을 춘다. 그리고 을자진을 그리며 모내기 위치로 이동한다. 잡색이들은 치배들 앞에서 덩실춤을 추며 흥을 돋운다. 아낙 등은 새참과 술을 머리에 이고 논으로 향하는 연출을 한다. 상쇠의 신호 가락에 따라 앞줄과 옆줄을 적당히 맞춰 다섯 포기의 모를 심는다.

(5) 김매기

지개꾼의 지개에 실린 호미를 들고 김매기 준비를 한다. 선소리꾼은 북을 들고 논으로 들어오며, 상쇠는 가락을 굿거리로 바꾼다. 모꾼들은 선소리꾼의 뒷소리를 받으며 모 주위에서 논매는 행위를 한다. 잡색이는 새참과 술을 대주는 연출을 한다. 김매기가 끝날 무렵에는 선소리꾼의 소리가 빨라지며, 양끝의 일꾼들은 안쪽으로 모여 김을 맨 후 “자 이제 이 논도 다 매었구나” 한다. 마지막으로 흙탕물을 일으키며 “이~히호”를 외친다.

(6) 새참

김매기를 마치고 치배들의 빠른 가락에 맞춰 달팽이진을 만든다. 휘몰이

가락으로 한바탕 논다.

(7) 벼베기

치배들은 원진으로 돌며, 일꾼들은 치배들을 따라 돌다가 지게꾼의 지게에 있는 낫으로 바꾸어 들고 모 심는 위치에서 자진가락으로 벼 베기를 실시한다. 이때 남자 농군들은 벼통과리와 벼가리를 만들어 벼를 다 벤 아낙들이 벼를 벼가리에 쌓도록 도와준다.

(8) 탈곡

자진모리가락으로 원을 그리며 치배들이 뒤에 위치할 무렵, 소고와 잡석이들은 무대 앞에 자연스럽게 서 있다. 이어 자진모리가락을 마치고 굿거리장단으로 개상질을 한다.

(9) 개상질

옛 소리에 맞춰 개상질을 한다. 좌로 치고, 우로 치고, 돌려 치고, 엮어 치고 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 개상질을 하는 동안 아낙은 술과 안주를 광주리에 이고 다니며 일꾼들에게 술을 따르고 흥을 돋워준다.

(10) 개상제

개상질을 마친 타작꾼들은 개상을 얹어놓고 개상제 지낼 준비를 한다. 아낙 두 명이 밖으로 나가 개상제를 올릴 제사상을 준비하여 개상을 얹음과 동시에 제사상을 들고 들어온다. 상쇠가 가락을 맺음과 동시에 모두 자리에 무릎을 꿇고 제를 올릴 준비를 한다. 제주는 향과 초에 불을 밝히고 술을 부어 잔을 올리며 소지를 태우면서 바람을 고한다. 소지를 올림과 동시에 상쇠의 연타에 맞춰 모두 일어나 절을 세 번 한다. 제를 올리고 현 위치에서 굿거리장단으로 치배별 놀이를 한다.

(11) 치배별 놀이

상쇠가 가운데 위치한다. 팽가리와 징은 1진을, 장고는 2진을, 북은 3진을, 소고와 잡색이는 4진을 이룬다. 상쇠의 신호가락에 맞춰 치배별로 놀이를 한다.

(12) 정선 및 저장

치배별 놀이가 끝나면, 치배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굿거리로 말질소리를 맞춘다. 말질을 하는 동안 아낙들은 술과 안주를 나른다. 양반집 주인네는 터주단지에 나락을 담고 배례한다. 도리깨질, 풍석질, 홀테질, 비질 등으로 정선된 나락을 봉쇄기에 담는다. 아낙들이 벼통과리로 날라 저장한다.

(13) 대동놀이

자진가락으로 을자진을 그리며 놀다가 원진을 만든다. 기수는 원진 가운데로 기를 흔들며 들어오고, 잡색이들은 소품을 들고 흥에 맞춰 가운데서 춤을 춘다. 개상질을 하던 남자들은 개상을 앞쪽으로 옮겨 장소를 넓혀준다. 자진모리, 오방진, 휘모리가락으로 농악놀이를 마무리 한다.

(14) 인사굿

대동놀이를 마친 후 달팽이진을 원진으로 풀어 원을 그리며 돌다가 기를 앞세우고 4열로 맞춰 인사굿을 한다.

(15) 퇴장

기수는 무대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치배들과 잡색이들은 달팽이를 풀어 4열중대로 정렬한다. 자진모리가락으로 퇴장한다.

□ 소 리

- 풍물패 입장을 알리는 소리

문엽쇼 문엽쇼 서문장 문엽시고
많은인간 들어가고 만고복록에 두둥실
태산같이 많이 들어갑니다

- 김매기 소리

어허이야 자리한다 어려한다 저러한다
담상담상 닷마지기 어려한다 저러한다
반달만큼 남았구나 어려한다 저러한다
네가무슨 반달이냐 어려한다 저러한다
우리님이 반달이지 어려한다 저러한다
우리님만 반달인가 어려한다 저러한다
남에님도 반달이지 어려한다 저러한다
지어가네 지어가네 어려한다 저러한다
점심참수 지어지네 어려한다 저러한다
방실방실 밥광우리 어려한다 저러한다
반달같이 떠오르네 어려한다 저러한다
어려한다 저러한다 어려한다 저러한다

6) 팔상전놀이

팔상전놀이는 1994년 제1회 충북농악경연대회에 34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감투상을 수상하였다.

출연 ; 내속리농협주부농악대

□ 해 설

팔상전놀이는 속리산 범주사 내 국보 55호로 지정된 팔상전을 소재로 한 농악이다. 문화재청에서는 팔상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범주사는 신라 진흥왕 14년(553)에 인도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승려 의신이 처음 지은 절이다. 범주사 팔상전은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팔상전탑놀이 1

유일한 5층 목조탑으로 지금의 건물은 임진왜란 이후에 다시 짓고 1968년에 해체·수리한 것이다. 벽면에 부처의 일생을 8장면으로 구분하여 그린 팔상도(八相圖)가 그려져 있어 팔상전이라 이름 붙였다. 1층과 2층은 앞·옆면 5칸, 3·4층은 앞·옆면 3칸, 5층은 앞·옆면 2칸씩으로 되어 있고, 4면



에는 돌계단이 있는데 낮은 기단 위에서 있어 크기에 비해 안정감을 준다. 지붕은 꼭대기 꼭지점을 중심으로 4개의 지붕면을 가진 사모지붕으로 만들었으며, 지붕 위쪽으로 탑 형식의 머리장식이 달려 있다. 건물의 양식 구조가 층에 따라 약간 다른데, 1층부터 4층까지는 지붕 처마를 받치기 위해 장식하여 짜은 구조가 기

팔상전탑돌이 2

둥 위에만 있는 주심포 양식이고, 5층은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공포를 설치한 다포 양식으로 꾸몄다. 건물 안쪽은 사리를 모시고 있는 공간과 불상과 팔상도를 모시고 있는 공간, 그리고 예배를 위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범주사 팔상전은 지금까지 남아 있는 우리나라의 탑 중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며 하나뿐인 목조탑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1 옥천 민속놀이

1) 방아실두레

방아실두레는 2007년 제14회 충북민속예술축제에 42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2008년 제15회 충북민속예술축제에는 '방아실두레놀이'이라는 명칭으로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출연 ; 옥천민속팀

□ 해 설

방아실은 옥천군 군북면의 한 자연부락으로 대청댐 개발로 인해 수몰되었다. 이 주민들은 고향의 뒷산자락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여 삶을 영위하고 있다. 이 부락에서 논농사와 관련한 모찌기소리, 모심기소리, 김매기소리, 논흙치기소리 및 부녀자들의 방아짚는소리, 길쌈질소리 등이 발굴되었다. 선소리꾼의 선창과 후소리꾼의 후창으로 가창이 이루어진다. 주고 매기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소리에는 농사 방식, 삶의 애환, 풍자와 해학 등의 요소가 담겨 있다.



방아실두레놀이

2) 솟대놀이(청마리탐신제)

솟대놀이와 청마리탐신제는 명칭만 상이할 뿐 공연의 전체적인 내용은 유사하다. 솟대놀이는 1996년 제3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28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청마리 탐신제는 2000년 제7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39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출연 ; 한울림놀이패(1996년), 한울림농악대(2000년)

□ 해 설

옥천군 동이면 청마리 마티마을에 있는 제신당을 ‘탐신제당’이라고 한다. 원탑(조산탑), 짐대(솟대), 장승, 산신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1976년 12월 28일 충청북도 민속자료 제1호로 지정되었다. 원탑은 마을 어귀에 세워져



솟대제



장승제

있다. 높이 5m, 둘레 7m 규모의 원추형이다. 짐대는 높이 5m의 긴 장대 끝에 오리를 깎아 올려놓고 있다. 장대에 오리를 올릴 때에는 머리를 남방으로 향하게 한다. 장대에는 황색과 흑색의 용틀임 단청을 하는데, 황색은 황룡을, 흑

색은 흑룡을 상징한다. 황색은 황토로, 흑색은 진흙에 숯가루를 반죽하여 표현한다. 장승은 통나무에 사람 형상을 먹으로 그려 놓은 소나무로 수문장 역할을 한다. 산신당은 뒷산 소나무를 신목으로 상정한다. 장승과 숯대는 윤년 정월 대보름 전 날에 만들어 세운다.



장승제



총각의 발원

□ 구 성

옥천군 동이면 청마리 마티마을 탐신제의 제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1) 제관 선정

정초에 생기복덕에 맞는 제주를 선출한다. 산신제와 탐신제의 제관을 각각 1명씩 선출한다. 보통 연장자가 산신제를 주관한다. 동이면 금암리 김병수가 생기복덕을 가리는데, 주역의 팔괘를 보고 가린다고 한다. 팔괘에는 생기, 복덕, 천의, 절체, 유혼, 귀혼, 화해, 절명이 있는데, 남자는 생기가 좋고 여자는 복덕이 맞아야 좋다. 현재는 생기, 복덕, 천의 중에 하나만 맞아도 제관으로 선정된다. 예전에는 환갑이 지나야 제관이 될 수 있었는데, 요즘은 마을에 워낙 사람이 없어 그런 기준도 없어졌다. 제관은 제주를 정월 초엿새에 빛는다. 또한 음식을 장만하여 집 앞에 원새끼로 금줄을 쳐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고, 황토를 집 앞에 6군데 놓아 악귀의 접근을 막는다. 또한 예전에는 일주일간 문 밖 출입을 금하였으며, 매일 아침 찬물로 목욕재계를 하여 심신을 청결히 하였다.

(2) 신목준비

정월 열나흘날 아침, 산에 올라 장승과 솟대에 적합한 신목을 고른다. 신목을 정할 때는 마을에서 최고 어른을 모시고 간다. 최고 어른이 적합한 소나무를 선정하면, 그 나무를 '신목'이라 하여 나무 밑에 짚을 깔고 흰설기와 술 그리고 명태를 진설한다. 그리고 제관이 재배한 후 도끼로 세 번 찍고 음복한다. 최고 어른이 신목을 잡고 "동민과 합의하여 비는 것이니 그리 아십시오." 하면 모두가 절을 하고 신목을 베기 시작한다. 예전에 신목을 모실 때는 광목천으로 싸서 목도로 운반하였다. 이때 발맞추는 노래로 "모셔가세 모셔가세 천하장군 모셔가세. 모셔가세 모셔가세 지하장군 모셔가세. 모든악귀 물리칠 추악신을 모셔가세. 영신산령 주신선물 조산들로 모셔가세."를 불렀다고 하나 정확하게 전해지지 않고 있다. 신목을 깎을 때는, 옛 장승을 옆에 놓고 신목에 먹줄로 밑그림을 그리고 도끼, 톱, 대패를 사용하며 장승을 깎는다. 또 한쪽에는 솟대에 엮을 오리를 깎고, 긴 장대에 황룡과 흑룡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그린다.

(2) 제의 절차

① 산신제

산신제는 제관 내외만 주관한다. 신체는 소나무인데, 본래 나무는 700년이 넘어 썩어서 몇 년 전 바람에 넘어가고 요즘은 그 옆에 새로 난 소나무를 신목으로 모신다. 먼저 원새끼를 꼬아 소지를 끼워 신체에 묶고, 신체 앞에 짚을 깔고 제물을 차린다. 축문은 없고 소지를 올리는데, 맨 처음에는

동네를 위해서 올리고 다음에는 성씨들 행복하게 해달라고 올린다.

② 탐신제

탐신제는 해가 뜨기 전에, 솟소리로 징을 세 번 울려 잡귀잡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청마리 제신탕이 충청북도 민속자료 제1호로 지정되면서 각지에서 관계자들이 찾아와 현재는 아침 9~10시 사이에 제의를 올린다. 먼저 집사가 따라준 잔을 제관이 제상에 놓고 재배한 후 제상 앞에 앉는다. 집사는 술을 탐에 세 번 나누어 뿌린다. 제관은 다시 잔을 들고 술을 가득 받아 제상에 올려놓는다. 모두 함께 재배한다. 그런 다음 집사가 제관에게 소지를 주면, 마을 주민에게 나누어 주고 소지 기원을 올리는데, 소지에는 마을과 개인의 평안과 풍년은 물론 가축들의 다산과 안녕을 비는 마음도 담겨 있다.

③ 솟대제

소지를 올린 후 제관만 음복하고, 제상을 든 집사들을 따라 솟대로 이동한다. 이때 풍물은 치지 않는다. 제상을 솟대 앞으로 옮기고 탐신제와 같은 방법으로 제의를 올리는데, 술만 새 것으로 갈고 소지는 올리지 않는다.

④ 장승제

청마리 마티마을에는 천하대장군과 지하대장군이 있다. 제의는 천하대장군에게만 올린다. 제상을 천하대장군에게 옮겨 역시 같은 방법으로 제의를 올린다. 제의가 끝나면 제관이 음복한 후 마을 주민들에게 “음복 합시다.”라고 하며, 마을 주민들이 음복하기 전에 총각은 미투리를 만들어 제물을 조금씩 떼어 담아 지하대장군 앞에 갖다 놓는다. ‘장가가게 해달라’고 발원하며 배례하면 장가를 갈 수 있다고 믿어 왔다.

3) 평산교평다리밟기

평산교평다리밟기는 1999년 제6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50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감투상을 수상하였다.

출연 ; 옥천민속팀

□ 해 설

평산교평다리밟기는 옥천군 청산면 교평리에서 전승되고 있는 다리밟기 대동놀이이다. 정월 대보름 전에 청산교(한다리)의 보수정비를 마치고 현 옷가지나 짜투리 옷감 등을 각출하여 향교 홍살문에서 강줄을 튼다. 강줄을 당기며 아랫마을과 윗마을이 줄다리기를 한다. 패한 마을 사람들은 이긴 마을에서 하루 동안 농사일을 거들 것을 약속한다. 이후 모두가 강줄을 메고, 제주와 제물을 준비하여 청산교(한다리)에서 다리밟기를 한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며, 한 해 동안 무병장수하기를 기원한다.

□ 구 성

시종 풍물이 울리는 가운데 술과 안주로 흥을 돋우고, 제를 마치면 강줄을 불살라 각자 소원을 빈다.

12 영동 민속놀이

1) 꽃반굿

꽃반굿은 2006년 제13회 충북민속예술축제에 51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인기상을 수상하였으며, 2007년 제14회 충북민속예술축제에 54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전년도와 같은 인기상을 수상하였다.

출연 ; 영동민속팀

□ 해 설

영동군 용산면 일원에서는 대보름을 전후해서 걸립패들이 각 마을 각 가정을 돌며 집터를 누르고 잡귀를 물리는 액막이로서 걸립을 해왔다. 이때 각 가정에서는 걸립패에게 술과 음식을 푸짐하게 대접했다. 또 형편껏 쌀이며 돈을 기부했는데, 이 기금은 마을공동으로 사용하였다. 해방 이후에 부상초등학교를 건립할 때는 용산면 일원의 모든 마을, 모든 가정을 돌며 굿판을 벌여 건립기금을 마련했다.



꽃반굿



질골막장소리

□ 구 성

꽃반굿의 재현 공연은 고유제 → 안택굿(방안굿, 부억굿) → 잡귀 내치는 굿 → 영감타령 등으로 진행하고 있다. 걸립패는 소리꾼 1명, 팽과리 4~5명, 징 2~3명, 장구 15명, 북 10명, 기수(풍물단, 예술단기, 농기, 영기, 용기) 10여 명으로 구성하고 있다. 고유제는 대주를 비롯하여 가족 구성원 모두가 헌작하고 배례하며 소지를 올린다. 통돼지, 흰시루, 삼색실과, 막걸리 등을 진설한다. 그리고 쌀을 봉새기(짚으로 짠 바구니)에 담아 진설하고, 그 위에 흰 실을 걸친다. 안택굿은 선소리꾼의 “그 전에 소리꾼이 집을 잘 지어놓았으니, 이집터를 눌러주세요”를 나머지 걸립패가 복창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어 선소리꾼이 “누르세 누르세 이택에 집터를 누르세” 하면 나머지 걸립패가 복창한다. “누르세 누르세 이택 터주를 누르세”, “잡귀와 잡

신은 물러가고 만복재산은 이택으로”, “아따그물 잘난다 평평잘난다 아따
그물 좋다 별떡별떡 잡수소 물주세 물주세 사해용왕에 물주세”도 같은 방
식으로 전개한다. 잡귀를 내치는 곳은 각설이가 소리를 하고 걸립패가 추
임새를 하는 것으로 굿판의 흥을 돋운다. 영감부부가 한 대목씩 주거니 받
거니 소리를 하는 영감타령과 법고놀이로 굿판을 마무리한다.

□ 소 리

● 꽃반굿

고실고실은 고사로다 사바하니 고사로다
산지조종은 곤륜산 수지조종은 황해수
곤륜산명기가 뚝떨어져서 어디로간지 몰랐더니
이택이집터가 되었구나 이집터를 불작시면
앞으로보면 일산봉 뒤로보면 감토봉
옆으로보면 연적봉 그아니 좋을시고
앞으로보면 일산봉이니 고관대작 날자리요
뒤로보면 감토봉이니 삼정승 날자리라
옆으로보면 연적봉이니 육조판서 날자리니
그위에 더바랄소냐 이집터를 잡았으니 집터를 닦아라
집터를 닦을적에 우각불이 좌각불이
배홀러 기사주바리 바리바리 실어다가
높은데는 밀어내고 얇은데는 돌아놓아
이리저리 닦은후에 재목이있어야 집을짓지
집재목을 구하려고 앞집에 김대목은 금도끼를 쬐어지고

뒷집에 박대목은 옥도끼를 짚어지고
 집재목을 구하려고 경상도안동땅 제비원을 찾았구나
 제비원을 찾아가서 솔씨를 하나 던졌더니
 그솔씨가 점점자라 소부동이 되었구나
 소부동이 점점자라 대부동이 되었구나
 대부동이 점점자라 황장목이 되었으니
 그냥쿠를 베려하고 나무끝을 바라보니 까막까치 집을짓네
 나의성주 삼으려고 남의성주 베일소냐
 그냥쿠를 거기두고 만첩산중 드러가니
 성주목이 완연하네 금도끼로 땅땅베어 옥도끼로 다듬어서
 잣은나무 곧다듬고 굽은나무 곧다듬어
 바리바리 실어다가 안채는 입구자 사랑채는 갈지자
 2,9는 18 열여덟칸을 멋들어지게 지어놓고
 네끼에 풍경다니 동남이 깃뚝부니 덩그렁 땡그렁 소리난다
 방안살림을 보아라 방안살림을 볼작시면
 오동장농 잣베개에 자개함 농반다지는 보기 좋게 포개놓고
 긴담뱃대 질요강은 빨끔빨끔 밀어놓고
 공단이불이 열두채 맹단이불이 열두채 수단이불이 열두채
 저이불을 덮으니 공단수단이 칼춤을 춘다
 아하에 아라로구나 부엌살림 보아라
 부엌살림을 볼작시면 가마솔이 열두개 밥솔이 열두개 국솔이 열두개
 세부춧댕이 질끈묶어 이구석 저구석 세워놓으니
 이아니 좋을시고 그아니 더바랄소냐
 살림만 있으면 무얼하나 재산이 있어야지
 이집재산을 보아라 이집재산을 볼작시면
 앞에는 거머리논 뒤에는 개똥밭

노적봉에 학이앉아 한날개 툇탁치면 일이천석 쏟아지고
또한날개 툇탁치니 저리천석 쏟아지고
온몸을 툇털으니 억수만석 쏟아진다

2) 호미실너리기편지기

호미실너리기편지기는 2004년 제11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63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출연 ; 영동민속팀

□ 해 설

‘너리기편지기’는 물동이의 일종인 ‘너리기’와 ‘편지기’를 결합한 용어로 여자 아이들이 손을 맞잡고 돌면서 다양한 사설을 부르며 노는 대동놀이를 말한다. 영동군 호미실에서는 정월 대보름이나 추석에 집단으로 너리기편지기를 즐겼다. 호미실너리기편지기는 ‘너리기 편지기



너리기편지기 - 문두방넘기

놀이', '고사리 꺾기', '문뚜방 넘기', '장짱너리기 놀이'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 구 성

(1) 놀이패 입장

만장, 풍물패, 놀이패 등의 순으로 입장한다. 놀이패는 너리기와 편지기를 머리에 이거나 손에 들고 있다. 풍물패와 놀이패가 뒤섞여 한바탕 논 후, 소리꾼이 “너리기 편지기 하세!”하고 외치면 정렬한다. 이후 관람석 바깥쪽을 향해 약 1m 정도의 간격으로 일정하게 늘어서 춤을 춘다. 춤은 좌우로 팔을 흔들며 굴신을 하는 형태이다. 풍물꾼 뒤에는 치배들이 약 2m



너리기편지기 - 웅덩넘기

정도의 간격으로 늘어서 있다. 만장을 사람은 치배들 사이에 서서 만장을 가락에 맞춰 위아래 또는 옆으로 흔든다.

(2) 원무

소리꾼이 ‘너리기편지기’ 소리를 시작하면, 놀이패 여성들은 반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춤을 춘다.

(3) 너리기 1 ; 마주 바라보는 원에서 밖을 바라보는 형태로 원 뒤집기
놀이패 중 한 사람이 시계 방향으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팔 밑을 통과하여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나간다. 이어 소리꾼의 소리에 맞춰 놀이패 여성들은 원 밖을 보는 형태로 반시계 방향으로 뛰며 돈다.

(4) 너리기 2 ; 다시 마주보는 원으로 형태 바꾸기
마주 바라보는 원래 형태로 되돌아간다.

(5) 웅덩넘기 ;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의 손 위로 넘어가기
놀이패 여성들이 반시계 방향으로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의 손을 타넘으며 뛰어 돈다. 앉아 있는 사람들은 손을 앞뒤로 흔든다. 이를 통해 두 패로 나누어진 놀이패는 자연스럽게 서로 반원 형태를 구성한다. 이어 원을 만들며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반시계 방향으로 뛰어 돈다.

(6) 청어엮기 ; 웅덩넘기와 반대로 넘어가기
놀이패 여성들이 반시계 방향으로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의 팔 아래로 빠져 나가며 뛰어 돈다. 앉아 있는 사람들은 손을 앞뒤로 흔든다. 이를 통해 두 패로 나누어진 놀이패는 자연스럽게 서로 반원 형태를 구성한다. 이어 원을 만들며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반시계 방향으로 뛰어 돈다.

(7) 실꾸리뿔뿔 ; 두 사람이 손을 마주잡고 제자리에서 좌우로 회전하기
놀이패 여성들은 제자리에 멈춘다. 소리꾼의 “실꾸리뿔뿔 명주꾸리뿔뿔”
에 맞춰 2인 1조가 실꾸리뿔뿔을 한다. 이어 “뽕매기 철철 잘 넘어간다”에
서 원을 만들어 반시계 방향으로 뛰어 돈다.

(8) 문뚜방넘기 ; 두 줄로 서서 상대편의 줄 넘기

놀이패는 두 줄을 만들고 손을 앞뒤로 흔들면서 신나는 율동으로 굴신을
한다. 놀이패는 “문뚜방넘기는 훨훨”, “세월이나 넘어보세”라는 소리꾼의
소리에 맞춰 반대편에 있는 줄로 “와”라는 합성을 지르며 달려가 한꺼번에
줄을 넘는다. 이어 “뽕매기철철 잘넘어간다 뽕매기철철 잘넘어간다”를 하
면서 원을 만든다.

(9) 닭잡기 : 술래는 매가 되고, 줄의 맨 앞 사람은 어미닭이 되고, 나 머지 사람들은 닭이 되어 매를 피하는 놀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다가 소리꾼의 “뽕매기철철 잘 넘어간다 뽕매기철철
잘 넘어간다” 소리에 맞춰 줄을 만든다. 맨 앞 사람은 매가 되어 혼자 서고,
다른 사람들은 서로 허리를 잡고 한 줄을 만든다. 소리꾼의 “닭잡자!”라는
구령과 함께 줄을 만든 사람들은 “와” 하는 소리에 이어 “꼭꼬댁 꼬꼬꼬”
소리 등을 낸다. 매가 된 사람은 닭을 놀리기도 하면서 돌아다닌다.

□ 소 리

● 너리기편지기

장짱에 너리기 너리기 밑에 편지기

편지기 밑에 두름박 두름박 밑에 옥동이
장팡에 너리기 너리기 밑에 편지기
편지기 밑에 두름박 두름박 밑에 옥동이
팽매기철철 잘 넘어간다 팽매기철철 잘 넘어간다

● 응덩넘기

응덩넘기가 훨훨 고사리 꺾기가 훨훨 응덩넘기가 훨훨 고사리 꺾기가 훨훨
응덩넘기가 훨훨 고사리 꺾기가 훨훨 응덩넘기가 훨훨 고사리 꺾기가 훨훨
응덩넘기가 훨훨 고사리 꺾기가 훨훨 응덩넘기가 훨훨 고사리 꺾기가 훨훨
응덩넘기가 훨훨 고사리 꺾기가 훨훨 응덩넘기가 훨훨 고사리 꺾기가 훨훨
응덩넘기가 훨훨 고사리 꺾기가 훨훨 응덩넘기가 훨훨 고사리 꺾기가 훨훨
응덩넘기가 훨훨 고사리 꺾기가 훨훨 응덩넘기가 훨훨 고사리 꺾기가 훨훨
팽매기철철 잘 넘어간다 팽매기철철 잘 넘어간다

● 청어엮기

너리기 편지기 장팡에 소래기 너리기 편지기 장팡에 소래기
너리기 편지기 장팡에 소래기 너리기 편지기 장팡에 소래기
너리기 편지기 장팡에 소래기 너리기 편지기 장팡에 소래기
너리기 편지기 장팡에 소래기 너리기 편지기 장팡에 소래기
너리기 편지기 장팡에 소래기 너리기 편지기 장팡에 소래기
팽매기철철 잘 넘어간다 팽매기철철 잘 넘어간다

● 실꾸리뜯뜯

실꾸리뜯뜯 명주꾸리뜯뜯 실꾸리뜯뜯 명주꾸리뜯뜯
팽매기철철 잘 넘어간다 팽매기철철 잘 넘어간다

● 문뚜방넘기

팽매기철철 잘 넘어간다 팽매기철철 잘 넘어간다
팽매기철철 잘 넘어간다 팽매기철철 잘 넘어간다
문뚜방넘기는 훨훨
팽매기철철 잘 넘어간다 팽매기철철 잘 넘어간다
팽매기철철 잘 넘어간다 팽매기철철 잘 넘어간다
세월이나 넘어보세

팽매기철철 잘 넘어간다 팽매기철철 잘 넘어간다
팽매기철철 잘 넘어간다 팽매기철철 잘 넘어간다
문뚜방넘기는 훨훨

팽매기철철 잘 넘어간다 팽매기철철 잘 넘어간다
팽매기철철 잘 넘어간다 팽매기철철 잘 넘어간다
세월이나 넘어보세

팽매기철철 잘 넘어간다 팽매기철철 잘 넘어간다

● 닭잡기

팽매기철철 잘 넘어간다 팽매기철철 잘 넘어간다
팽매기철철 잘 넘어간다 팽매기철철 잘 넘어간다
팽매기철철 잘 넘어간다 팽매기철철 잘 넘어간다
닭잡자 잘한다 다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3) 영동호미씻기

영동호미씻기는 2002년 제9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34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출연 ; 영동민속팀

□ 해 설

호미씻기는 한 해 농사에서 가장 힘든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세벌김매기를 끝내고, 칠석이나 백중 때에 농민들이 농사일의 노고를 달래면서 벌이는 놀이판을 말한다. ‘꽃굿’, ‘초연’, ‘머슴날’, ‘농부날’이라고도 한다. 두레농사를 결산하면서 땅 주인들은 농군들의 노고를 위로할 겸 돈을 내어 술과 음식을 마련하고, 풍물꾼들은 집집마다 풍물을 치고 다니면서 무동을 태우고 하루를 즐겁게 논다. 영동호미씻기는 영동군에서 전승되고 있는 호미씻기를 재현한 민속놀이로 풍물과 진풍이를 연희한다.

□ 구 성

풍물굿의 시작을 알리는 ‘굿내는가락’, 놀이판으로 들어서는 입장굿(길굿), 삼진삼퇴의 형태를 잘 드러내는 삼방울진, 사채가락, 치배들이 “호호” 또는 “허허” 하며 노는 호허굿, 치배들이 엇갈리거나 빗겨서 노는 가새진, 치배들의 이동 및 진과 진 사이의 을자진, 서로 마주서서 밀고 당기는 미지기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4) 질골집터다지기

질골집터다지기는 2003년 제10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54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감투상을 수상하였다.

출연 ; 영동민속팀

□ 해 설

집터다지기는 가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전체 집터를 다진 후 주춧돌 놓을 자리를 더욱 다지는 민속놀이이다. 이 일은 고된 노동이기에 일의 피곤함을 잊고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노래를 불렀다. 영동군 용산면 부상리 질골에서 ‘집터다지기소리’가 고향의 형태를 유지하며 전승되고 있다.

□ 구 성

질골집터다지기는 지신제, 지신무, 집터다지기, 꽃반굿 등으로 진행하고 있다.

V. 전승양상과 보존 방안

1. 충북 민속예술의 전승 양상

민속예술을 발굴하고 복원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며, 또 언제나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러한 명제는 충북민속예술축제, 나아가 전국민속예술축제의 가장 핵심적인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속예술은 본디 생활 공간에서 삶의 양식으로 존재해 왔으며, 지속과 변화를 거쳐 전승되어 왔다. 즉 인위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속예술을 경연 방식으로 견인하거나 활성화하려는 시도는 근본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그렇듯이 충북민속예술축제가 올해로 16회를 맞이했지만, 민속예술의 각 부문마다 한시적인 복원에 머물렀을 뿐 지속적인 계승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1) 농악

민속예술은 개인과 사회집단, 나아가 한 민족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그들만의 고유한 정신세계도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 형태가 무형이기 때문에 쉽게 인멸될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민족문화의 결정체인 민속예술의 보존과 전승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과 자존심을 지키는 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청주농악’을 중심으로 전승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판계(진법)의 변화

청주농악의 판제와 연행순서는 행사의 규모 및 장소·성격에 따라 상쇠나 연출자에 의해 수시로 변경되었다. 청주농악에 대한 이보형(1976)·오세란(1986)·박진(1991)·한미경(1995)·정은면(1996)·조진국(2008) 등의 글에서도 판제의 구성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청주농악 판제와 연행순서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청주농악 판제와 연행순서〉

이보형(1976년)	오세란(1986년)	박진(1991년)	한미경(1995년)	조진국(2008년)
		모임굿	모임굿	
		길군악굿	길군악굿	입장
		인사굿	인사굿	본부석인사
				내빈인사
돌림벽구	꽃봉우리	꽃봉오리굿	꽃봉오리굿	꽃봉우리
사통백이	사성	사성굿	사성굿	사성
				쌍줄배기
갈림벽구	벽구놀이	법고놀이굿	법고놀이굿	벽구놀이
고사리껍기				
가새발림	쓰레질	쓰레질굿	쓰레질굿	
명석말이	칠채굿	명석말이굿	명석말이굿	
	십자	십자놀이굿	십자놀이굿	십자걸이
	삼통백이	삼성굿	삼성굿	삼성
	새조시	새조시굿	새조시굿	새조시
		좌우치기		좌우치기
		갈지자굿	갈지자굿	갈지자진
		태극굿	태극굿	태극진
		채상놀이굿	채상놀이굿	12발놀음
			오방감기	명석말이*
				퇴장행진
상쇠놀이				
법구놀이				
장고놀이				

*. 명석말이를 ‘오방감기’의 별칭으로 보았다

(1) 시기에 따른 변화 내용

① 판제의 명칭

판제의 명칭은 농악현장에서 농악인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농악인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일정하지 않고 또 정확하지도 않기 때문에 학계에서 널리 쓰이는 보편적 명칭을 사용하거나 다른 지역농악의 명칭을 차용하고, 필요하면 조사자가 임의로 조어하여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청주농악에서도 판제(진법)의 명칭이 혼용 또는 변형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를 위의 표를 근거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굿’을 판제의 명칭 뒤에 붙이는 점이다. 굿은 무당이 인간의 길흉화복을 신에게 기원할 목적으로 제물을 바치고 가무와 의식절차를 통해 행하는 제사의식이다. 굿은 우리나라의 토착신앙이며, 당골을 중심으로 한 직업적인 신앙과 부락신앙(별신굿 포함)이라고 할 수 있다. 농악이 부분적으로 마을의 안녕과 각 가정의 복을 기원하는 행위에 사용되기 때문에 ‘굿’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1991년 이전이나 2008년 조진국의 글에서는 ‘굿’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1991년 박진의 글과 1995년 한미경의 판제의 명칭에는 ‘굿’이 붙어있다. 그러나 ‘굿’의 명칭은 호남지방에서 사용하는 명칭 형태이고, 청주농악에서는 ‘굿’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청주농악에서 ‘굿’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모임굿’·‘입장굿’·‘인사굿’이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모임’이나 ‘입장’은 농악을 연행하기 전에 하는 것이고, 인사는 공연의 관행의례이며, 굿이나 놀이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모임굿·입장굿·인사굿이란 용어는 적절한 말이 아니다.

다음으로 판제의 명칭이 여러 가지로 사용되고 있는 점이다. 짹짹이는 일명 ‘동리3채’라고 하는데 동리는 무동(舞童)을 어깨 위에 세우고 추는 춤의 이름인 ‘동고리’의 준말이다. 그러므로 짹짹이는 동고리를 출 때 3채로 치는 춤장단을 말한다. 새조시는 ‘네줄배기’의 별칭이고, 쌍줄배기는 ‘두줄배

기'의 별칭이다. 당산벌림은 당산제(堂山祭)를 지낼 때 신당(神堂) 앞에 서 있는 제의농악(祭儀農樂)대의 대형에서 유래된 말이다. 본래는 <U>형인데 지금은 <L>형으로 연행하고 있다. '갈지자진'은 '지자진'이 변형된 것이다. 이와 같은 '굿'·'찍찍이'·'새조시' 등에 관련된 내용들은 김영진 교수의 진술에 기초한 것이다.

판제 명칭의 변화는 타 지역 농악의 영향과 농악인들의 편의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래의 의미가 왜곡되거나 전통적 요소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② 판제의 구성

판제는 명칭의 변화 외에도 순서와 종류의 변화 많이 나타나고 있다. 1976년 이보형의 글에 나타난 농악대 전원이 참가하는 판제는 돌림벽구-사통백이-갈림벽구-고사리썰기-가세발림-명석말이 등 6가지이다. 그러나 1986년에는 고사리썰기가 없어지고 십자·통백이·새조시가 새로 추가되었고, 1991년에는 모임굿·길군악굿·인사굿·좌우치기·갈지자굿·태극굿·채상놀이굿이 추가되었다. 이와 같이 판제의 종류가 없어지거나 증가하는 현상은 타 지역의 농악판제에 영향을 받은 결과이고, 또한 공식행사나 농악경연대회에 빈번히 참가하게 되면서 발생한 문제이다. 이러한 변화는 어느 정도 세월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면도 있으나, 농악대원들의 원형을 보존하고자 하는 의지의 부족에 의한 것으로서 필연적으로 청주농악의 원형이 인멸되거나 변형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청주농악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고 각종 행사나 대회에 출전하게 됨에 따라 생기는 현상이다. 즉 무형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 청주농악이 예술적 측면과 공연적 측면만을 무리하게 확대해 왔기 때문이다. 실례로 전남 진도의 씻김굿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씻김굿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지정된 팀의 씻김굿이 지정되지 않은 팀의 씻김굿에 비

해 세련되고 예술적 면이 강화되었다는 점이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화재의 변이양상’은 문화재의 원형을 변화시키는 것으로서 문화재 지정 제도의 부정적 측면이다. 원형보존을 위한 보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 전수공간의 부재

충북의 각 지역에는 농악대가 편성되어 있다. 그러나 자유롭게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농악대는 없다. 특히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1호인 청주농악조차 전용 연습공간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농악은 수십 명이 대형을 이루며 진행되기 때문에 넓은 공간이 필요하지만 청주농악대의 자력만으로는 청주지역 내에서는 공간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는 무형문화재의 전승과 보존은 어려운 일이다.

2) 농요

1994년에 ‘제1회 충북농악경연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제16회 충북민속예술회’를 치렀다. 애초 농악 경연대회로 출발하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충북민속예술회에 출연한 민속예술 중 농요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가 시작된 제1회부터 제10회까지 충청북도에서는 농요만을 대표작품으로 출연시켰다. 그러나 그 전승 양상을 살펴보면,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작품 및 당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 작품을 제외하고는 한 번 또는 두세 번 출연한 이후 대부분 사라졌다. 그 이유야 여러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인데, 여기서는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측면에서만 접근해 본다.

첫째, 농요를 구연할 만한 단원을 확충하기가 어렵다. 농경의 기계화로 이제 더 이상 현장에서는 농요가 전승되지 않는다. 시연이나 농요를 구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고령이다. 더 큰 문제는 그것을 배우려는 사람

들이 없다는 사실이다. 관심이 있더라도 시류에 따라 사물을 배우려고 할 뿐 전통농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 즉 당면한 문제와 과제는 ‘앞으로 단원을 어떻게 양성하고 또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고충은 충청북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연희 양상이 고착되어 가고 있다. 경연대회에 임해, 현장에서 벌어졌던 다양한 연희를 염두에 두지 않고 원래 작품을 연희 형식으로 연출하여 이를 연습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30분 동안 경연대회에서 연희해야 한다는 시간적·공간적 제약 때문에 의도적으로 구성과 연출을 해야 하는 이른바 ‘연희작품’으로 변모하는 것이다. 더구나 대회가 경연이다 보니 입상을 목적으로 내용과 형태를 변개하고 창작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대회가 고유한 농요를 변질 또는 변형시킨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농요는 즐기는 것이어야 마땅하지 결코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이는 민속예술축제의 근본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민속예술-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33년사』의 서문에는 “풍성한 민속문화를 갖고 있고 그것을 함께 하는 정서를 공유하고 있기에 우리 겨레는 민족공동체의식으로 하나가 될 수 있고, 민속문화는 우리를 남의 민족과 구분하게 하는 바탕인 동시에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며, “민속예술경연대회가 사라져가는 향토민속예술을 발굴, 재현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원형을 보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그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농요 분야에 국한할 수 없이 수많은 작품들이 나왔다가 어느 순간 사라졌다. 오늘날 충북민속예술축제, 나아가 한국민속예술축제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3) 민속놀이

지난 15년 동안, 민속놀이 분야에서 총 36개 작품이 출연했다. 그리고 7개 작품이 해당 년도 단체상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단순히 수치만으로 산정할 때는 이 보다 더 많은 작품이 출연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작품이 작품명만 달리 해서 해를 거듭하거나 한두 해 걸러 출연하기도 했다는 데서 이들을 다른 작품으로 볼 수 없다. 예컨대 보은군 탕골개상제와 탕골풍년제, 송이놀이와 속리산송이놀이, 옥천군의 솟대놀이와 청마리탑신제 등이다.

민속놀이는 민속사회, 민속예능, 민속신앙 등과 맞물려 전승되어 왔다. 기존의 출연 작품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기존의 출연 작품을 민속문화의 하위 체계에 따라 분류하면 민속사회를 근간으로 하는 작품이 14개, 민속예능을 근간으로 하는 작품이 12개, 민속신앙을 근간으로 하는 작품이 10개 등이다. 그런데 기존의 출연 작품을 일별하면 일정한 시기별로 어떤 흐름을 좇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1994년 제1회 대회가 ‘충북농악경연대회’라는 타이틀을 표방했던 바, 1990년대 후반까지 제천군의 농악싸움, 제천시의 팔진법놀이, 충주시의 무등놀이, 증평군의 밀양북놀이 등 농악과 관련한 작품들이 대세를 이루었다. 또한 농업활동 및 대보름이나 백중 등 세시풍속에서 농악과 관련한 작품들이 같은 맥락으로 대세를 이루었다. 다른 민속행위에 결부되어 존재하는 농악이 아니라, 농악 그 자체가 중심에 존재하는 작품들이 대세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2000년도 초반에는 전대의 부강호상놀이를 필두로 일생의례 중 상례와 관련한 작품들이 출연했다. 2000년도 중반에는 집터를 다지는 등 건축과 관련한 작품들이 집중적으로 출연했다. 특히 민속신앙을 근간으로 하는 작품들이 지속적으로 대세를 이루었다. 산신제, 서낭제, 별신제, 우물제, 기우제, 용왕제 등 민속신앙을 근간으로 하는 작품들이 단양군의 각기

선돌봉치기, 충주시의 양진명소오룡굿, 보은군의 물다르기를 제외하고 모두 2회 이상 출연했다. 제천시의 오티별신제는 5회를 거듭 출연했고, 이 과정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렇게 36개 작품이 출연했고, 7개 작품이 해당 년도 단체상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실제로 전승되고 있는 작품은 민속신앙을 근간으로 하는 제천시의 오티별신제와 옥천군의 솟대놀이(청마리탑신제)에 불과하다. 이외 보은군의 송이놀이(속리산송이놀이), 음성군의 거북놀이와 특실가재줄다리기, 충주시의 목계별신제와 양진명소오룡굿 등이 지역축제의 프로그램으로 편입되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미 현장에서 단절된 것을 재구하여 출연한 작품들도 있었지만, 채 10%에도 못 미치는 전승의 비율은 충북지역 민속놀이의 단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원인은 무엇인가?

첫째, ‘출연 작품의 급조’를 지적할 수 있다. 일부 지자체는 12개 시·군의 경연이라는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급조한 작품을 인위적으로 출연시키기도 했다. 경연 시기에 압박해 특정 부녀회, 청년회, 노인회 등을 중심으로 급조한 작품을 출연시켰기 때문에 지극히 일반적인 형태의 민속놀이 수준에 머물고 말았다. 민족문화의 계승이라는 본래 목적은 차치하고 참여하는데 목적을 둔 것이었다. 결국 행사용이자 일회용 작품으로 전락해 차후 전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관련 자료들마저 모두 흩어져 버렸다.

둘째, ‘소재의 고갈’을 지적할 수 있다. 일부 지자체는 ‘새로운 민속놀이 발굴에 의한 새로운 작품 구현’이라는 난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기존의 출연 작품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해를 거듭하거나 한두 해 걸러 출연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은 2000년대 이후 민속신앙을 근간으로 하는 작품들로부터 본격 심화되었다. 심지어 몇몇 경우에는 대상을 수상할 때까지 거듭 출연하기도 했다. 공연의 정제화나 고급화를 지향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민속놀이의 현장성이나 역동성은 그만큼 퇴색했다.

셋째, ‘지도자의 단일·지속화’를 지적할 수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풍물패의 상쇠나 특정 국악인이 거의 모든 출연 작품을 대상으로 시나리오 작성, 연출, 감독, 차후 전승에 이르기까지 일인다역을 담당했다. 물론 그들의 열의야 어떤 이유에서든 가치 폄하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전승 주체들의 창조적 전승을 가로막았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이 본래 전승의 맥락에서 이탈했다. 결국 예능 일변도의 작품들이 일반화되어 민속이라는 삶의 현장과 괴리감을 유발했다.

2. 충북 민속예술의 보존 방안

전국민속예술축제를 겨냥해서 1966년에 전라남도가 ‘제1회 남도문화제’를 통해 전국 최초로 예선 형식의 경연 방식을 도입했다. 이래 각 지역별로 비슷한 형태의 ‘향토문화제’ 또는 ‘경연대회’를 신설하기 시작했다. 각 지역별로 예선대회를 개설한 시점은 차이가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전남민속예술축제’는 37회, ‘경남민속예술축제’는 35회를 기록하고 있다. 충청북도의 경우에는 1994년에 ‘제1회 충북농악경연대회’를 시작으로 16회를 기록하고 있다. 어느 지역에 비해 일천한 역사를 갖고 있지만, 그간 예선대회를 통해 지역의 민속예술을 활성화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전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보존 방안의 방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 전승공간의 확보

무형문화재의 전승과 보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전승공간의 확보이다. 도 지정 기능보유자들이나 보존단체의 자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엔 충청북도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예컨대 서울특별시



전수회관 전경



전수회관 내 민속극장

강남구 삼성동에 중요문화재의 전승과 보존·보급을 위해 전수회관이 마련되어 있다. 1997년에 개관한 이 회관은 민속극장과 전통공예관이 있으며, 규모는 예능동 5,808㎡, 공예동 5,586㎡으로 되어있다. 전통공예품의 우수작품을 상설전시하며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들의 발표무대가 마련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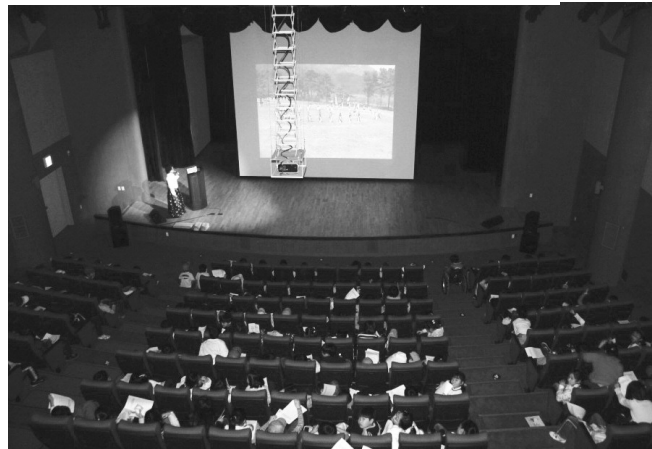
무형문화재의 보존을 위해 독립된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곳은 단지 서울뿐만 아니라 가까운 대전도 들 수 있다. 대전시는 사업비 39억 원을 들여 연면적 1,620㎡에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건립했다. 200석 규모의 공연장과 연습실 2개소, 전시실 1개소, 사무실 1개소가 완비되어 있다.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 동춘당 근린공원 내에 기와를 올린 대전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은 2009년 4월 문을 열었다. 이곳은 대전시에서 지정한 17개 종목의 무형문화재를 한 곳에서 체험해 볼 수 있는 교육공간이기도 하다. 대전시는 이

를 통해 대전의 무형문화재를 보존 전승하고, 지정된 종목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충청북도에서 지정한 여러 가지 무형문화재를 보존 전승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전수회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충청북도의 문화유산이고 자산이며, 자존심인 무형문화재를 온전히 전승 보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역의 무형문화재들을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으로 교육 시킴으로서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의 경우 국가에서 기능보유자, 혹은 보유단체를 지정할 때는 해당 지역에 전수교육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충청북도의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전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전수회관내 공연장

2) 기능 전수의 체계적 관리제도 확립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개인·단체는 법적으로 전수교육을 통해 전승자를 계발·교육시켜야 하며, 정기적으로 공개발표공연을 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현재는 전수자의 선발과 이수증의 발급, 전수교육조교의 선발, 전수교육의 실시 등이 모두 기능보유자의 재량권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무형문화재의 원형보존은 실질적으로 기능보유자의 역량에 달려있다. 원칙적으

로 전수자와 이수자의 예술적 측면의 평가는 해당 기능보유자가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제 명칭과 구성의 변화 등 ‘문화재의 변이양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의 마련은 기능보유자 뿐만 아니라 관련된 문화예술인들이 같이 해결해야만 할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전승교육 과정과 전수자가 전수받은 기능을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점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점검 과정에서 기능보유자 뿐만 아니라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한다면 점검 결과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확립되고 실시되지 않는다면, 무형문화재의 원형은 온전히 보존·전승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문화재의 변이양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화재 보호정책의 보완이 시급하다. 무형문화재의 제도와 정책은 무형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이는 원형보존과 민족문화의 계승과 보급선양 및 활용을 통한 문화향상이 목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민속예술의 문화산업적 활용

민속예술이라는 무형문화유산의 문화산업적 활용은 지금까지 디지털기술의 발달과 확대를 기반으로 주로 온라인콘텐츠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실제로 2002년부터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우리문화원형’ 사업을 통해 다양한 무형 문화유산이 디지털콘텐츠[온라인콘텐츠]로 개발되었고 그 결과물이 ‘문화콘텐츠닷컴’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다. 그러나 농악, 농요, 민속놀이 등의 무형문화유산은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에서 더욱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다. 실제로도 지역축제, 재현행사, 공연[연극, 창극, 촌극 등], 문화관광 등의 문화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충청북도의 경우에도 민속예술을 문화원형으로 한 문화산업적 활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예컨대 보은군의 송이놀이(속리산송이놀

이), 음성군의 거북놀이와 톡실가재줄다리기, 충주시의 목계별신제와 양진 명소오룻굿 등이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청주농악은 농악의 연희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보존 방안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농악의 연희성이 대중의 지향이나 대중문화의 속성과 부합하므로 그러한 모색이 농악의 보존과 발전이라는 목적을 일정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민속예술의 보존 방안에 대한 기존의 논의도 ‘보존 방안과 발전 방안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는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흠어보건대 민속예술 자체에 초점을 맞춘 보존과 발전 방안, 지역축제와 연계를 통한 보존과 발전 방안,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보존과 발전 방안, 교육용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보존과 발전 방안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부연컨대 보존 방안과 발전 방안, 나아가 문화산업적 활용은 유기적으로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보존과 계승, 그리고 발전은 기존의 활용을 뛰어 넘어, 보다 생산적인 차원에서 문화산업적 활용을 통해 선양될 때 진정한 의미를 발현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제1회 충북농악경연대회」팸플릿, 1994.
「제2회 충북농악경연대회」팸플릿, 1995.
「제3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팸플릿, 1996.
「제4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팸플릿, 1997.
「제5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팸플릿, 1998.
「제6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팸플릿, 1999.
「제7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팸플릿, 2000.
「제8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팸플릿, 2001.
「제9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팸플릿, 2002.
「제10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팸플릿, 2003.
「제11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팸플릿, 2004.
「제12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팸플릿, 2005.
「제13회 충북민속예술축제」팸플릿, 2006.
「제14회 충북민속예술축제」팸플릿, 2007.
「제15회 충북민속예술축제」팸플릿, 2008.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마을신앙』, 2008.
국악협회 괴산지부 보관자료 - 지경다지기.
권오성, 「충북민요」, 『한국의 민속예술』,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78.
김경렬, 『목계의 정신과 문화』, 목계향우회, 2002.
김동식, 「단양지방의 민요」, 『충북향토문화』제9집, 충북향토문화연구소, 1989.
김영진, 『청원군민속조사보고서』, 1992.
김영진, 『청원군의 동제』, 청원문화원, 2000.

- 김현길, 『중원의 역사와 문화유적』, 청지사, 1984.
- 노한나, 『보은의 민요해설집』, 보은군, 2004.
- 노한나, 『영동의 민요해설집』, 영동군, 2007.
- 단양군청 보관자료 ; 각기선돌봉치기.
- 덕산농악대, 이정수(덕산농악대) 필사자료 - 집터다지기.
- 문화부, 『한국의 민속예술(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33년사)』, 1992.
- 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보고서 ; 충청북도 편』, 1978.
- 박진, 『충북향토민요집』, 1983.
- 보은군 내북면풍물회 보관자료 ; 전통혼례 행렬과 호상놀이 징검다리 건너기.
- 보은군 산외면사무소 및 산외면 풍물보존회 보관자료 ; 탕골개상제(탕골풍년제).
- 보은군 산외면사무소 보관자료 - 송이놀이.
- 보은문화원, 『보은 속리산의 민속문화』, 1998.
- 세명대학교 지역문화연구소, 『생거진천 용몽리농요보사보고서』, 2003.
- 양진환, 「중요무형문화재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엄성은, 「전래동요 너리기편지기에 대하여」, 『한국민요학』19집, 한국민요학회, 2006.
- 영동군, 『영동설계리농요』, 1987.
- 오세란, 「청주농악과 정읍농악의 소고춤 비교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음성문화원, 『음성의 전통민속놀이』, 2005.
- 이보형, 「농악에서의 길굿(길군아)과 채굿」, 『민족음악학』제6집,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1984.
- 이소라, 『한국의 농요』3집, 민속원, 1989.

- 이소라, 『대전웃다리농악』, 대전직할시, 1991.
- 이창식, 『마을축제 오티별신제』, 푸른사상사, 2001.
- 이창신, 『청주목의 국악』, 청주문화원, 1999.
- 이창신, 『장플두레농요 조사보고서』, 증평군, 2005.
- 장사훈, 『국악대사전』, 세광음악출판사, 1984.
- 장사훈, 『최신국악총론』, 세광음악출판사, 1985.
- 장호순, 「민요 너리기편지기의 전승과 활용」, 세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 정병호, 『농악』, 열화당, 1986.
- 제천문화원, 『명도리의 생활과 민속』, 2002.
- 제천문화원, 『봉양의 파대놀이』, 2005.
- 조진국, 「청주농악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청원군, 『청원 현도두레농요』, 2008.
- 청주농악보존회, 『청주농악』, 청주시, 2010.
- 충북향토문화연구소, 『영동 부상리마을』, 2006.
- 충주문화원, 『목계별신제 조사연구』, 2004.
- 충주시 국악협회 전봉근 보관자료 - 무등놀이.
- 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한국민속대사전』, 민족문화사, 1991.
-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충청북도지회, 『충북예총삼십년사』, 1993.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
- 한만영, 「충북의 베틀노래」, 『한국의 민속예술』,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78.
- <http://www.cha.go.kr/>(밀양백중놀이, 문화재청 홈페이지).
- <http://www.cha.go.kr/>(팔상전, 문화재청 홈페이지).
- <http://www.nfm.go.kr/index.nfm>(장치기,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충북민속예술

펴낸날 2010년 12월 20일
펴낸이 장 현 석
펴낸곳 충북문화원연합회
청주시 흥덕구 예체로 118
전화 043)265-3625
팩스 043)265-3626
홈페이지 : www.cjmh.or.kr
e-mail : cc360@hanmail.net

편찬위원 임동철, 박상일, 홍태한, 임병무
사진제공 김운기(사진작가)
디자인 강경아
찍은곳 일 광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204번길 12
전화/221-294 팩스/222-8461
출판등록/2002-1001-118호

ISBN 978-89-92335-73-7 03900

문화는 재창조가 있어야하고 재창조로 발전이 있게 마련이다. 경연을 통해 발굴된 민속예술의 과거를 정립, 정리하고 미래의 예술축제로 발전시켜 재창조에 기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이 책에서는 민요, 농악, 민속놀이의 분야에서 빛나는 연구업적으로 사계의 높은 인정을 받고 있는 세 분 전문가의 해박한 심사 분석, 엄정한 평가, 달통한 견해로서 민속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하고자 한다.



비매품

03900



9 788992 335737

ISBN 978-89-92335-73-7